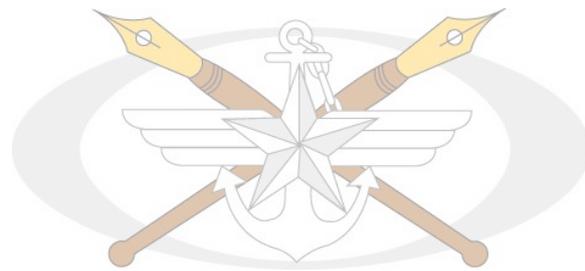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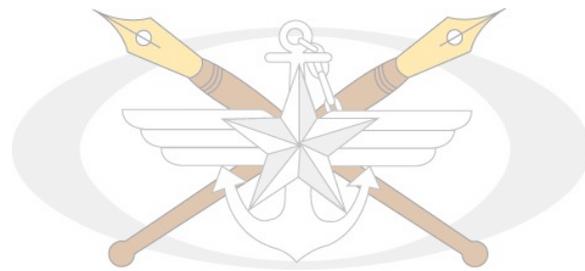




고려시대 군사전략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 간 사

『고려시대 군사전략』의 발간에 즈음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안 병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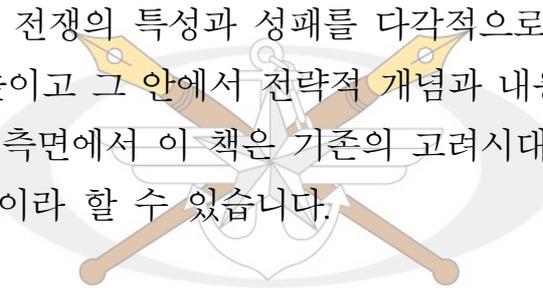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역대 전쟁사에서 한국적 전략 개념을 찾아내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 『한국고대 군사전략』을 간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이번에 『고려시대 군사전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작업에는 현행 작전 및 현대 군사 전략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군사 전략의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온 군 전문가와 현역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자료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수십 차례 토의를 거쳐 발굴하고 다듬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Korea’의 원조 고려왕조(918~1392)는 5백여 년간 지속되면서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냈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고대(古代)의 국가나 조선만큼 친숙하지 않은 베일 속에 갇혀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방성과 역동성에 바탕한 다원적인 사회였고 동북아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고려는 전쟁에 대한 성찰 없이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거란(요) 전쟁, 여진 정벌, 몽골 전쟁, 홍건적 및 왜구 토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이외에도 수시로 이민족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동력은 고도로 발달한 무기나 첨단 장비 못지않게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당시 주변국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사고와 해안에 기반하여 전쟁에 대처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존에 고려시대 전쟁을 국난 극복사로 바라보던 시각을 넘어서서 각 전쟁의 특성과 성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안에서 전략적 개념과 내용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기존의 고려시대 전쟁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촉발의 가능성이 다양한 형태로 상존해 있는 안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본서를 포함한 당 연구소의 ‘군사전략’ 서적들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여 한국적 생존 전략과 군사전략의 원류를 탐색하고, 미래 한국적 방위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씨앗을 뿌린 단계에 불과하나 이 조그마한 시도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 연구원 및 전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6년 8월

일러두기

1.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한글 위주의 평이한 문장으로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에 넣었다.
2.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 지명, 직위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 (2) 지명의 경우 유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나머지는 ()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 (3) 외국의 인명·지명·제도 등은 외국음으로 표기하고 원어를 []에 넣었다.
예) 테무친[鐵木眞], 다루가치[達魯花赤]
 - (4) 외국의 제도나 사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어 원문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에 병기하였다.
예) 100명 부대[百戶], 여섯 가지 조건[六事], 조군(助軍) → 몽골 정복사업에 군사 제공[助軍], 대인(大刃) → 큰 날[刃]
3. 주기(註記)는 전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면의 하단에 실었고,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 (1) 논문은 필자명, 발표연대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호수), 발행처, 쪽수 순으로 표기.
 - (2) 저서는 저자명(또는 역자명), 발행연도 『서명』, 발행처, 쪽수 순으로 표기.

4. 연대는 서기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 속에 왕의 재위년(○○
왕 17)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 완결된 문장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부분 인용
- 『 』 : 단행본, 저서
- 「 」 : 논문, 작품
- ∙ : 동일 사항의 나열
- ; : 내용 병렬

6. 이 책의 부록으로 자료 목록과 찾아보기를 책 끝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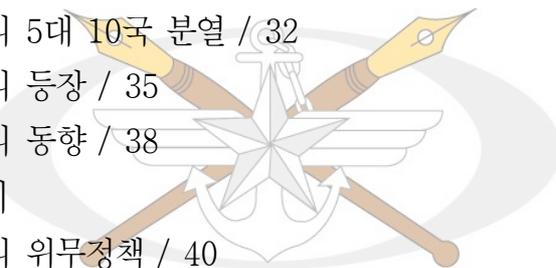


차례

- 발간사
- 일러두기
- 머리말 : 고려시대 전쟁과 군사전략 / 18

제1장 고려 태조의 북방영토 확장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27
2. 국내외 정세	32
1) 주변국 정세	
(1) 중국의 5대 10국 분열 / 32	
(2) 거란의 등장 / 35	
(3) 여진의 동향 / 38	
2) 국내 정세	
(1) 태조의 위무정책 / 40	
(2) 고려의 실리 외교 / 42	
3. 북진 정책의 추진	51
1) 북진정책의 수립 배경	
2) 북방 군사거점의 단계별 구축	
(1) 패강진에서 평양으로 / 55	
(2) 청천강 유역까지 북상한 군사거점 / 61	
3) 발해 유민의 전력화	
(1) 발해 유민의 수용 / 65	
(2) 발해 유민의 활용 / 68	
4. 정책 평가	72



제2장 고려와 거란 전쟁

1. 국내외 정세	81
1) 주변국 정세	
(1) 거란의 세력 팽창 / 81	
(2) 송의 증원 통일 / 85	
2) 국내 정세	
(1) 국가 체제의 정비 / 88	
(2) 대외 정책 / 89	
2. 거란의 침공 준비	91
1) 거란의 전략	
2) 거란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 95	
(2) 무기와 전술 / 97	
3. 고려의 대응 태세	100
1) 고려의 전략	
2) 고려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 104	
(2) 무기와 전술 / 108	

4. 고려와 거란 전쟁	111
1) 제1차 전쟁	
(1) 봉산전투와 거란의 항복요구 / 111	
(2) 고려의 '강동6주' 확보 / 115	
2) 제2차 전쟁	
(1) 거란 성종의 고려 원정 / 119	
(2) 개경 실함과 고려의 반격 / 122	
3) 제3차 전쟁	
(1) 거란의 '강동6주' 반환 요구 / 129	
(2) 귀주전투의 승리 / 133	
5. 전략적 평가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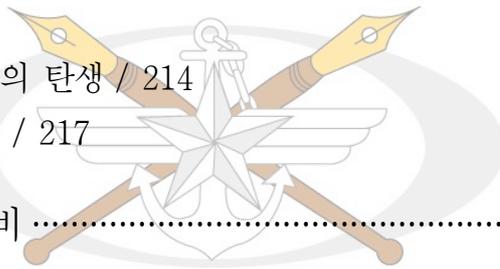
제3장 고려의 여진 정벌

1. 여진의 성장	147
1) 여진의 동향	
2) 완연부 여진의 성장	
(1) 완연부 여진의 태동 / 150	
(2) 여진의 군사조직 / 152	
(3) 여진과 고려의 관계 / 153	

2. 국내외 정세	156
1) 주변국 정세	
(1) 송의 위축 / 156	
(2) 거란의 쇠퇴 / 159	
2) 국내 정세	
(1) 국력의 신장 / 161	
(2) 동여진 정책 / 165	
3. 여진 정벌 전략	169
1) 여진 정벌의 발단 / 169	
2) 고려의 전략 / 172	
4. 정벌 작전의 전개	175
1) 제1차 정벌	
(1) 군사 작전 / 175	
(2) 재정벌 논의 / 178	
2) 제2차 정벌	
(1) 군사 작전 / 183	
(2) 여진의 반격 / 190	
5. 전략적 평가	195

제4장 고려와 몽골 전쟁

1. 몽골의 성장	205
2. 국내외 정세	209
1) 주변국 정세	
(1) 송의 쇠퇴 / 209	
(2) 금의 멸망 / 211	
2) 국내 정세	
(1) 무인 정권의 탄생 / 214	
(2) 대외 정책 / 217	
3. 몽골의 전쟁 준비	220
1) 몽골의 전략	
2) 몽골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 223	
(2) 무기와 전술 / 225	
4. 고려의 대응 태세	227
1) 고려의 전략	
2) 고려의 군사력	
(1) 군사력 실태 / 228	
(2) 성곽 방어술 / 230	



5. 고려와 몽골 전쟁 232

- 1) 제1차 전쟁
 - (1) 귀주성 전투 / 232
 - (2) 화의와 감시기구 설치 / 236
- 2) 제2차 전쟁
- 3) 제3차 전쟁
 - (1) 전쟁의 장기화 / 243
 - (2) 삼별초 항쟁 / 255

6. 전략적 평가 258



1. 국내외 정세 269

- 1) 주변국 정세
 - (1) 원의 쇠퇴 / 269
 - (2) 흥건적의 발생 / 271
- 2) 국내 정세
 - (1) 공민왕의 반원 정책 / 276
 - (2) 군사력 재건 / 280

2. 토벌 작전의 전개	285
1) 제1차 토벌	
(1) 홍건적의 1차 침입 / 285	
(2) 고려의 서경 탈환 / 287	
2) 제2차 토벌	
(1) 홍건적의 2차 침입 / 290	
(2) 고려의 개경 탈환 / 293	
3. 전략적 평가	296



제6장 고려의 왜구 토벌

1. 왜구의 발생	303
1) 왜구 발생의 원인	
(1) 일본의 남북조시대 / 303	
(2) 14세기 왜구의 특징 / 306	
2) 왜구의 규모 / 308	
2. 국내외 정세	310
1) 명나라의 왜구 대책	
2) 국내 정세	
(1) 정국의 혼란 / 313	
(2) 원·명 교체기 고려의 선택 / 316	
(3) 왜구 피해 상황 / 318	

3. 토벌작전의 전개 323

 1) 수세적 대응

 2) 공세적 토벌 작전

 (1) 군사력 증강 / 327

 (2) 국내 토벌 작전 / 332

 (3) 대마도 정벌 / 337

4. 전략적 평가 341



- 맺음말 :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고려시대의 전쟁과 교훈 / 347
- 부 록
 - 원전자료 / 357
 - 단행본자료 / 360
 - 논문자료 / 368
 - 찾아보기 / 390

1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이란 국가 이익과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말 클라우제비츠(1780~1831)에 의해 정립된 근대 전략 개념은 20세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그 만큼 전략 개념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쟁의 성격과 본질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전략의 개념도 새로운 변화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예컨대,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를 운용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했으나, 이로부터 1세기 훌쩍 경과한 후에 리델 하트(1895~1970)는 전쟁의 목적은 군사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시 반드시 전쟁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리델 하트의 지적처럼 20세기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 현대 군사 전략은 군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정책’이나 ‘국가 전략’처럼 국가의 안보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동양에서 전략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을까? 조선의 7대 국왕 세조(世祖)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정리한 『역대병요(歷代兵要)』(1452년 완성)의 서문에서 “역대 전술 사례에 능통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고, 역대 군의 운용 사례에 통달하면 굳이 전진(戰陣)을 설치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이른바 병략의 극치인 무승(無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

면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무승(無勝)’의 개념은 세조가 처음 주창한 것은 아니며, 이미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인 관중(管仲, ?~BC 645)이나 손자(孫子, ?~?)가 제시한 견해다. 손자는 병법(兵法)에서 적국의 성을 공격하는 것을 가장 하수(下手)로 취급했을 만큼, 적을 치기 전에 반드시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적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먼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조언하였다. 손자가 필승을 위해 제시한 병법은 적을 이기는 최선의 수단으로 전쟁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델 하트가 제기한 전략 개념과 매우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중국을 포함한 한국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각종 병법(兵法) 및 장수의 지휘술이나 자질, 병력운용기술, 각종 술책(術策) 등을 개발하여 왔다. ‘전략’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군략(軍略)’이나 ‘병법(兵法)’ ‘강병책(強兵策)’ 등 오늘날 전략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전략이 없었다거나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천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여 한국적 생존 전략과 군사 전략의 원류를 탐색하는 작업은 미래 한국적 방위 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진다.

936년 고려는 후삼국의 분열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왕조를 형성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대륙에서도 5대 10국의 뒤를 이어 960년 송나라가 건국되었다. 북중국에서도 916년 거란이 국가를 건설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였다. 이같이 10세기 중반이후 동아시아 세계는 송·거란·고려 등 통일왕조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형세는 고려가 멸망하는 14세기까지 금(여진)·원(몽골)·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지속되었다.

<표> 10~14세기 고려와 주변국 정세

	907	916	918	936	960	993	1104	1115	1125	1127	1206	1231	1234	1279	1359	1368
						(~1019)	(~1109)					(~1259)			(~1362)	
		(946:)						() ()			(1260 :)					
										/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후 1392년에 망하였다. 고려 왕조는 474년간 지속하였다. 조선은 1392년 7월에 건국된 후 1897년 9월에 망할 때까지 505년 유지되었다. 곧 고려나 조

선 모두 우리 역사상 존속하던 시간은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매우 판이하게 달랐고 이 차이가 고려의 군사전략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조선의 경우 대외 관계의 중심축이 전기에는 명나라(1368~1643), 중기 이후에는 청나라(1616~1912, 1636년 국호 후금→청)로서 일국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고려는 거란의 등장 이후 송·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거란이 망하고 금나라가 건국되자 남송·금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몽골이 등장하고 금나라가 망한 후에는 남송·몽골과 외교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명·북원(北元)과 연결 고리를 맺는 등 외교관계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고려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중국대륙에는 당이나 명 또는 청나라처럼 동북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한 왕조가 들어서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북방 민족이 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중국 왕조와 만주 왕조간의 충돌과 경쟁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실리 위주의 국가 전략을 구상했으며, 전쟁 및 군사전략 역시 이러한 대외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고려는 한국 역사상 크고 작은 전쟁을 가장 빈번하게 치른 왕조였다. 10세기 말 이후부터 13세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시대 국제 정세는 화해와 타협보다는 전쟁과 충돌에 의해 주도권을 장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고려가 큰 전쟁을 치른 대상이 거란·여진·몽골 등 북방에서 흥기한 민족이라는 점이다.

역사학자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고사통(故事通)』에서 고려·거란 전쟁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의 북방 진출을 꼽았다. 이는 고려가 대외 전쟁을 수행한 근인이 태조 이후 추진된 북방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서, 북진 정책이 고려의 국운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高麗)’라 칭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건국 직후부터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로서 고구려 영토와 중흥을 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태조가 추진한 북진 정책은 두 가지 주안점이 있었다. 북방 민족의 남진에 대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두 정책은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나 전자가 대외적으로 전쟁의 방지와 억제에 위해 정치·외교 및 감시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면, 후자는 국경선을 실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력 증강과 군사 활동을 동반했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동북부에서 일어난 북방민족들, 예컨대 거란(요)·여진(금)·몽골(원)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한 곳은 중국 대륙

이었다. 그러나 북방민족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 대륙을 먼저 공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자국의 배후에 있는 주변국으로 주의를 돌렸으며, 고려는 그 한 가운데에 자리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가 전개한 이민족 전쟁은 주로 중국의 대륙과 동북부 지역에서 세력 각축전을 벌인 민족 및 국가들 사이에 행해진 패권 다툼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수준 높은 문화와 자긍심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지닌 고려는 북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협조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더구나 고려는 북방으로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진 정책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와 북방민족과의 마찰은 불가피하였고 고려가 군사 전략을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서는 고려가 북방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을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태조 왕건이 건국 후 추진한 북진 정책의 실체와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주요 전쟁인 고려·거란전쟁, 고려의 여진 정벌, 고려·몽골전쟁, 고려의 홍건적 및 왜구 토벌의 양상과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그 속에 나타난 고려의 군사전략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관료들의 혜안과 전략적 사고를 지닌 야전 지휘관들의 결단력이 전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냈는지도 조명해보았다.

식민지와 전쟁과 분단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전쟁사는 미래를 꾸려나갈 해안을 열어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여겨진다. 전쟁사에는 장구한 기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싸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응축된 경험이 녹아있다. 전쟁의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안에는 그만큼 전쟁의 무수한 전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성군(聖君)으로 추앙받는 세종은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앞 시대의 치란(治亂)의 발자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발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 기록을 상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이 지적은 전쟁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무릇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 시대의 전쟁 양상을 보아야 하고, 그 전쟁 양상에서 전쟁사의 보편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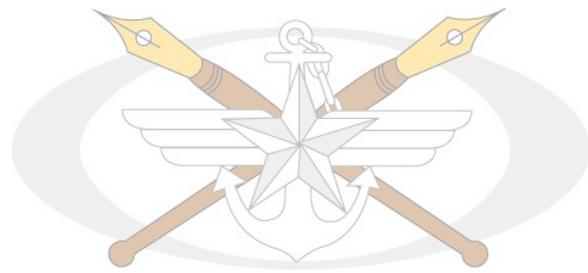
한국은 전통적으로 고유의 군사적 전통과 군사 사상을 발전시켜 왔으나 오늘날 우리의 전통 군사 이론은 서양의 군사이론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고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의 군사 문화를 강요당했고, 해방 이후에도 국군이 창설되었지만 서구의 군사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 군사이론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다. 신무기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군사이론이나 전략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하지만 옷은 빌려 입을 수 있으나 그 정신은 빌릴 수가 없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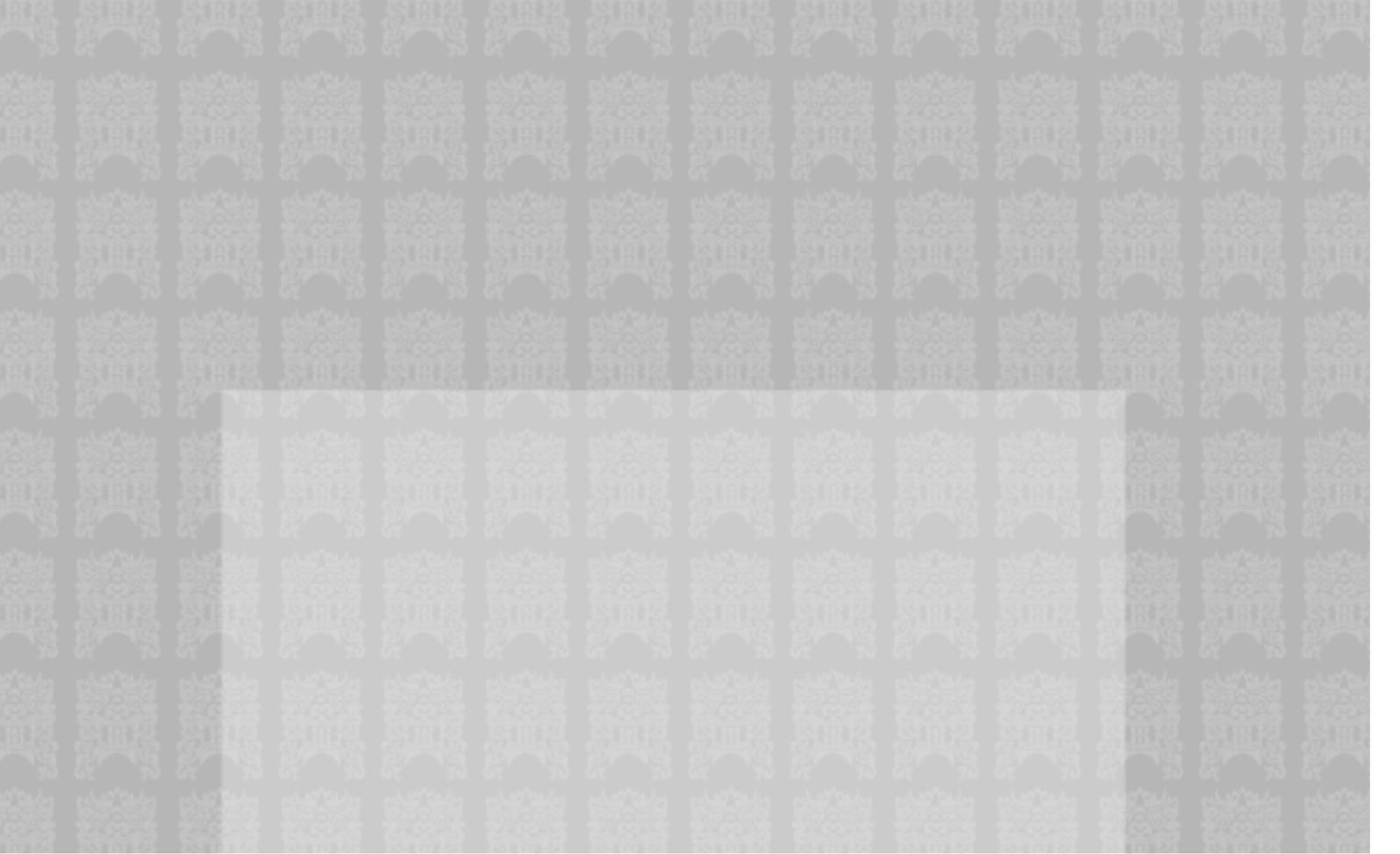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동원된 온갖 지혜에는 전략과 정략(政略)이 혼효되어 있으나 그 이론적 타당성이나 실천적 효용성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아도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이론의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고, 전통의 현재적 변용도 목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전략적(地戰略的) 환경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한국적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소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책은 한국적 군사전략의 원류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려 태조의 북방영토 확장



고려시대 군사전략

고려 태조의 북방영토 확장

1. 고려의 후삼국통일

9세기 후반 통일신라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자 지방에는 성주(城主)·장군(將軍)을 칭하는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 등장하여 주민을 무장시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892년 견훤이 옛 백제의 땅에서 일어나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에는 궁예가 송악[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¹⁾ 그 후 918년 6월에 왕건은 궁예를 축출하고 철원에서 고려(高麗)를 세웠다. 이로써 신라·고려·후백제의 후삼국이 성립되고 한반도는 크게 세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 ()

1) 견훤이 세운 나라를 보통 '후백제'라고 하는데 이는 후세 역사가들이 옛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 '後'자를 붙인 것이다. 또 『삼국유사』에 따르면 궁예가 세운 나라 이름은 '고려'이나, 현재 학계에서는 왕건이 세운 '고려'와 구별하기 위해 궁예가 세운 나라를 '後高句麗'라고 부르고 있다.



고려의 후삼국통일 (『 『 』)

왕건은 건국 후 10여년간 후백제를 상대하기에는 군사력이 크게 부족했으나, 복잡 미묘한 후삼국 관계에서 기민하고 탄력성 있게 대처하여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935년(태조18) 후백제의 내부 분열로 왕위에 서 쫓겨난 견훤이 고려에 투항한 사건은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해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였고, 이듬해인 936년 왕건은 후

백제와 일리천(一利川:선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먼저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백제와 무력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적을 교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고려는 군사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정치적·심리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왕조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신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친화 정책으로 일관했고, 주요 호족과 민심을 끌어 들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친신라 정책은 후백제의 군사력을 고려와 신라로 양분시켜 군사

력 열세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었고, 후백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이는 피아를 불문하고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을 지양하는 대신에 가능한 모든 방책과 방법을 총동원



전(傳) 견훤묘

26 (:)

하는 현대전의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고려의 이 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한 때 신라의 무장이기도 했던 후백제의 견훤은 친고려 정책을 펴는 신라 왕궁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견훤은 왕을 죽인 사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호족과 민심의 이반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 결과 신라 영역 안에 있던 호족들이 고려에 투항했고 강원도 남부 지역 호족들도 친고려 세력으로 전향하였다. 백제의 영향권에 있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호족들도 점차 태조의 명성을 듣고 전향하였다. 호족들의 귀화는 태조에게 군사력 증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고려는 후백제에 대해서 군사전략 면에서 국내외 정세, 재정 능력, 군사력 등 제 요소를 고려해 수세에 이은 공세 전략으로 후백제를 압박해 나갔다. 앞서도 밝혔듯이 고려는 건국 후 10여 년간 수세적으로 후백제 주력과의 전투를 회피하였다. 북방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군사력마저 후백제에 비해 열세였기 때문에 후백제 공

격을 지양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전략은 수동적인 회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고려는 이 기간 동안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면서 신라의 군사요청 등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만 전투를 수행하였다.

고려가 후백제에 대해 공세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928년(태조11) 고창(경북 안동) 전투에서 승리하면서부터였다. 특히 934년 후백제의 서북 변경인 운주(충남 홍성)에 대한 공격은 공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듬해인 935년 6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망명하고 10월에 신라의 경순왕마저 귀순하게 되자, 고려는 통일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태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 지방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강력한 직할 부대를 거느렸는데 이것이 후삼국 통일의 주력이 되었다. 태조가 936년 후백제와 일리천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를 때 동원한 병력 수는 총 8만6천8백 명이며 주력 병종은 기병이었다.²⁾ 후백제



안동 태사묘의 공신 교지
가

가
(:)

2)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9년 9월. 기병 49,800명, 보병 23,000명이며, 군사 14,000명은 기·보병의 규모를 알 수 없다. 『고려사절요』에는 총 동원병력수가 87,50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려사』와 7백 명의 차이를 보인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19년 9월) 후삼국시대에 기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당시 전쟁 양상이 城을 점령하고 주위 지역을 제압해 영토를 확보하는 양상이 아니라, 두 나라 군사가 평야에서 격돌해 우열을 가리는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평지 전투에 유리한 기병이 군대 편성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이기훈, 1997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지성사, 115쪽)



청원 양성산성

932

(:)

와 싸울 이 부대가 출정할 당시 고려에 망명해 있던 견훤은 태조와 함께 열병에 참여하였다.

당시 후백제군의 규모나 부대 편성은 기록이 없어 알기 어려우나 “백제 좌장군 효봉·덕술·애술·명길 등 4명이 고려의 군세가 굉장한 것을 보고 투구를 벗고 창을 던진 다음 견훤이 탄 말 앞에 와서 항복하였다. 이에 사기가 꺾여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³⁾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의 군사력에 비해 상당히 열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고려가 불필요한 무력 충돌을 자제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결과는 명약관화하여 후백제는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고 나서야 백기를 들고 말았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백제군 3천 1백 명이 포로가 되고 5천 7백여 명이 전사하였다.⁴⁾ 이로써 태조는 건국 후 18년 만에 숙적 후백제를 제압하고 드디어 936년에 후삼국 통일에 성공하였다.

요컨대, 태조 왕건은 국왕인 동시에 뛰어난 작전 능력을 갖춘 홀

3)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9년 9월.

4) 상동

룡한 야전사령관으로서 후삼국통일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태조는 신라의 정치적 자유와 보호를 약속하여 후백제의 지배력을 뒤흔들었고, 신라 영역 안에 있던 호족과 그들의 군대를 아군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 후백제 백성들이 오랜 전쟁에 염증을 느낄 무렵에 후백제로 하여금 신라 왕실에 대한 무모한 행위를 자행하도록 유발시킴으로써 후백제의 세력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었고 이는 후삼국 통일로 이어졌다.

2. 국내외 정세

1) 주변국 정세

(1) 중국의 5대 10국 분열

고려 왕조가 건국될 무렵인 10세기 초 중국 대륙에서 당나라가 멸망하자 동아시아 사회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무려 3백년간 지속된 통일 왕조였다.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안남(베트남) 등이 중심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거란, 흉노, 여진 등이 포진해 있는 형세였다.



후주의 세종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는 중심축을 이루던 당나라가 붕괴되면서 힘의 공백 상태를 맞이하였다. 당나라가 붕괴되면서 중국 대륙에 5대 10국의 15개 왕조가 난립한 채 당나라만큼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5)

5대(907~960)는 송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54년 동안 중원 지방에서 교체되던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 등 다섯 왕조를 말한다.6) 다섯 왕조가 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양자강 이남에는 오(吳)·남당(南唐)·전촉(前蜀)·후촉(後蜀)·남한(南漢)·초(楚)·오월(吳越)·민(閩)·형남(荊南, 南平國이라고도 함) 및 북한(北漢) 등 10개의 독립국이 등장하였다.7)

5대 10국은 남당을 제외하고 모두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출신의 무사들이 건국하여 스스로 황제를 칭한 국가들이다. 5대 10국은 국가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번진(藩鎮)8)의 체제를 띠었고 그 중심에는 절도사를 중심으로

<표1> 10세기 중국의 5대 10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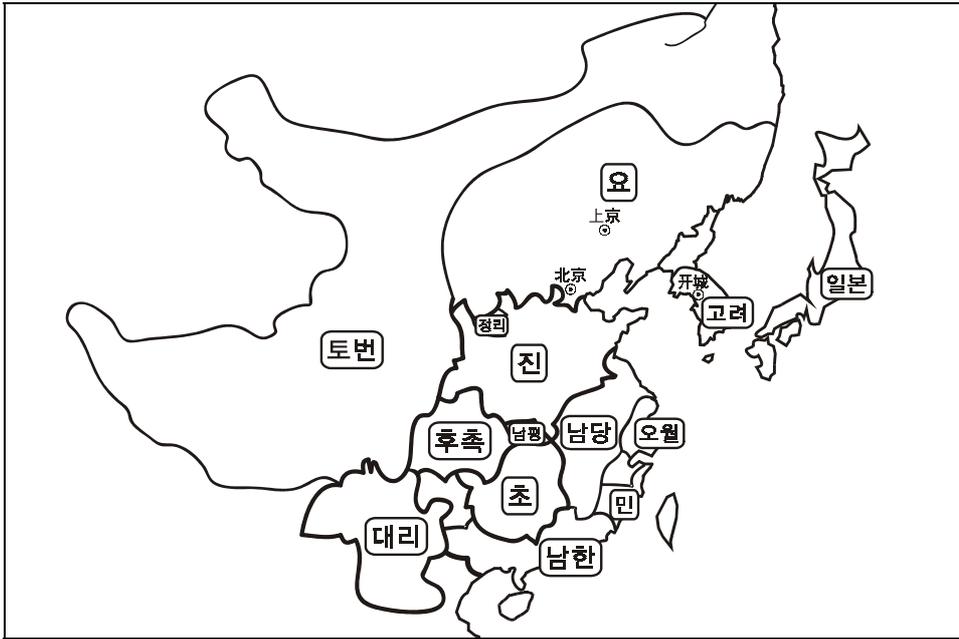
	왕조	존속기간	도읍지
5대	후량	907~923	개봉-낙양
	후당	923~936	낙양
	후진	936~946	개봉
	후한	947~950	개봉
	후주	951~959	개봉
10국	오	902~937	양주
	남당	937~975	금릉
	전촉	907~925	성도
	후촉	934~965	성도
	남한	917~971	광동
	초	907~978	형주
	오월	907~978	항주
	민	909~946	복주
	형남	924~963	강릉
	북한	951~979	진양

5) 박종기, 1999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47~254쪽.

6) 송나라 역사가들은 5대 10국 가운데 오직 5대만 정통 왕조로 인정하여 ‘당말 5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 이유는 5대가 명분상 당나라를 이어받아 송나라에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10국은 당나라 말기 藩鎮의 연속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10국 가운데 후량이나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7) <표1>은 심재석, 2001 「오대의 고려국왕 책봉연구」 『청계사학』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58쪽을 참조하였다. 다만 10국의 존속 기간은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8) 藩鎮 : 중국 당나라에서 부병제가 느슨해진 8세기 초에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변경의 중요 鎮에 둔 군단 사령관. 송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다.



중국 5대 10국 (『中國歷史地圖集』 5)

로 구성된 무력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절도사는 주(州)의 최고책임자인 자사(刺史)를 겸직하면서 강력한 군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5대 10국은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인시대였다. 중앙 정부는 지방의 할거세력을 제압하지 못했고 지방의 군부 세력도 끊임없이 내분과 충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국 대륙의 통일을 지향했으나 정권 유지를 위해 잔혹한 압박과 수탈을 일삼고 내부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는 크게 위태로웠다.

동북으로는 당항족(黨項族)¹⁰⁾이 930년 이후부터 성장하면서 변방에서 약탈 행위를 일삼았고, 북방의 만주지역에서는 거란이 부상하면

9) 이춘식, 1991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248쪽.

10) 당항족 : 중국 고대 羌族의 한 갈래로서 중국 서쪽 사막에 분산되어 있던 민족. 1038년에 李元昊가 송나라 세력에서 벗어나 西夏를 세웠다. 국력은 미약했으나 송나라와 서역을 잇는 중개무역이 활발하였다.

서 중국대륙을 압박하였다. 중국은 점차 늘어나는 이민족들의 공격과 침투에 시달렸지만 복잡한 내부 문제로 인해 이렇다할만한 대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후진을 건국한 석경당(石敬瑭)은 정권 찬탈을 위해 거란에게 연주[북경:幽州]·운주 등 16주를 할양하는 대가로 원병을 요청해 후당을 전복시켰다. 정권 장악을 위해 이민족을 끌어들이는 후진은 결국 그 이민족인 거란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런 가운데 농민군으로 구성된 기의군(起義軍:의병)이 정권의 수탈에 대항하는 한편 거란에 대한 투쟁도 전개하였다.¹¹⁾ 후진 멸망 이후에 하남의 귀주, 박주, 산동의 밀주, 하북의 중요 군사지역인 상주·전주(澶州)는 기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외에도 하북의 정주(定州)나 산서·섬서에서도 기의군이 거란에게 타격을 입혔다. 이에 거란 황제 태종은 947년 3월에 개봉에서 철수했고 그 도중에 병사하였다. 기의군의 무장 대항은 거란이 망할 때까지 도움을 연경(북경)으로 옮기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다.

(2) 거란의 등장

거란족은 요하의 상류 지역인 시라무렌[潢水] 강 북부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종족으로 통구스와 몽골의 혼혈족으로 알려져 있다. 거란족이 연, 고구려, 돌궐,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부족 단위로 예속되었다가 정치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한 때는 7세기경이었다. 8부(部)라고 하는 여덟 개 연맹의 형성을 시작으로 부족 사이에 점차 결속력을 강화시킨 거란족은 10세기 초 중국 대륙이 5대 10국의 혼란기에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세력 확장의 기회를 포착하였다.

11) 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1990 『중국전사』 (하), 학민사, 11쪽.



(『 (巴林右旗) 』)

거란족의 통일을 주도한 사람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였다. 902년에 산서성 지방을 침략하면서 정치 무대에 등장한 야율아보기는 907년에 스스로 천자(天子)임을 선언하면서 8부족의 통일을 추진하였다.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만리장성 남쪽 지역까지 여러 차례 진출해 한족 포로를 붙잡아다가 이들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력을 키워나갔다. 경제적 기반 위에서 군사력을 키운 야율아보기는 916년 거란족의 8부 대인(大人:大汗) 전원을 암살한 후 텡글리칸[天河汗]으로 등극하였다.¹²⁾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거란은 영토 확장을 위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펼치었다. 먼저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 북동부인 요녕 일대를 장악해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936년에는 야율아보기의 아들 야율덕광(耶律德光:태종)이 만리장성을 넘어 석경당에게 군사력을 제공해 후진의 건국을 도운 대가로 연주[북경:幽州]·운주 등 16주를 장악하였다.

연운 16주는 지금의 북경 지방을 중심으로 하북성 북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요동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거란은 이곳을 장악한 후 농경지역을 확보하고 한족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서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946년에 태종은 후진을 멸망시키고 이듬해인

12)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425~440쪽 ; 최규성, 1995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254쪽.

947년에 후진의 수도 개봉(開封)에 요(遼)¹³⁾를 세웠다. 거란족의 통일 국가인 요가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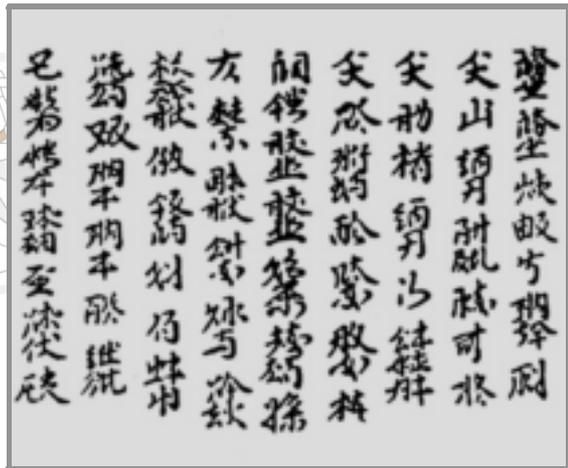
거란은 국가를 건설했으나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부족제가 온존하였다. 그래서 거란의 행정조직은 각 부족을 기초 단위로 구성되었다. 군사조직 역시 부족들이 말이나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의 분포를 토대로 몇 개의 크고 작은 군사집단으로 편성했고, 전시가 되면 그대로 군사 편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거란의 단위 부족들은 통일적 국가 건설에 저해되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 자체가 행정조직이자 군사조직의 체계를 띠면서 정복전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고려 건국기 10세기 후반에 거란은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였다. 거란은 팽창하고 있었고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란의 군사 목표는 여진족 복속이나 발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중



『삼재도회』에 실린 거란인



거란문자
(大字) (小字)가
(魯不古)가

13) 遼: 거란은 국명을 '遼'라고 정한 이후에도 국왕들조차 '요'와 '거란'을 구분없이 사용했을 만큼 공식 국명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록 관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33쪽)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요'보다는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란'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국 대륙으로 진군하는 일이었다. 역사가 입증하듯 북방민족들이 중원을 향해 돌격할 때마다 해결하고자 한 최우선 과제가 배후에 있던 한반도를 복속하는 일이었다. 고려가 거란의 동태를 주목한 배경에는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가로놓여 있었다.

(3) 여진의 동향

여진족은 일찍이 중국 선진시대에 ‘숙신’이라는 이름으로 실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국 한대와 삼국시대에는 읍루, 후위 시대에는 물길, 수·당시대에는 말갈 등으로 불리다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로 ‘여진’으로 통용되었다.¹⁴⁾ 발해 멸망 후에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부족이나 지역 단위로 송화강을 중심으로 서남 및 동북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요동지역에 자리한 여진은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나 지리상 거란과 고려의 중간에 끼여 있었으므로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일부는 거란에 편입되어 거란의 지배를 받은 숙여진(熟女眞)이 되었고 일부는 거란의 지배를 피하여 부족생활을 영유하는 생여진(生女眞)이 되었다.¹⁵⁾



여진인들이 부족이나 지역 단위로 흩어져 살던 송화강변

숙여진은 거란에 의해 요양 이남으로 옮겨져

14) 유재성, 1993 『한민족전쟁통사』 -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63쪽.

15) 최규성, 1981 「고려초기 여진문제의 발생과 북방경영」 『백산학보』 26, 백산학회.

거란의 호적 안에 편입된 존재로서, 거란의 군정 아래에서 만주의 동남북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군사는 각 호(戶)에서 차출해 충당하고 군역에서 벗어나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¹⁶⁾ 이에 비해 생여진은 거란의 지배를 거부하고 송화강 동북 지역에 분산 거주하면서 농경 및 목축과 수렵으로 생업을 유지하였다.

여진은 부족 단위로 자치적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각 부족들은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동맹과 적대관계를 반복하면서 세력 확장에 몰두하였다. 각 부락의 주민은 적으면 천 호 많으면 수 천 호였고, 부락마다 용감하고 씩씩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추대해 추장으로 삼았다.¹⁷⁾ 생여진이나 숙여진 모두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숙하였다. 이들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어 대규모 군사 작전은 불가능했으나, 기병의 이점과 활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에서 가공할 능력을 발휘하였다.

거란과 고려의 지배를 원치 않으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여진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 충성과 배반을 반복하였다. 여진은 거란의 속국으로서 해마다 거란에 공물을 바치면서 복종했으나,¹⁸⁾ 한편으론 크고 작은 군사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여진은 고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섬기고 교역하면서 집단적으로 귀화했으나, 변방의 방비가 허술한 곳을 뚫고 국지적으로 침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거란과 고려 모두 믿을 수 없는 여진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6) 김한규, 앞의 책, 460~462쪽.

17) 翦伯贊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앞의 책, 56쪽.

18) 『遼史』에 따르면, 여진은 926년 발해의 멸망 이후부터 고려 태조가 죽기 한 해 전인 942년까지 17년 동안 총 25회의 공물을 거란에 바쳤으므로 1년에 평균 1.5회 정도 방문한 셈이다.(추명엽, 2005 「고려시기 '海東'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46쪽)

2) 국내 정세

(1) 태조의 위무정책

후삼국 시기에 신라의 통치력이 경주를 제외하고 지방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독립적인 세력이 할거하였다. 이 때문에 후백제나 고려 모두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독자적인 무력과 경제력을 가진 세력가들을 휘하로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자 주변의 호족들이 동요하면서 왕권에 도전해왔다. 태조가 즉위한 해인 918년 6월에 일어난 환선길(桓宣吉)과 이흔암(伊昕巖)의 반란이 대표적이다.¹⁹⁾ 또 일찍이 궁예의 세력 기반이던 명주(溟洲:강릉) 지역의 대호족 김순식(金順式)은 협조를 거부했고, 궁예의 정치 기반이던 청주 지역 호족들도 모반을 꾀하는 등 저항이 거세었다.



통일신라의 9주 중의 하나인 무진주(전남 광주)에 있던 호족의 성터

그리하여 태조는 즉위 초부터 위무정책(慰撫政策)의 일환으로 호족들을 고려로 끌어들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태조는 호족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선물을 후하게 하고 말을 공손히 하는” 겸손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지방에서 각

19) 『고려사』 권1, 세가 태조원년 6월 경신, 기사.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오늘날 고려 초기의 정권 형태를 ‘호족연합정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조가 호족들을 회유하고 우대하자 신라 지역의 여러 세력들이 태조 쪽으로 돌아섰다. 상주의 호족 아자개(阿字盖)를 비롯해 벽진군(碧珍郡:성주), 강주(康州:진주), 하지현(下枝縣:안동 풍산면), 조물성(안동 부근)의 장군들이 아들을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고려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930년 이후에는 영안(永安:풍산), 송생(松生:청송) 등 30여 군현 및 동부 연안의 명주(강릉), 흥례(興禮:울산)에 이르기까지 110여 성이 고려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태조는 고려로 귀부한 사람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제공하고, 일부 유력 호족들에게는 왕씨(王氏) 성을 하사하여 가족적 결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유력한 호족들을 왕실에 강력하게 묶어두기 위해 혼인 정책도 적극 실시해 무려 29명의 왕비를 두었다. 이 혼인 동맹은 약소한 왕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고려는 호족들의 무력과 경제적 기반에 힘입어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

후삼국 시기는 정치적 혼란, 빈번한 전쟁, 계속되는 흉년, 전염병의 만연 등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말세의식(末世意識)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당시 후삼국 사이의 승패는 민심의 획득 여부가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조는 즉위한 다음날 국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궁예가 멸망한 것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폭정으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민심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²⁰⁾



개태사 석불

태조는 “내가 즉위한 것은 백성의 추대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년 동안 농민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²¹⁾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20여 년간 군대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닌 태조는 관리의 가렴주구와 전쟁 동원으로 시달리는 농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백성의 안정 없이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집권 이후에도 농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태조가 시행한 민본 정치는 호족과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물적·인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2) 고려의 실리 외교

태조의 대외인식 10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이전의 당나라 때처럼 중심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나라 멸망 이후 만주 지역은 916년에 거란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였다. 만약 중국의 천자가 강력했다면 북방에서 또 다른 제국의 건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 『고려사』 권1, 세가 태조원년 6월 정사.

2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원년 8월.

그러나 당시 중국은 북방에서 새로 일어나는 제국을 견제할 힘이 부족하였다. 일본 역시 10세기 초 이미 건당사의 파건을 중지한 채 독자적인 생존 방식을 탐색하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던 중국 대륙은 이제 국제 질서의 한 축일 뿐이었다. 고려는 복합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 중국 왕조와 만주 왕조간의 충돌과 경쟁을 적절하게 이용해 독자적인 대외 전략을 실행하였다.

943년(태조26) 태조는 죽음을 앞두고 왕업의 번창을 위해 후손에게 10가지 유훈을 남겼다. 그것이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훈요십조(訓要十條)」다.²²⁾ 이 가운데 태조의 대외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조항이 제4조다.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당]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반드시 억지로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고려사』에 나오는 훈요십조

「훈요십조」에서 태조는 고려와 중국은 풍토와 사람이 다르니 반드시 중국의 문물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²³⁾ 다원적인 국제질서는 고려가 일방이 아닌 다방면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와 함께 고려의 역할이 그

22) 『고려사』 권2, 세가 태조26년 4월.

23) 이기백, 1981 「고려 초기 五代와의 관계」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41쪽.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려는 자국의 안위를 위해 국제 정세에 촉각을 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어느 특정 국가와 일방적인 외교 관계를 고수하지 않았다.²⁴⁾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자신감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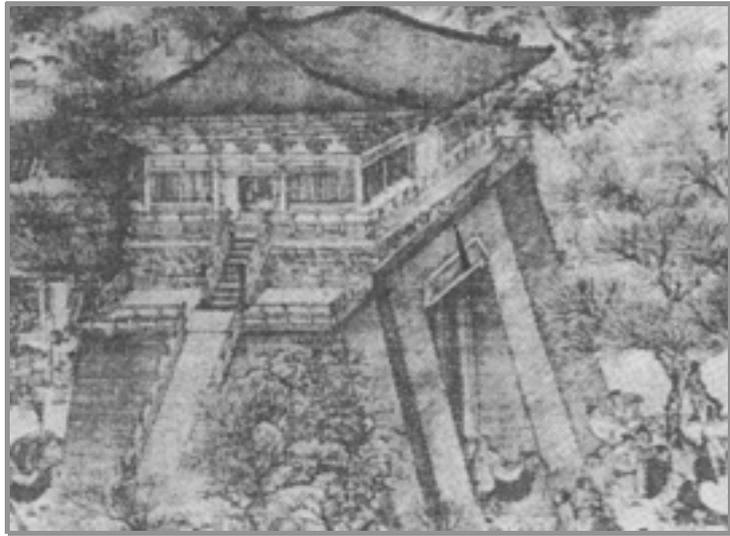
또한 고려는 후삼국 통일 전까지 거란에 대해 적대감만 갖고 있지 않았다. 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을 이용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후삼국 통일 이후 태도를 바꾸어 거란을 금수의 나라로 규정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 유훈은 태조가 독자적인 대외 전략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였고 그만큼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증표가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 검토하게 될 고려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태조의 대외인식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실리 위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 정책 고려가 중국 대륙과 교통한 시기는 5대 가운데 후량·후당·후진시대에 해당한다. 고려 입장에서 중국은 통일 왕조가 없는 혼란기였고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는 거란이 가로막고 있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무렵 고려의 국내외 정세는 대내적으로 남쪽의 후백제와 대치중이었고, 대외적으로도 북쪽에 웅거한 거란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므로 대내적으로 백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대외적으로도 신흥세력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24) 박종기, 앞의 책, 248~254쪽.

고려가 중국에 취한 정책을 유추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다.²⁵⁾ 태조 대에 중국에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2회 뿐이며, 그것도 고려 국왕을 책봉하기위한 방문이었다. 이에 비해 고려에서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한



후량·후진·후한·후주의 수도 개봉부의 성문

횟수는 무려 12회에 이르렀다.²⁶⁾ 즉 고려와 중국의 통교는 고려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였던 것이다.

고려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낸 시점은 후삼국통일을 전후한 936년 무렵에 집중되어 있다. 고려는 후당과 활발한 교섭을 전개한 결과 932년에 후당에서 사신을 보내 태조 왕건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였다. 후당의 책봉을 받은 고려 태조는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후당의 연호인 ‘장흥(長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높이고 후백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가 펼친 중국 정책은 후삼국 통일 이후에 군사 연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것은 고려가 거란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937년 태조가 후진(後晋)에 특사를 파견해 고조의 즉위를 축하하자 후진도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태조에게

25) 이기백, 앞의 책, 136~142쪽.

26) 고려에서 중국을 방문한 해는 925년(태조8), 926년(태조9), 929년(태조12), 932년(태조15), 934년(태조17), 935년(태조18, 2회), 936년(태조19), 937년(태조20), 939년(태조22), 941년(태조24), 943년(태조26)이다.

벼슬을 내려 책봉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938년부터 후진 연호인 ‘천복(天福)’을 사용하였다.²⁷⁾ 후진과 외교관계를 두텁게 한 태조는 고려와 발해가 혼인 관계로 맺어진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고려와 후진이 연합해 발해를 멸한 거란을 동시에 협공하자고 제안하였다.²⁸⁾

태조가 실제로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단언할 수 없으나 적어도 후진과 군사협력 관계를 통해 거란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북방 개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²⁹⁾ 결국 이 제안은 태조의 죽음으로 불발로 그쳤으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려 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려 태조는 중원의 5대 왕조 이외에 양자강 일대의 10국에 속하는 오월이나 남당과도 수교하였다. 919년(태조2) 태조는 오월로 사신을 파견했고, 938년에도 남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남당 역시 943년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답례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거란 정책 고려에서 처음 거란에 사신을 파견한 해는 925년(태조8) 10월이었다. 이미 922년 2월에 거란의 사신이 낙타와 모전(毛氈)을 고려에 전달하고 돌아간 후 몇 년이 지난 시기였다.³⁰⁾ 이 때는 고려가 대내적으로 925년 10월에 후백제와 조물성(안동 부근)에서 전투를 치른 직후였다. 조물성 전투는 고려와 후백제의 대결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고려는 후백제를 압박하기 위해 거란의 지원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7)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1년 7월 ; 『고려사』 권2, 세가 태조22년.

28) 『資治通鑑』 卷285, 후진 고조.(김한규, 앞의 책, 450~451쪽 재인용)

29) 서성호, 1999 「고려 태조대 對契丹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한국역사연구회, 38쪽.

30) 『고려사』 권1, 세가 태조5년 ;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 朝貢5.

고려는 거란에 대해 처음부터 적대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건국 직후의 불안정한 국내사정을 감안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관망하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보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란이 발해를 정벌하는 것을 묵인하는 입장이었다.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기 직전인 925년 9월에 거란에게 발해장군 신덕(申德) 등 5백 명이 고려에 투항한 사실을 통보하여 거란의 호감을 이끌어냈다.³¹⁾ 고려는 팽창하는 거란을 자극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으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는 외교적 통로를 이용해 거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에 군사 역량을 후삼국통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은 거란이 후진의 건국을 지원한 대가로 연주[북경:幽州]·운주 등 16주를 획득한 때였다. 고려는 거란이 서진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후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북쪽 지역에 군사 시설을 조성하는 등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그렇지만 고려가 북쪽 지역에 관심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거란과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한 후 고려와 맞닿은 북방 지대를 영유하면서 고려는 거란이 고려의 국익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위협세력이라고 판단하였다. 고려는 후삼국 통일 이후 거란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북쪽의 주요 군사거점지역에 진(鎭)을 설치하고 성곽 등 군사 요새를 구축하여 방어 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여진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후진과 연합하여 거란을 견제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31)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50쪽.



개경 만부교(탁타교) (1872)

당시 고려의 강경 조치는 거란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거란은 고려가 거란에 우호적이던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당·후진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자 위협을 느꼈다. 그리하여 거란은 942년(태조25)에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해 낙타 50필을 선물하면서 고려의 반응을 살폈다.³²⁾

그러나 태조는 “거란이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옛 맹약을 파기하고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으니 극히 무도하다. 이런 나라와는 화친을 맺어 이웃할 수 없다.”³³⁾고 하여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거란 사신들을 섬에 유배하고 낙타 50필을 개경에 있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다른 나라의 사신 일행을 유배시키는 일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은 발해가 멸망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으며 고려와 거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여진 정책 고려는 건국 이후부터 북쪽에 전략적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 동북으로는 안변 일대에서 영흥 부근까지 세력을 뻗쳤고 서북으로는 청천강 하류까지 세력을 확장해갔다. 이 과정에서 평안

32) 『고려사』 권2, 세가 태조25년 10월.

33) 『고려사』 권2, 세가 태조25년 10월 ; 『고려사절요』 권1, 태조25년 10월.

도 일대는 물론 두만강 유역 및 함경도의 북청·함흥 일대에 부락 단위로 흩어져 거주하던 여진과 무력 충돌이 빈번하였다.

여진은 게릴라 형태로 고려를 자주 침투해 약탈과 분쟁을 일으켰으므로 고려의 변경 지역 안위에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고려에서 여진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신에 차 있었다.

북방 오랑캐[北藩]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서, 굶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버리며 이익을 보면 부끄러움도 잊으니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복종하나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³⁴⁾

고려는 충성과 배반을 반복하는 여진을 제압하고 약탈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억제전략을 구사하였다. 건국 초기에 고려의 통치력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 북쪽과 평안도 일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태조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군대를 파견하였다.

920년(태조3) 태조는 골암진(鵝巖鎭:함남 안변)에 여진의 침공이 빈발하자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지금 남방의 흉도가 멸망되지 않았고 북방오랑캐가 걱정스러우니 짐이 지나 깨



함흥성 북문가

34)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4년 ; 『고려사절요』 권1, 태조14년 11월.

나 근심이 된다.”³⁵⁾고 혼시한 후에 가장 신망하는 장수 유금필을 현지로 파견하였다. 또 928년 이후부터 안북부(安北府:평남 안주), 통덕진(通德鎭:평남 숙천), 안정진(安定鎭:평남 순안), 안수진(安水鎭:평남 개천), 강덕진(剛德鎭:평남 성천) 등지에 진(鎭)을 설치하고 성곽을 쌓아 여진을 압박해 나갔다.

또 고려는 영구적이면서 평화적으로 여진을 정복하기 위해 회유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회유책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몇몇 기록을 통해볼 때 꽤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936년에 고려가 후백제와 최후의 일전을 벌인 일리천(一利川:선산) 전투에서 유금필 등이 흑수(黑水)·달고(達姑)·철록(鐵勒) 등 여진 부족의 기병 9천5백 명을 동원한 기록을 꼽을 수 있다. 여진 기병 9천5백 명이 모두 고려에 투항한 병력인지 알 수 없으나 대규모의 여진 기병을 동원한 정황만으로도 여진 회유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부여 성흥산성

.(:
)

35) 『고려사절요』 권1, 태조3년 3월조.

36) 최규성, 앞의 논문, 143쪽.

3. 북진 정책의 추진

1) 북진정책의 수립 배경

고려는 한국 역사상 크고 작은 전쟁을 가장 빈번하게 치른 왕조였다. 10세기 말 이후부터 13세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고려가 큰 전쟁을 치른 대상이 거란·여진·몽골 등 북방에서 흥기한 민족이라는 점이다.

태조는 국호를 ‘고려(高麗)’라 칭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건국 직후부터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로서 고구려 영토와 중흥을 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역사학자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고사통(故事通)』에서 고려·거란 전쟁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의 북방 진출을 꼽았다. 이는 고려가 대외 전쟁을 수행한 근인이 태조 이후 추진된 북방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로서, 북진 정책이 국운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태조가 추진한 북진정책의 실체는 무엇일까? 927년 12월에 후백제 견훤은 고려 태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견훤은 이 해 9월에 신라 수도 경주에 침입해 친고려 정책을 펴는 경애왕을 타도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왕건은 기병 5천을 이끌고 백제군을 추격해 공산[대구 팔공산]에서 싸웠으나 대패하여 신라 왕실에 대한 복수는커녕 왕건 자신의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견훤은 이 여세를 몰아 “내가 기약하는 것은 평양의 다리 위에 활을 걸고 패강(溟江:대동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다.”³⁷⁾고 편지를

보내 평양까지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평양까지 북상해 고려를 장악하겠다는 견훤의 통첩은 당시 고려의 영역이 평양까지 뻗어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려가 건국하면서부터 평양을 영토화한 것은 아니었다. 676년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했을 당시 신라의 영토는 서북쪽으로 대동강, 동북쪽으로 원산 부근이었다.³⁸⁾ 하지만 신라가 이 지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통일 후 1백여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통일신라가 대동강이남 지역을 경략하기 시작한 때는 경덕왕(재위년:742~765) 시절이었다.³⁹⁾ 고구려 멸망 이후 이 지역을 지배하던 당나라가 발해의 흥기로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자 신라는 점진적으로 이 지역을 개척해갔다. 8세기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 황해도에 국경 군사도시를 구축하고, 평산에 패강진(溟江鎭)을 설치해 국경 수비의 본영으로 삼았다.⁴⁰⁾

통일신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북방 개척은 신라 하대가 되면서 후퇴하였다. 통일신라 말에 중앙의 통치력이 경주 일대를 제외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결과, 신라 영토는 실질적으로 통일 당시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상태였다. 특히 평안도 일대는 여진들이 부락 단위로 산거하고 있어 이미 미확정 국경 지대로 변모했고, 예성강에서 대동강까지 방치된 상태였다. 요컨대, 고려가 건국될 시점에 고려의 통치권이 미친 영역은 사실상 예성강 이남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37) 『고려사』 권1, 세가 태조10년 12월.

38) 노계현, 1993 『고려영토사』, 갑인출판사, 23~24쪽.

39) 김광수, 1977 「고려건국기 패서호족과 대여진관계」 『사총』 21·22, 136쪽;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52쪽.

40) 방동인, 위의 책, 52쪽.

아 정세는 당나라 멸망 이후 거란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면서 무력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 건국 이전부터 평안도 일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여진도 고려의 북진 정책에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북진정책은 대외적으로 여진을 구축하여 영토를 확대하고 거란의 남진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다.

또 북진 정책은 대내적으로 국민 총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 고려가 ‘고구려’라는 국호를 계승한 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면서부터 고구려 고토 회복을 표방하였다. 궁예가 실각한 중요한 요인도 고구려계 유민의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당시 백성 가운데 고구려계 유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왕건은 후삼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고구려 유민들의 염원인 고구려 고토 회복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워 국력을 결집시키고자 한 것이다.

북진 정책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확대된 의미의 전략으로서 군사 전략보다 상위의 국가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태조가 구상한 북진 정책은 두 가지 주안점이 있었다. 북방 민족의 남진에 대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두 정책은 상호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나, 전자가 대외적으로 전쟁의 방지와 억제를 위해 정치·외교 및 감시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면, 후자는 국경선을 실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력 증강과 군사 작전을 동반했다는 차이가 있다. 태조는 후백제와 직접적인 충돌을 지양하면서 고려의 전투력을 보존하였고,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자 북방 영토의 개척에 진력할 수 있었다.

2) 북방 군사거점의 단계별 구축

(1) 패강진에서 평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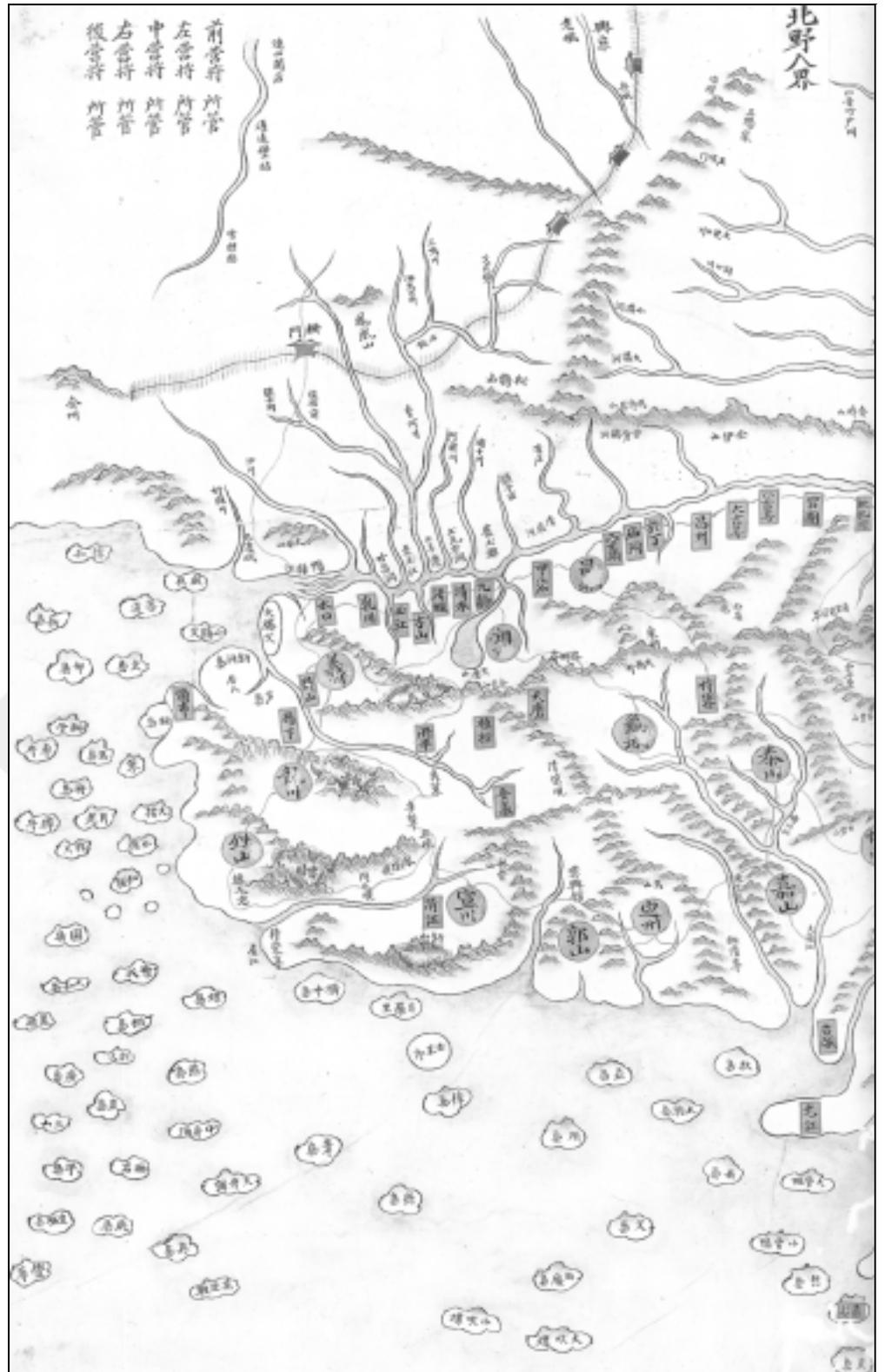
군사기지 평양 개척 태조는 건국 3개월만인 918년 9월 평양 개척을 선언하였다.⁴¹⁾ 태조는 옛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경략하지 못해 이민족이 고려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한 후, 백성을 이주시켜 북방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해야만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태조가 개경을 수도로 정해 궁궐을 짓고 도시를 조성한 것은 919년 봄이었다. 즉 수도를 결정하는 일보다 평양 개척이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태조가 평양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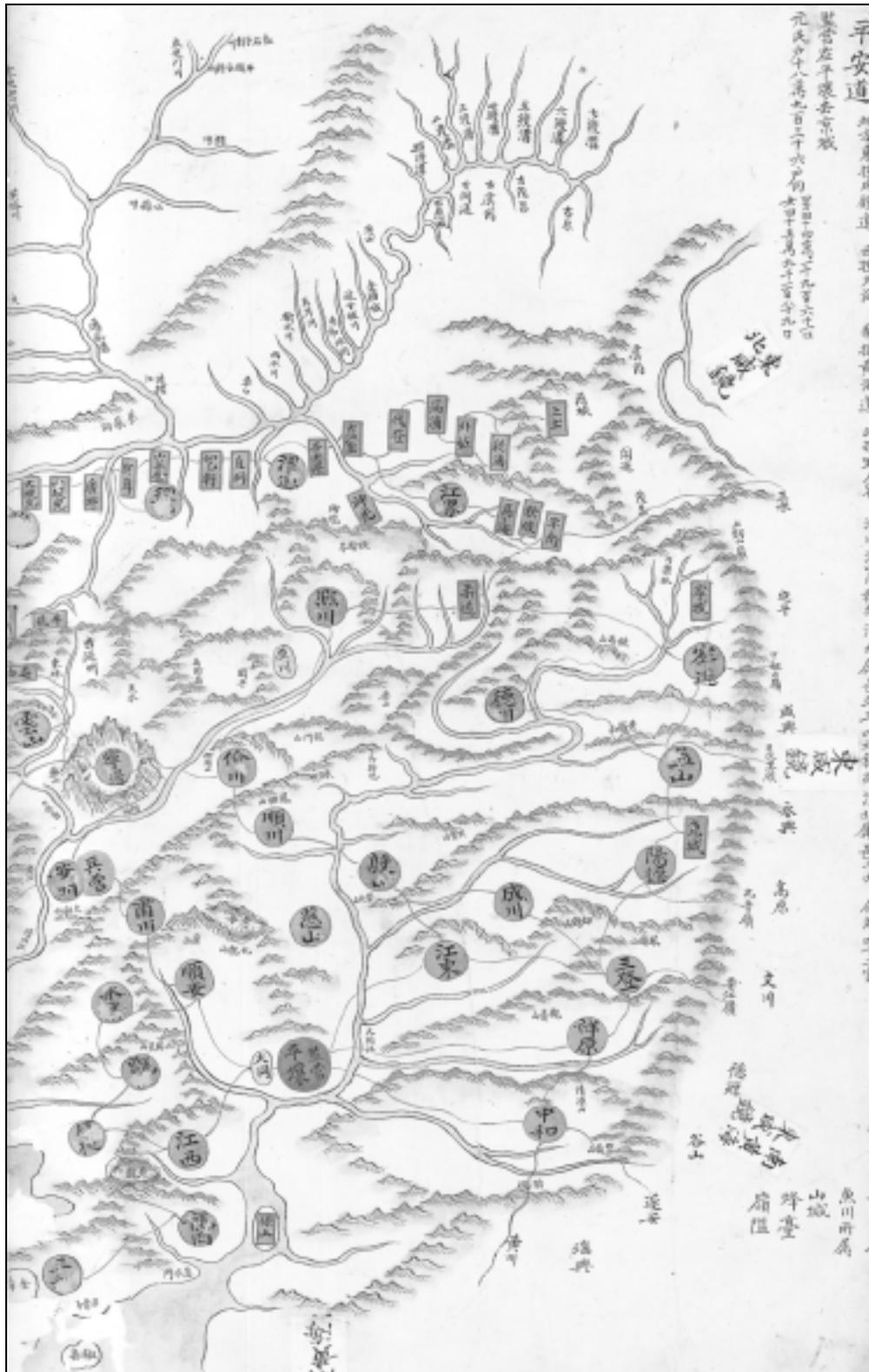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신라시대에 북방의 군사 거점은 황해도 패서 지역이며 그 중심은 평산의 패강진(溟江鎭: 황해도 평산)이었다. 평산은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인 예성강에 가까울 뿐 아니라 여진에 이르는 교통 요지였다. 그런데 태조가 이전 시기의 군사 거점을 뒤로 한 채 평양 개척을 추진한 것은 건국과 동시에 북방 군사 거점의 중심축을 패강진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즉 평양 개척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도 “짐이 삼한 산천의 지리의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평양]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곳이니 마땅히 2월·5월·8월·11월에 행차하여 1백 일이 넘게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⁴²⁾고 당부할 만큼 평양을 중시하였다.

41) 『고려사』 권1, 세가 태조원년 9월 병신,

42) 『고려사』 권1, 세가 태조26년 4월.





18세기에 만들어진 『해동지도』의 평안도 (北鎭)

그러면 북쪽으로 뺏어나가려는 태조는 왜 전초기지로서 평양을 선택했을까?⁴³⁾ 평양은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곳으로 대동강이 남단으로 흐르며, 평원군에서 발원한 보통강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대동강과 합류하는 자연 조건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평야가 발달하고 천혜의 수운 조건을 가진 평양은 물자와 식량이 풍부해 고조선과 고구려(후기)의 수도로 번영을 누리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한 이후로 황폐화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렸다. 신라 하대 이후로는 행정력마저 미치지 못해 여진족이 그 지역을 넘나들며 사냥과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이런 평양을 태조가 주목한 이유는 정치·군사적으로 평양이 갖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었다. 평양은 옛 고구려 도읍지로서 고구려 고토를 되찾겠다는 태조의 북진정책 이념과 부합되는 지역이므로 고구려 유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강대한 호족의 도전을 피하면서 왕실의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지로서 평양은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곳이었다.⁴⁴⁾

태조는 25년간 재위하면서 평균 2년에 한번 정도 평양을 순시하였다. 그리고 평양 행차 길에는 북방의 군사요충지를 순찰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찰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는 평양이 북방으로 뺏어나가는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990년(성종9) 서경 방문을 앞두고 성종이 내린 교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⁴⁵⁾

43) 현재 학계에서 태조가 서경 개척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전략상 요지 확보, 둘째, 서경의 풍수지리, 셋째, 왕권의 지지기반 마련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하현강, 1967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35·36합집, 140~149쪽 : 하현강, 1977 『고려 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144~153쪽.

45) 『고려사』 권3, 세가 성종9년 9월.

(우리 태조께서)...높이 임금의 지위에 올라 서경을 창건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요충지를 지키게 했으며, 여러 부서를 설치하여 각각 중요한 직무를 맡겼다. 매년 봄가을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오랑캐들을 막아 국가의 울타리를 공고히 했으며, 평양의 웅대한 도시에 의거해 선조들의 왕업을 튼튼히 하려고 하였다...

평양의 군사요새화 태조가 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평양을 행정 구역으로 편입한 조치였다. 태조는 918년 9월에 평양에 백성을 이주시킨 후 대도호부(大都護府)⁴⁶⁾를 설치하고, 사촌동생 왕식렴(王式廉)과 광평시랑 열평(列評)을 파견해 방어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참좌(參佐) 4~5명을 두었다.⁴⁷⁾ 뒤이어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승격하였다.

이주 대상이 된 백성은 황주, 봉주(鳳州:봉산), 해주, 배주(白州:배천), 염주(鹽州:연안) 등 대부분 패서 지역 주민이었다.⁴⁸⁾ 평양에 대한 사민 정책은 단발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시행되어, 922년(태조5) 서경에 행차한 태조는 관청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재차 패서 출신의 호족 및 여러 군현의 양가 자제를 이주시켰다. 김행파(金行波)와 박질영(朴質榮) 등 호족 세력의 이주는 이들의 지역적 기반을 활용해 서경 경영을 도모하고,⁴⁹⁾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성장하던 패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의도였다.

평양 개척을 향한 첫 단계가 행정적인 조치였다면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조치로서 성곽 수축이었다.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부터 실

46) 현재 이 시기 대도호부의 위상이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중국에서 도호부는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군사적 기구의 성격이 강했다.

47) 『고려사』 권77, 志31 外職 西京留守官 ; 『고려사절요』 권1, 태조원년 9월.

48) 『고려사절요』 권1, 태조원년 9월.

49) 『고려사』 권1, 세가 태조5년 ; 김일우, 1998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일지사, 194쪽.



평양성
(中城)· (外城, 羅城)

(內城)· (北城)·
(門址)

시된 성곽 수축은 9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평양 내성(內城)은 6년에 걸쳐 완성될 정도로 요새화 되었다. 938년에는 나성(羅城)을 축조하여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평양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켰다.

내성과 나성의 축조는 여진으로부터 군사

기지 평양을 지키려는 조치인 동시에 백성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평양에 나성을 축조한 시기가 고려에서 후진의 연호를 사용한 때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 조정이 후진의 협조를 배경으로 평양을 전초기지로 삼아 북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태조가 평양을 전진 기지화하려는 노력은 군사적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다. 평양 개척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930년(태조13)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정악(廷鶚)을 서학박사로 삼아 6부의 생도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후 성과가 우수하자 곡식을 내려 학보(學寶)⁵⁰⁾를 만들어 학교운영 기금으로 삼게 하였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개척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

50) 寶 : 곡식이나 돈을 적립해두고 그 이식을 취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는 기금.(『고려사절요』 권1, 태조 12년)

51) 『고려사』 권1, 세가 태조13년 12월 경인 ; 『고려사』 권74, 志28 選舉 學教 國學.

다. 평양에서 민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 바람이 불어 관가가 무너지는 등 이상한 재변이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다.⁵²⁾ 이런 재변들은 서경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충돌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서경의 군사거점화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조가 심혈을 기울여 수행한 평양 개척은 후대 국왕들에게 북진 정책의 이정표가 되었다. 고려 역사가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기록에 따르면, 충선왕은 태조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우리 태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 아직 김부[신라왕]가 항복하지 않았고 견훤이 사로잡히기 전이었지만 누차 평양에 거동하고 친히 북방 변경을 순찰했으니 그 뜻은 동명왕의 옛 땅을 우리의 귀중한 유산으로 여겨 반드시 이를 석권해 차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 어찌 다만 계림(鷄林:경주)을 취하고 압록강을 칠 뿐이었으리오?”⁵³⁾라고 하였다.

원나라(몽골) 지배 시절 원나라 만권당에서 10여 년 동안 인질로 생활하던 충선왕으로서는 태조의 북진 정책이 뼈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2) 청천강 유역까지 북상한 군사거점

태조는 북방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진(鎭) 설치와 성곽 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⁵⁴⁾ 진이란 군사 거점을 삼기 위해 요해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지역이다. 태조는 골암진(鵝岩鎭:함남 안

52)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5년 5월 갑신.

53) 『고려사』 권2, 세가 태조26년 5월 李齊賢撰.

54) 축성 기록은 주로 『고려사』 『고려사절요』의太祖 연간 기록을 참조하였다. 이 밖에 『고려사』 권82, 지36 병2 진수·성보도 참조하였다. <표2>에서 진국성의 축성 시기가 『고려사』 진수조와 『고려사절요』는 태조11년(928)으로, 『고려사』 성보조에는 8년으로 되어있다. 이 글에서는 두 군데 기록이 나오는 태조11년을 따랐다.

변), 안북부(安北府:평남 안주), 통덕진(通德鎭:평남 숙천), 안정진(安定鎭:평남 순안), 안수진(安水鎭:평남 개천), 흥덕진(興德鎭:평남 순천), 강덕진(剛德鎭:평남 성천), 통해진(通海鎭:평남 평원), 영청진(永淸鎭:평남 영유), 순주(順州:평남 덕천), 양암진(陽岩鎭:평남 양덕), 대안주(大安州:평남 순천) 등에 진을 설치하였다.⁵⁵⁾

다음으로 축성은 기마(騎馬)로 구성된 북방민족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 방책이었다. 역대로 한반도의 주변국은 강대국 중국을 비롯하여 기마를 장기로 하는 북방 민족이 포진해있었다. 이들과 맞서 싸울 때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불리했으므로 성곽과 같은 방어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북계의 성곽들은 고려시대 북방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조 대에 성곽 축조가 이루어진 지역은 평양, 용강(龍岡), 골암진, 함중(咸從), 안북부, 운남(雲南), 성주(成州), 진국성(鎭國城), 안정, 영청, 안수, 흥덕, 연주(連州), 조양진(朝陽鎭), 마산(馬山), 통해, 순주, 양암, 평원(平原), 대안주(大安州), 은주(殷州) 등이다.⁵⁶⁾ 성곽이 축조된 지역은 진(鎭)들이 설치된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곧 태조 대에 설치된 진은 원래 독립된 성을 진으로 개편하거나 새로 성을 쌓아 만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축성 사업은 진 설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조 대에 성곽을 축조한 지역을 검토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발견

55) 이기백, 1968 「고려 태조시의 鎭」 『고려병제사연구』, 236쪽. 윤무병은 대안주를 慈州로 파악했는데, 順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윤무병, 1953 「高麗北界地理考(上)」 『역사학보』 4, 47쪽)

56) 현재 고려시대 자료에 축성지역의 표시가 대부분 옛 지명과 이후에 개칭된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 진국성·숙주는 숙천 지역, 조양진·마산·안수진·연주는 개천 지역, 흥덕진·은주는 은산 지역에 해당하며, 대안주와 은주·흥덕진은 지리상 순천에 가깝다.

된다. 첫째, 골암진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동강 이북과 청천강 이남 북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청천강을 넘어 쌓은 성은 운남성(영변) 하나뿐이다.



북계에 축조된 성곽 요새들

태조는 북쪽 지역을 순시하다가 귀주(龜州) 북쪽에 위치한

탕정군(湯井郡)에 쌓은 성을 진국성에 옮겨 쌓게 하였다.⁵⁷⁾ 귀주 쪽에서 숙천으로 내려와 성을 쌓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청천강 이남으로 축성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태조가 성곽을 집중적으로 축조한 지역은 서경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청천강을 주방어선으로 삼는 형상을 띠고 있다. 태조는 먼저 서경에 성을 축조한 뒤 서쪽으로는 용강과 함종에, 동쪽으로는 성천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청천강 중류에 위치한 안주에 성을 쌓았다.

평양에서 안주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70km 정도에 불과하며 이 일대는 비교적 평야지대였다. 그래서 태조는 중간 지점인 숙천, 순천, 영유, 자산, 은산 등지에 성을 축조해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또 청천강 상류지역인 개천에 성을 축조해 청천강 방어선을

57) 이근화, 1988 『고려전기 북방정책의 전개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쪽.

공고히 하였다.

서경에서 시작되어 청천강을 경계로 축차적으로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한 태조는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군을 파견해 주둔시켰다. 920년(태조3) 골암성에 개정군(開定軍)⁵⁸⁾ 3천 명, 928년(태조11) 안북부에 개정군 7백 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929년에 안정진(순안)에 언수고(彦守考), 안수진(평남 개천)에 혼평(昕平), 흥덕진(평남 순천)에 아차성(阿次城), 930년에 마산에 혼행(昕幸), 강덕진(평남 성천)에 평환(平奐), 통해진(평남 평원)에 재훤(才萱) 등을 진두(鎭頭)로 파견하였다.⁵⁹⁾

<표2> 고려 태조 연간의 북쪽 지역 축성 현황

연 도	축성 위치
919 (태조2)	평양, 용강
920 (태조3)	골암진(안변:영흥), 함중, 안북부(안주)
921 (태조4)	운남(영변)
922 (태조5)	서경 내성(기간 6년 걸림)
925 (태조8)	성주(성천)
928 (태조11)	안북부(안주), 진국성(숙천)
929 (태조12)	안정진(순안), 영칭진(영유), 안수진(개천), 흥덕진(순천)
930 (태조13)	연주(개천), 안북부(안주), 조양진(개천군 조양면), 마산(안수진:개천)
934 (태조17)	통해(평남 평원)
935 (태조18)	숙주(숙천)
937 (태조20)	순주(순천)
938 (태조21)	영칭(영유), 서경 나성, 양암(양덕), 용강, 평원
939 (태조22)	숙주, 대안주(순천)
940 (태조23)	은주(은산)

58) 개정군은 이 기록이외에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다. 개정군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태조 대에 東界(함경도)·北界(평안도)의 방비, 또는 후백제와의 국경지대 수비라는 특수 목적을 갖고 파견된 중앙군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기백, 1968 『고려경군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52쪽)

59) 『고려사』 권82, 志36 兵2 鎭戍.

태조 이전에 궁예는 이미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으로 파악되는 지역에 13개 진을 설치했으나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을 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태조는 건국 직후인 920년부터 안북(안주)에 성을 쌓고 이후 931년(태조14)에 부(府)를 설치했으며 군대도 파견하였다. 곧 청천강이남 지역을 고려의 행정·군사 구역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이는 그만큼 평양을 발판으로 북쪽 방어선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발해 유민의 전력화

(1) 발해 유민의 수용

오늘날 충청남도 연천에 위치한 개태사는 고려 태조의 원찰로 유명하다. 태조는 “936년에 백제를 정벌해 큰 승리를 거두어 30여 군(郡)을 얻고, 발해국인이 모두 귀순(歸順)”하자 이를 경축하기 위해 940년에 개태사를 세우고 친히 글을 지어 발원했다고 한다.⁶⁰⁾

이 짙막한 글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후삼국통일과 발해국인의 귀순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고려 건국 이후 수많은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해 유민의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발해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속한 국가였다.⁶¹⁾ 발해는 698년에 대조영이 말갈족을 흡수하여 동모산(東牟山) 일대에서 건설한 나라로서 고구려 멸망 후 30년 만의 일이었다.

6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連山縣 佛宇.

61) 현재 한국사에서 발해는 신라와 대등한 위상으로 대접받지 못하나 발해를 인식해 삼국통일 이후를 ‘남북국시대’라고 호칭하고 있다.



발해 전성기 강역도 (『 『)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을 당시 나라 이름은 ‘진국(辰國)’이었다. 그 후 713년에 당나라는 성장하는 진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대조영을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봉했고,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발해’라 부르게 되었다.

발해는 926년 1월에 거란에게 멸망하였다. 발해의 멸망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발해 유민의 부흥

운동이 실패하면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압록강 상류에서 두만강에 걸친 지역은 힘의 공백 지대가 되었다.

고려와 거란은 완충지대 없이 서로 이 지역을 공유한 채 영토 개척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거란은 발해 멸망 후 그곳에 동단국(東丹國:동쪽의 거란국이라는 의미)이라는 괴뢰정부를 세웠으나, 거란이 지배한 지역은 발해 고토의 서쪽 지역에 불과하며 동쪽 지역은 반란이 거듭 일어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태조가 표방한 북진 정책은 북방민족에 대한 대처와 영토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태조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거란과 여진의 침공을 차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특히 변경에 자주
출몰해 약탈을 일삼
던 여진은 고려의
북방 안보에 큰 긴
장감을 유발시켰다.
발해가 있을 당시부
터 남으로 퍼져 나
오기 시작한 여진족
은 고려 건국 초에
두만강 유역과 그
이남지역, 그리고 압



동모산

(『 』)

록강 일대에 흩어져 있다가 발해 멸망 이후로 더 남하하면서 고려
의 변경을 교란시켰다.

고려 초 여진족 제어에 큰 힘을 보탠 것은 패강진(溟江鎭:황해도
평산)의 군사조직을 통해 급성장한 패서 호족들이었다. 그러나 태조
가 평양을 개발하면서 패서호족을 서경으로 이주시켰고, 서경이 북
진정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면서 다시 이주민들을 여러 북진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패서 지역은 수비상 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다.

또 고려는 평양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의新开척 지대를 효과적으
로 장악하기 위해서 사민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패서 지역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채우기에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후백제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남쪽 백
성을 이주시킬 수도 없었다.⁶²⁾

62) 김창겸, 1987 「후삼국 통일기 태조 왕건의 패서호족과 발해유민에 대한 정책연구」 『성대
사립』 4, 78쪽.



장문휴의 원정 732

(『張文休가』)

이 같은 상황에서 태조가 여진족을 견제하고 북쪽의 신개척 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 바로 발해유민의 수용이었다. 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인구와 병력을 충원해야만 하던 고려의 입장에서 발해유민은 대단히 유용한 인적자원이 아닐 수 없었

다. 그 대신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2) 발해 유민의 활용

『고려사』에 발해 유민이 고려에 투항하는 기록이 나오는 시기는 발해가 멸망하기 전인 925년(태조8)이다.⁶³⁾ 발해인의 투항은 태조대에 집중되었고, 이후 예종(재위:1105~1122) 때까지 계속되었다.⁶⁴⁾

태조는 고려로 귀순하는 발해 유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였다. 태조대에 귀순한 발해 유민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사의 기록

63)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歸化人 연구』, 국학자료원, 95쪽.

64) 『고려사』 권1, 세가 태조8년 9월 병신;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271쪽. 한규철이 발해인 귀화로 처음 파악한 것은 921년에 흑수말갈 추장이 170명을 이끌고 고려로 귀화한 기록이다. 『고려사』에는 ‘발해인’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진족이 발해의 피지배층을 구성했으므로, 이 무렵 고려에 귀화한 흑수말갈을 발해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흑수말갈이 발해의 지배를 받았는가의 여부는 異論이 많은 편이므로 본고에서는 『고려사』에 ‘발해인’으로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을 통해 볼 때 수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5 참조) 일례로 조선후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9~?)은 『발해고(渤海考)』에서 발해 유민이 10여 만 명이라고 기록하였다.⁶⁵⁾ 이러한 대규모 유민의 합류는 고려의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려는 처음부터 발해 유민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후백제와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거란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려가 발해 유민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후삼국 통일 직전이었다. 태조는 934년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大光顯)의 투항을 크게 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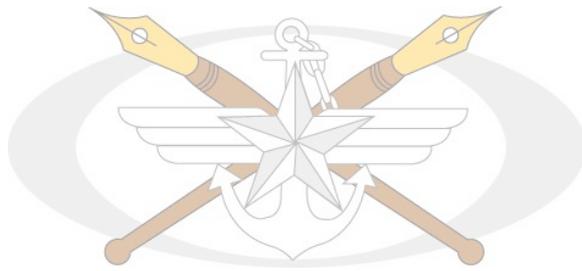
『발해고』
1784

<표3> 태조 때에 귀화한 발해 유민의 규모

연도	내용	규모
925. 9	將軍 申德 등	500 인
925. 9	예부경 대화균, 좌우위 장군 대심리 등	1백호(戶)
925.12	左首衛小將 冒豆干, 檢校開國男 朴漁 등	1천 호
927. 3	工部卿 吳興, 승려 載雄 등	110 인
928. 3	金神 등	60 호
928. 7	大儒範 등이 백성 이끌고 귀순	
928. 9	隱繼宗 등	
929. 6	洪見 등이 배 20척으로 사람과 재산을 싣고 귀순	
929. 9	正近 등	300여 인
934. 7	世子 大光顯이 수 만 명 거느리고 귀순	수 만 명
934.12	陳林 등	160 인
938.12	朴昇	3천여 호

65) 유득공, 『渤海考』 「渤海考序」.

(자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는 대광현에게 ‘왕계(王繼)’라는 이름을 내려 고려 왕족에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막료와 군사들에게까지 논밭과 집을 하사하는 특전을 내렸다. 그리고 원보(元甫)라는 벼슬을 주어 북계의 전략상 요지인 배주(白州: 황해도 배천)를 지키게 하는 등 각별한 우대를 하였다.⁶⁶⁾

배주는 932년 9월에 후백제의 일길찬 상귀(相貴)가 수군을 이끌고 침입해 전선을 불태우고 군마를 약탈한 적이 있던 곳으로 예성강을 끼고 수륙으로 통할 수 있는 서부의 요충지였다.⁶⁷⁾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국방을 담당하던 패서 호족들이 백성을 이끌고 서경으로 이주한 이후로 지역 방어에 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대광현으로 하여금 배주를 수비하게 한 것은 발해 유민을 우대하고 그들의 능력을 이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후대이기는 하나 993년(성종12) 고려와 거란 전쟁 당시 안응진(평남 안주)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 대도수가 바로 대광현의 아들이었다.

대광현의 사례와 같이 발해 유민이 군사 요충지를 담당하여 임무를 수행한 기록은 흔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무렵 고려가 처해있던 제반 여건이나 귀순한 발해 유민의 성격으로 미루어볼 때 고려



발해의 투구·칼·화살촉

66)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7년 7월.

67)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5년 9월.

의 전력 증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⁸⁾ 발해인은 “남자가 다른 나라사람보다 지모가 많고 용맹스러워 3인이면 범 한 마리를 이겨낸다.”⁶⁹⁾고 하니 태조가 이들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삼국 통일 후 태조는 여전히 발해인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태조는 말년에 거란에 대해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발해 유민에 대해서는 고려의 형제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각별한 우의를 표명하였다. 그것은 거란을 방어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거란에 대해 적의를 품은 발해 유민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태조는 주변 정세에 따라 거란이나 발해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탄력적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고려의 생존과 안보를 성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대공산성

28
(大氏)가

68) 『遼史』에는 1011년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여 발해인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수많은 발해유민들이 거란 전쟁에 참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朴玉杰, 앞의 책, 225~227쪽)

69) 『海東釋史』 卷11, 世紀11.

4. 정책 평가

고려가 건국될 무렵인 10세기 초 동북아시아 세계는 중심축을 이루던 중국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무력 경쟁에 돌입하였다. 중국대륙에는 통일왕조가 서지 못한 채 50여 년간 5대 10국의 15개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면서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 틈을 타고 북중국의 만주 일대에서 일어난 거란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였다.

이 무렵 한반도의 상황 역시 중국과 유사하게 통일신라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신라·고려·후백제로 분열되었고, 후백제와 고려가 후삼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다. 이것이 우리 역사상 ‘후삼국’이라고 불리는 시기다.

고려는 건국 후 10여 년간 후백제를 상대하기에 군사력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후백제와 무력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적을 교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면서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정치적·외교적·심리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고려의 전략은 오늘날 전략개념으로 볼 때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또는 ‘대전략(Grand Strateg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가 정치·외교적으로 주력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왕조로서 정통성을 확보한 신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친화 정책으로 일관했고, 전쟁과 수탈로 피폐해진 국민 경제를 복원하면서 호족과 민심을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그 결과 태조 왕건은 국왕인 동시에 뛰어난 작전 능력을 갖춘 야전사령관으로서 936년에 후삼국통일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태조는 신라의 정치적 자유와 보호를 약속하여 후백제의 지배력을 뒤흔들었고, 신라 영역 안에 있던 호족과 그들의 군대를 아군으로 전향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 백성들이 오랜 전쟁에 염증을 느낄 무렵에 후백제로 하여금 신라 왕실에 대한 무모한 침략 행위를 자행하도록 유발시킴으로써 후백제의 세력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던 것이었다.

고구려의 전통과 기상을 이어받은 태조는 건국 이후 고구려 영토까지 확보하겠다는 이상을 현실화하였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로 정한 태조는 북진정책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만주 지역의 무력 충돌과 경쟁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독자적이고 실리적인 북진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정책기조는 중국의 왕조들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북방의 여러 민족들과는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태조 왕건이 추진한 북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극복하면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태조는 건국 이후 중국 대륙과 북방민족과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틈새를 포착하여 독자적이고 실리적인 북진 정책을 구사하였다. 태조가 재위 기간 동안 전개된 발해의 혼란과 멸망, 동단국의 수립 및 서천(西遷) 등으로 나타난 중국 동북 지역의 정세 변화, 여진을 포함한 발해유민의 대거란 투쟁 등을 이용해 국경선을 확장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둘째, 태조는 후삼국 통일 이후 그 동안 수세적인 대외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북진 정책의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특히 고려는 초기에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던 거란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 의식을 표출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태조는 거란과 친선 관계를 훼손하고 적대국으로 돌아설 경우 대외 전략을 수정해야만 한

다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거란은 중국 대륙이 계속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는 거란이 서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후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북쪽 지역에 군사 시설을 조성하는 등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그런데 거란의 팽창정책은 중원을 지향했으나, 이 때 배후의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고려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했으므로 그 영향이 한반도에 미치게 되었다. 고려 역시 북쪽 지역에 관심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거란과 마찰이 불가피했고 거란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여진을 포함한 발해 유민의 대거란 투쟁을 이용하기 위해 거란에 대한 입장을 강경노선으로 선회했고, 고려는 후삼국 통일 이후에 더욱 강성해진 거란과 격돌하게 되었다.

셋째, 태조가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평양 개척이었다. 평양은 옛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고구려 고토를 되찾겠다는 태조의 북진정책 이념과 부합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었다. 태조는 평양을 전진기지로 삼아 압록강 이동의 여진족을 포섭하거나 무력으로 토벌하였다. 동북쪽으로도 여러 여진부족을 공략하여 안변 이북의 땅을 확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역에도 군사 거점 도시를 건설하여 중앙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영토로 고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태조 말년에 고려의 국경선은 서북으로 청천강 유역인 안주까지 확장되었으며 동북쪽으로는 덕원(德源)·영흥까지 북상할 수 있었다.

넷째, 고려가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해유민을 적극 활용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 전략적 사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조가 표방한 북진 정책은 북방민족에 대한 대처와 영토 확장에 주

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태조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거란과 여진의 침공을 차단하고 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변경에 자주 출몰해 약탈을 일삼던 여진은 고려의 북방 안보에 커다란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또 고려는 평양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의 신개척 지대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백성을 이주시키는 사민정책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고려 백성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채우기에 부족한 실정이었고, 후백제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남쪽 백성을 이주시킬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거란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는 발해 유민을 수용하여 거란 방비는 물론, 북쪽의 여진족을 견제하고 고려의 신개척 지대를 채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 점은 고려 태조의 전략적 판단 능력이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태조는 건국 초기에 북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국내 사정과 군사력의 열세로 인하여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북진은 거란이나 여진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이런 가운데 고려는 외교적 통로를 이용해 거란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군사 역량을 후삼국통일에 집중하였다. 그 후 태조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국내 정세가 안정되자 비로소 전략적 관심을 북방에 집중시켜 당초 의도한 대로 북진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태조가 기존의 수세전략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한 단계 높은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외교, 국왕의 강력한 북진의지, 국민총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각각 하나의 축으로 삼은 균형 있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 거란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북방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북방 질서를 출현시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대해 최승로(崔承老)는 태조의 업적을 “요하와 패수 사이의 놀랄만한 물결을 평정하고...”⁷⁰⁾라는 말로 단적으로 평가하였다.

만약 태조가 대동강 이남의 영토에 안주하면서 북진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북방 민족인 거란과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나칠 수 있었을까? 당시 국제 정세는 화해와 타협보다는 전쟁과 충돌에 의해 주도권을 장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가 전개한 이민족 전쟁은 주로 중국대륙 및 동북부 지역에서 세력 각축전을 벌인 민족과 국가들 간에 행해진 권력투쟁 및 갈등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거란은 송과의 대결에 앞서 송의 배후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여진을 복속시켰고, 여진의 배후에 있던 고려를 간과했을 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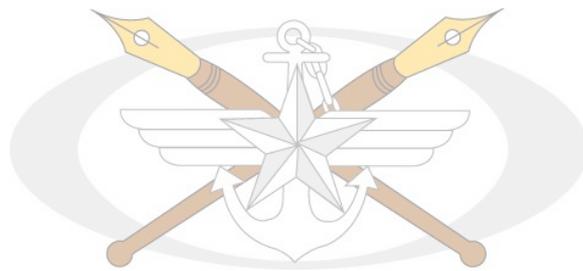
오히려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축한 북계의 성곽들은 이후 거란은 물론 북방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고려를 지키고 이민족들을 격퇴한 초석이 되었다. 협곡과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최대한 전환시켜 놓은 태조의 결단으로 인해 후일 적들은 북계 성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태조 왕건이 추진한 북진 정책의 성과는 고려시대의 전쟁 결과를 통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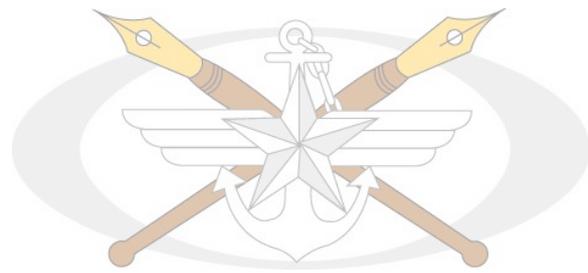
태조가 본인이 수행한 북진 정책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의 군사적 역량을 기르고 방어태세를 구축해 두지 않으면 어떠한 미래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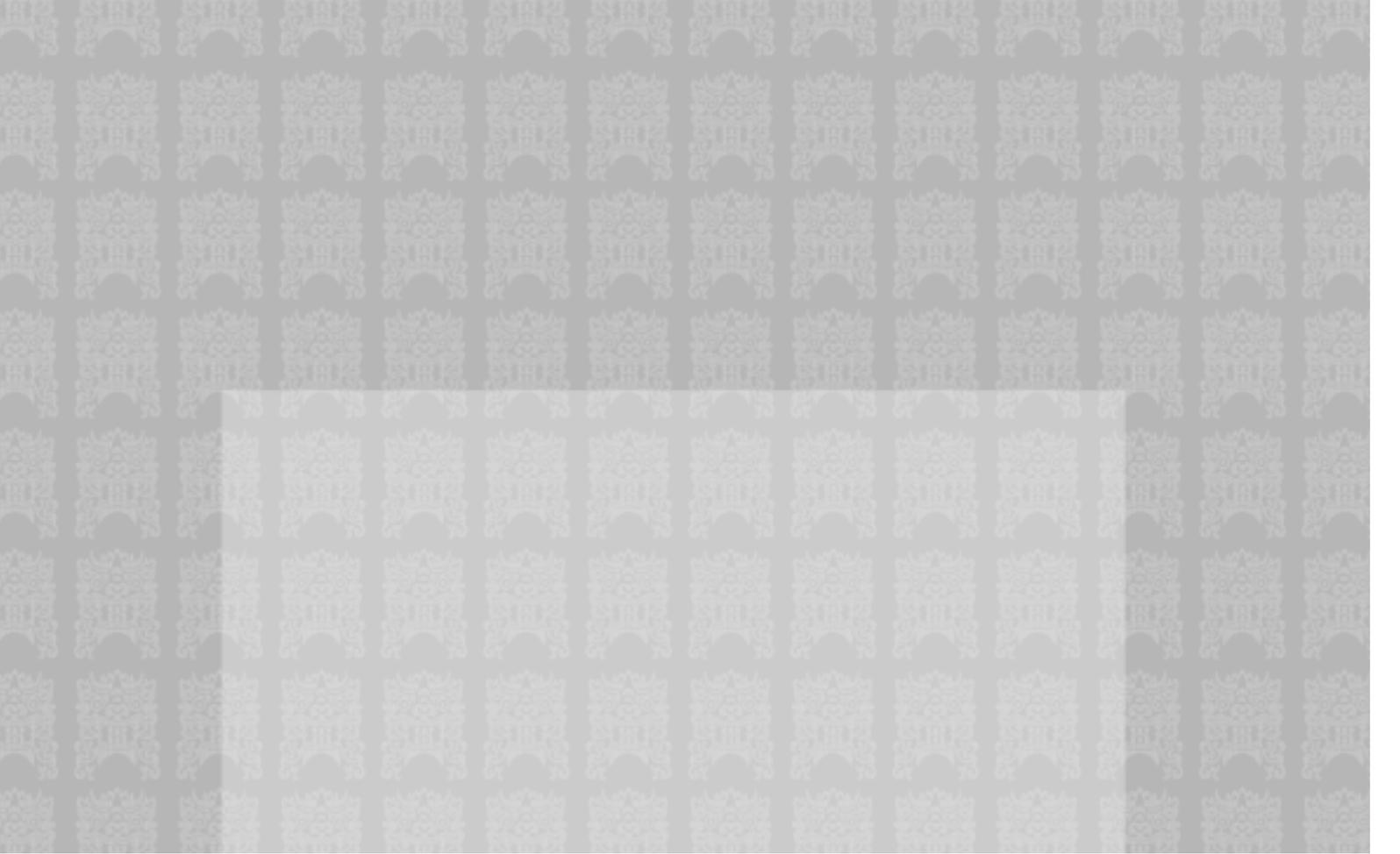
70) 『고려사』 권93, 열전 崔承老.

어진다. 이는 태조가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치·전략·전술적 수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국가 방위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태조 왕건이 실시한 북진 정책은 송·거란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려의 군사 역량에 기초하여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생존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 2 장
고려와 거란 전쟁



고려시대 군사전략

1. 국내외 정세

1) 주변국 정세

(1) 거란의 세력 팽창

거란(요)¹⁾은 936년에 중국의 연운 16주를 점령한 이후 계속해서 중국 내 크고 작은 분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947년에 태종이 죽은 이후 대외 진출을 주도할 강력한 황제를 옹립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세종은 권력 기반이 취약했고 즉위한 지 5년 만에 죽었다. 뒤를 이어 즉위한 목종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아 969년에 시해되었다.



거란의 2대 황제 태종

1) 遼 : 거란은 947년에 국명을 '遼'라고 정한 이후에도 국왕들조차 '요'와 '거란'을 구분없이 사용했을 만큼 공식 국명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북관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33쪽).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명으로 '요'보다는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란'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거란의 등장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 책 1장 「고려 태조의 북방 영토 확장」 참조.



11세기 동북아 형세

이 무렵 대외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960년에 송나라가 일어나 중국 대륙의 분열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거란은 송과 국경을 마주해야 했고, 979년에는 거란이 지원하던 북한(北漢)²⁾이 송에 망하고 말았다. 거란이 우려한 대로 중국 대륙의 통일은 자국의 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고 송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동쪽 변경에서도 여진의 약탈과 반란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고, 고려와는 942년 이후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거란은 적대적인 송과 고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여진 사이에서 대외 전략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던 거란을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왕은 성종(聖宗, 재위:982~1031)이었다. 성종은 부족제에 기초한 거란을 한 단계 성장시킨 왕으로서 고려와 거란 전쟁의 주역이

2) 北漢 : 951년에 劉崇이 平陽(현 산서성 태원현)에 세운 나라. 북한이 후주와 전쟁에 돌입하자 거란은 북한을 원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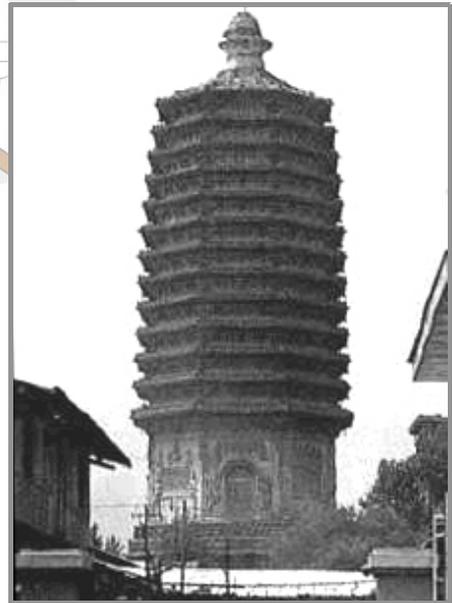
었다. 성종은 거란의 통치 조직을 거란의 부족제적인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에 적합하게 탈바꿈시키기 위해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각종 권농 정책과 황무지 개간, 유민(流民) 정착,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부국책과 안민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내를 안정시킨 성종이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린 곳은 동북 만주와 고려였다. 거란이 우려한 최악의 상황은 송이 고려·여진 등과 연합해 거란에 적대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거란의 대외 전략은 송·고려·여진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서로 인접해 있는 고려와 여진의 연계를 차단한 후 이들을 차례로 공격하는 것이었다.³⁾ 즉, 대륙 진출을 꿈꾸던 거란은 송의 군사적 저력을 우려하여 중국 대륙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주변국으로 주의를 돌린 것이었다.

거란이 택한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여진이었다. 여진은 송 건국 직후인 961년부터 송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여진 사절단은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 바다를 건너 등주로 갔다.

거란은 여진의 조공 행위가 자국의 배후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판단해 984년과 986년 두 차례에 걸쳐 여진을 공략하였다. 또 거란은 986년에 발해유민이 압록강변에 세운 정안국(定安國)을 멸망시켰다.

거란은 979년·986년에 두 차례나 침입



웅장한 거란의 불탑

3) 추명엽, 2005 「고려시기 '海東'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49쪽.

한 송나라 군사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여진을 격파해 송·여진의 동맹 체제를 와해시켰다. 그리고 여진이 송나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991년에는 압록강 북쪽인 위구(威寇)·진화(振化)·내원(來遠)에 성을 쌓고 3천 명의 군사를 배치하였다.⁴⁾ 이 가운데 내원성(평북 의주)의 축조는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녔다.⁵⁾ 거란은 압록강변에 성을 쌓은 지 2년 뒤인 993년에 고려를 침공하였다.⁶⁾ 이 전쟁으로 거란은 고려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그 대가로 고려에게 압록강 이남에 대한 연고권(강동 6주)을 인정해주었다.

거란은 고려·송의 연합을 차단시킨 바탕위에서 송과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였다. 거란은 990년경 송의 배후를 위협하기 위해 당항족(黨項族:서하)과 우호 관계를 맺었고, 994년에 남경통군도감(南京統軍都監)을 설치해 5여 년에 걸쳐 전쟁 준비를 하였다.⁷⁾ 거란은 송이 당항족(서하)조차 장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노출하자 999년에 송이 무력 증강을 피하기 전에 송을 침략해 큰 참패를 안겼다.

1004년 거란은 다시 송나라 국경을 돌파해 황하 북쪽의 전주(澶州)까지 진격하였다. 수세에 몰린 송이 강화를 요청하자 거란은 송으로부터 ‘전연(澶淵)의 맹약’을 이끌어냈다. 이 강화를 계기로 거란은 송과 ‘형제의 나라’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군사적 우위 속에서 평화 관계를 지속시켰다. 그리고 거란은 송에게 평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마다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받아내었다.

4) 김상기, 1989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72쪽.

5) 김위현, 1999 『서희의 외교』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12쪽.

6)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기 전에 이미 983년에 고려에 보낸 원정군을 열병했으며, 985년에는 고려를 침공하려다가 중지한 적이 있다(『遼史』 卷10, 本紀10 聖宗 統和元年 10月; 『遼史』 卷10, 本紀10 聖宗 統和3年 7月 甲辰, 8月 癸酉).

7)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116쪽.

(2) 송의 중원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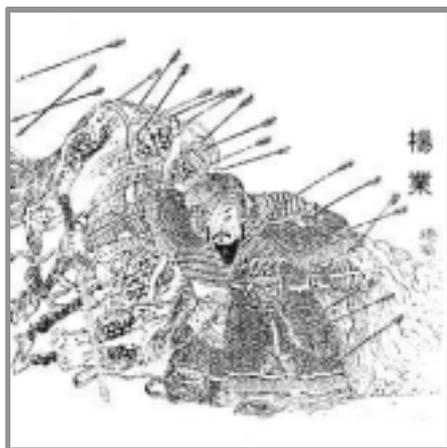
960년 중국 대륙에서는 후주(後周)의 절도사 조광윤(趙光胤:송 태조)이 5대 10국을 마감하고 송나라를 건설하면서 통일 왕조의 시대가 열렸다. 송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을 무렵 송 주변에는 강력하고 적대적인 나라가 포진해 있어서 대외 환경은 불안정하였다. 북쪽의 거란(요)을 비롯해 서쪽과 남쪽 변방에 당항족(서하), 토번



중국 송나라 태조 조광윤

(吐蕃:티벳)이 자리했고, 이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면 송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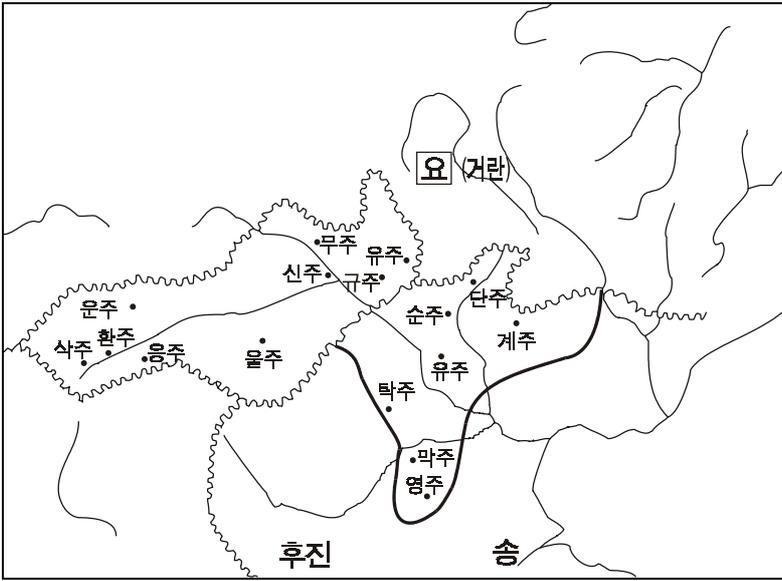
송은 건국 직후부터 두 가지 외교 현안에 직면해있었다. 하나는 연운 16주의 패권을 둘러싼 거란과의 분쟁이며, 또 하나는 당항족과의 무력 충돌이었다. 첫째, 연운 16주란 북경 이북에서 요동반도 사이에 있는 연주(오늘날 북경:幽州)·운주 등 16개 주로서, 936년에 거란이 점령한 상태였다. 만리장성 안에 있는 연운 16주는 송·거란 두



송나라 명장 양엽(楊業) (北漢)

나라의 접경 지역으로, 송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자국의 영토였고 거란 입장에서는 중원으로 향하는 전초기지이므로 두 나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송은 거란의 지배를 받는 자국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송은 건국 직후에 통일 왕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토를 탈환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주변국을 침공하였다. 그



연운 16주

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송나라의 패배였다. 979년 송나라는 거란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을 멸망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거란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986년 송나라는 거란이 여진 정벌을 단행하는 틈을

이용해 다시 대규모 원정에 나섰으나 송 태종이 화살에 맞고 간신히 도망칠 정도로 대패하였다.

둘째, 중국 서북쪽 변방에서 일어난 당항족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를 오가며 중개무역으로 경제 이익을 얻었고 약탈 행위도 일삼았다. 984년 당항족의 추장 이계천(李繼遷)은 송이 종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거란과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때문에 송은 군사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당항족은 10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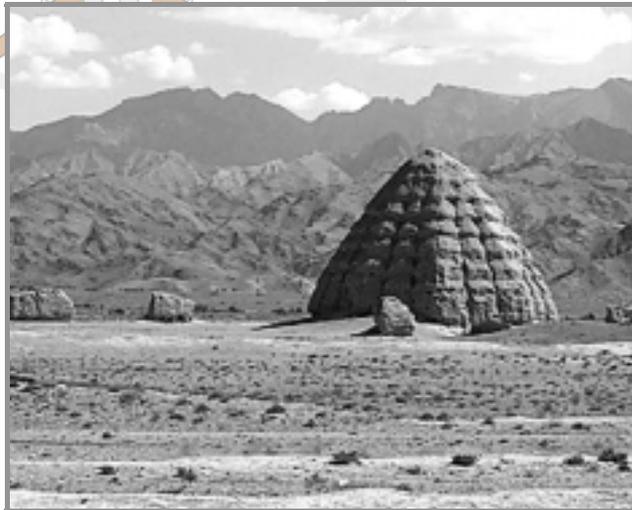


중국 만리장성

에 대하(大夏:서하)를 세워 송으로부터 독립했고 송의 서역 무역로를 위협하였다.⁸⁾

이처럼 송은 공세적으로 벌인 몇 차례 대외 전쟁에서 패배했고, 당항족마저 제압하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 역사상 송은 중국의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문예 부흥이 치성한 시기였다. 이에 비해 군사력은 가장 약체라는 평을 받을 만큼 크게 취약하였다. 그 이유는 송 태조가 당나라 말기에 초래된 혼란이 지방의 군부세력인 절도사가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군벌을 무력화시키는 대신에 문신에 의한 군권 장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⁹⁾

그 결과 송은 군사력 약화를 자초해 몇 차례의 대외 전쟁에서 패배한데다가 거란 침공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송은 앞서 ‘전연의 맹약’에서 보듯이 큰 경제적 손실을 치른 뒤에야 어렵게 불안정한 평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서하의
역대 왕릉

가

8) 특관텐 저, 송기중 역, 앞의 책, 150~152쪽.

9) 박한남, 1995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230~231쪽.

2) 국내 정세

(1) 국가 체제의 정비

고려 왕실은 943년에 태조 왕건이 사망하자마자 권력 장악을 위한 유혈 투쟁에 빠져들었다. 태조 사후 거란(요)이 침공하기 전까지 50여 년 동안 5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태조를 이어 즉위한 혜종은 암살과 쿠데타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재위 2년 만에 사망하였다. 왕권은 왕건의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넘어갔다. 불안정하게 왕위에 오른 정종 역시 재위 3년 만에 병이 들자 스스로 동생 소(昭:광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여 즉위한 국왕이 광종이었다.

광종(재위:949~975)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국가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종은 노비안검법(956년)¹⁰⁾, 관리들의 공복 제정(959년)¹¹⁾ 등 강력한 호족 억압책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광종 이후 고려의 국가 체제 및 문물을 발전 궤도에 올려놓은 국왕은 성종이었다.

성종(재위:981~997)은 이전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쟁을 억제하면서 국가 체제 및 문물을 정비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성종은 국왕이 호족을 대신해 지방을 통치할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전국 12개 대응에 목사(牧使)를 파견하였다. 또 최승로(崔承老, 927~989)로 대표되는 일군의 학자들로 구성된 두뇌 집단을 운용하고, 최승로가 올

10) 奴婢按檢法 : 본래 노비가 아니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판별하여 다시 良人으로 환속시킨 제도. 공신이나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이루던 노비들을 원래 신분으로 환속시킨 이 제도로 인해 공신·호족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김갑동, 1993 「왕권의 확립과정과 호족」 『고려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02쪽).

11) 公服 제정 :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을 위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한 제도. 공복 제정은 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의 서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린 「시무28조」를 기반으로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지향하였다.¹²⁾

성종은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팔관회(八關會)¹³⁾를 폐지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정월에는 원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5묘(廟)를 정해 왕실의 존엄을 높였다. 사회적으로는 효를 선양하고 충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의 효자·절부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그 결과 성종 대에 이르러 고려는 국가 체제 및 문물을 정치하게 만들면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나갔고, 이를 기반으로 거란의 압력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개성 불일사 5층석탑

951

(2) 대외정책

10세기 말 고려의 대외 환경은 북방에 거란(요)이 웅거하고 있고,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 여진이 늘 국경을 교란하고 있었다. 중원을 통일한 송나라는 고려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으나 거란을 위협하는 배후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의 외교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대외 정세는 북방의 거란, 서방의 송과 어떤

12) 『고려사절요』 권2, 성종1년 6월.

13) 팔관회 : 고려시대에 11월 보름에 시행하던 의례 겸 축제. 위령제의 성격을 지닌 불교의 팔관회와 전통적인 축제인 제천의식이 결합한 행사.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향후 전망이 달라지고, 이 못지않게 송과 거란 두 나라 관계도 큰 변수였다.

고려는 송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란을 견제하고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고려가 송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962년(광종13)으로 송이 건국하자마자 사신을 보내 사대관계를 맺었다. 고려가 송에 조공하고 송의 연호를 사용하자, 송은 고려왕을 책봉하였다.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된 외교 형태였다.

고려는 송에 사대했으나 국익을 도외시한 채 송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다. 985년(성종4) 송 태종은 거란을 친정하기에 앞서 사신 한국화(韓國華)를 고려에 파견하여 원병을 요청하였다. 송은 자국이 거란을 공격할 때 고려가 후방 전선을 교란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 무렵 거란이 여진 정벌을 추진하고 정안국을 공격하자 송의 요청을 거절하였다.¹⁴⁾ 송에 원병을 파견함으로써 거란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고려가 거란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요동을 사이에 둔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단순한 국경 접촉이 아니었다. 고려는 북방 영토의 확보와 거란의 남하를 견제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었고, 거란 또한 영토 확장 및 후방 지역의 안전 확보라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거란의 위험성을 후손들에게 거듭 환기시켰다. 태조의 유훈을 받은 후대 왕들은 거란을 적대국으로 간주하여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다.

14) 『고려사』 권2, 세가 성종4년 5월.

여진은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나 고려와 북쪽의 국경 지대를 공유하였다. 그래서 고려는 여진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거란에 대한 견제와 완충지대로서 여진의 협력이 필요한 반면, 북진 개척을 위해서는 이들을 북쪽으로 더 내몰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여진에게 유화책을 쓰는 동시에 여진 거주 지역에 성곽을 축조하고 군대를 파견하면서 여진을 북쪽 변방으로 구축시켜 나갔다.

이처럼 10세기 후반 고려의 대외 정책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었다. 고려는 친송·반거란이라는 대외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거란·송의 군사 대립에 개입하지 않았다. 송·거란·여진 사이에서 고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쪽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절하는 외교정책으로 국익을 확보해나갔다. 고려는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해 대외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실리 외교의 전형을 밝어나갔다.



2. 거란의 침공 준비

1) 거란의 전략

고려는 993년~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 차례에 걸쳐 거란(요)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였다.¹⁵⁾ 고려·거란 전쟁은 10세기 중반 이래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긴장과 갈등의 산물이었

15) 『고려사』를 근거로 검토할 때, 993~1019년 사이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횟수는 총 14회 정도다. 이 횟수에는 큰 전쟁은 물론 국지적인 충돌도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한민족 전쟁통사』(국방군사연구소)에 따라 고려 거란 전쟁을 크게 3차로 구분해 서술하였다. 1차는 993년, 2차는 1010년, 3차는 1018년에 일어난 전쟁이다.



내몽골 지역 벽화에 남아있는 거란인

다. 송의 대외전략은 동북아의 강력한 적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거란의 배후에 자리한 고려와 여진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거란은 중국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송의 고립과 요동 지역의 장악을 노리고 있던 것이다.

거란과 송의 긴장관계에서 촉발된 동북아시아의 전운은 고려가 펼친 송나라 친화 정책과 북진정책이 도화선이 되어 993년에 한반도에서 폭발하였다. 993년에 거란 원정군을 이끌고 온 장수 소손녕(蕭遜寧)¹⁶⁾이 고려 침공의 이유에 대해 첫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그런데 왜 우리 영토인 고구려 옛 땅을 침범하는가?” 둘째, “고려는 거란과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과 교류한

다.”¹⁷⁾는 두 가지 사항 즉 친송(親宋)과 북진정책을 지적했듯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거란 입장에서 고려는 그다지 협조적인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거란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원정 형태는 황제 친정(親征), 도통(都統)이 이끄는 원정,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¹⁸⁾ 이 가운데 도통이 이끄는 원정대는 15만 명 이상으로

16) 소손녕은 거란 황제의 부마이자 동경(요양) 유수로서 이름은 恒德이었다. ‘손녕’은 字다.

17) 『고려사절요』 권2, 성종12년 10월.

18) 『遼史』 卷34, 志4 兵衛志 上 兵制.

구성되었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는 원정은 6만 정도로 원정군을 편성하였다.¹⁹⁾ 특히 도통이 임명되지 않은 원정은 편성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적국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곽을 공격하지 않는 등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이 원정군은 장기전보다는 단기간에 군사 목표를 달성한 후 귀환하는 임무를 띠었다.

제1차 전쟁시 거란의 총사령관 소손녕은 도통이 아니었으므로 소손녕이 이끄는 원정군은 도통을 임명하지 않는 원정에 속하였다. 993년 당시 소손녕은 고려에게 80만 대군이 왔다고 공언했으나 원정 형태로 유추해볼 때 최대 6만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²⁰⁾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 편성한 원정 형태와 군사 규모는 거란의 전략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앞서 보았듯이 고려의 친송 정책이었다. 소손녕은 고려 침략 후 강화회담에서 서희가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해 거기에 성과 보(堡)를 쌓고(거란과) 길을 통한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열지 않겠는가?”하고 제의하자, 즉시 이를 황제에게 보고한 후 고려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철군을 결정하였다.²¹⁾ 그리고 동맹 기념으로 서희에게 잔치를 베풀고 낙타·말·양·비단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²²⁾

소손녕의 주장대로 80만을 이끌고 온 장수의 행동으로 보기에 얼핏 이해되지 않는다. 소손녕은 고려를 무장 해제시키기는커녕 고려에게 북안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280리에 성곽을 쌓게 하고 거기에다 고맙다고 예물까지 준 것이다. 더구나 거란이 고려에게 정보를 쌓도록 승인한 압록강 지역은 984년에 고려에서 성을 쌓으

19)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79~80쪽.

20) 안주섭, 위의 책, 101~102쪽.

21) 『고려사절요』 권2, 성종12년 10월.

22) 『고려사』 권94, 열전 徐熙.



거란인이 말을 끄는 모습 (『 』)

려다가 여진의 방해 때문에 실패한 곳이 었다.

군사 전략의 목적 은 힘에 의해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는 것 이다.²³⁾ 거란의 군사 전략은 이런 측면에 서 표면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공세 전략

을 띠었다. 하지만 전략 목표는 고려와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단기간에 고려를 위협해 송과 외교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원정 에 착수한 것이다.

이 점은 거란이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군을 파견하고, 초반 에 봉산군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처럼 전 진하지 않고 공격을 멈춘 채 고려에 항복을 요구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거란은 고려 원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것은 고 려와 송의 관계 단절, 그리고 거란과 고려의 통교 재개였다. 그 후 거란은 999년에 송에 대한 정벌을 단행해 큰 성과를 거두고 그 여 세를 몰아 1004년에 다시 큰 공세를 펼쳤다. 이 몇 년간의 전쟁에서 거란이 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바로 앞 절에서 언급한 ‘전연의 맹 약’이다.

23) 이종학, 1983 『현대전략론』 (중판), 박영사, 142쪽.

2) 거란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10세기 초 거란은 거대해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스텝 민족의 전통 위에 중국 제도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에 비해 군사 조직만은 거란의 전통을 뚜렷하게 유지하면서 정비하였다.

거란군의 병종에는 어장친군(御帳親軍)과 궁위기군(宮衛騎軍), 대수령부족군(大首領部族軍)과 중부족군(衆部族軍), 향정(鄉丁), 속국군(屬國軍)이 있었다.²⁴⁾ 이 가운데 주력군은 어장친군, 궁위기군, 대수령부족군, 중부족군이었다.

어장친군은 최고 정예군으로 구성된 황제 및 황실의 친위 부대로 총 50만 기병이었다.²⁵⁾ 궁위기군은 황제 호위 부대로 평소에는 황궁이나 황제의 거처를 수비하다가 황제가 외부로 나가면 호위하였다. 이들은 최고 대우를 받는 정예부대로서 약 51만 명이 소속되었다. 궁위기군은 유사시 소집 명령을 받으면 주현이나 부족의 편성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10만 기병을 형성하였다.²⁶⁾



거란인 출행도

24) 『遼史』 卷35, 志5 兵衛志 中 ; 『遼史』 卷36, 志6 兵衛志 下.

25) 『遼史』 卷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송사』에는 어장친군의 규모가 5만으로 기록되어 있어 『요사』와 차이를 보인다.

26) 안주섭은 궁위기군 가운데 出騎軍을 正軍에서 선발한 騎軍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出騎軍 자체를 하나의 병종으로 파악하였다.

대수령부족군은 친왕과 대신이 거느린 부대로 사병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들은 황제가 친정할 때에 수 천 기(騎) 내지 수백 인 단위로 참전하였다. 또 유사시에는 자기 부족에서 3천~5천기를 징발했는데, 이는 거란의 부족 연합적인 성격을 잘 반영한다. 중부족군은 대수령부족보다 한 단계 낮은 부족을 단위로 한 군대로서 국경 수비를 담당하였다. 병력은 미상이다.²⁷⁾

향정은 상경(上京:황도)·동경(東京)·남경(南京)·서경(西京)·중경(中京)의 오정에 배치되어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거란족을 비롯해 여러 이 민족으로 구성되었는데 한인(漢人)과 발해 유민이 주축을 이루었고, 총 110만 7천3백 명에 달하였다.

속국군은 거란에 복속된 주변 국가나 민족들로부터 징발한 군사들로서 『요사』에 의하면 59개의 속국이 있었다. 군사 편제상 속국들은 유사시 거란의 군사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대를 징발해 지원해야 했다.²⁸⁾ 그런데 속국 명부에 고려도 들어있어 실제로 속국군이 편성되었는지 의문시된다.

<표4> 거란 요나라의 군제

구분	병종		병력수/명	합계/명
금군	어장 친군	피실군	기병 300,000	500,000
		속산군	기병 200,000	
	궁위기군		보병 408,000 기병 101,000	509,000
부족군	대수령부족군			
	중부족군			
향군	향정	상경 임황부	167,200	1,107,300
		동경 요양부	41,400	
		남경 석진부	566,000	
		서경 대동부	322,700	
		중경 대정부	10,000	

(자료 : 『요사』 권35, 지5, 병위지)

27) 『遼史』 卷35, 志5 兵衛志 中, 大首領部族軍·衆部族軍.

28) 『遼史』 卷36, 志6 兵衛志 下, 屬國軍.

(2) 무기와 전술

거란(요)에서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성은 병적(兵籍)에 편입되어 국가의 전사(戰士)로 살았다.²⁹⁾ 거란의 군대는 정군(正軍)과 가정(家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군은 전투를 담당하는 정식 군사이며, 가정은 노예나 부곡(部曲)으로 조직된 부대였다.



정군은 1명당 말 3필을 끌고 참전하였다. 이 점은 서양 중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마리의 말로 무겁게 무장한 채 원거리 행군을 하고, 곧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없으므로 전투

거란군 ()

예비용 말은 필수적이었다.³⁰⁾ 그리고 정군 1명당 보급을 담당하는 타초곡가정(打草穀家丁) 1명, 온갖 잡역을 수행하는 수영포가정(守營鋪家丁) 1명이 배정되었다.

거란군은 원칙적으로 정군 스스로 식량과 말먹이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경제 여건 및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량을 휴대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타초곡가정의 보급으로 충당하였다.

정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도 대부분 스스로 마련하였다. 정군은 기본적으로 철갑 9벌, 말의 안장·고삐·마갑 등을 준비했고, 기본 무기로 활 4개, 화살 4백발, 장창·단창, 철퇴, 도끼, 작은 깃발, 철퇴(鎚錐), 화도석(火刀石) 등을 구비하였다.³¹⁾ 이 가운데 거란

29) 高銳, 1993 『中國軍事史略』 中冊, 181쪽.

30)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한울아카데미, 151쪽. 거란군은 낙타를 이용해 군수 물자를 옮겼으며 羊도 가져와 식량으로 썼던 것 같다.



거란인들이 사용한 화살촉

기병의 주무기는 활과 화살로서, 거란 기병은 고삐를 잡지 않고 말을 달리면서 360도 사방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었다.³²⁾

거란군의 편제는 정군 5백~7백 명이 모여 거란군의 기본 단위 편제인 대(隊)를 구성하였다. 10대는

1도(道)가 되고, 10도는 다시 1로(路)가 되었다. 따라서 1로는 5만~7만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타초곡가정과 수영포가정을 합치면 1로는 총 15만~21만 정도가 되었다.

거란군은 전투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통 3개 로(路)를 편성하여 진군하였다. 각 로의 중심 부대는 호가군(護駕軍)이었다. 호가군은 대략 잘 훈련된 중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3~5만 명의 본대가 대장을 호위하며 진군하였다. 호가군 앞에는 정예기병인 약 3천명의 선봉군이 앞장섰다. 선봉군의 앞이나 좌우측에는 20여리 정도의 간격을 두고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원탐난자군(遠探攔子軍)이라는 수색대가 정찰 활동을 수행하면서 행군로의 상황을 파악하는 임무를 띠었다.³³⁾

거란군의 기본 전술은 기병 부대를 주축으로 한 강한 돌파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5천~7천으로 구성된 각 도(道)를 단위로 하여 적에 대한 파상공격을 반복하는 전법이 있었다. 이는 1도를 이루는 10개의 대가 밀집 횡대로 돌격 대형을 구성한 후 전투가 시작되면 먼저 1대가 공격하고, 만약 전황이 유리하면 나머지 대들도 연이어 공격하지만 돌파가 여의치 않으면 제1대는

31) 『遼史』 卷34, 志4 兵衛志 上.

32) 임용한, 2004 『전쟁과 역사(2)-거란·여진과의 전쟁』, 혜안, 56~57쪽.

33) 『遼史』 卷34, 志4 兵衛志 上 兵制.

후퇴하고 다음 부대가 이어서 돌격하는 형태였다.³⁴⁾ 그래서 거란군들은 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돌격 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말을 타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돌진해야 할 시기에 비로소 말에 올라타 빠른 속도로 돌격해 과장적인 공세를 폈다.³⁵⁾



거란인 환렵도

거란군은 기만전술도 적극 구사하였다. 만약 바람이 상대방 쪽으로 불고 있으면 타초곡가정들을 동원해 돌격에 투입되지 않은 말에 빗자루 2개를 달아 먼저 적진으로 투입하였다.³⁶⁾ 자욱한 먼지는 상대 적군의 시야를 가려 거란의 병력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고, 상대 수비대의 원거리 무기로부터 돌격부대를 보호해주었다.

또 당나라 멸망 이후에 거란군은 북중국의 성곽 도시들을 공격하면서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기병과 보병을 혼합시키는 용병법도 개발하였다.³⁷⁾ 기병대가 공격하기 쉽지 않은 요새, 늪지, 하천, 운하 등의 조건에서 일부 기병들은 외곽에서 궁시로 공격했고 그 사이에 대부분 병사들은 말에서 내려 보병으로 전환해 성곽을 공격하였다. 그럼에도 거란의 공성전술은 아직까지 취약하여 고려의 북계 요새를 만났을 때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34) 『遼史』 卷34, 志4 兵衛志 上 兵制.

35) 유재성, 1990 『麗遼戰爭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43쪽.

36) 『遼史』 卷34, 志4 兵衛志 上 兵制.

37) 룩 환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60쪽.

3. 고려의 대응 태세

1) 고려의 전략

고려는 993년~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회 정도 거란(요)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고려는 거란에게 무수한 침공을 당했으나 전쟁이 종결되자 국제적 위상은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있었다.

송나라조차 “고려가 거란을 섬기고 있지만 거란이 고려를 두려워한다.”³⁸⁾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는 고려가 거란의 침공에 대해 소극적 방어로 일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한 결과였다. 따라서 거란이 도발한 27년간의 전쟁은 거란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줄곧 자국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 정세에 촉각을 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고려는 936년(태조19) 후삼국통일 이후 거란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한 결과 942년에 외교 단절을 선언하였다. 또 947년(정종2)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광군 30만을 조직하고, 여진으로부터 기마 700필을 수입해 기병 전력을 증강시킨 것도³⁹⁾ 국제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보 수집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거점지역인 진(鎭)을 설치하고 성곽 등 군사 요새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서북방 일대에는 전쟁 이전에 50여 개소에 이르는 성이 신축 또는 개축되어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청천강을 연하여

38) 강은정, 2002 「12세기초 고려의 여진정벌과 대외관계의 변화」 『북약사론』 9, 국민대, 155~156쪽.

39) 유재성, 1990 『여요전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23쪽 ; 『고려사』 권2, 세가 정종3년 9월.

개주성과 안용진성이 버티고 있었으며, 청천강 이북지역에는 대령강을 연해 태주성과 박주성이, 구룡강을 연하여 영변성과 운산성이 포진해 있었다. 또 서부 해안의 교통로에는 박주성과 가주성이 안북부에 이르는 중심을 유지하였다.⁴⁰⁾

<표5> 고려-거란 전쟁 이전의 축성 상황

연도	축성 위치
947 (정종2)	덕창진(박천), 철용진(영흥), 통덕진(숙천) 덕성진(영변), 박주(박천)
950 (광종1)	장창진(영변), 위화진(운산)
951 (광종2)	무주(영변)
952 (광종3)	안삭진(운산)
960 (광종11)	습홀(가산), 송성(박천)
967 (광종18)	낙릉군
968 (광종19)	위화진(운산)
969 (광종20)	영삭진(태천), 태주
970 (광종21)	안삭진(영변)
972 (광종23)	운주
973 (광종24)	신도(박천), 가주(운천), 안용진(안주)
979 (경종4)	청새진(희천)
983 (성종2)	수덕진(양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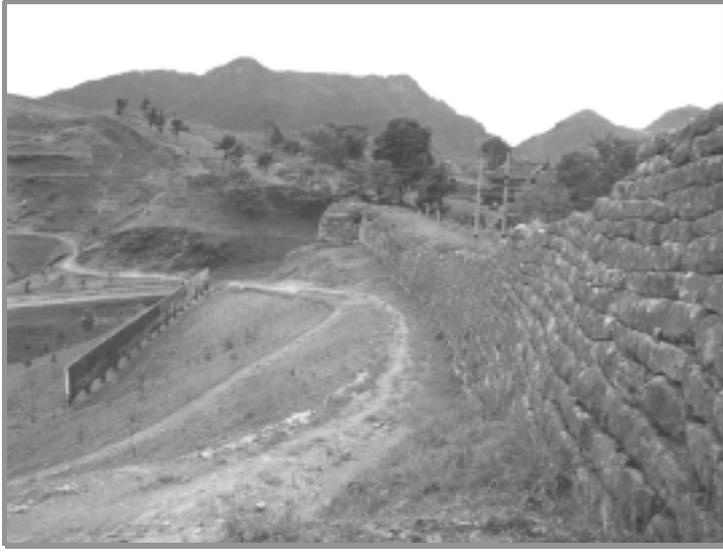
(자료 : 『고려사』 권82, 지36 병2 진수, 성보)

10세기 말 요동지역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져 가자 성종은 990년(성종9) 9월에 고려 전역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서도 유수 관 및 주요 요충지의 주현과 여러 진의 장수들은 함부로 그 임소를 떠나지 말라.”고 명하였다.⁴¹⁾ 또 같은 해 10월에 성종은 좌·우군영(左右軍營)을 설치해 군사력을 강화하고,⁴²⁾ 991년에는 압록강 연안의

40)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91쪽.

41) 『고려사』 권3, 세가 성종9년 9월 ; 『고려사절요』 권2, 성종9년 9월.

42) 『고려사절요』 권2, 성종9년 10월. 오늘날 좌·우군영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6위에 소속된 좌우위의 모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기백, 1968 「고려 경군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65쪽)



철옹성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⁴³⁾

이처럼 고려는 거란과 외교 단절 이후 50여년 동안 준비해온 북방태세를 토대로 거란이 침공했을 때마다 수세전략으로 대처하였다. 고려군의 기본 방어 형태는 북방 양계에 주둔한

주진군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라온 중앙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곧 서북계 요진에서 수성전을 펼쳐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규모 중앙군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고려 내륙으로 침입한 적은 전후방에서 고려군의 협공을 받아 번번이 무너졌다.

요컨대, 고려는 성곽을 요새 및 배후기지로 활용해 거란의 공세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고려군이 최후 순간에 승리할 수 있던 요인은 성 요새를 근거지로 한 농성전이었다. 『요사』에는 “항복한 고려의 여러 성들이 다시 배반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⁴⁴⁾

소적열도 성종이 고려 침공을 선언하자 “고려의 성벽은 완고하여 이겨도 위엄스럽지 못하고, 만약 실패하면 후회를 남길까 두렵습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⁴⁵⁾ 곧 고려 성곽이 견고하여 이긴다하더

43) 『고려사』 권3, 성종10년 10월.

44) 『遼史』 卷15, 本紀15 聖宗6 統和29年 正月 乙亥朔.

45) 『遼史』 卷88, 列傳 蕭敵烈.

라도 대승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고려는 거란군이 회군할 때 마다 공세적으로 거란의 기동을 방해하면서 집요한 반격을 가했다. 고려군은 익숙한 지형의 이점을 적극 이용해 거란군의 움직임에 따라 기동성 있게 전투력을 운용했고, 거란군의 후미에서 반복되는 집중 공격을 통해 적에게 연속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집요한 추적을 펼치면서 지친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려의 전력은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에서는 국왕을 비롯해 군·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할만한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1010년(현종1) 11월에 거란의 선전포고를 받은 고려 현종은 놀랍게도 팔관회를 개최하였다.⁴⁶⁾

팔관회는 11월 보름에 시행하는 의례 겸 축제로서 위령제의 성격을 지닌 불교의 팔관계와 전통적인 축제인 제천의식이 결합한 행사였다. 현종은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 축제를 통해 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일된 정신력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곧, 전쟁을 앞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팔관회를 개최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국왕의 의지를 천명하고, 자연스럽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분전을 유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려는 거란군의 정면 공격에 맞서 소극적 방어가 아닌 배면을 공격해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전쟁 초기에 수세적으로 맞선 고려는 성곽을 거점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공세 작전으로 전환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때마다 거란군은 번번이 퇴로를 차단당한 채 많은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46)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1월. 고려시대 팔관회는 親宋정책을 쓴 성종이 잡기라 하여 중단했다가 최항의 건의로 현종 대에 다시 부활되어 개최되었다.

2) 고려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중앙군-2군 6위 고려 건국 직후 중앙군의 편성에 관해 알려주는 기록은 찾기 쉽지 않다. 다만 태조가 후백제와 일리천(一利川)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 동원한 부대 편성을 통해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⁴⁷⁾ 태조는 고려군의 전투 대형을 중군(中軍)·좌강(左綱)·우강(右綱)의 3군과 원병으로 편성하였다. 병력 수는 3군이 7만2천5백 명, 원병이 1만5천 명으로 총 8만7천5백 명이였다.⁴⁸⁾

이러한 건국 초기 중앙군이 근간이 되어서 중앙군 2군 6위가 편성되었다. 중앙군이 재편성되면서 편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력을 형성하던 기병의 비중을 낮추고 임무도 재조정되었다. 이는 오래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나타난 변화였다.⁴⁹⁾

2군은 왕의 의장과 경호 및 궁성 숙위를 담당하는 친위군으로, 현종 대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2군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 구성되었고 병력은 총 3천 명이였다. 6위는 전투 및 수도 개경의 치안과 경비를 맡은 부대로서 995년(성종14) 무렵에 성립되었다.

6위는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주력은 좌우·신호·흥위의 3위로서, 평상시 수도 개경을 지키다가 3년에 한번씩 6개월 동안 국경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군으로

47) 이기백, 1968 「고려 京軍考」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50~51쪽.

48)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9년 9월.

49) 홍승기, 2001 「고려초기 중앙군의 조직과 역할-경군의 성격-」 『고려정치사연구』, 일조각, 190쪽.

50) 이기백, 1968 「고려 2군·6위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79~ 81쪽.

편성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⁵¹⁾ 금오위는 수도 치안을 담당한 경찰 부대, 천우위는 국왕 의장부대, 감문위는 궁성 내외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다.

2군 6위의 편제는 25명으로 편성된 대(隊), 50명으로 이루어진 오(伍)⁵²⁾, 2백 명으로 조직된 □⁵³⁾, 1천 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령(領)’으로 구성되었다. 영은 병종에 따라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常領)·해령(海領)·감문위령(監門衛領) 등으로 구분되며, 총 45령이 있었다.

2군 6위에는 각각 정·부 지휘관으로 상장군(정3품)과 대장군(종3품)이 있다. 따라서 정3품인 상장군이 무관의 최고위직이었다.⁵⁴⁾ 상장군과 대장군은 합의기구인 중방이 있어 문신들의 도당과 대비되었다. 이밖에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도 계급 고하에 따라 합의기구가 있어 군사전략이나 부대 운용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⁵⁵⁾

<표6> 고려시대 중앙군 2군 6위

명칭	병종	편 제	병력수/명
2군	응양군	1령	1,000
	용호군	2령	2,000
6위	좌우위	보승 10령, 정용 3령	13,000
	신호위	보승 5령, 정용 2령	7,000
	홍위위	보승 7령, 정용 5령	12,000
	금오위	정용 6령, 역령 1령	7,000
	천우위	상령 1령, 해령 1령	2,000
	감문위	1령	1,000
계		45령	45,000

(자료 : 『고려사』 권81, 지35 병1 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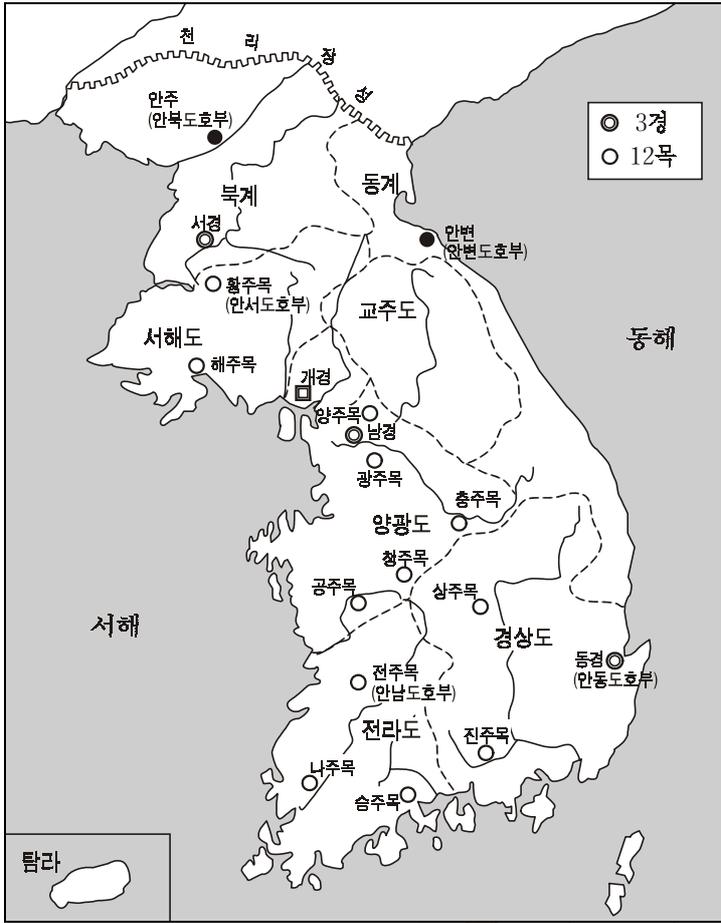
51) 홍승기, 2001, 앞의 논문, 230~239쪽.

52) 조선시대 오위제나 오군영제에서는 ‘오(伍)’가 최소 단위였다.

53) 오늘날 여기에 해당하는 명칭이 알려져 있지 않다.

54)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서반 용호군.

55) 유재성, 앞의 책, 30~31쪽.



고려의 5도 양계

지방군 고려의 지방 제도는 5도·양계·경기라는 3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5도는 주로 대동강 이남의 지역으로 교주도(강릉도 또는 春州道)·양광도(충청도)·서해도·경상도·전라도로 구성되었다.

양계는 국경의 군사 지역으로 동계(東界:함경도)와 북계(北界:평안도)로 나뉜다. 그리고 국왕이 거주하는 개경의 주변 10여 개의 군현을 묶어 경기로 삼았다. 고려의

지방군은 이러한 지방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7> 고려시대 지방군

명 칭		병 중	병력수/명
주현군		보승군	8,601
		정용군	19,754
		1 품군	19,882
		2 품군	기록 없음
		3 품군	
주진군	북계	초군, 좌군, 우군, 보창	4만 명 내외
		신기, 보반 / 백정	2,000 / 약 61,000
	동계	초군·좌군·우군·영세군	11,500
		공장, 전장, 투화, 생천군, 사공	기록 없음

(자료 : 『고려사』 권81, 지35 병1 병제)

고려 지방군은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鎭軍)이 있었다. 주현군은 5도 및 경기에 배치된 부대다. 주현군은 지방행정체도가 정비되는 1018년(현종9) 무렵에 완비되었다.⁵⁶⁾ 병력은 보승군 8천6백1명, 정용군 1만9천7백5십4명, 일품군 1만9천8백8십2명으로 총 4만8천2백3십7명이다. 이 중 보승군·정용군이 핵심 부대이며, 1년 교대로 양계의 수비도 담당하였다. 반면에 일품군은 각종 공역에 동원되는 노동부대였다. 이밖에 주현군 소속으로 이품군·삼품군이 있는데 일품군처럼 노동부대로 짐작된다.



복원된 고려시대 갑옷 ()

한반도의 북부 지역은 북방 민족과 접경지역으로 늘 적침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미 태조 대에 이 지역에 중앙에서 개정군(開定軍)이 파견된 적이 있다.⁵⁷⁾ 이후 고려는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 요충지인 양계에 주진군을 배치하였다.

북계 주진군에는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보창(保昌) 등 4만 명 내외가 배치되었다. 이 밖에 위급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으로 2천 명 내외의 신기(神騎)·보반(步班) 및 백정 6만1천 명 정도가 있었다.

동계 주진군은 초군·좌군·우군·영새군 등 1만1천5백 명 내외이며, 공장·전장·투화·생천군·사공 등 특수 군인들도 있었다. 동계에는 신기·보반·백정이 빠져있는데 기록 누락으로 본다면 총 병력수

56) 홍원기, 2001 『고려전기군제연구』, 해안, 121쪽.

57) 현재 개정군은 태조 대에 東界(함경도)·北界(평안도)의 방비, 또는 후백제와의 국경지대 수비라는 특수 목적을 갖고 파견된 중앙군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기백, 1968 「고려 경군 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52쪽).

를 1만7천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⁵⁸⁾

따라서 양계 주진군은 대략 12~14만여 명이 편제되었고,⁵⁹⁾ 북계 병력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북계가 더 중시되었다. 주진군을 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농민이며, 여기에 사민정책으로 들어온 이주민이나 귀화한 여진인도 있었다.

양계에는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진군 이외에 방수군이 더 배치되었다. 방수군은 경군이나 주현군 가운데 차출된 부대로서, 동원 단위는 경군이 1명이며 주현군은 군현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고려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편제상의 병력 수를 산술적으로 뽑아보면, 2군 6위의 병력 4만5천 명, 주진군 14만 명, 주현군 4만8천 명에 947년(정종2)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광군(光軍) 30만⁶⁰⁾까지 합하면 대략 54만 명에 달한다.

(2) 무기와 전술

고려시대 남성들은 16세부터 59세까지 병역 의무를 졌다. 1123년(인종1) 중국 송나라 사절단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방문했을 때, 송나라 사신들을 맞이한 고려의 기병과 보병들은 활·화살, 칼, 창과 극(戟) 등으로 무장하였다. 특히 고려인들은 높이가 2척이나 되는 모자를 써서 위용 있는 모습을 만들었다고 한다.⁶¹⁾

고려군의 주무기는 활이었다. 고려의 활은 단궁(1m안팎)으로 사정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우수하였다.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장수나

58) 이기백, 1968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59) 이기백, 위의 논문, 252쪽. 이기백교수는 총 142,372명으로 보았다.

60) 『고려사』 권81, 지35 병제 정종2년. 당시 국내 정황을 고려할 때 광군은 중앙의 지휘를 직접 받는 부대라기보다는 호족 휘하에 있는 병력을 근간으로 편성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광군 30만이란 유사시에 호족을 매개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포함한 규모다.

61) 徐兢, 『高麗圖經』 卷11·卷12, 仗衛一·二.

의장병들이 허리띠로 무소뿔로 만든 장식을 달았다고 하므로 고려에서 무소뿔이 활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무소뿔로 만든 활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므로 고려군의 활의 위력도 그만큼 대단했다고 여겨진다.

고려군의 병종을 보면 경궁(梗弓)·정노(精弩)·강노(剛弩)·사궁(射弓)⁶²⁾ 등 활이나 노(弩)와 관련된 군사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병종에서 궁노의 비중이 높았다. 기병술에 능한 북방 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고려군은 당나라가 북방민족과 싸우기 위해 고안한 전술을 수용해 궁수와 노수를 증가시켰다.



『삼재도회』에 묘사된 고려남성

이 점은 거란 전쟁이 끝난 후 고려에서 노의 개량 및 노수의 양성과 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⁶³⁾

고려의 기본 전술은 전통적인 성곽 요새 방어였다. 한반도의 지형은 산지가 많고 길이 좁아 기동로가 제한적이였다. 그래서 성곽은 대부분 돌로 쌓은 산성이며 평지에 있는 성도 배후의 산에 산성을 건설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성곽은 순수한 방어목적으로 활용



녹도



각궁

62) 『고려사』 권81, 志35 兵1 軍制 別號諸班.

63) 임용한, 2004 『전쟁과 역사(2)-거란·여진과의 전쟁』, 혜안, 82쪽.

되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백성의 피난처이자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사들의 최선의 방어책이었다. 성들은 대부분 고지 위에 축성되므로 적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적의 포위 전술에 장시간 대처하기 위해 성 내부에 추가적인 시설을 발전시켰다. 군량 창고는 물론 성곽 시설을 발전시켜 성두(城頭:城上)나 차성(遮城:이중 성벽이나 옹성), 겹성, 여장(女牆:성가퀴) 등을 마련하였다.

국경지대에 쌓은 산성들은 적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원정은 적군의 보급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적의 주력을 붙잡아 두고 그동안 중앙에서는 전국의 병력을 소집해 반격군을 편성, 적을 격파하는 것이 고려군의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었다. 그러므로 고려군이 방어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국경 요새의 주진군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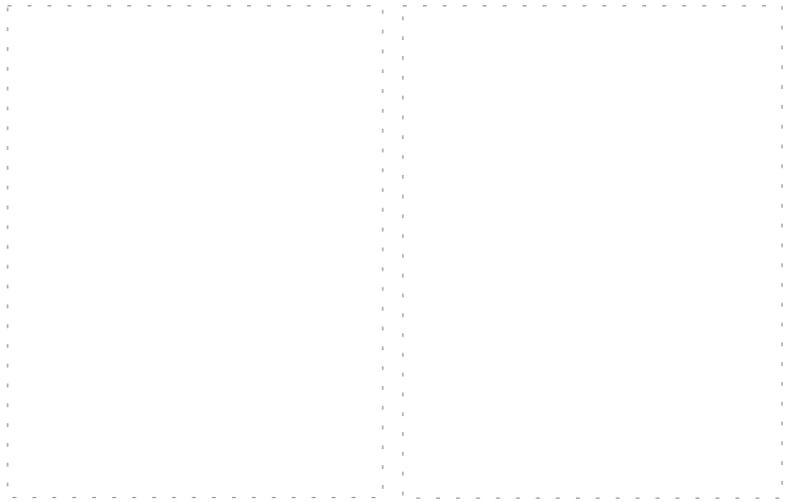


발석차

실제로 거란 전쟁에서 고려군의 탁월한 요새 방어는 거란 기병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에 큰 성공을 거둔 동시에, 거란군이 후퇴할 때에 반격전을 전개하는 거점이 되었다.

고려에서 사용한 성곽용 무기는 노(弩)·석포(石砲)·검차(劍車) 등이었다. 노는 활의 일종으로 궁(弓)보다 정확하고 강력해 원거리 사격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성에 접근하는 적을 멀리서부터 제압하기에 매우 유용하였다. 이 때문에 서북방의 주요 성곽에는 노를 다루는 노대(弩隊)를 다수 배치하였다.

석포는 돌을 날리는 기구로서 성에 고정시켜 놓고 수십 근 무게가 나가는 돌을 장착해 날려 성에 접근하는 적군에게 피해를 입혔다. 검차는 수레에 많은 칼을 장착해 공격하는 무기로 거란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로 성 밖으로 출병해 적의 기병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석포



4. 고려와 거란 전쟁

1) 제1차 전쟁

(1) 봉산전투와 거란의 항복요구

봉산 전투 993년(성종12) 5월에 여진은 거란(요)이 고려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전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여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다.⁶⁴⁾ 3개월 뒤인 993년 8월에 여진은 거란군이 이미 고려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다시 알려왔다.⁶⁵⁾

64) 『고려사』 권3, 세가 성종12년 5월.

65) 『고려사』 권3, 세가 성종12년 8월.



거란의 1차 침입도 (『고려사』)

이때서야 비로소 고려는 여진의 첩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다.

고려 성종은 거란의 침공이 확실해지자 먼저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를 파견해 군사들을 소집시켰다.⁶⁶⁾ 병마제정사의 임무는 정확하지 않으나 각도의 군사와 군기를 점검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무를 띤 관리로 파악된

다. 이어 성종은 10월에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로, 서희(徐熙)를 중군사로, 최량(崔亮)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로 급파하였다. 평상시 북계에는 주진군이 4만 명 내외로 배치되었고, 여기에 백정대 6만 1천 명 정도가 있었다.

여진의 첩보에 따르면 993년 8월에 동경 요양부를 출발한 거란군이 압록강 하류 북안에 당도한 시기는 10월이었다. 실제로 소손녕이 이끈 부대는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평안북도 귀주-봉산 근처까지 진출하였다.⁶⁷⁾ 첫 침공이기 때문에 지리도 잘 모르고 그만큼 신중하게

66) 상동

67) 『고려사』에는 윤10월로 나옴.

움직였다고 보인다.

1차 전쟁에서 거란군이 압록강을 도하하여 첫 전투를 벌인 곳은 귀주 동남쪽 15리(약 6km)에 위치한 봉산성이었다. 봉산성은 귀주에서 정주에 이르는 길과 귀주에서 태주·박주에 이르는 교통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⁶⁸⁾

거란군이 봉산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윤서안(尹庶顔) 등이 지휘하는 선봉군이 투입되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거란의 기습 공격으로 선봉장 윤서안이 사로잡히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성종은 계획된 안북부 방문을 취소하고 서경으로 되돌아갔으며 중군사 서희를 긴급 투입하였다.⁶⁹⁾

봉산성을 점령한 거란군은 고려의 북계 여러 진에 배치된 고려군의 위협적인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였다. 그리고 서희의 주력 부대가 전면으로 진출해오자 남진을 멈추고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고려에 항복을 종용하였다.⁷⁰⁾

안용진 전투 거란 장수 소손녕은 봉산군 전투 이후에 고려가 즉각 항복에 응하지 않자 다시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다. 993년 10월 경 소손녕은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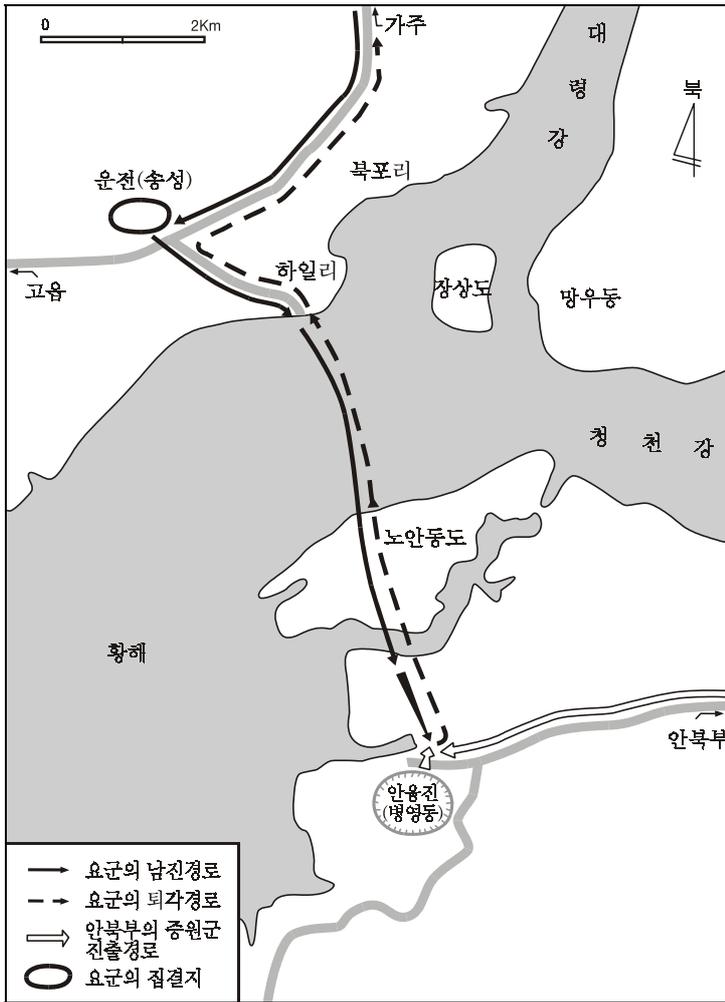
안북부 서쪽 65리(약 26km) 지점의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안용진은 귀주 일대에서 태주와 박주를 경유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도하로 청천강 남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안북부를 측면에서 위협할 수 있는 통로였다.⁷¹⁾ 이 때문에 고려는 청천강 방어선 구축의 일환으로 도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미 광종 대에 안용진에 성을 구

68)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98쪽.

69) 『고려사』 권3, 세가 성종12년 윤10월 정해.

70) 유재성, 1990 『여요전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65쪽.

71) 안주섭, 앞의 책, 102쪽.



안용진 전투 상황

축해놓았다.

안용진에서 거란군을 맞이해 싸운 장수는 중낭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方)이었다.⁷²⁾ 당시 군사 규모는 잘 알 수 없으나 고려의 군편제상 중낭장은 1천 명으로 구성된 1개 영의 부지휘관이 었다. 1영에는 장군 1명, 중낭장 2명이 배치되므로 중낭장 1인이 이끌 수 있는 부대 규모는 5백 명 정도였다.

거란군이 안용진을 공격한 것은 조기에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청천강을 도하, 가주-운주-안용진을

거쳐 고려군 총사령부가 있는 안북부를 공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⁷³⁾ 거란군의 공격을 받은 대도수와 유방은 성안의 군민들을 이끌고 일제히 강안으로 출진해 기습 공격으로 거란군의 전열을 교란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가해 기선을 제압하였다. 예상치 못한 고려군의 공세에 크게 당황한 거란군은 봉산성으로 퇴각하였다.⁷⁴⁾ 안용진 전

72) 『고려사절요』 권2, 성종12년 10월.
 73) 안주섭, 앞의 책, 102쪽.
 74) 유재성, 앞의 책, 69쪽.

투를 승리로 이끈 대도수는 934년(태조17)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투항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의 아들이다.

거란군은 고려군이 청천강 방어선을 고수하자 남진을 중단하고 다시 화의 교섭을 서둘렀다. 거란 원정군은 도통이 임명되지 않은 부대로서 전술상 적국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타격을 가한 후 철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철수시기를 지연하면 할수록 생존해서 본국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므로 거란군은 강화 교섭을 타결짓기 위해 다시 고려에게 화의를 종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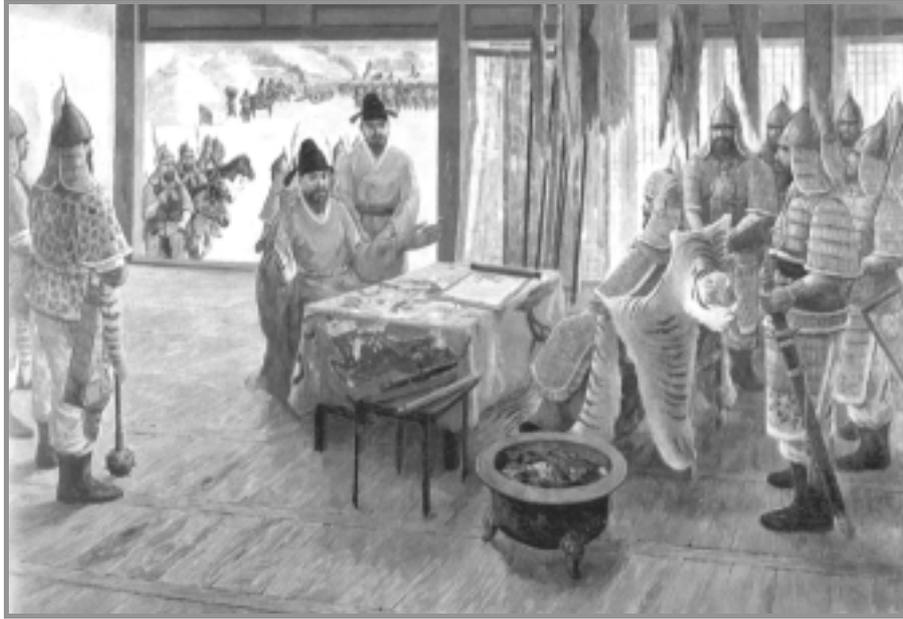
(2) 고려의 '강동6주' 확보

거란(요)은 봉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고려에 항복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몽전을 파견해 강화 교섭을 시도했으나 소손녕은 고려의 항복만을 촉구하였다. 거란의 의중을 전달받은 고려 조정은 이 문제를 놓고 크게 두 의견으로 갈리었다.

첫째, “임금께서 서울의 대궐로 돌아가서 중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애걸하는 것입니다.”, 즉 거란에게 항복하고 화친하자는 의견이었다. 둘째,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황주에서 절령(황해도 서흥군 자비령)까지 국경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⁷⁵⁾, 즉 ‘영토할양’으로서 국초부터 북방전진기지로 개척해 온 평양은 물론 북방 지역을 포기하자는 의견이었다.

성종이 영토를 할양하자는 주장을 따르려고 하자, 서희는 “거란의 동경에서 우리나라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점거했다가 광종이 이를 차지해 가주·송성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75) 『고려사절요』 권2, 성종12년 10월.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하는 모습을 담은 기록화

지금 거란이 온 의도는 이 두 성을 빼앗으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거란군 기세가 강성한 것을 보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다.⁷⁶⁾

이어 서희는 거란에게 대동강 이북 땅을 떼어주면 그들이 또 삼각산 이북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영토를 요구하리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성종은 서희의 설득으로 조건부 강화로 방침을 바꾸고 서희를 파견해 소손녕과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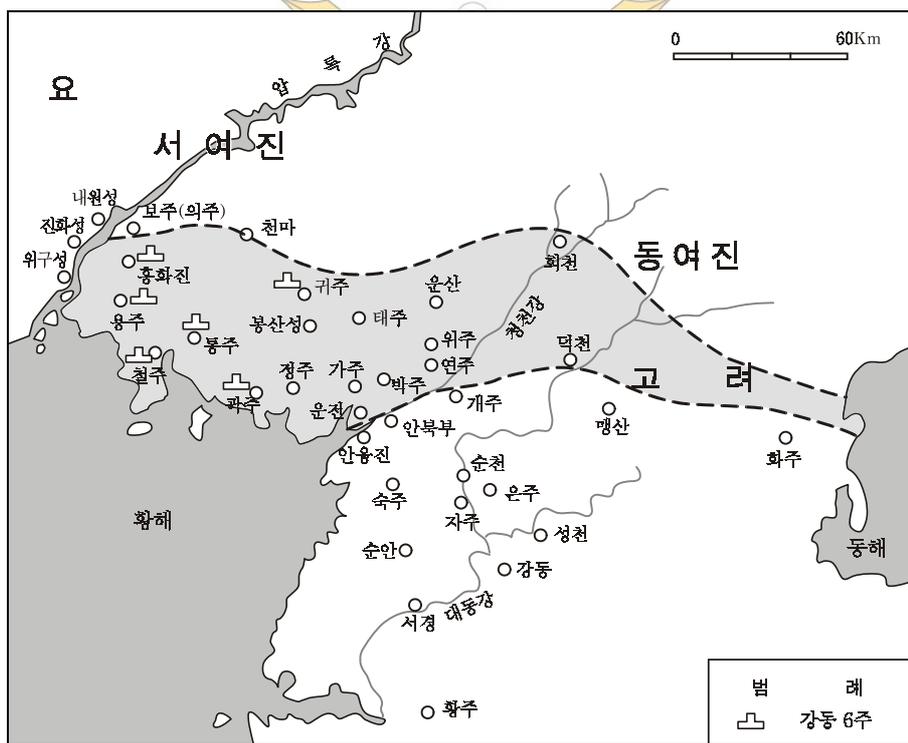
서희는 봉산성 전투 직후에 거란이 공격을 멈추고 항복 요구를 해오자 이들이 강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희는 전략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소손녕과 강화 회담에 나섰다. 소손녕은 서희를 만난 자리에서 거란의 침공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고려가

76) 上同

거란의 영토를 침식했다는 것과 고려가 송에 사대한다는 것이었다.

소손녕의 주장에 서희는 “우리 고려야말로 바로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영토의 경계를 따진다면 귀국의 동경(요양)까지도 우리 국경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니 어찌 침식이라 하는가?” “지금 여진이 몰래 들어와 교활한 술책으로 교통로를 막고 있으므로 귀국과 수교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진 때문이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해 거기에 성과 보(堡)를 쌓고 (거란과) 길을 통한다면 어찌 국교를 열지 않겠는가?”하고 제의하였다.⁷⁷⁾

서희가 거란 측에 제시한 협상 조건은 소손녕이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소손녕은 주저 없이 서희의 제안을 수용했고, 소손녕의 보고



고려가 획득한 '강동 6주'

77) 『고려사절요』 권2, 성종12년 10월.

를 받은 거란 성종은 즉시 철군을 결정하였다. 소손녕은 서희에게 동맹 기념으로 낙타 10마리, 말 1백 필, 양 1천 마리와 비단 5백 필을 선물로 주었다.⁷⁸⁾ 결국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며, 거란은 그 대가로 고려에게 안북부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280리 지역을 내주는 조건으로 강화가 타결된 것이다.

소손녕은 회군 이후 994년(성종13) 2월에 고려에게 통보하여 여진에 의해 사신 왕래가 방해받지 않도록 요충지에 성을 쌓도록 하였다.⁷⁹⁾ 이로써 고려는 여진이 활보하는 청천강이북에서 압록강 동쪽 지역을 확보했고, 거란이 요구한 대로 여진을 축출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성곽을 쌓았다.

994년(성종13) 8월, 서희는 압록강 주변의 여진을 구축한 후 장흥



의주성 남문 장변루 ()

(長興, 평북 태천), 귀화, 광주(평북 광산), 귀주(평북 귀성)에 성을 쌓았다. 이듬해인 995년에는 안의진(평남 안주)과 흥화진(평북 의주) 및 영주(평북 의주)⁸⁰⁾에 성을 쌓고, 996년에 전주(평북 동립)와 맹주(평남 맹산)에도 성을 쌓았다.

78) 『고려사』 권94, 列傳 徐熙.

79) 『고려사절요』 권2, 성종13년 2월.

80) 영주에 쌓은 성은 『고려사』 세가나 열전에는 나오지 않고 兵誌 城堡條에만 나온다. 또 조선시대 역사서 『麗史提綱』(1667년)에는 995년에 3개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 본고에 서도 3개성을 쌓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희가 주관해 쌓은 성곽은 장흥·귀화·안의·흥화 등 4진과 곽주·귀주·영주·선주·맹주 등 5주를 포함하여 총 9개였다.⁸¹⁾ 이로서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280리를 획득했고, 이곳이 이른바 ‘강동 6주’⁸²⁾로서 흥화·통주·용주·철주·곽주·귀주 지역이다.

2) 제2차 전쟁

(1) 거란 성종의 고려 원정

1010년(현종1) 11월에 고려는 다시 거란(요)의 침공을 받았다. 993년 10월에 1차 침공을 받은 지 꼭 17년만의 일로서 거란 성종의 친정이었다. 그 사이 거란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였다. 군사력을 팽창시킨 거란은 999년에 송에 대한 정벌을 단행해 큰 성과를 거두고 1004년에 다시 큰 공세를 펼쳤다. 거란이 이 몇 년간의 전쟁에서 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앞에서 언급한 ‘전연의 맹약’이다.

거란 내부에도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1009년 12월에 나이 어린 성종 대신에 섭정하던 태후가 사망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것이다. 성종 나이 27세였다. 이때는 거란의 전성시대로 영토가 서쪽으로 천산(天山)에서 시작해 동으로 만주지역을 넘나들며, 북으로는 몽골 전 지역, 남으로는 중국 남부지역에 이르렀다.

청년 성종은 집권 후 자신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태후 섭

81) 현재 장흥·귀화의 정확한 위치는 미정인데 장흥은 평북 태천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의진은 남한에서는 오늘날 안주로 비정하나 북한에서는 오늘날 평북 천마군 경내로 보고 있다. 흥화진은 오늘날 평북 피현군 당후리 속새산에 있는 결망성으로 비정되고 있다(서일범, 1999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 학연문화사 참고).

82)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는 ‘江東六州’란 말이 쓰인 적이 없으며, 다만 ‘6城’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있다(서일범, 위의 논문, 149~150쪽).



거란의 2차 침입도

정 때보다 더 강력한 대외 정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거란 성종은 ‘전연의 맹약’으로 중원 정벌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다음 단계의 정복 전쟁을 위해 요동지역을 확실히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가운데 1009년 2월에 고려에서 서북면도순검사 강조(康兆)가 목종을 폐위·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하는 정변

이 일어났다.⁸³⁾

고려는 현종이 즉위하자 거란에 사신을 보내 새 국왕이 즉위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전통적으로 사대관계에서 국왕이 즉위하면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강조의 정변을 숨긴 채 현종의 즉위 사실만 알렸다.

그러던 중 1010년 고려 장수 유종이 화주(영흥)에서 고려에 입조한 동여진 95명을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조의 정변이 거란에 알려졌다. 동여진이 거란 성종에게 고려의 정변을 알리면서 고려 정

83) 『고려사』 권3, 세가 목종12년 2월 무자, 기축.

벌을 촉구했기 때문이다.⁸⁴⁾ 이에 거란 성종은 강조에 대한 징벌을 명분으로 전격적인 침략을 결정하였다.

고려는 1010년 7월에 거란 성종이 사신을 파견해 강조의 정변을 추궁하자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판단하여 즉각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고려는 외교적 조치로서 8월에 사신을 거란에 보냈으며, 9월에도 사신을 거란에 보내 화친을 도모하고, 거란 수도 동경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⁸⁵⁾

고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거란의 침공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신속히 전쟁 준비에 착수하였다. 현종은 1010년 7월에 덕주에 성을 쌓고, 10월에 강조에게 군사 30만을 이끌고 통주(평북 선천)에 주둔해 거란을 방어하라는 군사 조치를 내렸다. 강조는 정변 이전에 이미 북계의 군사책임 맡은 경력이 있었다. 당시 구성된 고려군의 지휘부는 도통사 강조, 부통사 이현운·장연우, 도병마사 안소광, 도병마부사 노정, 좌군병마사 최현민, 우군병마사 이방, 중군병마사 박충숙 등이었다.⁸⁶⁾

이처럼 표면상 거란의 2차 침공은 강조의 정변이 발단이 되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였다. 거란이 고려 원정을 착수한 직접적인 요인은 고려가 1차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송과 통교하려는 태도가 빌미를 제공하였다. 거란이 1010년에 고려에 보낸 서한에서 “동으로 여진과 결탁하고 서쪽으로 송과 왕래하니 이것은 무슨 음모를 꾸미려는 것인가?”⁸⁷⁾하듯이 거란은 계속 고려를 의심하였다. 이에 거란 성종은 송과 관계를 끊지 않는 고려를 제어하려는 공세 수단으로서 강조 정변을 구실로 고려 원정에 착수한 것이다.

84) 『고려사』 권4, 세가 현종원년 5월 갑신.

85) 『고려사』 권4, 세가 현종원년 8월 정미, 9월.

86) 『고려사』 권4, 세가 현종원년 10월 병오 ;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0월 병오.

87) 『고려사』 권8, 세가 문종12년 8월 ; 『고려사절요』 권5, 문종12년 8월.

거란 성종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려를 침공했을 때 거란의 전략은 달라져있었다. 약 2개월 보름 동안 진행된 제2차 전쟁은 거란 침공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공세였다. 거란은 원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고려를 파상적으로 공격하는 전형적인 공세 및 섬멸 전략을 택하였다. 거란은 기동력을 토대로 고려 수도 개경까지 침공해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거란은 진격로 상에 있는 모든 성곽들을 함락시킨 후 전진하지 않았다. 보통 지휘관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나⁸⁸⁾ 거란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다만, 성을 그대로 지나치면 배후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성 근처에 잔류시켜 인근 성곽과 연계할 수 없도록 주변 도로를 차단하였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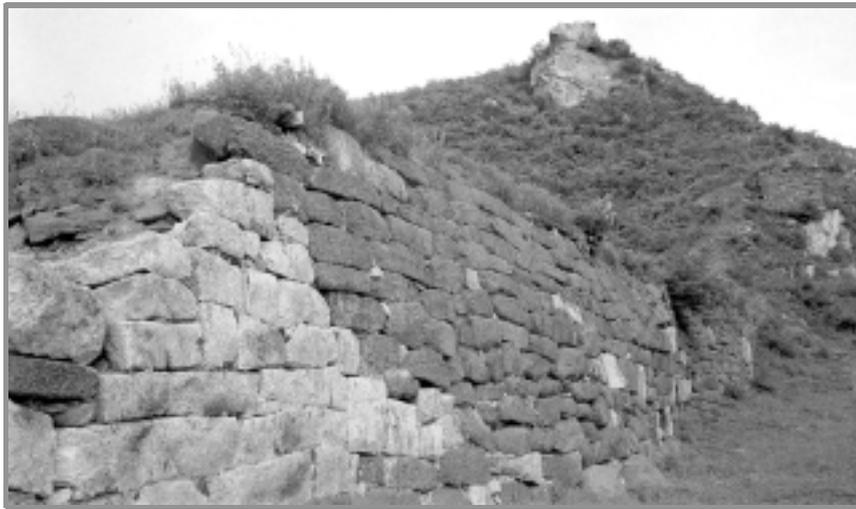
거란은 성을 완전히 공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남하하는 전략으로 고려의 중심 지역까지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었으나, 고려군의 역공이 시작되면서 배면 공격 및 퇴로 차단이라는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이 때문에 거란은 고려의 수도를 점령하고도 강화 체결을 서둘렀고, 패주로 보일 만큼 신속하게 철수하여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

(2) 개경 실패와 고려의 반격

흥화진·통주 전투 1010년(현종1) 11월 16일, 거란 성종은 군사 40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도하해 흥화진(興化鎭, 평북 의주)을 포위하였다. 거란군은 1차 침입 때에는 이곳을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서희의 노력으로 이곳에서 청천강까지 주요 거점은 모두 요새화되었다.

88) 바실 리텔 하트 지음, 주은식 옮김, 1999 『전략론』, 책세상, 102쪽.

89) 임용한, 앞의 책, 1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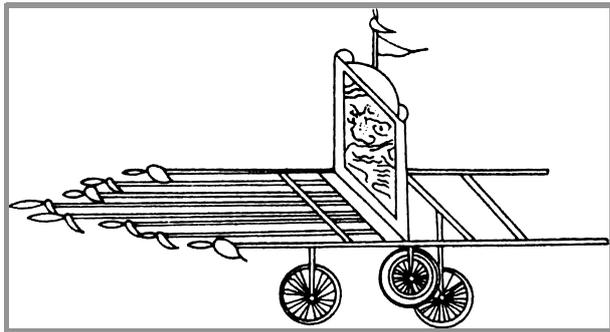
백마산성

거란이 처음 맞부딪친 고려의 요새는 홍화진이었다. 홍화진은 고려와 거란의 국경인 내원성 남쪽으로부터 15km 지점에 있는 산성으로 제1차 거란 전쟁 직후 서희가 쌓은 성이다. 홍화진에서는 양규(楊規)·정성(鄭成)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군을 맞아 농성을 펼쳤다.⁹⁰⁾ 홍화진의 최대 장점은 풍부한 수원으로 장기 농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거란 성종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홍화진을 공격했으나 승산이 없자 공략을 포기하고 주력부대 20만 명을 인주(麟州, 평북 의주) 남쪽의 무로대에 주둔시킨 후 남진을 결정하였다.

1010년 11월 23일 거란 성종은 주력부대 20만을 이끌고 통주로 남하하였다. 서경으로 향하는 교통상의 요지에 있는 통주(평북 선천)는 서북계 여러 진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청천강 이북의 군사요충지였다. 통주는 강조가 지휘하는 고려의 총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서, 강조는 농성 대신에 성 밖 세 군데에 군사를 배치한 후 거란군을 기다렸다.

고려군은 전면에 검차(劍車)를 배치해 거란군의 돌격에 맞섰다. 검

90) 『고려사』 권4, 세가 현종1년 11월 신묘 ; 『고려사절요』 권3, 현종1년 11월 신묘.



검차

차란 수레 위에 방패를 설치하고 앞에 여러 개의 창검을 꽂아 돌출시킨 무기다. 『육도(六韜)』에 따르면 “적의 보병과 기병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린 적을 요격하며 패주하는 적을 차단”⁹¹⁾ 하는데 사용하는 무기였다. 결과는 고려군의 대승리였다.

그러나 초반의 승리에 자만한 고려군은 강조가 장기까지 두며 여유를 부리다가 야율분노의 기습 공격을 받아 강조를 포함한 지휘부 모두 순식간에 생포되었다.⁹²⁾ 그리고 거란군을 피해 달아나던 고려군 3만여 명이 거란군에 의해 살상되었다.⁹³⁾

고려는 전황이 불리한 가운데 장수 김훈 등이 패주하는 군사들을 신속히 수습해 통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있는 완향령에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과 백병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통주성에서도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방어사 이원귀 등과 힘을 합쳐 성을 끝까지 고수하였다.⁹⁴⁾ 비록



'강동6주'의 하나인 통주성

. 2
.

91) 『六韜直解』 卷4 虎韜, 第31 軍用.

92) 『고려사』 권127, 열전40 康兆.

93)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1월 기해.

94)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1월 기해 ;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1월.

강조의 부대는 패했지만 통주성 사수는 고려군이 거둔 놀라운 성과였다.

서경 공방전과 개경 함락 1010년 12월 6일 거란군은 광주성을 함락시킨 후 6천 명의 수비대를 남긴 채 12월 8일에 청천강을 도하해 안북부를 점령하였다. 거란군은 통주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감찰어사 노의를 향도로 삼아 곧바로 서경을 향해 진군하였다.⁹⁵⁾

서경은 서북방 경영의 전초기지이자 개경 방어의 최후 거점이었다. 고려 조정은 강조가 통주에서 패하자 즉시 동북계 방어군을 서경 동쪽 120리 지점인 성천 강덕진으로 옮겨 거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2월 9일에 거란군은 서경 근처의 중흥사 탑을 소각하고 12월 10일에 숙주를 함락시킨 후 서경에 도착해 항복을 권유하였다.⁹⁶⁾

12월 10일, 동북방 방비를 담당하던 중랑장 지채문의 증원군이 서경성에 도착했으나, 전황이 불리하자 고려 현종은 거란에 강화를 제의하였다.⁹⁷⁾ 서경성은 삼중 구조로 되어있다. 외곽의 외성, 그 안에 내성이 있고, 내성 안에 궁전을 보호하는 궁성이 있다.

고려는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서경성에서 수십 차례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거란군은 거듭된 공방전 속에서 결국 “서경 신사에서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거란의 군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⁹⁸⁾고 하듯이 끝내 서경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개경을 향해 남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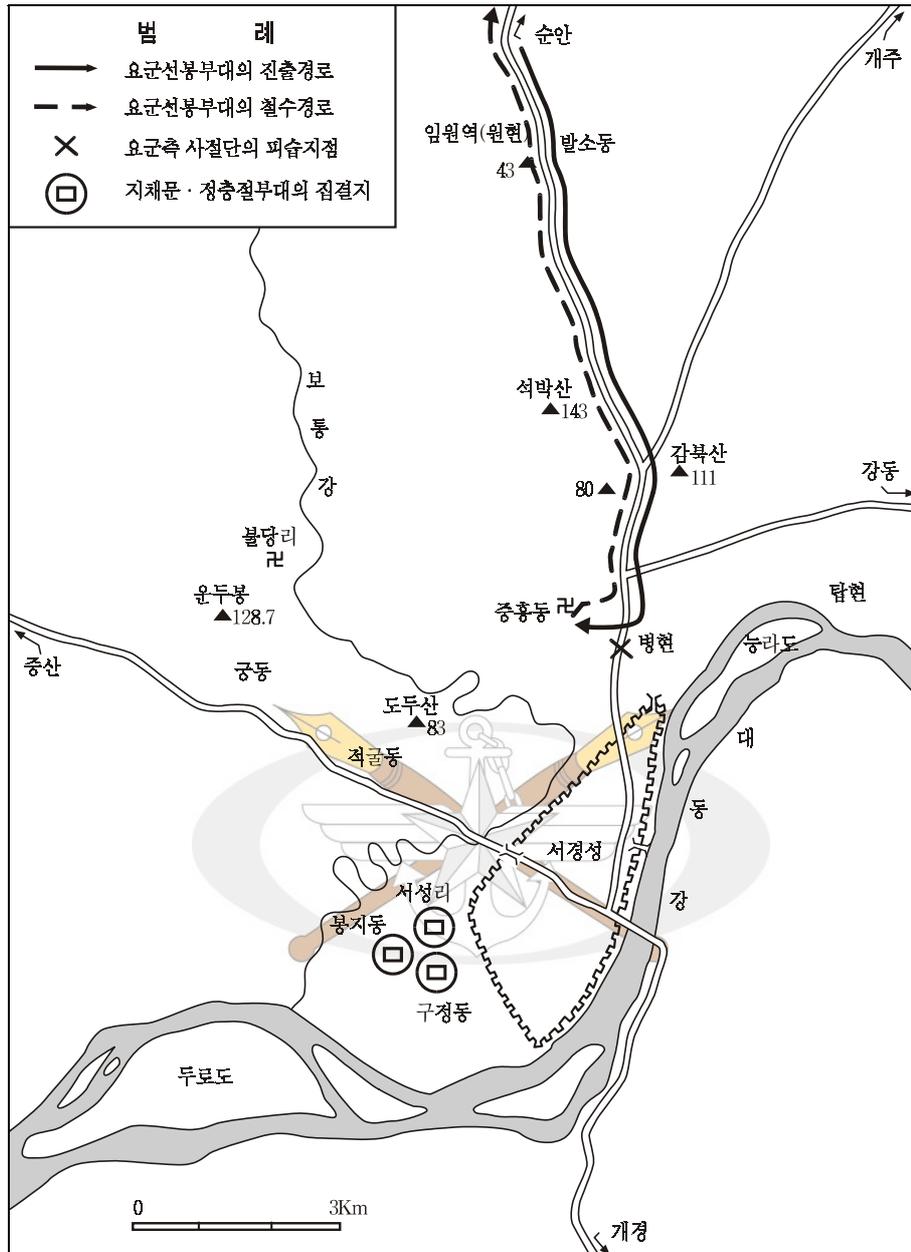
1010년 12월 28일, 거란군이 서경성을 우회해 파죽지세로 개경으로 진출하자 현종은 피난을 결정하였다.⁹⁹⁾ 그리고 거란군의 남진 속

95)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2월 경술, 갑인.

96)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2월 계축, 갑인.

97)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2월 갑인.

98)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2월 계해.



거란군 남진 초기 서경성

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화의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12월 30일 현종은 양주에 머물면서 하공진을 거란 병영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1011년 1월 1일에 현종은 광주를 거쳐 노령을 넘어 13일에 나주

99) 『고려사』 권4, 세가 현종원년 12월 임신, 갑술.

로 몽진하였다.¹⁰⁰⁾

1010년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한 거란 성종은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다.¹⁰¹⁾ 현재 『고려사』 가운데 태조로부터 목종까지 7대의 기록이 부실한 것도 이 당시 전적들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¹⁰²⁾ 1월 3일에 고려는 다시



고려시대 개성의 남대문

거란 진영에 하공신을 파견해 국왕의 친조(親朝)를 조건으로 한 강화를 제안하였다.¹⁰³⁾ 친조란 국왕이 직접 거란을 방문해 황제를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의 제안을 수용한 거란 성종은 하공신 일행을 인질로 잡고 1월 11일에 회군하였다.¹⁰⁴⁾

고려의 반격 거란군이 1011년 1월 11일에 회군을 시작하여 압록강을 건넌 날이 1월 29일이었다. 거란군은 진군 때와 달리 회군하면서 고려군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쳤다.

고려군의 반격은 이미 서경성 공방이 한창이던 12월 16일~17일에 있었다.¹⁰⁵⁾ 흥화진에서 농성을 벌이던 양규와 결사대 7백 명이 용의주도하게 성 밖으로 나와 공격을 실시하였다. 성을 빠져나온 양규 군은 통주에서 군사 1천 명을 규합해 거란군 6천이 지키는 광주성을 공격하였다.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을 몰살하고 성안

100) 『고려사』 권4, 세가 현종2년 정월 무인, 병술.

101) 『고려사절요』 권3, 현종2년 정월 을해.

102) 김상기, 1985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87쪽.

103) 『고려사절요』 권3, 현종2년 정월 정축.

104) 안주섭, 앞의 책, 137쪽.

105)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12월 경신, 신유.

의 남녀 7천 명을 통주로 옮기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고려군은 거란군이 압록강에서 대동강 사이에 마련해둔 중간 기지를 없애 버렸다.

이에 따라 거란군은 회군로를 자신들이 내려온 통주-곽주의 해안 길이 아니라 험한 내륙지대인 강동-순천-개천-태천을 연하는 경로를 따라 귀주로 북상하였다.¹⁰⁶⁾ 거란군이 북계 서로 일대인 흥화진, 통주, 서경 등지를 함락하지 못한 채 개경으로 곧장 진격한 까닭에 고려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여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고려군은 공세적으로 거란의 기동로를 방해하면서 집요한 반격을 가했다. 이제 상황은 크게 바뀌어 거란군은 수 천 명씩 무너졌다. 1월 17일에 귀주에 주둔하고 있던 별장 김숙홍 등이 거란을 공격해 1만 명을 살상하였다.¹⁰⁷⁾ 1월 18일에 양규 역시 거란군 주둔지인 무로대를 급습해 2천여 명을



귀주성 남문 2 3

를 급습해 2천여 명을 죽이고 고려 포로 3천여 명을 구출하였다.

1월 19일에 양규는 다시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고 석령까지 거란군을 추격해 2천여 명을 섬멸하였다. 양규와 김숙홍은 1월 28일에 애전¹⁰⁸⁾에서 거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106) 유재성, 앞의 책, 160쪽.

107) 『고려사절요』 권3, 현종2년 정월 신묘.

108) 오늘날 애전의 위치는 귀주에서 흥화진 사이 압록강에 가까운 지역으로 보고 있다(임용한, 앞의 책, 186쪽).

『고려사절요』에는 “양규가 후원이 없는 외로운 상태에서 일곱 번이나 싸워 거란군을 많이 죽였으며 포로 3만여 명을 탈환하였다.”고 적고 있다.¹⁰⁹⁾ 1월 29일에 흥화진사 정성은 과감한 추격 작전을 펴서 압록강을 건너는 거란군에게 타격을 입혀 수많은 전사자를 냈다.¹¹⁰⁾ 이 전투를 끝으로 거란의 2차 침공은 종료되었다.

3) 제3차 전쟁

(1) 거란의 ‘강동6주’ 반환 요구

1011년(현종2) 1월 29일에 거란군(요군)이 압록강을 건너 회군하면서 2차 전쟁은 종결되었다. 현종은 전쟁 종결 직후인 1011년 4월에 거란에 사신을 파견해 군대 철수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다.¹¹¹⁾ 그러나 2차 전쟁의 강화 조건인 국왕의 친조(親朝)는 실행하지 않았다.¹¹²⁾ 고려로서는 전쟁에 패했다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항복이나 다름없는 국왕 친조를 실행할 수 없던 것이다.

거란 성종은 1012년 6월에 고려가 친조를 이행하지 않자 제1차전에서 고려에게 내준 압록강 유역 6개 성의 환수를 명하였다. 거란에서 환수를 요구한 6개 성곽이란 이른바 ‘강동 6주’로서 흥화·통주·용주·철주·곽주·귀주였다. 거란은 1013년 3월부터 1015년 9월까지 여섯 차례나 6개 지역의 반환을 명분으로 고려를 압박하였다.

거란이 고려에 환수를 요구한 6개 지역은 거란이 고려를 침범했을 때마다 번번이 거란의 발목을 붙잡은 곳이었다. 거란은 두 차례

109) 『고려사절요』 권3, 현종2년 정월 임인.

110)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년 정월 계묘.

111) 『고려사』 권4, 세가 현종2년 4월 을축.

112) 『고려사』 권4, 세가 현종3년 4월 ; 『고려사』 권4, 세가 현종3년 6월 갑자.

의 원정을 통해 이곳을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보았다. 거란군은 이 지역을 공략하지 않은 채 남진한 대가를 토틈히 지불해야만 했다. 고려군이 이곳을 기반으로 거란군을 후미에서 역공하거나 회군하는 길목을 차단해 거란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표8> 거란의 6개성 반환 요구 일지

연도	거란 요구 사항	비 고
1012.6	6개 성 환수 명령	
1013.3	6개 성 반환 요구	1013.5 거란군 침공
1013.7	6개 성 반환 요구	
1014.2	6개 성 반환 요구	
1014.9	6개 성 반환 요구	1014.10 거란군 침공
1015.4	6개 성 반환 요구	
1015.9.7	6개 성 반환 요구	1015.9.12 거란군 침공

거란은 고려가 6개성의 반환을 수용하지 않자 수차례 크고 작은 무력 위협을 병행하였다. 거란은 제2차 전쟁이 종결된 1012년부터 1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무려 10여

차례 무력 도발을 강행하였다. 거란의 침공 양상은 두 차례 원정에서 당한 실패를 반영하듯 홍화진, 통주성, 광주, 용주, 영주(寧州:안주) 등 북계 요새들만 공격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잦은 공격에 맞서 광주성 함락(1016.1)을 제외하고 거란군을 철저히 분쇄하였다. 광주성 전투 때에도 거란은 고려군 수 만 명을 살상했으나 고려 영토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고려는 이 과정에서 거란 사신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억류했으며¹¹³⁾, 1016년부터는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거란에게 외교 시위를 하였다.¹¹⁴⁾ 거란이 비록 1005년 ‘전연의 맹약’으로 이 무렵 송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양국은 긴장관계였다. 고려는 이러한 정세를 역이용해 거란의 도발이 빈번해지자 곧바로 송

113) 『고려사』 권4, 세가 현종7년 정월 갑인.

114) 『고려사』 권4, 세가 현종7년.

과 관계 회복을 꾀하였다. 이는 송과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거란의 공격을 저지하려는 외교책이었다.¹¹⁵⁾

<표9> 1013~1017년 거란(요)의 고려 침공 일지

연도	거란(요)의 침공	고려의 대응
1013.5	여진이 거란군 인도해 압록강 도하 시도	대장군 김승위가 물리침
1014.10	장수 소적렬 통주 침략	장군 정신용 등이 거란군 7백 여 명 사살
1015.1	압록강에 다리 놓고 동서로 성곽 축조	고려 군사 파견해 저지했으나 패함
	홍화진 포위 통주 침략	장군 고적여 등이 거란군 격퇴
1015.3	용주 침입	
1015.9	통주·홍화진 공격	대장군 정신용 등이 거란군 7백여 명 살상
	영주 공격 실패	대장군 고적여 등이 거란군 추격 중 전사
1015	거란이 선화진·정원진 함락, 성곽 구축	
1016.1	장수 야를세량 등이 광주 침입	고려군 수 만 명 희생
1017.8	소합탁이 홍화진 9일간 공격했으나 실패	장군 견일 등이 출전, 거란 격파

거란은 5년간 10여 차례 고려를 공격했으나 의도한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못하였다. 거란은 국지적, 산발적인 침공으로는 고려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전면전을 선택하였다. 이로써 1018년 12월에 거란은 10만 대군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고, 고려와 거란 사이에 또 한 차례 큰 전쟁이 벌어졌다.

이 때 거란은 고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략의 소임은 군사적 결전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치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¹¹⁶⁾ 거란은 고심 끝에 친조(親朝)를 이행하지 않는 고려 국왕에게 직접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국왕이 있는 수도 개경으로 직공한다는 전략을 구상하였다.¹¹⁷⁾

115) 박종기, 1994 「조선중기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학논총』 16, 15-16쪽.

116)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1994 『전략과 전술』, 한올아카데미, 45쪽; 바실리텔 하트 지음, 주은식 옮김, 1999 『전략론』, 책세상, 458쪽.

117) 임용한, 앞의 책, 211쪽.



개경 나성

이 무렵 수도가 가지는 위상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있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이 시대는 수도를 중심으로 문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함락과 그에 따른 국왕의 항복은 곧 국가 멸망으로 직결되었다.¹¹⁸⁾

곧 거란은 북계의 서쪽 진지를 우회, 고려 후방을 지향하면서 개경으로 전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동력의 발휘는 그 극치에 이르면 지속적인 기습효과를 갖게 된다. 거란은 여러 차례 고려를 침공한 결과 고려의 지리에 밝혔다. 거란은 이 경험들을 토대로 고려 수비군이 북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청천강 이남지역이 상대적으로 허술할 것으로 판단하고, 북계만 우회하여 개경을 포위한다면 고려 국왕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거란 성종은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2차전 때 개경까지 들어간 소배압을 도통으로 다시 임명했다. 왜냐하면 속도와 기동이 성공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란의 전략은 공세적이며 간접 접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와 직접적인 유혈교전을 최대

118) 서인한, 2005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2쪽.

한 억제하면서 교묘한 기동을 통해 고려의 군사력이 소모 또는 피폐되도록 하는 소모전략의 일종이기도 하였다.

(2) 귀주전투의 승리

1018년(현종9년) 12월 10일에 도동 소배압(蕭排押, 소손녕의 형)은 군사 10만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다.¹¹⁹⁾ 고려는 거란의 침공 소식을 접하자 즉각 강감찬(姜邯贊, 948~1031)을 상장수로, 강민첨(姜民瞻, ?~1021)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 20만 여명을 영주(평남 안주)에 배치하였다.

고려는 오랜 기간 거란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란군이 홍화진을 직공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홍화진 일대 우회로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홍화진은 거란이 한번도 함락해 본 적이 없는 요새였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고려의 예상대로 홍화진을 우회하여 홍화진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건넜다. 강감찬 장군은 기병 1만 2천기를 미리 하천 주변에 매복시켰다. 고려군은 거란군이 하천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막아놓은 물을 일시에 터트려 수공을 가한 후 복병을 돌진시켜 승리를 거두었다.¹²⁰⁾ 그런데 타격을 입



고려 명장 강감찬 ()

119)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는 3차 침공시 거란군 총지휘관을 소손녕으로 기록했으나 『요사』에는 소배압으로 되어 있다. 고려 측 기록이 옳기라고 판단되어 『요사』의 기록을 따랐다.(『遼史』 卷15, 本紀16 聖宗7 開泰7年 10月 丙辰)



고려 명장 강민첨 588 . 1788
()

은 거란군은 고려의 예상을 깨고 북계의 동쪽 진격로를 이용해 곧바로 청천강을 건넜다.

고려는 거란군이 고려 수도 개경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황급히 추격에 나섰다. 1018년 12월 하순, 부원수 강민첨이 이끄는 부대가 자주(평남 자산) 내구산에서 거란의 한 부대를 추격해 격파하였다. 거란군은 서경도 우회해 서경 동쪽의 강동으로 내려갔다.

거란군은 청천강을 도하한 후 제2차 전쟁 당시 회군로이던 개주→순천→강동→수안→신은현에 이르는 북계 동로를 이용해 남진한 것으로 추정된다.¹²¹⁾ 거란군은 마탄에서 조원 부대를 만나 패배했지만 남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다급해진 강감찬은 1019년(현종10) 1월 2일에 김종현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가도록 했고 동북면 병력 3천3백 명도 개경으로 이동시켰다.¹²²⁾ 1019년 1월 3일 개경 북방 40km 지점인 신은현(신계)까지 거란군이 육박하였다. 이 때 현종은 제2차전 때와 달리 개경을 빠져나가지 않고 청야전술을 써서 개경 주변을 비우고 백성을 성안으로 집결시켰다.¹²³⁾ 현종은 거란이 보급기지 없이 신속하게 남진했으므로 군량 보급을 차단하고 농성을 벌인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20) 『고려사절요』 권3, 현종9년 12월 무술.

121) 안주섭, 앞의 책, 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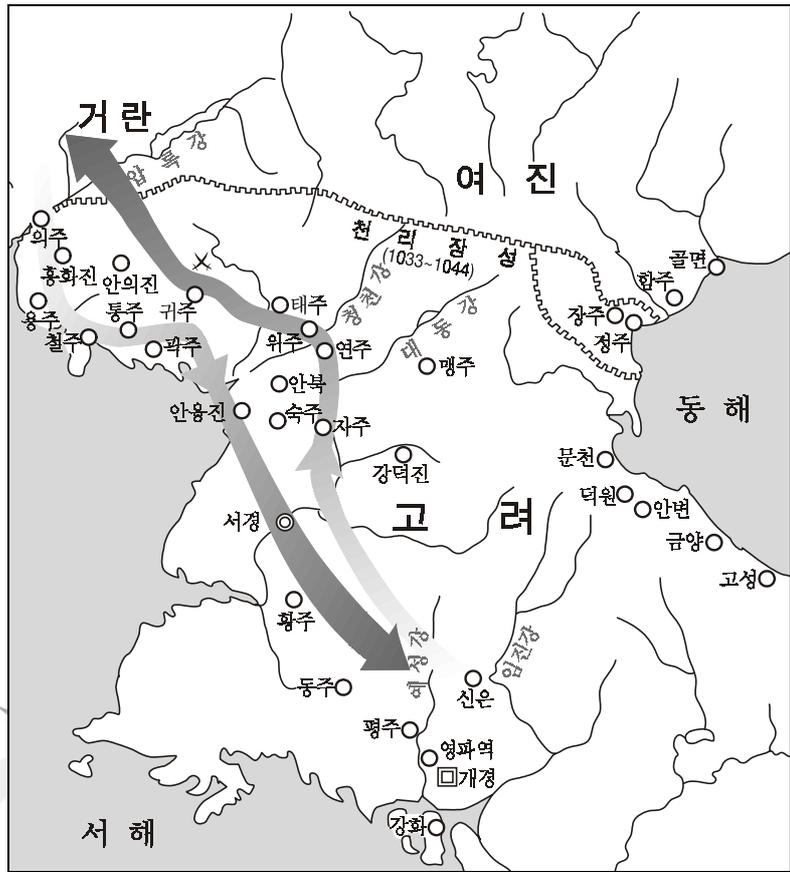
122)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정월 경신.

123) 『고려사』 권4, 세가 현종10년 정월 신유.

거란군은 고려의 예상치 못한 신속한 대처에 당황하여 곧바로 개경을 공격하지 못하였다. 1019년 1월 소배압은 고려 진영에 사신을 보내 거란군이 회군하겠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은밀히 정예군 3백여 기를 개경 쪽으로 출동시켰다.

거란의 의도를 알아차린 고려군은 금교역 일대에서 거란군을 급습하여 격멸하였다. 금교역 전투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개경 공략 기도를 포기하고 철군을 개시하였다. 강감찬 장군은 북계 동로로 퇴각하는 거란군을 연주·위주에서 요격해 거란군 5백여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¹²⁴⁾

연주·위주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거란군이 귀주성 동쪽을 관통하는 동문천 부근에 당도한 것은 2월 1일이었다.¹²⁵⁾ 강감찬 장군 등이 거란군을 동쪽 평원에서 맞아 분전했으나 승패가



거란의 3차 침입도

124) 『고려사』 권94, 열전 姜邯贊 ;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정월 신사.

125)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2월 기축. 귀주는 현재 평안북도 귀성시 일대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북으로는 삭주와 보주, 남으로는 정주와 태주로 연결되는 귀주는 도로망이 좁고 험한 계곡을 연하여 형성되어 있다.

나지 않았다. 이 때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자 고려군은 비로소 남북쪽에서 거란군을 협공해 맹공격을 펼쳤고 거란군은 도주하였다.

고려군은 도망가는 거란군을 귀주 북방 30리 지점의 반령(盤嶺)까지 추격해 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귀주대첩’이다. 강감찬 장군은 탁월한 군사적 식견과 뛰어난 용병술로 고려군을 총 지휘하여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거란 전쟁을 종식시킨 수훈자였다.

고려는 거란군의 포로들을 사로잡고,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 등을 노획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다.¹²⁶⁾ 현종은 1019년 2월 6일에



귀주대첩 기록화 ()

126) 『고려사』 권4, 세가 현종10년 2월 기축 ;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2월 기축.

장감찬 장군이 개선하자
영과역까지 친히 나가 맞
이했고¹²⁷⁾ 개경 주민들도
환호 속에서 고려군을 맞
았다.



낙성대

4 (:)

거란군은 이 전투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과달(阿果達), 작고(酌古)
등 많은 장수들이 전사하
고 군사 수 천 명만 겨우

압록강을 건너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거란군 총사령관 소배압 조차
“(회군 시) 다타이하(茶陀二河)¹²⁸⁾를 건널 때에 고려군이 활을 쏘면서
협공하자 소배압이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압록강을 건넜다.”¹²⁹⁾고
한다.

거란이 신속한 기동 능력을 보유했으면서도 전쟁에 패배한 이유
는 고려의 진지와 군사력에 대해 얽잡아본 것이 큰 원인이었다. 고
려의 요새는 천연 진지였다. 고려군은 진지를 중심으로 거란의 측후
방을 수시로 위협하면서 타격을 가했고, 거란은 퇴로가 차단당한 채
고립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거란군은 개경을 목표로 하는 신속
한 기동에 역점을 두는 바람에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 진지에서 군
대를 공세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127)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2월 갑오.

128) 茶陀二河는 하천 이름으로 지금의 皇華川 즉 백석천으로 추정된다(김상기, 1989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99쪽).

129) 『遼史』 卷88, 列傳 蕭排押.

5. 전략적 평가

고려는 993년~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회 정도 거란(요)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고려는 거란에게 무수한 침공을 받았으나 1019년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에 국제적 위상은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 송나라조차 거란이 고려를 두려워한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거란이 도발한 27년간의 전쟁은 거란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병법가 손자(孫子)는 “전쟁을 속전속결로 이겼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지구전으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원래 전쟁이 장기화해서 국가에 이익이 있던 사례는 없다(兵聞拙速 未睹巧之久也 夫兵久而國利者 未之有也).”¹³⁰⁾고 하였다. 이 지적인 장기간 고려를 침략해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란에게 적중한 금언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전쟁은 993년 8월에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압록강을 도하하면서 시작되어 이 해 10월에 강화회담이 타결되면서 종결되었다. 거란의 원정 목표는 고려 영토의 점령이 아니었다.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차단해 이후 송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구상에서 고려를 침공한 것이다. 거란이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지 않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부대로 원정군을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여진다.

압록강을 도하한 거란군은 봉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고려에 항복을 종용하였다. 적장 소손녕은 봉산군 전투 이후 고려가 즉각 항복하지 않자 다시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고려군은 거란군을 기습 공격하여 거란

130) 『孫子』 作戰 第二.

군의 전열을 교란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가해 기선을 제압하였다. 예상치 못한 고려군의 공세에 당황한 거란군은 봉산성으로 황급히 퇴각한 후 고려측 대표 서희와 화의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군하였다.

제2차 전쟁은 거란 성종이 직접 이끄는 40만 군이 1010년 11월에 압록강을 도하하면서 시작되어 1011년 1월 29일에 막을 내렸다. 이 전쟁은 거란의 침공 가운데 가장 위협적이었으나, 거란군이 흥화진·귀주·통주 등 북계(北界)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회해 개경으로 기동하는 바람에 전술상 차질을 빚어 성공하지 못한 원정이었다. 서경성 역시 함락 직전까지 갔으나 고려 동북계 방어군이 투입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또 중간 보급기지로서 겨우 확보한 광주성도 양규가 탈환하는 바람에 상실했고, 진군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거란군은 고려 국왕이 친조(親朝)하는 조건으로 철수하지만, 회군하는 과정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채 고려군의 반격을 받아 큰 인명 피해를 입었고 압록강에 도달했을 때에는 대부분 탈진 상태였다. 고려군은 지친 거란군을 요격해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었다. 기록에 나타난 거란군의 손실만도 3만 명이었다.

제3차 전쟁은 1018년 12월 10일에 압록강을 도하한 거란군이 1019년 2월 초순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 회군하면서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고려가 표면상 거란에 유화 정책을 썼으나 사실상 거란의 친조 및 '강동 6주'의 반환 요구를 암묵적으로 묵살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고려가 거란에게 거둔 가장 큰 승리이자 거란군이 당한 미증유의 참패였다. 소배압의 군사 10만 가운데 귀환한 사람이 수 천명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거란은 완패를 당했다. 3차 전쟁을 끝으로 27년간 지속된 고려에 대한 거란의 군사 행동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현재까지 고려와 거란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다른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수세적인 방위태세로서 이민족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 전쟁 양상을 분석해보면 고려가 수세적인 입장에서만 방어하지 않고,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쟁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고려와 거란 전쟁은 고려가 수행한 전쟁 가운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고려가 동북아의 강자 거란의 침공을 격퇴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서희의 활약과 전략적 판단 능력을 꼽을 수 있다. 18세에 과거 시험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한 서희는 문신이면서도 군사 분야에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다. 서희는 국제 정세와 군사적 식견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다. 거란의 침공 목적이 영토 확장에 있지 않고 고려와의 국교 재개에 있다고 판단한 서희는 적장 소손녕과 화의를 추진하여 거란군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하류 이남의 ‘강동 6주’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서희가 거란군의 침공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회담을 추진한 결과였다.

둘째, 고려가 제1차 전쟁으로 확보한 ‘강동 6주’는 영토를 북쪽으로 확대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려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희의 주도로 ‘강동 6주’ 일대에 구축된 성곽들은 대부분 의주에서 안주까지 통하는 서북 연해 및 내륙의 통로에 있어 청천강 이북 지역을 종횡으로 치밀하게 방어하는 형상이다.

청천강이남 지형은 평야가 넓게 형성된 반면에, 청천강 이북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이동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민족이 한반도를 공격

할 때마다 남진하는 통로는 해안과 내륙 단 두 길 뿐이었는데, 이 통로에 자리한 요충지에 서희가 성곽들을 구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착안하여 축조된 ‘강동 6주’의 성곽 요새들은 이후 거란이 침입할 때마다 번번이 거란의 발목을 붙잡는 효과적인 방어 거점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거란은 ‘강동 6주’가 전략적으로 쓸모가 많은 지역인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 가치를 인식하고 고려에 환수를 요구했으나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

고려는 성곽만 쌓은 것이 아니었다. 994년에 압록강에 진을 두어 그 책임자로 구당사(句當使)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낮에는 백성의 농사일을 살피고 밤에는 성안으로 들어와 국경을 수비하였다. 이후에도 고려는 운주(일명 고원화진), 박주, 무주, 의주 등에 방어사를 두는 등 거란으로부터 보장받은 지역의 영역화를 추진해 나갔다. 이는 고려 북방에 건설한 견고한 방어시설과 서희의 전략적 식견이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셋째, 고려가 성곽을 위주로 한 수세 전략으로 거란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사실이다. 고려는 거란이 속전속결을 통한 공세 전략과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여 수성을 토대로 한 지연작전을 펼쳤다. 즉, 서북계 요진에서 수성전을 펼쳐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규모 중앙군을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형태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적의 주요 침공로 상에 성곽을 구축하여 요새화하면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천연장애물인 산이나 협곡, 강·하천 등을 이용해 축차적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 내륙으로 침입한 적은 성곽이나 주요진지를 우회하여 진격했고, 그 결과 퇴로를 차단당한 채 전후방에서 고려군의 협공을 받아 번번이 무너졌다. 이 전략은 오늘날 수세전략과 유사한

형태로서, 고려가 국초 이래 꾸준히 북방에 군사 방어 시설을 집중시킨 결과였다. 이 전략은 작전 주도권을 침공군에게 넘겨주고 방어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고려가 거란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고려가 능동적인 유인전략으로 거란의 전략적 실패를 유도한 점이다. 거란군이 고려군의 역량을 무시하고 우회 기동으로 고려 영내로 깊숙이 진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거란 스스로 큰 타격을 입었다. 먼저 거란군은 고려군의 후방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거란군은 동경 요양부에서 690km의 장거리를 건너왔고, 압록강 도하 이후 개경까지 무리한 행군을 강행한 결과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 무렵이 영하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혹한기임을 감안한다면 오랜 장거리 기동으로 인한 군사들의 피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3차 전쟁에서 거란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거란 성종은 소배압에게 “네가 적을 깔보고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냐. 짐이 꼭 너의 낮가죽을 벗겨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분노할 정도였다.¹³¹⁾

다음으로 거란이 고려의 주요 요새를 공략하지 않은 채 우회하여 남하한 이유는 고려 국왕으로부터 빠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거란군은 고려의 군사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채 작전을 강행했기 때문에 퇴로를 차단당하고 말았고, 그 결과 회군시 수많은 인적 손실을 입고 말았다. 거란군은 고려 국왕의 항

131) 『고려사절요』 권3, 현종10년 2월 기축.

북에 집착한 나머지 퇴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중간 거점 지역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진해 버린 것이다. 고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로해진 거란군들을 남북에서 협공하여 물리쳤다.

고려가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던 요인을 바탕으로 이 전쟁이 고려와 거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거란이 이 전쟁에서 실익을 거둔 것은 제1차전뿐이었다. 거란은 고려와 외교 관계를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요충인 보주를 확보해 압록강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보주를 장악함으로써 고려·여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보주는 이후 거란이 고려 침입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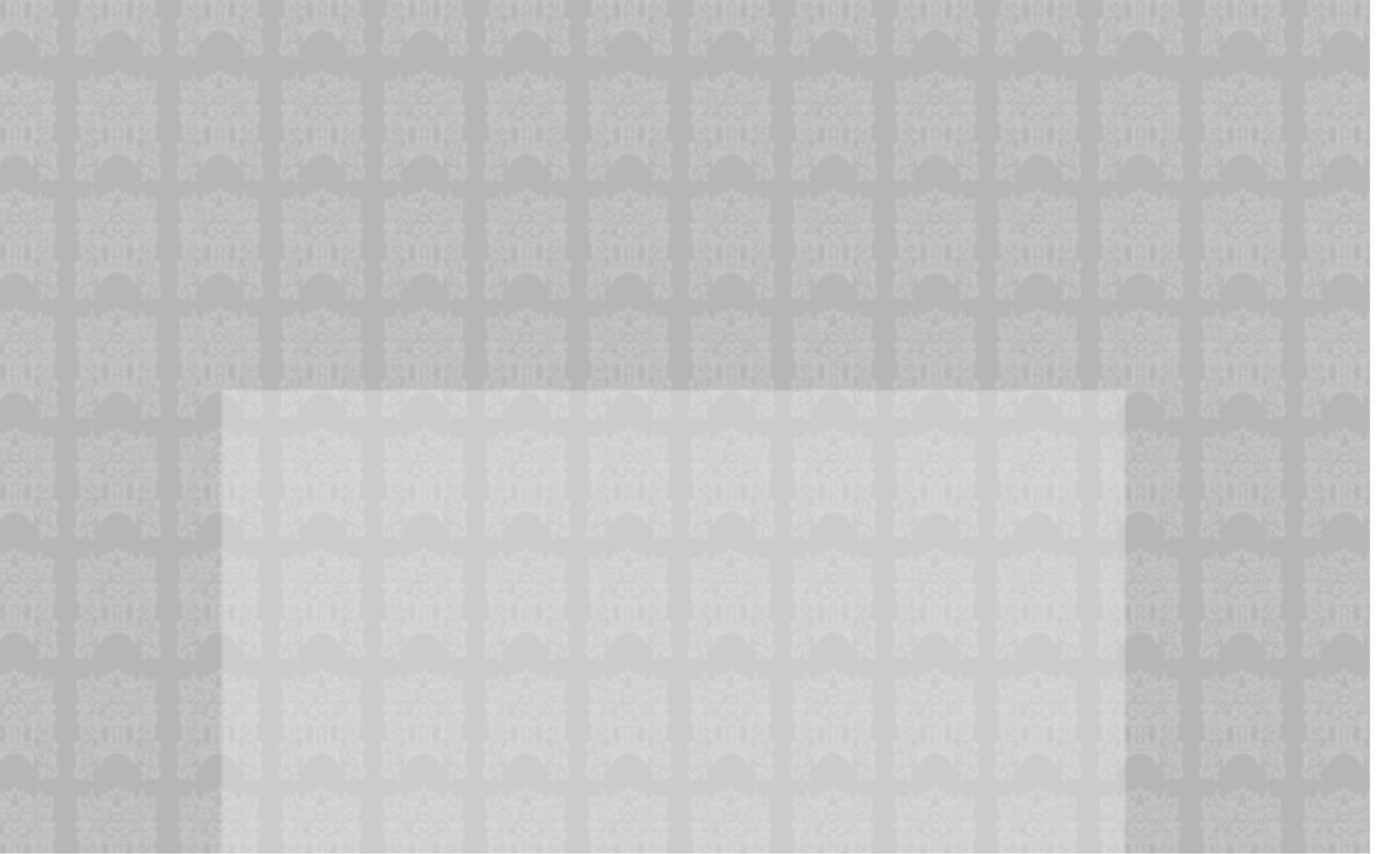
그러나 거란은 26년간 고려와 전쟁을 벌여 압록강 동쪽의 보주와 의주를 확보한 이외에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또 3차 전쟁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 성종이 다시 고려를 공격하려고 계획할 만큼 고려에 대한 침략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고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고, 고려와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또 거란은 약소국으로부터 침입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란은 전쟁의 패배 직후부터 1079년까지 약 60년간 두 번씩이나 여진의 공격을 받았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운 수모였다.

반면에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거란에 대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동아시아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거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 역시 막대한 병력 손실 및 많은 백성들이 거란의 포로로 끌려가는 등 전란의 피해가 막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시기 동아시아 질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고려의 건재함을 본 동북지역의 여진들은 고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것을 희망하였다. 나아가 10세기 초에 형성되던 고려·송·거란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는 고려와 거란간의 군사 대립을 통해 균형을 이루었고, 그러한 질서 체제는 이후 12세기 초 금이 건국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가 거란 전쟁으로부터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란의 침공을 막아냈다는 면에서 군사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대외 정세의 안정 속에서 경제 성장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해 국력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후 고려가 여진 정벌을 단행하는 중요한 물적 기반이나 자신감의 발로로 작용하게 되었다.





제 3 장
고려의 여진 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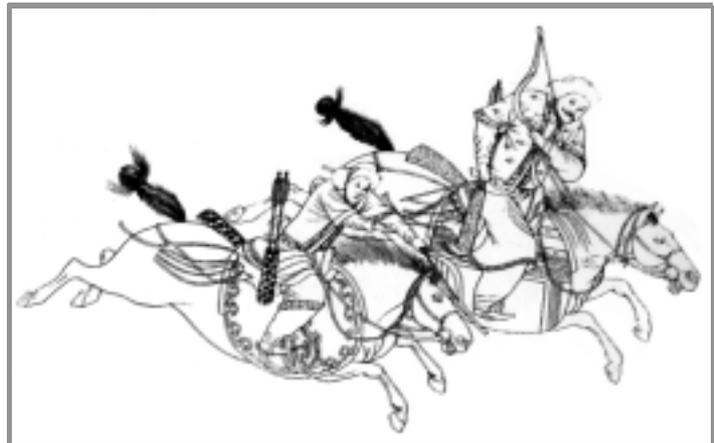
고려시대 군사전략

1. 여진의 성장

1) 여진의 동향

여진족은 중국 선진(先秦, B.C.221 이전) 시대에 ‘숙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국 한대와 삼국시대에는 읍루, 후위시대에는 물길, 수·당시대에는 말갈 등으로 불리다가 거란(요)이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 ‘여진’으로 통용되었다.¹⁾ 발해 멸망 후에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부족이나 지역 단위로 송화강을 중심으로 서남 및 동북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오늘날 『고려사』에서 ‘여진’이란 명칭이 처음 나오는 시기는 948년(정종3) 9월이다. “동여진의



여진기사

1) 유재성, 1993 『한민족전쟁통사』 -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63쪽.



여진 문자 1119 가

대광 소무개 등이 와서 말 700필과 방물을 바쳤다.”²⁾는 기록이 그것이다. 거란이 여진을 자국의 복속 여부에 따라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부른 것과 달리 고려에서는 여진을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구분하였다.³⁾

동여진은 함경도와 간도 및 수분하 유역 등에 분포하면서 부락단위로 생활하였다. 서여진은 압록강 북방과 만주 서부 및 요동 일대를 근거로 하여 거란의 지배

를 받고 있었다.

여진은 초기에 고유의 문자도 없이 산이나 들에 흩어져 살면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고려의 기록에 따르면, 여진의 물산은 돼지와 소·말 등이 풍요롭고, 말은 하루에 천 리나 달릴 수 있을 만큼 준마가 많았다고 한다. 또 사람들의 기질은 강인하고 날쌔며 아이 때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를 익힌 결과 장성할수록 강한 군사로 성장했다고 한다.⁴⁾

산이나 들에 흩어져 살던 여진은 부락별로 분산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거란이나 고려를 섬기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았다. 고려와 인접한 여진들은 돼지·양·소·말들을 예물로 바치는 대신에 고려로부터 식량, 포 등 생필품과 철제기구 등을 가져갔다. 하지만 여

2) 『고려사』 권2, 세가 정종3년 9월.

3) 『고려사』 권4, 세가 현종12년 9월 을미, 현종21년 5월 을묘. 동여진은 흔히 “三十姓部落”이라고도 불리었고 “흑수말갈”과 혼용해 쓰였다. 서여진은 ‘압록여진’이라고도 한다.

4)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10년 정월.

진들은 고려에 대해 순종하다가도, 방비가 허술한 곳을 골라 게릴라 형태로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는 등 변화무쌍한 태도를 보였다.

960년에 송이 등장하자 여진 부락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여진은 송에 조공(朝貢)⁵⁾을 바치면서 거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송을 이용하는 등 생존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 무렵 고려는 혜종~경종 대까지 내부적으로 정치적 진통을 겪었고, 거란 역시 성종이 즉위할 때까지 권력 쟁탈을 둘러싸고 국내 사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으므로 여진이 이 틈을 이용하여 독자성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여진은 송 건국 직후인 961년에 송을 방문하여 신하의 예를 갖춘 이래로 963년까지 매년 조공을 바쳤다. 이후에도 여진의 조공은 계속되었고 말 무역은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⁶⁾ 송에서 말의 증식에 관심을 기울이자 여진이 송나라에 수출하는 말은 연간 1만 필에 달하였다.



금나라 <투마도(套馬圖)> 1184
『』)

.(『

여진의 대외 전략은 성공적인 듯 했으나 거란에서 982년에 성종이 즉위하면서 오히려 여진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거란은

5) 朝貢 : 속국에서宗主國에게 때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6) 추명엽, 2005 「고려시기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49쪽.

자국의 배후를 교란하는 여진의 행보를 중지시키기 위해 여진을 공략해 986년에 포로 10여만 명과 말 20여만 필을 노획하였다.⁷⁾ 여진은 끈질기게 저항했으나 결국 거란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거란은 압록강 하구에 세 개의 성을 쌓고 여진의 준마들이 송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진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거란의 공격과 압박을 받은 여진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고려는 여진의 구원 요청을 허위로 여기고 지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991년(성종10) 여진을 압록강 주변에서 쫓아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거란과 고려의 압박을 받은 여진은 991년 송에게 거란 정벌을 요청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자 마침내 거란에 종속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후 여진은 거란에 종속된 채 흑심한 핍박을 받았고, 12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갖기까지 1백여 년을 기다려야 했다.



2) 완연부 여진의 성장

(1) 완연부 여진의 태동

고려·거란에 복종하던 여진이 동북아의 한 축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말 완연부 여진이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였다. 완연부 여진은 1115년에 금나라를 건설한 부족이다. 금을 건설한 완연부 여진은 거란(요)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 북송 시대를 마감시키는 주역이었다.

완연부 여진이 흥기한 지역은 북만주 송화강의 지류인 아르치카

7) 『遼史』 卷11, 本紀11 聖宗2 統和4年 正月 丙子.

[阿勒楚喀河] 유역으로 알려져 있다. 완연부 여진은 흑수말갈에 기원을 둔 생여진의 일부였다. 완연부 여진은 송화강의 지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두만강 중상류 즉 백두산 북쪽 지역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⁸⁾

생여진으로서 숙여진 지역으로 이동해 거란의 지배를 받은 완연부 여진은 초기에 독자적인 정복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거란이 국내 문제로 정치 상황이 복잡한 틈을 타서 완연부 여진은 점차 거란의 영향권에서 이탈하였다. 완연부 여진은 다른 여진부족에 비해 거란과 빈번한 교역을 가지면서 주변 사정에도 밝았다. 또 철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⁹⁾

여러 기록에 따르면 완연부 여진의 시조 함보(函普)는 고려인이며,¹⁰⁾ 완연부 여진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말 추장 우구나이[烏古迺] 때였다. 우구나이는 거란 도종에게 태사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점차 기반을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추장이 된 우구나이의 아들 잉거[盈歌, 재위: 1094~1103]는 세력을 더욱 확장해 오늘의 간도 지방을 거쳐 고려와 인접한 갈라전(曷懶甸)¹¹⁾까지 남하하였다. 이로써 완연부 여진은 두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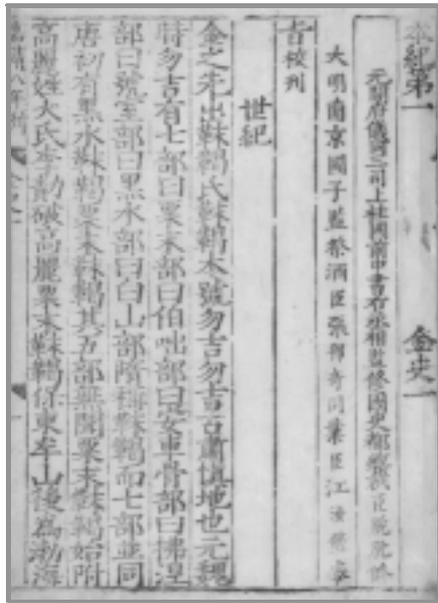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묘사된 여진인의 모습

8) 김구진, 1977 「윤관 9성의 범위와 조선 6진의 개척-여진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충』 21·22, 210쪽.

9) 이동복, 1986 「생여진사회의 성장」 『동북아세아사연구-금대여진사회의 구성』, 일조각.

10) 『金史』 卷1, 世紀.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神麓記』 에는 신라인 楷浦를 완연부 여진의 시조로 기록했다(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459쪽).



금사(金史) 1344

가

을 중심으로 오늘날 함경도에서 수분하 지역에 세력을 부식하기 시작하였다. 고려가 여진 정벌을 단행한 것도 이 완연부 여진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었다. 따라서 완연부 여진의 등장과 성장은 11세기말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여진의 군사조직

오늘날 금나라 건국 이전 여진의 군사 조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금의 군사조직을 바탕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진 역시 거란(요)이나 몽골과 마찬가지로 전시에 부족 단위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진의 군사 단위는 300호를 기본으로 한 모극(謀克)이며, 10개 모극을 묶어 1맹안(猛安)이라 하였다.¹²⁾ 여진은 1모극에서 1백 명의 남자를, 1맹안에서 1천 명의 장정을 징집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10개 맹안을 묶어 특모(忒母) 곧 1만 명을 구성하였다.¹³⁾ 이 맹안·모극제는 금 시대에는 지방 말단의 행정제도로도 운용되었다.

여진의 부대 편성은 5백~7백 기를 1대로 하는 거란군과 달리 50

11) 오늘날 曷懶甸의 위치에 대해서는 ① 조선후기 실학자 丁若鏞은 길주 이남에서 함흥 이북 지역 ② 일인학자 津田左右吉 및 김상기교수는 마천령 이남과 定州 이북 지역 ③ 松井等は 두만강 이남의 함경도 지방으로 비정하는 등 이견이 많다.

12) 『金史』 卷44, 志25 兵 兵制·禁軍·養兵之法. 여진 사회에서 모극은 ‘族長’이나 ‘族’의 의미를, 맹안은 ‘千戶’ 또는 ‘千戶長’을 의미한다.

13) 룩 환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68~169쪽.

기를 1대로 구성하였다.¹⁴⁾ 곧 여진군은 집단적인 공격기동이 실시되는 대규모 전투를 선호하지 않았다. 여진의 소부대 편성 방식은 산악과 삼림지대 등 기동력을 살리기 힘든 지대에서 기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편제는 선두에 돌과용 타격무기를 장착한 중장기병 20기가 배치되었고 뒤의 30기는 궁시로 무장한 경기병으로 이루어졌다. 중기병이 돌진하면 뒤에서 경기병이 엄호사격을 하였다.



그런데 여진의 소규모 부대 편성 방식은 기동성은 우수하나 대규모전이나 평원지대에서 적과 접전할 때에는 군사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여진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괴자마(拐子馬)라는 독특한 전술을 개발하였다.

금나라 여진인이 사용하던 칼과 창날

괴자마는 기마 세 필을 하나로 묶어 돌격시키는 방식으로 괴자마 뒤에는 보병이 창을 들고 따라갔다. 여진은 괴자마를 전투부대의 양쪽 날개에 배치해 힘의 집중을 이용한 충격 효과와 중장기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3) 여진과 고려의 관계

완연부 여진이 고려와 직접 접촉하기 시작한 때는 1097년(숙종2)이며,¹⁵⁾ 『고려사』에서는 1102년부터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1102년

14) 여진의 전술에 대해서는 임용한, 2004 『전쟁과 역사(2)』, 해안, 263~266쪽 참조.

15) 『金史』 卷1, 本紀1 世紀 穆宗10年.



금나라 여진인의 갑주

4월에 완연부 여진의 추장 잉거[盈歌:목종]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신하의 예를 갖추어 고려 국왕 숙종에게 하례를 올렸다.¹⁶⁾ 잉거는 이 해 11월 고려에 다시 사신을 보내 은기(銀器) 만드는 장인을 요청했고 고려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듬해인 1103년 7월에도 잉거는 사신을 보내 고려 국왕에게 하례하였고 11월에도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¹⁷⁾

고려는 완연부 여진이 내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국경 주변의 다른 여진족들처럼 완연부 여진 역시 분열되어 있는 여진의 한 갈래로만 파악하고, 이들의 동향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 않았다.

이 점은 고려가 완연부 여진의 내왕에도 불구하고 완연부에 사자를 보내지 않은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완연부 여진의 왕래가 증가하면서 고려 조정에서도 “여진이 동쪽에서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촉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¹⁸⁾

16) 『고려사』 권11, 세가 숙종7년 4월 갑진.

17)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8년 7월 갑진 ;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8년 11월 병신.

실제로 1102년 완연부 여진의 기병부대가 기습적으로 천리장성의 정주성(함남 정평) 전면에 진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려는 여진의 행동에 의혹을 품고 여진추장 쉬정[許貞]과 로푸[羅弗] 등을 유인, 체포해 광주(廣州)에 억류하였다.¹⁹⁾

또 1103년 7월에 고려 의원(醫員)으로서 완연부 여진에 살다가 잉거 친척의 병을 고쳐 준 공로로 고려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 의원은 고려 조정에 “흑수에 거주하는 여진이 날로 번성하며 병사들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고 하여 여진 경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고려는 비로소 완연부 여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잉가가 소해리(蕭海里)²⁰⁾를 성공적으로 평정한 것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사자를 파견하였다.²¹⁾

그러나 이때는 늦은 감이 있었다. 완연부 여진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다. 이미 잉거 세력이 주변의 여진 부족을 정벌, 통일하면서 간도까지 내려왔고 이어서 갈라전(曷懶甸) 근처까지 진출한 상태였다. 당시 동여진 지역은 형식적으로 거란의 지배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려의 세력권에 들어있었다. 이러한 때에 잉거가 사망하고(1103), 그 뒤를 이어 우야소[烏雅束]가 즉위하면서 공세적으로 세력 확장에 나서자 고려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18)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6년 8월.

19) 유재성, 앞의 책, 168쪽.

20) 蕭海里는 요나라(거란) 귀족으로 1102년에 반란을 일으켜 乾州의 무기고를 털어 여진으로 도망쳤다. 여진은 소해리를 잡아 무기를 압수했고 이를 기반으로 더 강성해졌다. (『金史』 卷1, 本紀1 世紀) 참고로 『契丹國志』에는 소해리 사건이 109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21)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8년 7월 갑진 ; 『고려사절요』 권7, 숙종8년 7월.

2. 국내외 정세

1) 주변국 정세

(1) 송의 위축

송나라는 960년에 5대 10국을 통일한 직후 중국 대륙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란이 점령한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채택하였다.²²⁾ 그러면서 안으로는 군부 세력을 억제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 문치(文治)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군사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고 990년 이후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군사력이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

여기다가 송은 거란(요)·서하²³⁾의 두 전선에서 후퇴하면서 건국 초기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선회해야만 했다. 송은 적대적인 주변의 이민족들을 상대하기 위해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외교술을 적극 개발했고, 송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였다.²⁴⁾ 그러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송은 아직 대외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송과 분쟁을 거듭하던 서하에서 1038년에 이원호(李元昊)가 ‘천자(天子)’를 자칭하면서 송의 권위에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송은 1040~1042년까지 서하와 몇 차례 전쟁에서 번번이 참패하고 말았다.

송은 서하가 거란에 대한 종속관계마저 거부하자 이를 계기로 거란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 송은 거란의 중재로 1044년에 서하와 협

22) 11세기 송과 거란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본서 2장 「고려와 거란 전쟁」 참조.

23) 西夏 : 1038년에 중국 서쪽 사막에 분산되어 있던 탕구트[黨項族]의 李元昊가 세운 나라. 이미 10세기 말부터 송나라에 대해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송과 서역을 잇는 중개 무역이 활발하였다.

24) 특관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35쪽.

약을 맺어 천자 칭호를 포기하는 대가로 매년 비단 13만 필, 은(銀) 5만 냥, 차(茶) 2만 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화의를 주선한 거란에게도 추가로 비단 10만 필, 은 10만 냥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송이 거란에게 지급한 총액수만 매년 은 20만 냥과 비단 30만 필에 달하였다.



왕안석 가

송이 해마다 주변국에게 지불한 평화유지 비용은 점차 송의 재정을 압박하였다. 송의 경제적 내구성은 극히 저하되었고 인종 이후로 재정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신종 대에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왕안석은 부국강병을 위한 내정 개혁으로 신법(新法)²⁵⁾을 시행했으나 관리들의 비협조와 반대파 [舊法黨]의 공격으로 결국 실패했으며, 송은 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의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문예 부흥을 이룩한 송은 군사력이 중국 역사상 가장 약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 때 송은 ‘전연의 맹약’에서 거란과 합의한 ‘기존 군사 초소를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군사 기지를 개선시킨다는 명목으로 거란의 눈을 피해 북쪽 변경의 방위력을 증강시켰다. 그러나 송은 1074년에 거란이 무력시위를 동반해 강력히 항의하자 거란이

25) 新法 : 송나라 왕안석이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위해 시행한 혁신정책(1069~1076년). 왕안석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남부의 新法黨에 속해있으면서, 부국책으로 靑苗法·市易法·均輸法·募役法(免役法)·方田均稅法, 강병책으로는 保甲法과 保馬法 등을 주창하였다. 이 가운데 방전군세법과 균수법 등은 부호나 富商 및 지주들의 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방전군세법은 부세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토지를 해마다 측량하고 부호들의 은닉된 토지를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균수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정부가 구입하여 부족한 지방에 轉賣하는 것으로 물가의 지방차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다(이춘식, 1992 『中國史 序說』, 교보문고, 260~261쪽).



소식

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거란과 해당 지역을 중립지대로 한다는 조약을 체결해버렸다.

그리하여 안보에 위기를 느낀 송이 주목한 국가가 고려였다. 송은 거란과 대치하면서부터 고려를 전략적 후원 세력으로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거란과 대치하고 있던 고려의 국력은 송이 기대한 전략적 평가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1044년에 송나라 관리 부필(富弼)도 하북 지방 방어책 12가지를 제시하면서 “고려가 거란을 섬기고 있지만 거란이 고려를 두려워하므로, 고려를 잘 대접해 거란이 송을 침범하려고 하면 고려로 하여금 거란을 치게 하자.”고 건의할 정도로 고려의 군사력은 강성하였다.²⁶⁾

이 점은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고려의 대외 전략과도 맞아떨어졌다. 고려 역시 송의 책봉을 받아 국가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북방에서 거란과 대치하면서 거란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로 친송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송은 994년에 단교된 고려와의 관계가 1071년(문종25)에 공식적으로 재개되자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고려에 대한 관계 개선에 힘썼다.²⁷⁾ 송은 1079년에 ‘고려교역법’까지 만들어 고려에 대한 우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였다. 그 결과 11세기

26) 강은정, 2002 「12세기초 고려의 여진정벌과 대외관계의 변화」 『북악사론』 9, 국민대학교, 155~156쪽.

27) 고려는 993년 8월에 거란이 침공하자 그 이듬해인 994년 6월에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 거란의 침공을 알리면서 원병을 요청하였다. 송은 고려 사신을 융숭하게 대접했으나 군사 요청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고려는 이를 이유로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후반 이후 송에 도착한 고려 사절단은 서하를 능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북송 말기에는 거란에 필적하는 대우를 받았다.²⁸⁾

이처럼 12세기 무렵 송은 옛 당나라처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대국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에 불과하였다. 거란의 영향 때문에 1019년 이후 송의 기록에서 여진 사신의 왕래 기록이 전혀 없는 점도 송의 대외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 거란의 쇠퇴

거란(요)은 1004년 송나라와 ‘전연의 맹’을 맺은 이후로 일약 동북아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이 맹약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일원적인 구도가 붕괴되고, ‘남조(南朝)’ 송나라에 대칭하여 ‘북조(北朝)’라고 불릴 만큼 강성해졌다.²⁹⁾ 그러나 그 영광은 채 100년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고려가 여진 정벌을 단행할 무렵에 거란의 국운이 쇠해지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채 20년도 되지 않은 1125년에 금(여진)에 망하고 말았다.

거란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것은 1055년에 도종이 즉위한 이후부터로 알려져 있다. 거란이 쇠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고 작은 반역과 모반이 잇따르면서 통치 집단의 반란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1055년에 황태자 숙부인 야율중원(耶律重元)이 그 아들과 반역을 도모했다가 실패하였다. 1075~1077년 사이에는 야율을신(耶律乙辛) 일당이 주도해 황후와 황태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8) 김성규, 2000 「고려 전기의 麗宋관계-宋朝 賓禮를 중심으로 본 고려의 국제지위 시론-」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9) 『宋史』 卷313, 列傳 王曾. “(송나라는)...매년 거란에 사자를 파견해 國書를 보낼 때에 南朝라 자칭하고 거란은 北朝라 불렀다.”

도중에 이어 즉위한 천조제(재위:1101~1125)는 집권하자마자 할머니 선의황후와 부모를 참사로 몰아넣은 야율을신 일당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천조제는 즉위 후 아버지 야율준을 황제로 추봉(追封)하고 남은 잔당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1111년 이후로 거란 조정은 황후 원비(元妃)·문비(文妃) 계열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권력 다툼이 치열해졌다. 결국 거란은 반세기 이상 내분을 겪다가 천조제를 끝으로 망해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고려의 여진 정벌은 대외적으로 당시 거란이 쇠퇴하면서 동북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거란은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여진의 성장을 인식했고, 오히려 내심 고려가 여진을 견제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책의 하나로서 고려와 연합해 여진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³⁰⁾

대외적으로 거란에 커다란 암운을 던진 존재는 여진이었다.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이후 여진은 거란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다. 거란은 여진을 미개한 야만인 집단으로 취급해 민족을 압박하고 가혹한 약탈을 일삼았다. 사치가 극심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천조제(재위:1101~1125) 기간에 거란이 자행한 여진에 대한 수탈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하나의 사례로 여진에 파견된 거란 관리들에게는 여진 처녀들이 제공되었다. 그런데 천조제 시기에는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배층 여자까지 겁탈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는 여진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커다란 상처가 되었다.³¹⁾ 여진들은 수시로 거란에 대항했으나 여전히 단합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으므로 거란

30) 강은정, 앞의 논문, 156쪽, 181~182쪽.

31) 특 관텐 저, 송기중 역, 앞의 책, 139쪽.

의 안위에 별다른 위협을 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11세기 말 완연부 여진이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 거란에 대한 여진의 반란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다. 거란이 국내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던 12세기 초에 거란의 세력권 안에 거주하던 숙여진은 생여진과 군사적으로 결합하였다. 이 새로운 연합전선이 힘을 발휘했을 때 거란은 그들이 가장 미개한 민족이라고 억압하던 여진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2) 국내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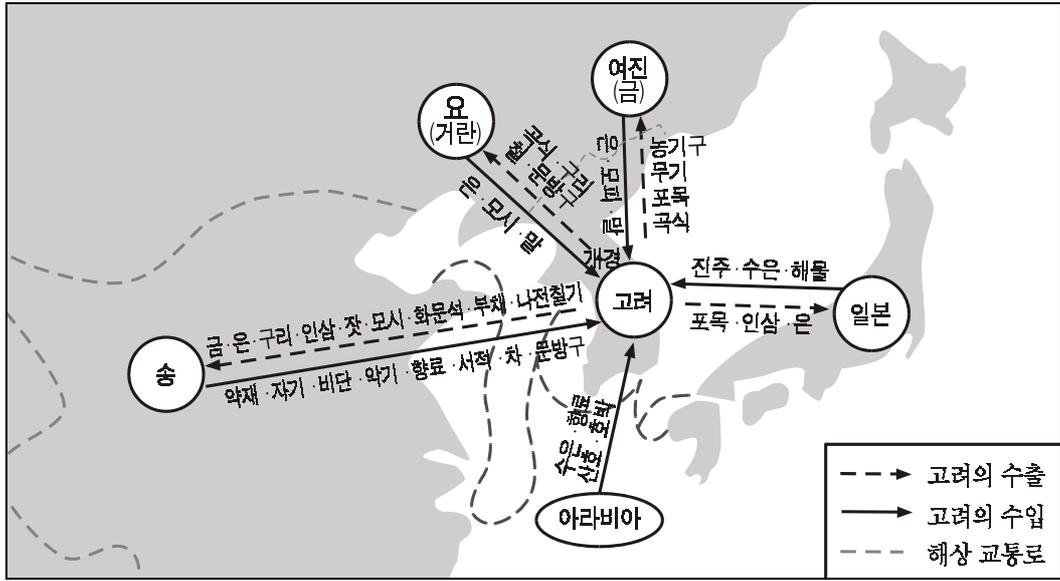
(1) 국력의 신장

11세기의 번영 11세기 고려는 대내적으로 건국이후 최고의 융성기를 맞이했고 대외적으로도 안정기를 누렸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안정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송·거란은 상호 활발한 대외무역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송의 상업 장려책과 당시 실크로드를 통한 대외무역의 확대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 고려에서도 생산력 발달과 유통경제의 활성화, 고려를 중개로 한 송과 거란, 여진간의 무역 등이 맞물리면서 상호 무역이 활기를 띠었다.³²⁾

11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고려의 대외 위상은 최고조에 달했다. 고려는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포함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해 나갔다. 고려는 거란과 크고 작은 충돌을 겪었으나 이 무렵에 사대책봉 관계를 유지해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예컨대 고

32) 박종기, 1994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6, 한길사, 234쪽.



고려시대 대외무역도 (『5』)

고려는 이전 시기에 비해 거란으로 파견한 사신의 횟수도 대폭 늘려 숙종(재위:1095~1105)은 한 해 평균 4회, 예종은 한 해 평균 2회 정도 사신을 보냈다. 특히 숙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란 황제에게 대규모 사절을 파견해 정치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썼다.

고려는 거란전쟁 이후 송과 단교한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1071년(문종25)에 외교 관계를 재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려는 여진 추장들에게 고려의 무산계(武散階)와 향직(鄉職) 등을 제수하여 고려가 동아시아의 중심 세력 가운데 하나임을 표방하였다. 고려의 국가 제사 가운데 하나인 팔관회에 여진·탐라·일본 등 여러 나라 사절단들이 참여해 조하 의식을 행한 것도 고려의 위상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준다.³³⁾

고려는 국제정세의 안정 속에서 대내적으로도 현종 이후 덕종(재

33) 강은정, 앞의 논문, 157쪽.

위:1031~1034), 정종(재위:1034~1046), 문종(재위:1046~1083) 그리고 숙종이 대를 이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건국 이래 최고 융성기를 맞이하였다.

문종은 태조 왕건 이래 문무를 겸비한 군주로서 재위 37년간 찬란한 치적을 남겨, 이 시절 나라가 부유하고 창고 곡식이 넘쳐날 만큼 태평시대를 구가했다고 한다.³⁴⁾ 문종은 문물제도를 크게 정비하는 가운데 국방에도 힘을 기울였다.³⁵⁾ 합리적인 군제 개편, 신형 궁노 및 혁거(革車), 뇌등석포(雷騰石砲) 등 성능이 우수한 무기의 개발과 보급, 동해~남해를 잇는 해안 요새의 구축과 군량·무기의 비축, 군사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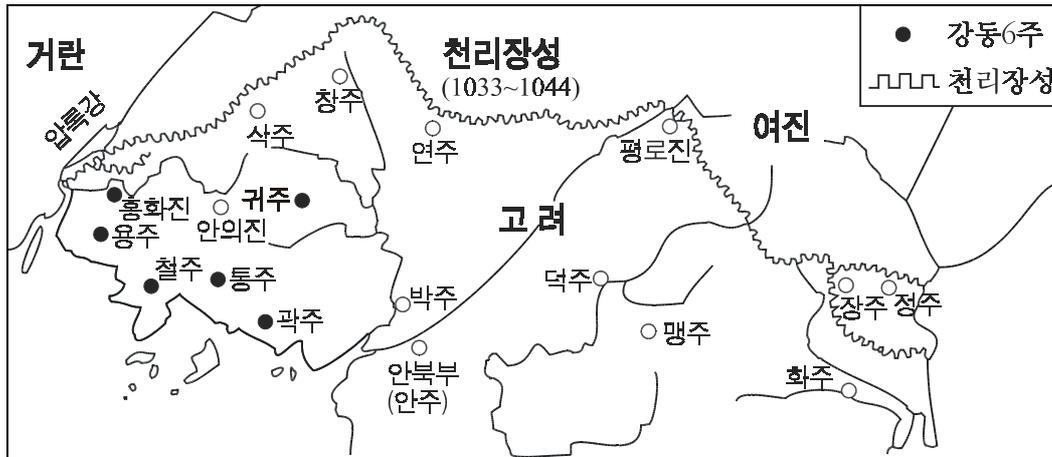
천리장성의 축조 고려는 1033년(덕종2)에 거란(요)은 물론 여진의 잦은 침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큰 프로젝트 하나를 계획하였다. 즉 거란 전쟁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바탕으로 북쪽 군사 요충지를 동시에 잇는 장성 축조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고려는 이 계획을 완성하면 북방의 변경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진 정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축성 사업은 1033년부터 1044년(정종10)까지 추진되었고, 그 결과 12년 후에 고려의 북방에는 천 여리에 걸쳐 천리장성이 위용을 드러냈다.

고려가 추진한 천리장성 축조는 주변국의 이해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거란이 고려의 성곽 축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벌

34) 『고려사』 권9, 세가 문종37년 7월 이제현사찬.

35) 민현구, 2004 「고려전기의 대외관계와 국방정책-文宗代를 중심으로」 『고려정치사론』, 고려대출판부, 122~127쪽.



천리장성 (『5』)

였기 때문이다.

거란은 고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1033년에 정주(靜州: 평북 의주)를 침략했고, 1035년에도 고려가 거란과 우호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성곽을 축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장성의 축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켰다.

고려 조정이 보여준 북방 지역에 대한 확보 의지는 이 무렵 병서 간행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늘날 고려시대 병서로서 알려진 책은 2종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1040년에 서북로 병마사의 건의로 북방의 요진(要鎭)에 보낸 『김해병서(金海兵書)』다.³⁷⁾ 『김해병서』가 간행되어 서북로에 배포된 시기는 천리장성의 축조가 진행되던 때였다. 이 병서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천리장성을 구축하면서 병서까지 간행해 서북로 지역에 보낸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고려 조정의 높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천리장성은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36) 『고려사』 권5, 세가 덕종2년 10월 정미 ; 『고려사』 권6, 세가 정종원년 5월 갑진.

37)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7쪽.

오늘날 평안북도 의주 지역인 위원·흥화·정주(靜州)·영해(寧海)·영덕·정용 및 영삭(평북 철산), 운주(평북 운산), 안수(평남 개천), 청새(평북 희천), 평려[平虜:평남 평원], 영원(평북 희천 동쪽), 맹주(평북 맹산), 삭주 등 13성을 거쳐, 함경남도 영흥 지역인 요덕(耀德)·정변(靜邊)·화주(和州)로 연결되어 동쪽으로 바다에 이어졌다. 『고려사』에는 장성의 길이가 천 여리에 뻗어있고 높이와 폭이 각각 25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⁸⁾

천리장성을 마무리한 고려 국왕 정종은 장주와 정주(定州:함남 정평) 및 원흥진에도 성곽을 축조하였다. 즉 오늘날의 정평 일대 및 금진구에도 성을 쌓은 것이다. 따라서 동북면의 장성은 금진천을 거쳐 정평까지 연결되었고, 이로써 고려가 여진과 교섭을 벌이는 최일선 거점이 화주(영흥)에서 정주로 북상하게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대규모 토목 사업은 많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한다. 12년간 지속된 장성의 축조는 이를 수용하고 실현한 국왕과 신하, 그리고 일반 백성의 피땀이 투여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 천리장성의 축조는 그만큼 고려가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사업으로 거란(요) 전쟁 이후 약 80여 년 동안 일구어낸 국가적 번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는 향후 12세기 초에 고려가 여진정벌을 단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2) 동여진 정책

건국 이래 고려의 여진 정책은 북진정책과 직결되어 있었다. 고려 입장에서 동북면(東北面)³⁹⁾은 서북면에 비해 북진 정책을 수행하기에

38) 『고려사』 권82, 志36 兵 城堡.

39) 동북면 : 995년(성종14) 和州와 溟州 등의 군현으로 朔方道를 삼았으며, 1036년(정종2) 이 지역을 東界라 하였다가 1047년(문종1)에 東北面<또는 東面·東路·東北路·東北界라



금나라 사람들의 복식

용이한 지역이었다. 만주 지역과 연결된 서북면의 진출은 북방 강대국 거란(요)의 압력으로 진퇴를 반복하던 것과 달리, 동북지역은 거란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간섭이 약했고 거란의 호적에 들지 않은 생여진 계통이 대부분이므로 설령 문제가 발생해도 국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고려가 동북면 개척에 힘을 기울인 시기는 현종에서 문종 대였다. 국초부터 고려의 동여진 정책은 온건론에 입각한 회유와 복속에 무게를 두었다. 여진의 침구가 있으면 토벌을 하기도 했으나 광범한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여진을 무력으로 복속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고려가 동여진을 회유하는 방식은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관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여진 지배층에게 장군·대장군이나 각종 향직(鄉職) 등을 내리거나, 여진들이 가축이나 말, 모피류를 가지고 조공하면 고려에서 이에 대한 답례로 경제적 특권을 주는 것이었다. 당시 동여진에서 고려에 요구한 물품은 직물이나 식량 및 철제 농기구 등 생필품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태조 왕건이 여진의 변화무쌍한 태도에 대해 ‘인면수심’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여진이 고려를 대하는 태도는 복종과

칭하기도 함>이라 하였다(『고려사』 권58, 志12 地理 東界).

배신을 반복하였다.⁴⁰⁾ 이들은 고려에 순종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려를 침구하였다. 문종 재위 37년 동안에 여진이 고려를 침략한 횡수만 24회이고, 귀화 횡수도 130회에 달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집단이었다.⁴¹⁾

더구나 동여진의 경우 바닷길을 통한 약탈행위로 고려에 큰 고통을 주었다. 동여진의 해상 침구는 거란전쟁 동안 고려의 동북면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더욱 창궐하였다. 동여진의 해적들은 동해안을 따라 영일이나 경주까지 내려와 약탈을 자행했고 그에 맞서 고려는 해군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⁴²⁾ 동여진의 해적 활동은 한반도를 벗어나 일본의 대마도나 북구주(北九州) 연안까지 미쳤으므로 일본에서는 동여진 해구를 ‘되적[刀伊賊]’이라 부르기도 하였다.⁴³⁾

고려는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문종 대에 여진을 회유·기미하기 위해 기존의 방책에서 한걸음 더 진전된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였다. 그것은 사민정책을 바탕으로 한 촌락 창설책으로서 ‘귀순주[羈縻州]’의 시행이었다. 귀순주란 귀순 여진인의 자치주로서, 고려에 귀순한 여진 촌락들에게 고려식 촌락 이름을 하사하고 여진 추장을 도령(都領)으로 임명해 다스리게 하는 제도였다.⁴⁴⁾ 간단히 말하면 고려에 예속된 자치지역으로 고려 영토나 다름없던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문종이 실시한 귀순주 정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1073년 무렵에 천리장성 밖 마천령 이남(또는 경성이남) 지역이 고려에 예속된

40) 『고려사』 권2, 세가 태조14년 11월 신해.

41) 김상기, 1974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의 북벌」 『동방사논총』, 서울대출판부, 477~506쪽, 520~550쪽.

42) 민현구, 앞의 논문, 118쪽.

43) 최규성,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320쪽. ‘刀伊’는 우리 말의 ‘되(夷)’를 음譯한 것이다.

44) 최규성, 위의 논문, 319~324쪽.

지역이 되었다. 고려는 귀순주의 여진들에게 고려식 성명을 하사하고 관작을 주거나 승진시키고 물품을 내려주었다.⁴⁵⁾ 이러한 귀순주 정책에는 여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진들이 고려의 영향권을 이탈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⁴⁶⁾

고려는 귀순주 정책을 통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동북면에 고정적인 방어선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친고려파의 양성은 동여진 부족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해 상호 적대행위가 빈번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고려에 대한 침략 행위도 활발해졌다. 예컨대, 1080년에 동여진이 난을 일으키자 고려 문종은 기·보병 3만을 정주(함남 정평)로 출정시켜 10여 부락을 평정한 적도 있었다.⁴⁷⁾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나 완연부 여진의 성장은 동여진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완연부 여진이 고려에 예속된 귀순주를 석권하고 정주 관문(關門)⁴⁸⁾까지 진출하자 고려는 온건 정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고려가 1104년(숙종9)과 1107년(예종2) 두 차례 걸쳐 여진 정벌을 단행한 것도 이전까지의 온건 정책을 버리고 무력으로 여진을 제어하겠다는 정책의 선회였다.

45) 노계현, 1989 「고려예종의 구성구축과 영토처리」 『국제법학회논총』 65, 74쪽.

46)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변’인식과 ‘동서변’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38~44쪽.

47) 『고려사』 권9, 세가 문종34년 12월.

48) 여기서 ‘關’이란 협곡 같은 험한 지역, 도로가 모이고 교통이 좋아 침입이 용이한 곳 등에 성을 쌓아 요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여진 정벌 전략

1) 여진 정벌의 발단

고려가 완연부 여진과 정면충돌한 곳은 갈라전(曷懶甸) 지역이었다. 갈라전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한반도 동북의 함흥평야에서 두만강 유역에 이르는 토착 여진의 거주지로 파악된다.⁴⁹⁾



함경도 국경지역인 회령의 동쪽 성문

갈라전 지역의 여진족들은 본래 고려에 귀순하며 살았으므로 고려와 동맹을 맺거나 고려에 의탁해 사는 친고려파들이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완연부 여진이 점차 강성해지자 완연부 여진에 귀순하고자 하는 부족이 나타났다.⁵⁰⁾ 완연부 여진의 등장으로 갈라전 지역의 여진족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9)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481쪽. 오늘날 曷懶甸의 위치에 대해서는 앞의 주 11번 참고.

50) 최규성, 1995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329쪽.

우야소는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잉거의 유지를 계승하여 장수 석적환(石適歡)을 보내 갈라전 경략에 착수하였다. 우야소가 갈라전을 침공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잉거가 1103년(숙종8) 11월까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고, 우야소 부대가 1104년 1월에 정주에 주둔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때 1103년 12월로 파악된다.

완연부 여진의 공격 대상은 친고려적인 성향을 띠면서 고려에 귀순주가 되었거나 복속된 여진 부락이었다. 우야소가 이처럼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데에는 세력의 확대 못지않게 군사력 증강을 위해 여진 부락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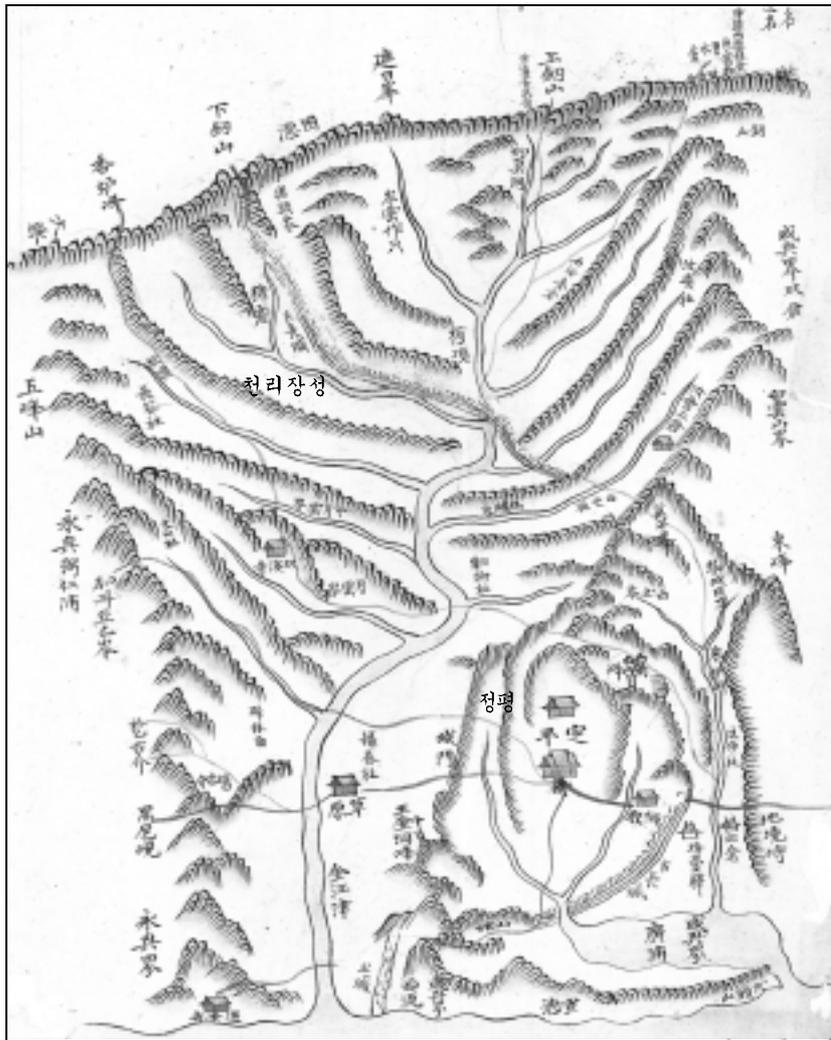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석적환 부대에 패한 여진 가운데 일부는 고려 영내로 도주하였다. 특히 오수(五水) 유역에 살던 여진들이 대부분 고려로 들어왔고, 완연부 여진에서 임명한 단련사(團練使) 14명도 고려군에 체포되었다.⁵¹⁾ 고려 측 기록에는 1104년 1월 6일에 동여진 남녀 1천7백5십3인이 귀순했다고 하는데, 아마 완연부 여진의 침공을 피해 온 사람으로 판단된다.⁵²⁾ 석적환 부대는 고려로 피신해 온 여진인들을 추격해 내려왔고, 마침내 천리장성이 연결된 정주(함남 정평)의 관문(關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고려는 완연부 여진이 정주 관문까지 내려온 행위를 고려 영토를 침범하는 무력 도발로 판단하였다. 고려는 완연부 여진이 고려가 확보해놓은 갈라전 지역을 넘보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 완연부 여진과 격돌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동북면 지역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론이 갈렸다.

임언(林彦)과 이일숙(李日肅) 등은 여진 세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즉시 정벌하자는 강경론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이영(李永)은 여진이 침략

51) 김상기, 1985 『新編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208쪽.

52)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9년 정월 신사.



18세기에 편찬된 『해동지도』에 보이는 정평부 (古長城)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였다.

숙종은 찬반양론 속에서 강경론으로 기울어져, 1104년 1월 8일에 임간(林幹)을 동북면 총책임자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⁵³⁾ 여진의 석적환 부대가 정주 관문에 나타난 지 이틀만이었다.

그런데 숙종이 여진 정벌을 결정하기까지는 당시 정치 상황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못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⁴⁾ 숙종은 이

53)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 『고려사절요』 권7, 숙종9년 정월, 2월.

자의(李資義)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자신의 어린 조카 현종의 선위를 받아 즉위했고 이후 10년 동안 집권하였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숙종은 외척이나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최대한 동원해야 했다. 따라서 여진 정벌은 윤관(尹瓘, ?~1111) 등 새로운 정치세력을 등장시켜 반대 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 숙종의 의도도 한 몫을 하였다.

2) 고려의 전략

1104년(숙종9)에 단행된 제1차 여진 정벌은 동북지방으로 뻗어가려는 고려의 의지와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완연부 여진과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⁵⁴⁾

1104년 1월초 완연부 여진의 추장 우야소가 보낸 부대가 정주성(함남 정평) 관문 밖에 주둔하자 고려 숙종은 여진의 준동을 차단할 목적으로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장차 완연부 여진이 성장해 고려에 위협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시작된 여진 정벌은 오늘날 ‘예방전쟁(Preventive War)’ 전략의 성격이 강했다.

이 무렵 고려는 동북아의 강자 거란의 침략을 막아냄으로써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 않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11세기 고려의 대내외적 위상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조직적인 준비 없이 경솔하게 완연부 여진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당시 국경 수비 대장이던 변장 이일숙이 “여진이 허약하니 크게

54) 정수아, 1988 「윤관세력의 형성」 『진단학보』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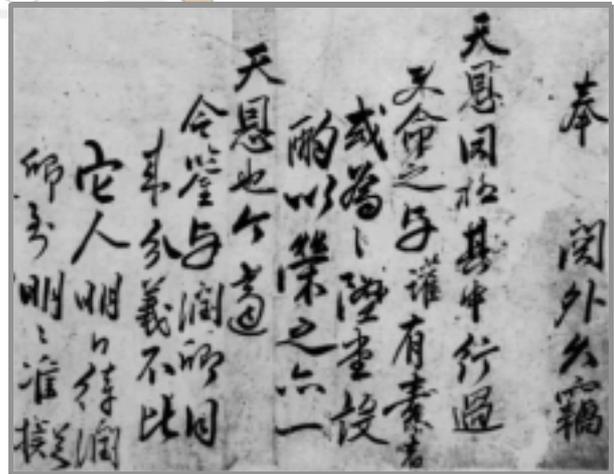
55) 이정신, 2004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77~78쪽.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를 잃고 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 입니다.”⁵⁶⁾고 건의했듯이 고려 조정은 전통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던 여진을 얽잡아 보았다. 임간 부대는 여진을 제압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동북면의 여진 부락을 향해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고려 조정이 1차 정벌을 위해 동원한 군사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임간 부대가 패하고 말았고, 이어 파견한 윤관 부대도 정벌에 실패하였다. 고려는 준비 없는 잘못된 기동으로 인해 여진 부락을 장악한다는 본래 군사 작전의 목표와 달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도 못한 채 후퇴하고 만 것이다.

고려의 전략이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진 정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고려사』에서는 임간이 적을 얽보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 것이 패인이라고 진단하였다. 『고려사절요』에는 임간이 전공을 탐낸 나머지 훈련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우다가 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⁵⁷⁾

이 점은 고려가 여진에 대해 갖고 있던 정보가 빈약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차 여진 정벌에 대한 기록이 매우 미비해서 임간 부대가 최후 공격 목표로 잡은 지점을 알기 어려우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이위(伊位:길주) 북쪽에 있



윤관이 쓴 편지 (『權域書彙』, 1935)

56) 『고려사절요』 권7, 예종2년 10월 임인,

57)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 『고려사절요』 권7, 숙종9년 2월.

는 병목[瓶項]으로 추정된다.⁵⁸⁾

이위(伊位)의 경계에 산들이 연해 있으니, 그것이 동해안에서 우뚝 솟아서 고려 북쪽 변방까지 뻗었는데 지세가 험준하고 산림이 무성해 사람이나 말들이 지날 수 없다. 그 사이에 길 하나가 있으니 흔히‘병목[瓶項]’이라 부른다. 그곳을 출입하는 데는 구멍 하나가 있을 뿐인데 만약 그 길을 막는다면 여진의 길은 끊긴다고 들었다.⁵⁹⁾

고려군의 작전 목표는 여진들이 남북으로 오가는 유일한 통로인 병목 일대를 확보, 차단하는 것이었다. 공명심 강한 사람들은 북쪽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관계로 이 좁은 길만 끊어낸다면 오랑캐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차 정벌 당시는 이 지점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후퇴하고 말았는데, 이후 1107년 2차 정벌 때 실제 이곳까지 진격하고 보니 병목은 “수륙(水陸)으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앞서 들은 내용과 매우 달랐다.”고 한다.⁶⁰⁾

이처럼 고려는 여진의 전력 탐색은커녕 지리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없이 적진으로 향했다가 신속한 기동력으로 대응하는 여진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치밀한 전략적 구상 없이 무모하게 진행된 공세는 결국 고려 병력 태반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58) 병목이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오늘날 함남과 함북의 경계를 이루는 마천령산맥 근처 또는 함북 길주와 명천 사이에 있는 험준한 계곡으로 보고 있다(임용한, 2004 『전쟁과 역사(2)』, 해안, 298쪽).

59) 『고려사절요』 권7, 예종2년 10월 임인,

60)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함경도 명천성

(下)』

.(『

4. 정벌 작전의 전개

1) 제1차 정벌

(1) 군사 작전

고려의 군사 기동 1104년(숙종9) 1월초, 완연부 주장 우야소가 보낸 부대가 정주성 관문 밖에 주둔하자 고려 숙종은 즉시 군대를 편성하였다. 1104년 1월 8일에 숙종은 임간(林幹)을 총지휘관인 판동북면 행영병마사에 임명하고, 이위(李瑋)를 서북면 행영병마사로, 김덕진(金德珍)을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임명하였다.⁶¹⁾ 임간은 병사를 이끌고 동북면을 향해 출발하였다.

임간이 이끄는 고려군이 정주(함남 정평)에 도착한 때는 1104년

61) 『고려사』 권96, 열전 尹瓘 ;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9년 정월.

2월 8일이었다. 임간 부대는 정주성 밖으로 출동해 여진군과 싸웠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임간 부대가 정주성에서 출격해 어디 지역까지 진격했는지, 당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려는 병력의 태반을 잃을 정도로 참패하였다.⁶²⁾ 아마 고려군이 여진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역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군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행히 중추원 별가 척준경(拓俊京) 등이 적진에 돌입해 적장 1명을 죽이고 고려 병사 2명을 구출하였다. 척준경의 용전으로 여진군이 잠시 퇴각하자 고려군은 이 틈을 이용해 정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장수 석적환(石適歡)이 이끄는 여진군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고려군의 뒤를 바짝 추격해 정주선덕관성(宣德關城)까지 쫓아왔다.⁶³⁾

정주에 도착한 고려군은 다시 여진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곳에서도 척준경은 인점(仁占)과 함께 적장 2명을 사살하였다. 지휘관을 잃은 여진군은 고려군이 강공으로 나오자 공격을 중단하였다. 여진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고려군은 비로소 성 안으로 들어왔다.

패전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2월 21일에 패장 임간을 파직하고 그 후임으로 추밀원사 윤관(尹瓘)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임명해 다시 여진정벌의 임무를 맡겼다. 3월 4일 윤관은 병력을 이끌고 진격해 다시 여진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여진 30여 명의 목을 베었으나 “사상 및 적진에 함몰(陷沒)된 자가 태반”이었다고 하듯이 고려 측의 사상자도 많았다.⁶⁴⁾ 고려는 여진과 대치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고서도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62) 『고려사절요』 권7, 숙종9년 2월.

63)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 『고려사절요』 권7, 숙종9년 2월 ;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64)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9년 3월 정축.

제1차 정벌에 대해 『금사(金史)』에는 석적환이 이끄는 5백여 명의 여진군이 벽등수(關登水)에서 고려군과 접전했고, 고려군을 벽등수까지 추격해 국경 밖으로 몰아냈다고 기록하였다.⁶⁵⁾



윤관 초상
2

정벌 작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윤관은 신속히 여진과 화의를 맺고 귀환하였다. 고려는 화의 대가로 고려에 망명해 있던 6명의 지도자와 단련사(團練使) 14명을 여진에게 넘겨주었다.

결과적으로, 110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제1차 여진정벌은 여진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고려는 이 정벌로 인하여 병력 손실은 물론 여진이 정주 선덕관성까지 쳐들어와 성안을 불태우고 인명을 살상하며 노략질하는 바람에 민간의 피해도 컸다.

반면에 여진은 이 전쟁을 통해서 고려와 강계(疆界)를 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삼잔수(三澗水:북청)에 막부(幕府)를 설치해 친고려파 수장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고, 나머지 친고려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65)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벽등수의 위치에 대해 일제시대 일인학자들은 함경남도 함흥 근처 城川江이라 판단하였고, 최근 우리나라 학자들은 함남 端川의 福大川으로 추정하고 있다(『동국병감』,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205쪽).

불문에 붙여 민심을 진정시켰다.⁶⁶⁾ 그러나 고려와 대치해있는 상태를 부담스럽게 여긴 완연부 여진은 1104년 6월 강계를 정하기 위해 세운 성곽들을 철거해 싸울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사절 68명을 정주 관문으로 보내 고려에 화의를 요청하였다.⁶⁷⁾

(2) 재정벌 논의

별무반 창설 고려 숙종은 여진 정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원하노니 신명께서 적을 소탕하게 해주시면 그 땅에 사찰을 창건하겠나이다.”라고 기원할 정도로 강한 정벌 의지를 표출하였다.⁶⁸⁾ 거란 전쟁이 끝난 11세기 중엽이후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면서 여진 지배를 강화하고자 했던 고려에게 패전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⁶⁹⁾ 그리하여 제1차 정벌 직후에 재정벌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여 군사 훈련은 물론 군량 축적도 꾸준히 해나갔다.

숙종은 처음에 임간 부대가 실패했을 때에는 여진을 얕본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윤관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귀환하자 고려군의 실패가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였다. 동북면에서 귀환한 윤관도 “적의 세력이 완강해 무슨 변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여진과 싸우려면 일단 병졸과 군관을 휴식시킨 뒤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⁷⁰⁾ 이와 함께 윤관은 중요한 패인으로 “적군은 기병인 반면에 아군은 보병”

66)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67)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9년 6월 갑인.

68)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69) 추명엽, 2001 「11세기 후반~12세기 초 여진정벌문제와 정국동향」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107~108쪽;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변’인식과 ‘동·서변’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43~44쪽.

70)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이어서 고전했다고 보고하였다.

보병과 기병 중 어느 병과가 우월한가 하는 문제는 각 시대별 또는 각 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보병이 결정적인 병과였으나 중세에는 기마민족 또는 반기마민족이 병역을 전담하면서 보병은 기병의 보조 전투력으로 전락하였다.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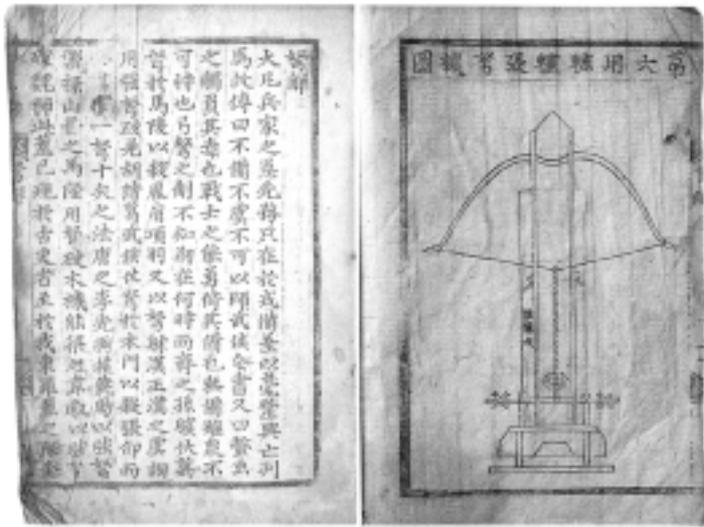
고려는 과거 거란(요)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 수성전을 위주로 한 보병 전술 즉 궁수와 노수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보니 야지에서 빠른 속도로 기습 공격하는 여진 기마병을 제압할 수단이 고려에게는 부족했던 것이다. 윤관은 여진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인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 공격부대를 창설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1104년 12월에 창설된 부대가 별무반(別武班)이었다.

별무반은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 및 특별부대로 구성되었는데 신기군에 중점을 두었다. 말[馬]을 소유한 자는 신기군에 편성하고, 20세 이상 남자로서 과거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자는 신보 및 도탕(跳蕩), 경궁(梗弓), 정노(精弩), 발화(發火) 등의 병종에 편성시켰다. 이밖에도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降魔軍), 노예들로 구성된 연호군(煙戶軍) 등이 편성되었다. 이처럼 별무반은 문·무 관리 및 서리로부터 상인·승려·노예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총력부대였다.⁷²⁾

별무반에 속한 병종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명칭으로 유추해보면, 신보는 보병부대, 도탕은 선발 돌격부대, 경궁은 강력한 활을 주무기로 쓰는 부대, 정노는 쇠뇌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부대, 발화는 화공부대로 판단된다. 이 병종들은 모두 동북면의 좁

71) 권터 블루멘트리트 지음, 류제승 옮김, 1994 『전략과 전술』, 한울아카데미, 146쪽.

72)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노(弩)를 녹로에 장착한 후 시릿줄을 걸어 당기는 모습 (『 』)

고 가파른 산악지형에서 기습과 돌파력이 뛰어난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 기병부대를 지원하고 백병전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창설된 별무반은 예종이 즉위한 1105년 말 무렵에 신기군이 동북면에 배치될 만큼 큰 진전을

보고 있었다.⁷³⁾

군 기강 확립 고려는 여진 재정벌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군 기강에도 눈을 돌렸다. 고려 조정은 여진에 패한 원인을 군 기강 해이에서 찾고 군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는 거란(요)이 침공했을 당시 전군에 시행한 군령을 1106년(예종1)에 다시 부활하여 군기를 단속하였다.

사실 고려시대 군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은데, 『고려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군법이 여진 재정벌을 앞두고 강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⁴⁾

1. 1차 군사 훈련에 응소하지 않은 자는 관직 고하를 불문하고 잔등[脊杖]에 곤장 15대를 친다.

73) 『고려사』 권96, 列傳 吳延寵.

74)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군율.

2. 2차 군사 훈련에 응소하지 않은 자, 전진 또는 퇴각시 대오를 이탈한 자, 유언비어로 군사들을 현혹하는 자, 병장기를 떨어뜨리거나 분실한 자, 대정 이하의 장교로서 명령을 받고도 전하지 않거나 전해 듣고도 불복한 자, 상관을 구원했으나 죽게 한 자, 군사기밀 누설자, 적이 아군 진지에 잠입한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는 다 잔등 20대를 친다.
3. 군 소집 기일을 어긴 자, 도망칠 의도로 적과 싸우지 않거나 망동하는 자, 장수 명령에 불복종한 자, 병장기를 적중에 내버린 자, 상관을 구원하지 않아 죽게 한 자, 전투 중 위급에 처한 인접 부대나 전우를 구원하지 않은 자, 동료 무기를 빼앗거나 전공을 가로채려는 자, 장군·장교로서 적과 싸우지 않거나 진중으로 도망쳐오거나 투항하자고 말한 자, 배치된 진지에서 적의 돌격을 막아내지 못한 자들은 모두 참형에 처한다.
4. 적에게 투항한 자는 가산을 몰수하고 부인과 자식을 처벌한다.
5. 항복한 적군을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죽인 자는 곤장 20대에 처한다.⁷⁵⁾



위의 군법에서 눈에 띠는 조항은 군 소집 기일을 어긴 자를 참형에 처한다는 점이다. 당시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각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전시에 병역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해야 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장정들을 신속히 집결시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고려는 유사시 제한된 기간 안에 병력을 모으기 위해 참형이라는 엄격한 군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75) 현종 때에는 이 항목에 대한 형벌이 참형이었다.

2차 정벌의 결정 고려는 1107년(예종2) 윤10월 여진정벌을 다시 단행하였다. 1차 정벌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제2차 정벌 역시 고려의 복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여진에 대한 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숙종은 여진정벌의 숙원을 이룩하지 못한 채 1차 정벌 이듬해인 1105년 10월에 서경으로 행차하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숙종의 유훈을 받은 예종은 즉위 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동북면을 예의 주시하였다. 예종은 1105년 11월에 동북변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신하들을 동북면으로 보내 산천의 지형을 정찰하고, 12월에는 고위관료들을 불러 동북면 문제를 논의하였다.⁷⁶⁾

예종은 1106년 1월에 별무반 신기군을 사열하였고, 윤관·오연총 역시 신기·신보군을 사열한 후 새로 편성한 별무반의 능력을 점검하였다.⁷⁷⁾ 또 이 무렵에 동북면에 임시로 병마사 김덕진과 부사 임신행을 파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107년 3월에 예종은 유태수를 서북면에, 임언을 동북면에 파견해 여러 성(城)들을 순시, 각 성의 전투 준비 상황을 살폈다.⁷⁸⁾

그런데 예종은 여진 정벌의 의지를 불태우던 숙종과 달리 여진 정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즉위 직후 국내 문제에 힘을 쏟은 예종은 전쟁보다는 서경에 궁궐을 신축하는 등 왕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에 더 주력하였다.

때맞추어 완연부 여진은 1106년에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1차 정벌 때 활약한 장수 지훈(之訓)을 파견해 자자손손 신하의 예를 갖추어 조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⁷⁹⁾ 이로 부터 예종은 완연부 여진에

76)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즉위년 11월 임술, 12월 을해.

77) 『고려사절요』 권7, 예종원년 정월, 11월.

78)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즉위년 12월 기묘 ;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1년 3월 정미 ;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2년 3월 기해.

대한 의심을 풀고 동북면에 임시로 파견한 지휘관들을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북면의 상황은 고려의 예상과 달리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1107년 국경에서 여진 동태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하였다. 보고서 내용은 “여진이 강해져서 우리 변경에 있는 성들을 침입하며, 그 추장이 바가지 한 개를 갈가마귀 꼬리에 달아 각 부락으로 돌리면서 큰 일을 의논하고 있으니 그들의 심중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⁸⁰⁾ 동여진 부락에서 군사 행동 및 결속의 기미가 포착되고 있다는 이 보고는 숙종의 유훈을 잊지 않던 예종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은 한동안 정벌을 결정짓지 못하다가 비로소 출병을 결심하였다. 예종은 윤관을 원수로 임명하고, 오연총(吳延寵)을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윤관은 “제가 일찍이 선왕의 밑지를 받았고, 이제 또 전하의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을 통솔하고 적의 보루를 격파해 우리 강토를 개척하고 지난날의 국치를 씻지 않겠습니까?”라고 결의를 다지고 출정하였다.⁸¹⁾ 드디어 1107년 10월 제2차 정벌의 막이 올랐다.

2) 제2차 정벌

(1) 군사 작전

고려의 군사 기동 1107년(예종2) 윤10월 20일에 정벌군 총사령관 윤관은 17만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진격하였다. 정벌군의 부책

79)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원년 3월.

80)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81)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 『고려사절요』 권7, 예종2년 10월 임인.



2차 여진정벌 당시 고려군의 기동로

임자는 오연충이며, 좌군병마사는 문관(文冠), 중군병마사는 김한충(金漢忠), 우군병마사는 김덕진(金德珍)이었다. 1차 정벌 때 공을 세운 척준경도 참전하였다.

제2차 원정은 고려 전역에서 병사를 징집하고 준비한 총력전이었다. 총사령관 윤관은 1차 정벌의 실패를 교훈삼아 단기속결의 기습 전략을 선택하였다. 여진의 집요한 반격을

피해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전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군이 2차 정벌 때에도 최후 공격 목표로 잡은 지점은 병목[瓶項]이었다. 윤관은 병목까지 신속히 북상한 후 그곳을 점령, 차단한 후 군사 기지를 건설해 여진의 준동을 초기에 제압한다는 기습 전략을 구상하였다. 따라서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불필요한 전투를 최대한 자제하고 최후 군사 목표 지점을 향한 원거리 작전 기동이 관건이었다.

윤관은 본격적인 군사 기동에 앞서 여진 부족을 분열시키기 위해 기만전술을 준비하였다. 1107년 12월 3일에 장춘역(長春驛)에 도착한 윤관은 17만 군사를 20만이라고 과장해 정주(함남 정평)에 두 장수를

들여보내 여진인 추장 4백여 명을 유인하여 격살하였다. 이는 고려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배반할 우려가 있는 여진을 사전에 제압하고, 적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여진 추장 가운데 50~60명이 이를 의심해 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김부필과 척준경을 시켜 주요 통로마다 군사를 매복시킨 후 대부분 죽였다.

1단계 작전을 성공리에 끝마친 윤관은 같은 날 신속하게 군사 기동을 개시하였다. 윤관은 지도부 공백으로 균형을 잃은 여진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윤관은 부대를 5군으로 나누어 수륙 양면으로 정주성을 비롯한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일거에 쳐들어갔다.

총사령관 윤관은 5만3천 명을 거느리고 정주의 대화문으로, 중군 병마사 김한충은 3만6천7백 명을 거느리고 안육수(安陸戍:정평읍 부근)로, 좌군병마사 문관은 3만3천9백 명을 이끌고 정주 홍화문으로, 우군병마사 김덕진은 4만3천8백 명을 거느리고 선덕진(宣德鎭)의 안해(安海)·거방(拒防:안해·거방 모두 廣浦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병선별감 양유송, 원흥도부서사 정송용 등은 수군 2천6백 명을 이끌고 도린포(道麟浦 또는 都連浦:廣浦)로 진출하였다.⁸²⁾

고려군은 비교적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은 채 정주 일대를 신속히 점령하였다. 윤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대를 북쪽으로 계속 기동시켰다. 정주를 지나 만나절 행군하고서 비로소 전투가 개시되었다. 최초 전투지는 문내니촌에 있는 동음성이었다. 고려군은 동음성에서 농성하는 여진을 깨뜨리고 성을 점령하였다. 이어 12월 14일에 척준경의 활약으로 석성(石城)에서 강력하게 농성하는 여진들을 함락시켰다.

82) 『고려사절요』 권7, 예종2년 12월.

함흥을 확보한 윤관은 기동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파죽지세로 다시 북상하였다. 오늘날 길주에 있는 이위(伊位)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다. 부필과 이준양 등이 끝까지 분전한 결과 고려군은 여진군 1천2백 명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고려군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올린 전과는 총 135개 촌락을 없애고 5천여 명에 가까운 적군을 죽이고, 포로 5천을 사로잡았다.⁸³⁾ 윤관은 즉시 승전 소식을 예종에게 보고하였다.

요컨대, 여진을 초기에 제압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윤관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고려군의 위용에 놀란 여진들은 공황 상태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고려군은 별다른 피해없이 정주 일대를 확보했고, 조직적으로 기동해 함흥을 거쳐 길주까지 진격하였다. 고려는 신속한 돌파로 눈부신 전과 확대를 이루어낸 것이다.

윤관의 9성 축조 1107년 12월 고려군이 거둔 큰 승리는 윤관의 전략적 판단과 기동력에 의한 것이었다. 윤관은 여진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전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단계 작전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확보한 영역을 영구히 고려 영토로 만들기 위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성곽의 축조는 숙종이 “적경(賊境)에 성을 쌓고 절을 세워 불교를 보급시켜야 하겠다.”고 했듯이 이미 개전 당시부터 입안된 것이었다.⁸⁴⁾

윤관은 길주 이위(伊位)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일단 전진을 멈추었다. 윤관은 여러 장수들을 각 방향으로 신속히 파견하여 국경선을 정하

83)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윤관이 이끄는 부대가 37村 격파, 사살 2,120명, 포로 500명이었고, 중군에서 35촌 격파, 사살 380명, 포로 230명이었고, 좌군에서 31촌 격파, 사살 950명이었고, 우군에서 32촌 격파, 사살 290명, 포로 300명의 전과를 올렸다.

84) 추명엽, 2001, 앞의 논문, 108~111쪽 ;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 『고려사』 권13, 세가 예종4년 5월.

였다. 이 때 획정된 경계는 동쪽으로 화곶령, 북으로 공한이령, 서쪽으로 몽라골령이며, 이곳에 각각 성을 쌓아 화곶령은 웅주, 공한이령은 길주, 몽라골령은 영주(英州)라고 불렀다. 또 오림금촌에도 성을 쌓고 복주라고 하였다.⁸⁵⁾

윤관은 1108년 2월에도 함주(함흥)와 공험진(公嶮鎭)에 성을 쌓고, 3월에 다시 선주(함남 덕원), 통태(함남 함주), 평융(함남 함주)에 성을 쌓았다.⁸⁶⁾ 그리고 북정(北征)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한 공적비를 공험진에 세워 고려 국경으로 삼도록 하였다.⁸⁷⁾ 이로써 동북면에 총9개의 성곽이 구축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관의 9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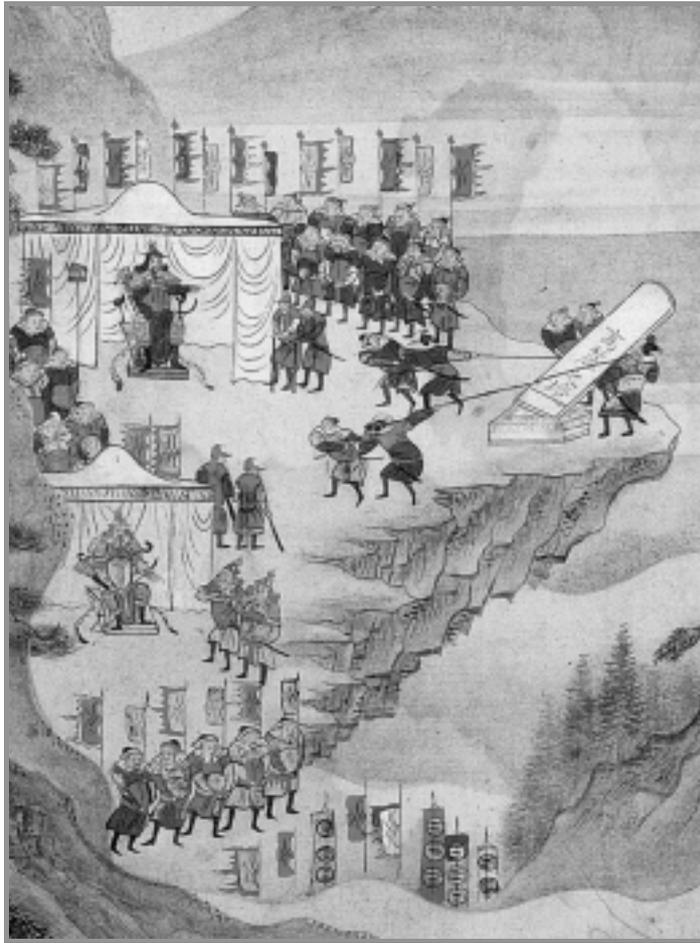
고려는 이 지역에 성만 쌓은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방어사를 파견했으며 남도 주민들도 이주시켰다. 고려인이 처음 이주한 지역은 농사에 적당한 함주·영주·웅주·복주·길주·공험진 등 6성으로, 6천 4백6십6정호(丁戶)가 옮겨갔다.⁸⁸⁾ 곧 이어서 다시 이주가 실시되어 그 규모만 무려 6만9천 호에 달하였다. 따라서 9성 개척의 목적은

85)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86) 『고려사절요』 권7, 예종3년 2월 ; 『고려사』 권7, 세가 예종3년 3월.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점은 1108년 3월에 성을 쌓은 지역이 선주·통태·평융이나, 1109년 7월에 시행한 9성 철수 당시에는 선주·평융 두 성이 없는 대신에 승녕·진양·선화의 3성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고려사』를 편찬한 사관들도 “...이는 가히 의심스러운 것이다.”고 적고 있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선화진).

87)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현재 9성 위치는 함흥평야설, 길주이남설, 두만강북7백리설, 두만강북설 등 이견이 많으며, 특히 선춘령에 위치한 공험진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흥평야설은 일제 일인학자들이 주장했으며 오늘날 국정교과서에도 수록된 학설이다. 길주이남설은 조선후기 실학자 한백겸이 주장했으며 유형원·신경준·윤정기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두만강북7백리설은 조선시대 관찬서나 지도류에 기록된 내용으로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 7백리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두만강북설은 고려의 귀순주가 길주 이북 두만강 이남 지역이었고, 『金史』에 두만강유역에서 전투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제기되었다. 최근 김구진선생은 공험진이 두만강 하류에서 수분하 일대 연해주에 설치되었고, 함흥에서 두만강 유역에 나머지 성곽들이 축조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최규성,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327쪽 ; 김구진, 1976 「공험진과 선춘령비」 『백산학보』 21, 112~113쪽).

88) 『고려사절요』 권7, 예종3년 3월 ; 『고려사』 권96, 列傳 尹瓘.



척경입비도 9 (『 』) '高麗之境'

영토 확장은 물론 국내의 농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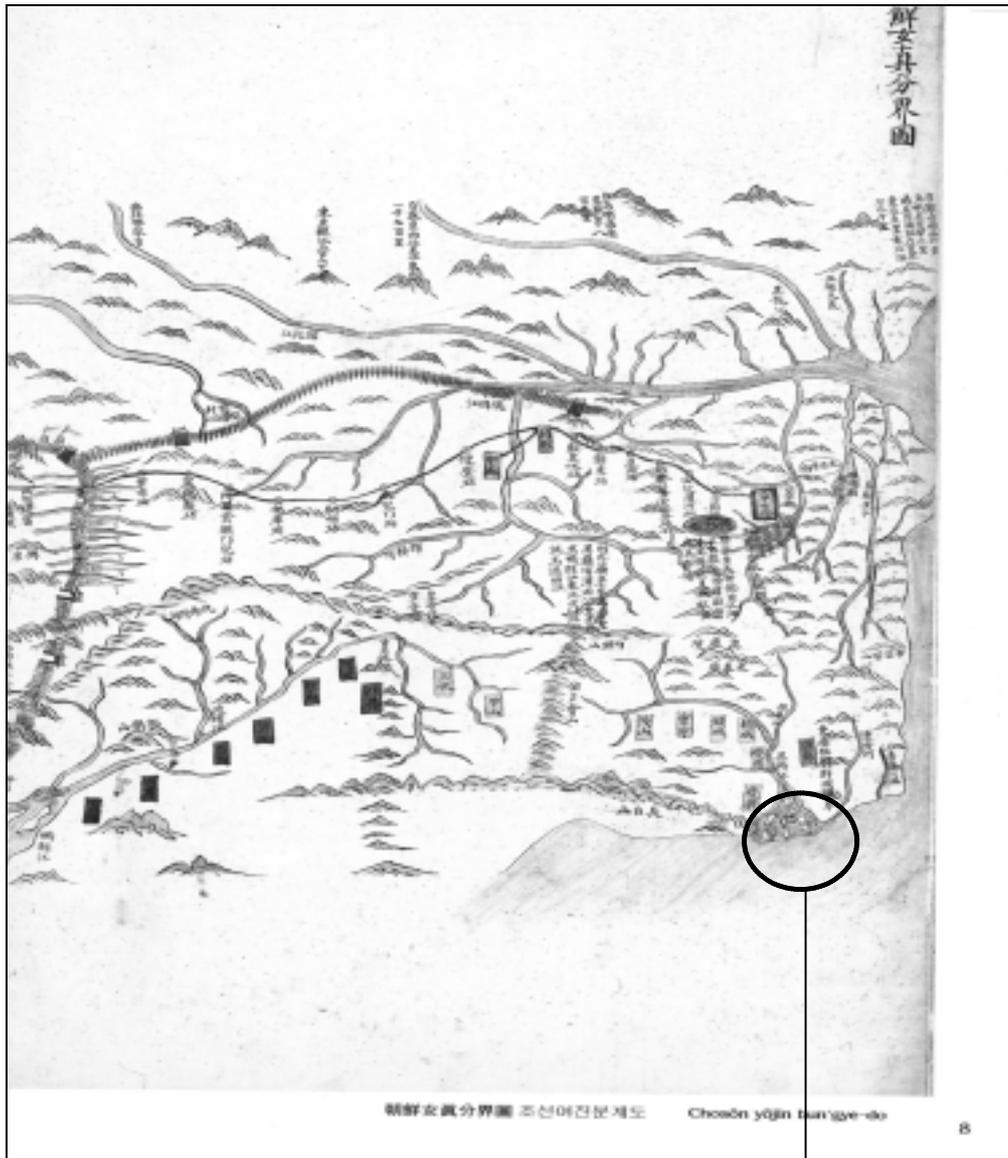
그런데 고려가 거점 확보를 위해 시행한 공세 전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완연부여진이 고려가 확보한 지역의 여진과 연합해 반격을 가해오면서 고려의 전진이 좌절된 것이다. 9성 축조 당시 중군 사령관 김한충(金漢忠)은 무리하게 성곽을 축조하는 것에 반대했고, 병마부사 박경인(朴景仁) 역시 “적지 깊숙

이 성지를 쌓는 것은 지금 성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⁹⁰⁾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가 군사 목표 지점으로 잡은 병목은 수륙의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있어 고려가 예상하던 것과 아주 달랐다. 그래서 윤관은 여진 왕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 당초 계획보다 더 북상하였다. 적진 깊숙이 들어간 고려군은 적은 병력으로

89) 김구진, 1977 「尹瓘 九城의 범위와 조선6진의 개척-여진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충』 21·22, 224~226쪽 도표.

90) 『고려사』 권95, 열전 金漢忠 ; 『고려사』 권95, 열전 朴寅亮 附 景仁.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 (『
 『고려사』, 18)

‘高麗境’

가

‘고려경’
 ‘선춘령’

로 넓은 점령지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만약 여진이 협공이
 라도 편다면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배수진을 친 채 여진과 전쟁을
 벌여야 할 형편이었다.⁹¹⁾

91) 『고려사절요』 권7, 예종4년 5월.

또 고려 조정이 실시한 사민 정책은 이 지역에 살던 여진 입장에서 오랜 삶의 기반이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위기였다. 당시 고려인의 이주 규모는 남도의 고려인이 여진과 평화스럽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그들을 내쫓아야만 거주가 가능한 숫자였다.⁹²⁾

이 때문에 고려에 우호적이던 여진들조차 자신들의 근거지 탈환을 위해 고려를 적으로 삼아 필사의 항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⁹³⁾ 이는 여진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 고려가 자초한 위기였다. 결국 여진은 강은 양면 작전으로 치열하게 저항하여 고려로 하여금 이 지역을 다시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2) 여진의 반격

여진의 9성 위협 고려가 여진 정벌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무렵인 1108년(예종3) 1월에 완연부 여진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전황은 고려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했다. 완연부 여진의 추장 우야소는 고려에 억류된 여진들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온 사자로부터 고려가 기만 전술을 써서 많은 추장들을 죽이고 갈라전 지역에 침입해 성곽을 구축했다는 급보를 접하였다.

우야소는 바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였다. 대부분의 추장들은 출병을 반대하였다. 이미 거란(요) 전쟁에서 확인되었듯이 거점을 확보한 고려군과 싸우는 것은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고려에 맞서 군대를 총동원했다가 거란이 후방에서 여진 부락을 공격한다면 완연부 여진의 패배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⁹⁴⁾

92) 이정신, 2003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81쪽.

93) 김구진, 앞의 논문, 212~213쪽.

대부분 주장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가운데 아골타(阿骨打)는 전쟁 수행을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아골타는 우야소의 사촌동생으로 후일에 금나라 태조로 등극하는 사람이다. 아골타는 주장들에게 군대를 동원해 항전하지 않으면 갈라진 지역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지역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아골타의 강경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면서 의론은 출병으로 결정되었다.⁹⁵⁾ 결과적으로 고려의 9성 축조는 분산되어 있던 여진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10> 1108년 1월 이후 고려·여진의 공방 일지

시기	공 방 일 지
1108.1	·윤관·오연총 부대 8천이 병목에서 여진의 기습으로 10여 명만 남음 ·여진의 보병·기병 2만이 영주성 주둔
1108.2	여진군 수 만이 용주성 포위, 고려 승리
1108.3	·여진이 영주성 밖에 와서 주둔, 관군 20급 베고 무기 및 말 노획 ·여진이 용주성 밖에 내습 포위
1108.4	·여진이 용주성 밖에 목책을 세워 포위 ·윤관·오연총 개경으로 개선
1108.5	·고려 문관·김준이 용주성을 포위한 여진에 맞서 1만 명을 이끌고 접전 끝에 27일 만에 여진 포위 풀
1108.7	·윤관, 개선 후 3개월 만에 재출정
1108.8	·고려 왕자지·척준경이 함주·영주·길주의 여진 공격
1108.9	·고려 왕자지, 척준경 등이 사지령에서 여진 접전
1109.1	·고려 왕사근 등이 함주에서 작전 중 전사
1109.2	·장문위 등이 송녕진(함남 함주)에서 여진과 접전 ·허재 등이 길주관 밖에서 여진과 접전
1109.3	·고려군이 송녕진, 길주의 싸움에서 여진 1백여 명 사살
1109.4	·오연총, 길주성 구원위해 8개월 만에 재출정
1109.5	·여진이 선덕진에 침입해 사람 죽이고 재물 약탈 ·여진이 길주성 포위, 오연총 부대 대패 ·고려 오연총 부대, 공험진에서 여진 역습으로 대패

(자료 : 『고려사』 『고려사절요』)

94)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95) 上同



금나라 여진 무사의 모습 ()

여진의 조직적인 반격은 1108년 1월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1109년 7월 양국이 화의를 맺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윤관 부대가 처음 맞본 패배는 9성 축조 중에 잔적 소탕에 들어간 1108년 1월이었다. 당시 윤관은 정병 8천을 거느리고 공한리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포위당했다가 척준경의 분전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여진의 반격은 1108년 1월 26일에 완연부 여진의 보병·기병 2만 명이 영주성 남쪽에 와서 주둔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⁹⁶⁾

여진군은 웅주와 길주에 병력을 집중해 최대 전력으로 고려군에 반격을 가하였다. 고려군이 확보한 9성은 여진이 신속한 기동성과 숙지된 지형을 이용해 공격하자 위협에 처하였다. 성을 포위한 여진은 고려가 인접 거점 지역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채 장기간 성을 포위했고, 고려의 병참선을 차단시켜 위기를 고조시켰다.⁹⁷⁾

여진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고려의 전투력이 분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력 약화를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군은 점령지역에서 위험한 상황을 수시로 겪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개경으로 개선한 윤관과 오연총이 재차 왕명을 받들고 출정했으

96) 『고려사절요』 권7, 예종3년 정월.

97) 『고려사절요』 권7, 예종3년 2월 임진.

나 1년여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결정적인 위기는 1109년 5월에 길주와 공협진 두 성이 함락 직전에 이르고 이를 구원하러 갔던 오연총이 중도에 여진의 습격을 받아 대패한 것이었다. 이제 여진 정벌은 윤관이 구상했던 전쟁 구도를 벗어나 장기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고려 조정은 이 시점에서 군사력을 계속 급파하기 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하였다.

고려의 9성 철수 예종은 고려군의 패전 소식을 접하자 1109년(예종4) 5월 22일에 재상과 문무대신을 소집하여 동북면 사태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완연부 여진 역시 함주성으로 사신을 보내 강화의 뜻을 전해왔다. 1109년 6월 윤관·오연총 부대는 정주에서 군사를 정비해 길주 방면으로 진군하던 중 여진이 강화를 청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북상을 중지한 채 정주성으로 되돌아 왔다.⁹⁸⁾

6월 23일, 고려 조정은 대신 회의에서 강화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평장사 최홍사(崔弘嗣) 이하 28명은 9성을 돌려주는 데에 동의했고, 박승중과 한상 등이 반대하였다. 7월 2일, 예종은 문무 3품 이상의 관원들을 소집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참석한 모든 대신들이 찬성하였다. 예종은 7월 3일에 여진의 사자를 선정전으로 불러 9성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⁹⁹⁾ 윤관이 성을 구축한 지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미 여진은 1109년 4월부터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고려에 강화를 청하고 9성을 돌려줄 것을 간청하였다.¹⁰⁰⁾ 여진 입장에서든 고려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98) 『고려사』 권13, 세가 예종4년 6월 을유.

99) 『고려사절요』 권13, 예종4년 6월 병신 ; 『고려사』 권13, 세가 예종4년 7월 을사, 병오.



덕산사(德山祠)

1935

1583

120

거란(요)과의 관계에서 이
 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
 다. 갈라전이 여진의 발
 전이나 고려와의 완충 지
 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했
 으나, 이 전쟁이 장기화
 되면 거란에게 침략 구실
 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었다.¹⁰¹⁾

고려 역시 “궁한리 지
 역이 본래 고려의 것이고
 그곳 주민도 고려의 민이

지만 그곳 추장들은 대부분 거란의 관직을 받았으므로 거란이 이를
 문제시하여 고려에 책임을 물어올 것이다.”라는 염려도 있었다.¹⁰²⁾

1109년 7월 18일, 여진 추장들은 함주 성문 밖에 단을 설치하고
 “지금으로부터 9부(父)의 대에 이르기까지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계
 속 조공하겠습니다. 이 맹서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우리 여진의 영
 토가 멸망하리다.”하고 서약 의식을 거행하였다.¹⁰³⁾

여진의 서약 의식이 끝나자 9성 철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고려
 는 길주에서부터 차례로 무기와 군량을 내지로 수송하고 9성에서 철
 수하였다. 여진들도 소와 말을 이용하여 고려인을 실어 돌려보냈다.

철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 19일에는 승령·통태 두 성을
 철수하고, 20일에는 영주·북주·진양, 22일에는 함주·웅주·선화의

100) 『고려사』 권13, 세가 예종4년 4월 갑진, 6월 경자.

101) 노계현, 1989 「고려예종의 九城구축과 영토처리」 『국제법학회논총』 65, 83쪽.

102) 『고려사』 권96, 열전 金仁存.

103)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4년 7월.

성곽을 철수하였다.¹⁰⁴⁾

9성 철수가 완료되자 고려에서는 정벌군 사령관 윤관과 오연충에 대한 문책이 뒤따랐다. 예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신들 사이에서는 작전을 수행한 윤관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결국 윤관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111년(예종9)에 생을 마감하였다. 고려가 9성을 여진에게 넘겨준 지 불과 2년만의 일이었다.

5. 전략적 평가

고려가 1104년(숙종9)과 1107년(예종2) 두 차례 단행한 여진 정벌은 11세기 말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완연부 여진을 제압하고, 동북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동여진 지역은 형식적으로 거란(요)의 지배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완연부 여진이 성장하여 여진 부족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자 고려와 마찰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완연부 여진은 이미 오늘날 간도 지방을 거쳐 고려와 인접한 갈라전(曷懶甸) 지역까지 남하하여 고려를 자극하고 있었다. 따라서 12세기 초 고려와 완연부 여진의 충돌은 고려가 여진 부족을 완전히 복속하고, 갈라전 지역 일대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단초가 되었다.

고려는 완연부 여진의 부대가 천리장성 부근까지 출몰하는 상황

104) 김상기, 1985 『新編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226쪽.

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오랫동안 귀순주 정책을 통해 영토화한 곳을 완연부 여진이 점령하려고 하자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지금까지 고려의 영향권에 속해있으면서 고려에 복종하던 여진이 성장하여 자칫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팽배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진 정벌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의 여진 정벌은 오늘날 전략 개념으로 볼 때 ‘예방전쟁(Preventive War) 전략’의 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예방전쟁전략이란 당장 급박한 전쟁 발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태세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벌 결과는 제1차, 제2차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차의 경우 고려군은 여진에 대한 정보도 없이 적진 깊이 들어갔다 가 역공을 당해 여진과 화의를 맺고 귀환했고, 2차 역시 윤관 장군이 여진 지역에 9성까지 축조하는 쾌거를 올렸으나 결국 모두 여진에게 되돌려 준 후 철수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고려가 여진 정벌에서 끝까지 승리를 견인하지 못한 전략 전술상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고려 지도부의 여진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1115년(예종10) 완연부 여진의 실력자인 아골타는 금나라를 건국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일대 사건으로, 고려가 제2차 여진 정벌 이후 여진에게 9성을 돌려 준 해인 1109년으로부터 불과 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

는 고려가 여진 정벌을 단행할 무렵에 이미 완연부 여진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는 완연부 여진의 세력이 강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나 고려에 대항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또 고려는 귀순주 지역에 대한 동향에도 둔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완연부 여진이 성장하면서 귀순주 지역에서 고려의 영향권에서 이탈하여 친완연부의 성향을 띠는 여진족들이 있었으나 고려는 이 점을 간과하고 말았다. 그만큼 고려가 수집한 여진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고, 그 결과 여진 정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정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이며, 또 하나는 전투정보(Combat intelligence)다. 전략정보는 군사정책가나 군 고급지휘관이 사용할 정보로서 한 국가의 군사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의 판단이 포함된다. 전투정보에는 전술적인 임무를 가진 일선 지휘관이 파악해야 할 정보로서, 적군의 능력과 의도, 적 지휘관의 능력과 성격, 적 군사력의 질과 양, 적군의 배치와 사기, 지형 그리고 기상 등이 포함된다.¹⁰⁵⁾

그러나 고려는 1차 여진 정벌을 추진하면서 “여진이 허약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단정했듯이, 오랫동안 고려에 예속되어 있던 여진을 앞잡아보고 경솔하게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적국에 대한 전략 정보 및 전투 정보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적진 깊이 들어갔다가 후퇴하고 말았다.

둘째, 고려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정확히 서있지 않은 점도 실패 요인이었다. 1108년 이후 정벌군 사령관 윤관이 완연부 여진의

105) 이종학, 1978 『현대전략론』, 박영사, 159쪽.

반격에 초기 진격 때처럼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전술적 실패 요인이 있었다. ① 고려 정벌군은 작전 지역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고려가 군사 작전의 목표 지점으로 잡은 병목은 수륙의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있어 고려가 예상하던 것과 아주 달랐다. 그래서 윤관은 여진 왕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 당초 계획보다 더 복잡했던 것이다. 적진 깊숙이 들어간 고려군은 적은 병력으로 점령지를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만약 여진이 협공을 편다면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여진과 전쟁을 벌여야 할 형편이었다.

② 각 거점 사이의 거리가 넓어서 한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인근 거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험준한 지형에서 여진군의 복병을 만나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③ 고려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고립된 상태였으므로 병참선도 끊기고 후방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④ 고려 조정이 실시한 이주[徙民] 정책은 이 지역에 살던 여진들로 하여금 고려를 적으로 삼도록 만들었다. 여진 입장에서 고려의 사민 정책은 오랜 삶의 기반이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위기였고, 이 때문에 고려에 우호적이던 여진조차 자신들의 근거지 사수를 위해 고려를 적으로 삼아 필사의 항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점령 지역에서 교전 상황이 계속될수록 전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정된 군사력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싸우기에는 군사력이 부족했고 군량 보급도 여의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여진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 고려군은 공격하는 쪽에서 어느 사이에 점차 방어하는 쪽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이제 기습 정벌의 성과는 사라져버렸고 고려군의 사상자 수만 늘어갈 뿐이었다.

서양의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의 상

호 작용에 대해 논하면서 “공격군은 전역을 개시하게 되면 자신의 전구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고 각종 요새와 보급 기지를 후방에 멀리 남게 두게 됨으로써 고통 받게 된다. 공격군의 전투력은 횡단해야 할 작전공간이 광대할수록 추가되는 행군과 점령 임무로 인해 더욱 약화된다. 반면에 방어군은 모든 것과 연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⁶⁾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한 사항은 당시 고려 정벌군의 실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고려가 경직된 외교 정책으로 여진의 화전 양면전략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도 정벌 실패를 부추긴 요인이었다. 여진은 제1차 정벌 이후로 고려와 조성된 긴장 관계의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여진은 고려 숙종이 사망하자마자 즉시 고려와 화의를 시도하였다. 1106년(예종1) 1월에 고려의 임간 부대를 패전시킨 장수를 사절로 보냈고, 3월에는 여진 장수 지훈(之訓)을 파견하여 “지난 전쟁에 관한 일은 새 임금께서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삼가고 힘써 조공하겠습니다.”는 뜻으로 화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2차 정벌 때에도 여진은 끈질긴 반격전을 전개해 고려에게 위협을 가하는 한편,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9성 반환을 요청해왔다. 여진은 길주 및 공협성을 함락시키고도 9성 환부를 조건으로 하는 화친을 요구했고, 사신을 파견하여 지금까지 여진이 고려를 부모 나라로 섬기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고려를 안심시켰다. 여진의 이러한 태도는 고려의 권위와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군대를 철수시킬 명분을 제공하는데 있을 뿐이었다.

106)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류제승 옮김, 2003 『전쟁론』, 책세상, 264쪽.

요컨대, 고려가 두 차례 여진 정벌로 얻은 최대 성과는 팽창일로에 있던 여진 세력의 한반도 진출 기도를 사전에 억제, 저지하는 전략적 효과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여진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추진해온 북진 정책도 재정비해야 될 만큼 타격을 입고 말았다. 결국 고려는 9성을 지켜 내지 못함으로써 인명 손실은 물론 국가위신의 실추 및 고려에 예속된 동북지방의 여진지역조차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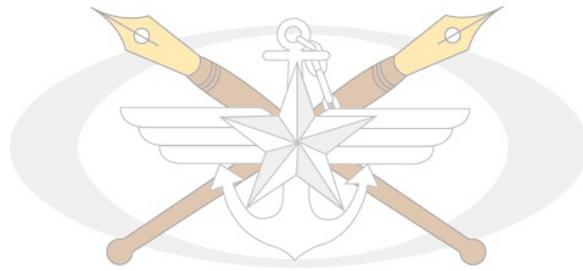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여진은 고려 세력권에 들어있던 갈라전 지역의 여진부락을 귀속시켜, 여진의 동족 단합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는 차후 거란정벌과 중원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때 후고를 없애는 효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금나라 건국 이후에도 동여진 추장들이 계속해서 고려에 조공한 것으로 보아 동여진 전체가 완전히 금나라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라는 말이 있으나 고려는 최후로 미소 짓는 쪽이 아니었다. 고려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신중하고 계획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고려는 여진의 군사력이 이미 고려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대했고, 여진이 자신들의 날카로운 병기를 아직 드러내지 않은 채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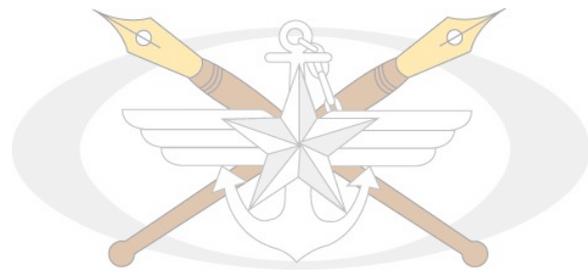
고려가 동여진 지역에 9성을 축조하여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를 견인하지 못한 것은 여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야기된 무리한 작전 강행이 주요 원인이었다. 일찍이 중국의 병법가 손자(孫子)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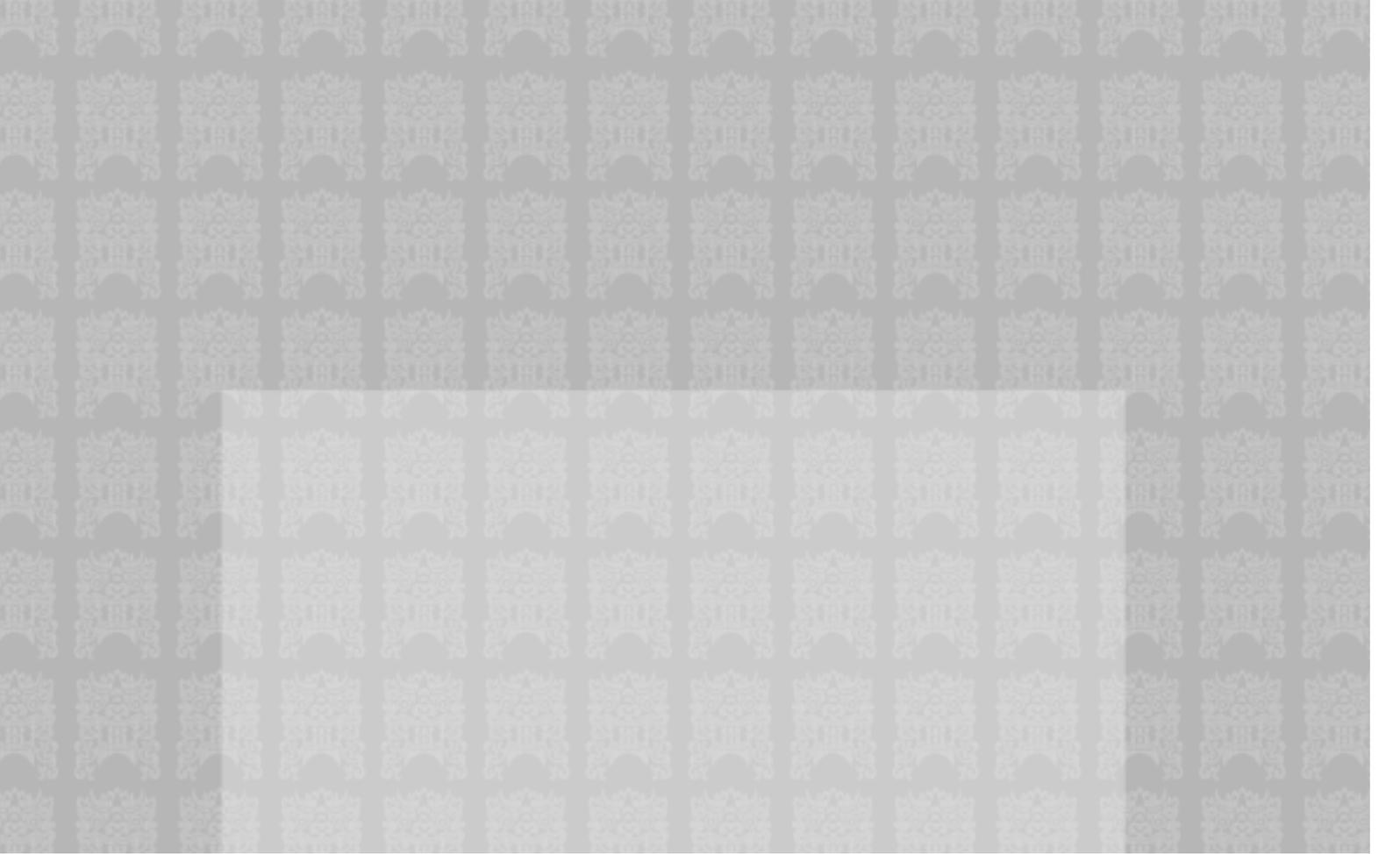
이기고 한번 진다. 적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움마다 반드시 패한다.(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¹⁰⁷⁾ 고 한 경고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치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여진이 문화적으로 미개한 집단이라는 고식적인 관념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벌 전쟁을 전개한 고려 지도층의 경솔함은 오늘날 다시 한 번 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뼈아픈 교훈이라 할 수 있다.



107) 『孫子』, 謀攻 第三.





제 4 장
고려와 몽골 전쟁



고려시대 군사전략

1. 몽골의 성장

13세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몽골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정복 국가였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초원지대에서 몽골이 부상한 것은 역사의 이변이었다. ‘몽골’이라는 국명은 1206년 칭기즈칸이 나라를 세운 직후부터 1259년 헌종이 재위할 때까지 사용되었고, 1260년에 쿠빌라이(세조)가 즉위하면서 ‘대원(大元)’으로 국호를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원) 제국의 세계 정복

몽골은 처음부터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몽골은 중국 당나라 시절만 해도 작은 부족에 지나지 않았다. 몽골은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동북쪽의 오르콘강 상류에 흩어져 살다가 9세기 중반에 위구르제국이 붕괴되면서 몽골초원으로 남하하였고,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걸쳐 오논강·케를렌강·톨라강 등의 상류 초원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 무렵 몽골의 각 부족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분쟁을 거듭하였다. 11~12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서북 방면 초원지대의 몽골 고원에는 케레이트·나이만·메르키드·타타르 등 수십 개 몽골 부족들이 대립했고, 1167년경 타타르 부족이 초원지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거란(요)·금(여진)의 지배를 받던 몽골이 동아시아에서 강자로 부상한 계기는 테무친[鐵木眞, ?~1227]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12세기 말 초원지대의 수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인 보르지기드 부족의 추장

예수게이가 타타르에 대항하다가 독살된 후, 그의 장남 테무친이 적에게 쫓기면서 세력을 규합해 몽골 지도자로 성장하였다.¹⁾

1206년에 몽골 부족들은 전체 지도자 회의인 쿠릴타이를



칭기즈칸의 생애를 묘사한 벽화

1) 테무친의 출생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1155년에서 1167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로 개최해 테무친을 ‘황제 중의 황제’라는 의미를 가진 칭기즈칸[成吉思汗]으로 추대해 몽골국을 건국하였다.

건국 이후에도 유목민의 전통을 버리지 않은 몽골은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정복과 약탈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것은 1260년에 쿠빌라이(세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몽골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했을 무렵에 중국대륙의 남부에는 남송(南宋)이, 북부 및 만주에는 여진의 금(金)이 있었고, 몽골 서쪽에는 탕구트[黨項]족의 서하(西夏)가 있었다. 몽골의 일차적인 관심은 금나라를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먼저 1209년 서하를 공격하였다. 이때 몽골이 벌인 공성 작전은 기마전법에 의존하던 몽골 전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²⁾ 칭기즈칸은 1211년에 금나라 침공을 개시하여 1214년 5월에 수도 중도(中都)를 함락시키고, 1227년에 서하를 멸망시켰다.

또 칭기즈칸은 교역을 위해 중동의 콰레즘 제국에 보낸 몽골 사절단이 술탄(무함마드 2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출정하여 1222년 무렵에는 오늘날 칼라바그 부근인 인더스강 연안까지 진출하였다.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窩闊台:태종, 재위:1229~1241]는 정복 위업을 계승하여 중원 정복을 완료하기 위한 침공을 재개하였다.



칭기즈칸

2) 특관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2쪽.



몽골 태종 오고타이 즉위도 (『』)

1231년에 고려를 공격했고, 1233년에 동진국(東眞國)을, 1234년에 금을 멸망시키고, 1235년에는 남송을 공격하였다. 중원 정벌을 일단락지은 오고타이는 중동으로 눈을 돌려 와레즘 제국을 재침하여 아르메니아까지 점령하였다.

이후 오고타이는 동유럽으로 진출하여 러시아 블라디미르를 함락시키고 서쪽으로 폴란드, 헝가리, 발틱 연안의 군소국을 거쳐 이탈리아까지 침략하여 세력을 뻗쳤다.

3대 대칸 구육[貴由:정중, 재위:1246~1248]이 재위 3년 만에 죽자 몽케[蒙哥:헌종, 재위:1251~1258]가 4대 대칸이 되었다. 몽케는 중원을 공략한 후에 서남아시아까지 진입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란·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할거해있던 투르크 제후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1258년에 명목상 이들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바그다드의 사라센제국을 멸망시켰다.



와레즘 수도 사마르칸트의 성벽

이처럼 몽골의 강인한 기마 군사들은 놀라운 속도와 파괴력으로 동서 각 방면에서 정복 전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몽골은 국가를 출범한 지 50년이라는 단기간에 중국 서북부와 만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을 차례로 정복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동유럽까지 진출하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2. 국내외 정세

1) 주변국 정세

(1) 송의 쇠퇴

12세기 초 송나라는 거란이 금(金)나라의 공세 앞에 무기력하게 패하자 무력과 외교를 동시에 앞세운 새로운 대외 정책을 구상하였다. 그것은 거란과 서하에게 빼앗긴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시도였다. 먼저 송은 1115년에 거란에게 ‘전연의 맹약’을 폐기한다고 통보하고, 의욕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서하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송은 1119년에 다시 서하를 공격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패였다.

이 무렵 금은 연운 16주³⁾ 지역으로 서서히 남진하기 시작하였다. 송은 거란에 빼앗긴 연운 16주 수복에 절치부심한 나머지 신흥세력 금나라와 무모한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송과 금이 거란을 협공하여 승리하면 연운의 땅을 송이 차지하고, 송은 그 대가로 거란에 보내던 은과 비단을 금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122년에 연경(북경)을 점령한 금나라는 동맹을 깬고, 거란을 타도한 여세를 몰아 그대로 송을 공격하였다.⁴⁾

1127년 송은 수도 개봉이 금에 의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때 휘종·흠종 두 황제를 비롯해 3천 여 명의 황족과 관리들이 금으로



중국 북송의 황제 휘종

3) 연운 16주 : 북경 이북에서 요동반도 사이에 있는 연주[북경:幽州]·운주 등 16개 주. 936년에 거란(요)이 점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제2장 「고려와 거란 전쟁」 참조.

4) 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1990 『중국전사』, 학민사, 59쪽.

끌려갔다.(靖康의 변) 송은 회수(淮水) 이북의 땅을 금에게 빼앗기고 강남으로 쫓겨 내려와 새 왕조를 세웠다. 1127년에 송 휘종의 9자인 강왕(康王:고종)이 귀덕(歸德)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이른바 ‘남송(南宋)’ 시대를 열었다.⁵⁾ 남송의 영토나 재정 규모는 옛 송나라에 비해 약 4분의 3이나 줄어든 상태였다.⁶⁾

1128년에 남송은 금의 재침을 받았다. 남송의 고종은 금의 공격을 피해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항주 임안부에 정착하였다. 남송은 전력을 기울여 마침내 금군을 퇴각시켰으나, 결국 매년 은 25만 냥, 비단 25만 필을 금에게 주고 남송 황제가 금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취하는 굴욕스러운 외교 관계를 맺고 말았다.



중국 남송 초기의 무장 악비

남송은 국내적으로 군벌 쿠데타의 위협에 시달렸고, 국경 북쪽에는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금과 대치하는 형세였다. 이후 남송은 금과 회수(淮水)를 사이에 두고 1백여 년에 걸쳐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다행히 1165년에 금의 해릉왕이 화평조약을 깨고 남송을 침입했을 때 남송군이 이를 격파해 송·금의 군신관계를 숙부·조카 관계로 재조정하고, 종래 금에 상납하던 은·비단의 양을 은 20만 냥, 비단 20만 필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13세기 초 몽골이 동아시아 강자로 부상하자 남송은 북송이 금과 군사동맹을 맺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愚)를

5) 남송이 개창되면서 이전의 송나라를 남송과 대비하여 ‘북송(北宋)’이라 부른다.

6) 신채식, 1993 『동양사개론』, 삼영사, 414쪽.

범하고 말았다. 남송은 금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는 의도에서 금과 대치한 몽골과 연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남송은 몽골과 연합하여 쇠약해진 금을 공격한 결과 개봉·낙양 두 도시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1234년에 금을 패망시키자마자 그 이듬해인 1235년 봄에 남송이 금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을 공격하였다. 이로부터 남송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족 국가인 몽골과 대치한 채 충돌을 거듭하게 되었다.

(2) 금의 멸망

12세기 초 만주지역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금의 건국과 요[거란]의 멸망이었다. 11세기 이후 거란에게 폭압적인 지배를 받던 여진이 반기를 든 것은 1114년이었다. 완연부 여진의 추장 아골타는 주요 전투에서 거란의 원정군을 격파해 승리하였고 마침내 1115년 정월에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금(大金)’이라 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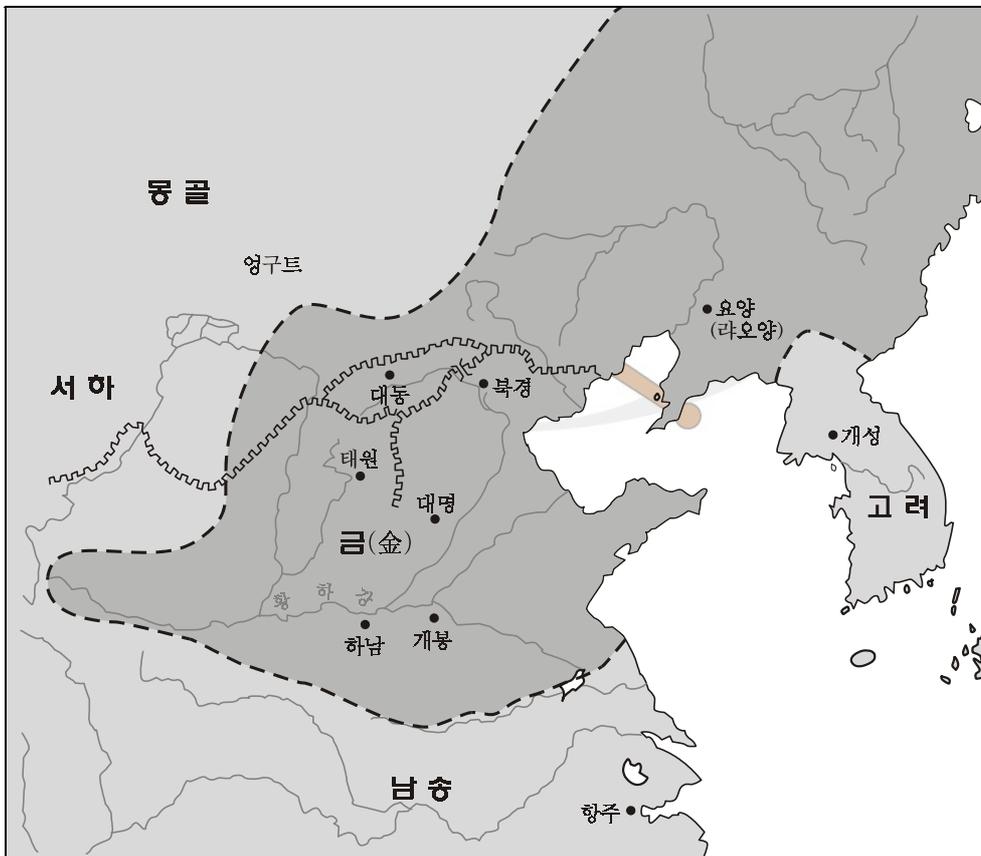
1123년에 아골타가 죽고, 그 동생 태종[吳乞買]이 즉위하면서 금의 대외정책은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운용하였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1125년에 거란(요)을 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군사를 남으로 돌려 송의 수도 개봉을 함락하고 황제 휘종·흠종을 비롯해 종실과 관료들을 만주로 잡아 갔다. 이리하여 금은 건국한 지 불과 10여년 만에 거란과 북송을 멸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금은 중국 대륙의 영토를 점령하자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집권체제로 통치체제를 바꾸고 정복지에는 5경을 설치하였다. 1153년에 금은 중국대륙의 정복 왕조 최초로 그들의 본거지

7) 『金史』 권2, 本紀2 太祖 收國元年 正月.

를 떠나 중국 본토 연경(북경)에 도읍하였다.⁸⁾ 이는 후대에 원[몽골]과 청나라에도 계승되었다.

금은 정복왕조로서 건국 후 백년 가까이 중국의 본토 깊숙이 들어와 북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여진족 고유의 풍속이 한족(漢族)의 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거란이 스스로 기마민족임을 자처하면서 수도를 상경 임한부에다 건설하고 중국 대륙에는 연운 16주를 차지해 경영하던 태도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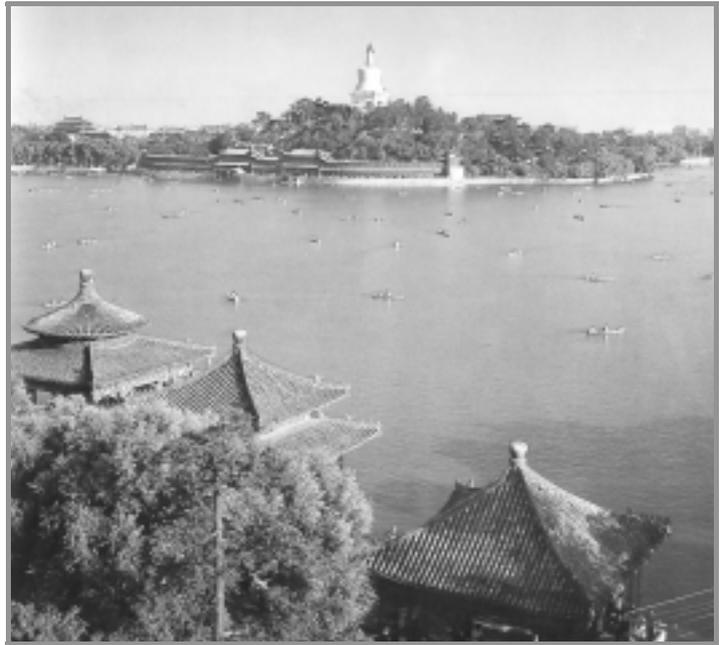


금나라 전성기 영토

8) 『金史』 권10, 本紀5 海陵 貞元元年 3월.

9) 宮崎市定 저, 조병한 편역, 1983 『중국사』, 역민사, 281쪽.

금은 거란과 달리 몽골 지역의 진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화북 진출을 서두른 나머지 몽골 및 만주 지역에 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금은 몽골이 출현하자 종주관계를 수립하고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중국 북경의 북해(北海) 공원
1161

가 1179

몽골은 마침내 1209년에 금에 보내던 공물을 중단하고 1211년부터 금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스텝지역의 몽골로부터 침입을 받은 금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이로부터 3년 후에 금 영토의 북쪽 절반을 몽골에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1214년 금은 몽골의 위협을 피해 수도를 옛 북송의 수도 개봉으로 옮겼으나 주변 정세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 1215년 몽골은 금의 옛 수도 북경을 점령했고, 1216년 거란족은 금이 약화된 틈을 타서 대요수국(大遼收國)을 수립하였다. 1217년에는 금나라 장수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쇠퇴한 금에 반기를 들고 두만강 유역에 동진국(東眞國)을 세웠다. 마침내 1233년 몽골은 금나라 수도 개봉을 함락했고, 이듬해에 도피 중이던 금의 마지막 황제 애종이 자살하면서 금 왕조도 역사에서 막을 내렸다.

2) 국내 정세

(1) 무인 정권의 탄생

1231년(고종18) 몽골이 고려를 침공할 무렵에 고려의 최고 권력은 무신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당시 최고 집권자는 최이(崔怡, 초명 최우)였다. 따라서 이 무렵 고려의 국내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2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의 집권층은 정치·경제적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상호 갈등과 대립을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일부 귀족들이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정권을 장악한 채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이자겸(李資謙)의 난(1126년)으로 한 차례 파란을 겪은 인종은 개경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서경으로 천도를 꾀했으나 오히려 '묘청(妙淸)의 난'(1135년)을 야기하면서 김부식(金富軾, 1075~1151) 등 기존 귀족층의 세력만 강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

1146년에 인종이 죽고 의종이 19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정국은 악화되었다. 의종은 강대한 귀족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고 문벌 귀족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말년에 유흥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170년(의종24) 그 동안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¹¹⁾ 이것이 고려 역사에 나타난 '무신란'으로 고려사회를 일변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문반·무반의 양반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문반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군대 통수

10) 박용운, 1987 『고려시대사(하)』, 일지사, 402~406쪽.

11) 『고려사』 권10, 세가 의종24년 8월 정축; 『고려사절요』 권11, 의종24년 8월 병자, 정축.

권은 문반에게 돌아갔다. 거란 전쟁에서 활약한 박양유·강조·강감찬, 여진 정벌의 최고 지휘관 윤관 등은 모두 문관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관들에 의한 무신차별은 무신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무신란으로 인하여 문신 중심의 문벌귀족사회는 와해되었고 무신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정권은 이의방(李義方), 정중부(鄭仲夫), 경대승(慶大升), 이의민(李義旼) 등 여러 장군의 손을 거쳐



공민왕릉의 무인상

(武將)

최종적으로 최충헌(崔忠獻, 1149~1219)에 이르러 무인 정권이 정착되었다. 최충헌은 최이·최항(崔沆, ?~1024)·최의(崔瑄)에 이르기까지 4대 60년에 걸친 무인시대를 연 주역이며, 최우의 집권 시기 중반부터 최의에 이르기까지가 몽골 전쟁 기간이었다.¹²⁾

고려 사회가 12세기에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자 백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무인 정권 성립 직후부터 시작된 농민·천민 등 하층민 봉기는 무신 집권 기간 동안 계속되어 명종(재위:1170~1197), 신종(재위:1197~1204) 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¹³⁾

12) 현재 무신란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반과 무반의 차별 대우와 그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고려는 무신란 이전에 이미 50여 년 동안 이차겸 난이나 묘청의 난 등 지배세력 내부의 대립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무신란은 외형적으로 무신 차별 등이 계기가 되었으나, 결국 지배층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민병하, 1990 『고려 무신정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3) 박용운, 앞의 책, 465~474쪽.



최충헌 묘지명 1219 ()

12세기 후반에 농민 봉기의 첫 포문을 연 곳은 서북면이었다. 1172년(명종2) 창주(창성)·성주(성천)·철주(철산)의 백성들이 수령의 횡포에 대항하여 봉기한 것이다. 이후 농민 봉기는 1174년에 서경에서 일어난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점차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¹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형제가 일으킨 봉기는 한때 충청도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다.¹⁵⁾ 1193년 경북 운문(雲門:경북 청도)과 초전(草田:경북 울산)을 거

점으로 일어난 김사미·효심의 봉기는 가담자 7천여 명이 관군에 의해 참살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¹⁶⁾ 1202년(신종5) 경주 지역에서 신라부흥을 표방하면서 일어난 농민 봉기 역시 한동안 지속되다가 최씨 정권에 의해 모두 진압되기도 하였다.¹⁷⁾ 1217년(고종4)에도 서경에서 군졸 최광수가 고구려부흥을 표방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¹⁸⁾

이처럼 농민·천인의 난이 분출한 명종~신종 대는 무인 사이의 정권쟁탈전을 거쳐 최충헌이 집권하는 시기로서 정치적 격변기였다. 이로 인해 중앙의 통제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고 각종 반란 및

14) 『고려사절요』 권12, 명종4년 9월. 조위총은 서경의 兵部尙書로서 하층민은 아니었으나 그 중심 세력은 서북면의 40여 성의 백성들로서 농민 봉기의 성격이 강하였다.(변태섭, 1978 「무신정권기의 反武臣亂의 성격-김보당의 난과 조위총의 난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 56~60쪽)

15) 『고려사절요』 권12, 명종6년 정월.

16) 『고려사절요』 권13, 명종23년 7월.

17) 『고려사절요』 권14, 신종5년 11월.

18) 『고려사』 권121, 열전 鄭顥.

농민 봉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농민에 대한 과도한 세금 징수와 지방 수령들의 탐학은 농민의 빈곤화를 초래했고, 무신 집권 기간에 실력자들에 의한 대토지 겸병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몽골 전쟁 기간 중에도 하층민의 봉기는 끊이지 않았다. 몽골 전쟁 초기에 하층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해 관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만, 1232년(고종19)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자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공주 명화소 민중봉기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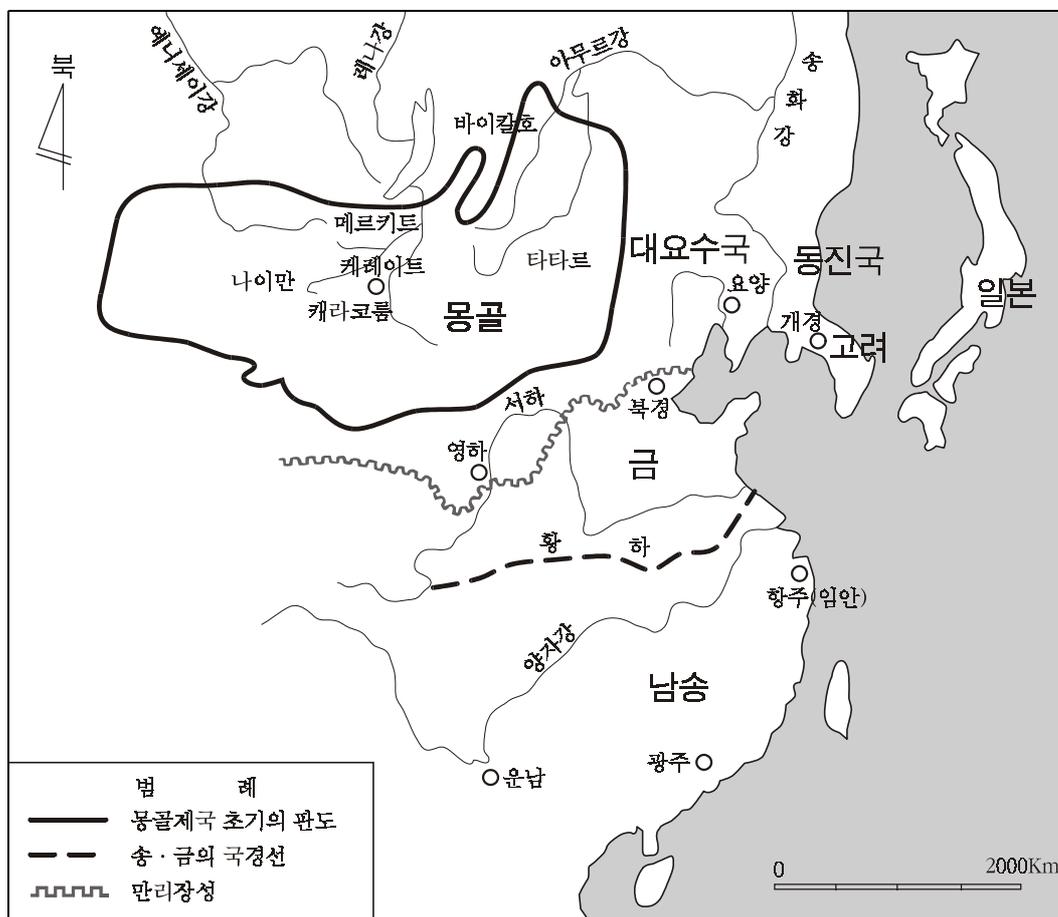
농민이나 천민 입장에서 강화도 천도란 본토 백성에 대한 통치 및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몽골전쟁 기간 중에 무인 정권은 몽골군의 침입과 농민봉기라는 두 개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대외 정책

13세기 초반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기 직전 고려 북방에는 금이 웅거했고, 중국 대륙 남쪽에는 남송이 있었다. 이 무렵 고려의 대외 정책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해 대외 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실리 외교의 전형을 밝어나갔다.

먼저 고려는 금과 큰 충돌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2세기 초 금은 송을 공격하면서 고려를

끊임없이 압박하였다. 금은 고려에 형제관계를 맺고 화친을 요구하다가, 1125년 거란을 멸한 이후로는 군신 관계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려에 복속되어 있던 여진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125년(인종3)에 이자겸·김부식 등이 주도하여 금과 사대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맹약을 맺었다. 이 일로 고려에서는 금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고, 결국 1135년에 묘청의 난으로 폭발하였다.



12세기 말 ~ 13세기 초 동아시아 형세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고려가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고려는 1117년에 금이 거란을 공격하자 거란 점령지인 보주(평북 의주)를 점령한 후 이곳을 의주방어사로 고치고 북계 관방으로 삼았다.¹⁹⁾

그러자 금은 보주가 옛 거란의 소유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빼앗겠다고 위협하였다. 고려는 금의 의도가 보주를 차지하는 데 있지 않고 화친에 있다고 판단하여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²⁰⁾ 이리하여 양국간에는 큰 충돌 없이 금이 몽골에 망할 때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려는 금과 수교한 이후로 13세기 초까지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남송과는 외교 관계를 단절한 상태였다. 종래 고려와 송은 북방 민족의 견제라는 공통의 실리를 공유하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송은 1126년 금이 쳐들어오자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고, 1128년에도 금에 억류되어 있는 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고려에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과 맹약을 맺은 고려는 자국의 실리에 무게를 두어 모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송과 고려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한편, 고려가 몽골과 처음 접촉한 것은 1216년(고종3) 12월이었다. 몽골이 금을 공격하자 금나라 지배 아래 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에 쫓겨 고려 영토로 들어와 평양의 강동성에 웅거하였다. 고려는 1218년에 몽골과 협공 작전을 전개하여 거란족을 토벌한 후에 몽골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국교를 수립하였다.

협약 내용은 고려가 몽골에 매년 조공을 바치는 것이 골자였다.²¹⁾

19) 『고려사』 권125, 열전 崔弘宰.

20) 단재 申采浩(1880~1936)는 「朝鮮歷史上一千年来第一大事件」(1930년)이라는 글에서 민족주의 입장에서 고려가 금과 맹약을 맺은 것은 고려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시 고려는 몽골에 대해 “동쪽 오랑캐 중에서도 가장 흉포하고 사나우며 일찍이 우리와 우호관계가 없었다.”²²⁾고 했듯이 신홍세력 몽골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고려의 예상대로 국교 수립 후에 몽골은 고려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공물을 요구했고 태도 또한 오만불손하여 고려 군신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고려는 몽골의 우세한 군사력을 우려해 어느 정도 몽골 요구를 들어주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1225년 1월에 공물 징수를 위해 고려에 파견된 몽골 사신 자꾸예[著古與]가 함신진(평북 의주)을 거쳐 귀국하던 도중 압록강 부근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 국교는 단절되고 말았다.²³⁾



3. 몽골의 전쟁 준비

1) 몽골의 전략

1225년(고종12) 고려·몽골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에 몽골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227년에 칭기즈칸이 사망하고 셋째 아들 오고타이[窩闊台]가 즉위한 것이다. 태종 오고타이는 몽골 사신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고려 정벌을 주장한 강경론자였다. 오고타이는 칭기즈칸의 유훈을 받들어 세계정복사업을 재개하고 3개의 대작전을 구상하였다. 첫째, 금의 분쇄와 중원 및 고려의 평

21) 고병익, 1988 『蒙·麗의 형제맹약』 『동아교섭사의 연구』 (4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65~166쪽.

22) 『고려사절요』 권15, 고종5년 12월.

23) 『고려사절요』 권15, 고종12년 정월.

정, 둘째, 페르시아에서 몽골 지배권의 강화, 셋째, 풍요로운 러시아의 곡창지대와 동부 유럽의 정복이었다.²⁴⁾



13세기 후반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고려·원나라의 군인들
(『고려사』)

태종 오고타이는 3개의 대작전 중 첫 번째 작전에 직접 참여하였다. 중원 원정

사업을 오고타이 본인이 담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이 1차적으로 호시탐탐 노린 지역은 중원이었다. 몽골의 태종 오고타이는 만주에서 패권을 잡고 중원 진출을 노리면서 금과 송에 대한 군사 조치의 일환으로서 고려를 먼저 제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즉 몽골의 고려 침공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복 야욕이 근본 원인이었다.

태종 오고타이는 몽골사신 피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내걸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 오고타이는 강동성에 웅거한 거란군들을 평정할 때에 몽골군 부원수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살리타이[撒禮塔]를 고려 원정군 총대장으로 임명하여 고려 침공 준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²⁵⁾ 그리고 국교가 단절된 지 6년 만인 1231년 8월에 고려 침공을 개시하였다.

살리타이는 압록강 하구의 관문인 함신진(평북 의주)²⁶⁾을 거쳐 고

24) 룩 환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211쪽.

25) 유재성, 1988 『대몽항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40쪽.

26) 함신진 : 고려 초기에 거란이 성을 쌓고 보주라 지칭하던 곳. 1117년(예종12) 금이 거란(遼)을 압박하자 거란 자사 상호손 등이 내원성과 함께 이를 고려에 바치고 귀순함으로써 고려의 관할이 되었다.

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함신진의 수성 책임은 조숙창(趙叔昌)이었으나 싸우지도 않고 몽골에 항복해버렸다.²⁷⁾

몽골의 주요 공격 대상은 고려의 군사지역인 북계였다. 살리타이는 부대 일부를 국경지대의 주요 성곽에 집중 투입해 고려 병력을 성안에 고착시켰다. 그리고 일부 부대를 개경으로 신속히 직공시켜 고려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

몽골의 대외 정책은 칭기즈칸이 몽골을 세운 이래로 침략과 약탈을 통한 이민족 복속이었다.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 침략을 일삼던 몽골은 대다수 농경민족이 취하고 있던 적당한 군림과 복종을 따르지 않았다. 몽골의 침략을 받거나 침략 위기에 직면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항 아니면 무조건 항복뿐이었다.²⁸⁾

이러한 몽골의 대외 정책은 중국의 대외정책인 책봉체제와 판이하게 달랐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은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해 중국 황제가 주변국 국왕을 책봉하고 정기적으로 사신 파견을 요구하는 관계였다. 한족이 아닌 거란(요)이나 금(金)도 책봉체제에 입각해 주변국과 관계를 유지하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몽골의 대외 정책은 매우 파격적인 동시에 철저하게 약탈과 정복에 기초하였다.²⁹⁾

몽골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종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파상적인 공세 전략으로 다른 국가를 침공했고, 침공 후에는 강압적인 수탈과 요구를 앞세운 일방적인 관계를 강요하였다.³⁰⁾ 몽골은 고

27)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8월 임오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7월.

28) 심재석, 1997 「세계제국 몽고와 맞선 고려 민중의 힘」 『고려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15쪽.

29) 박종기, 1999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78쪽.

30) 대표적으로 몽골은 군사력을 앞세워 정복 지역에 대해 여섯 가지 조건[六事]을 강요하였다. 즉, 지배층 자체를 몽골에 인질로 보내기[入質], 인적 자원[戶口]의 보고, 몽골 정복 사업에 군사 제공[助軍], 식량이나 세금 납부, 몽골 관리 다루가치[達魯花赤]의 주재, 몽골군의 물자보급과 연락을 위한 驛站 설치였다. 몽골이 요구한 6사는 군사적 기동력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군수를 조달해야 하는 유목 민족 특유의 점령 정책이었다.

려 침공 때에도 이 같은 전략으로 군사 결전을 수행했고, 참혹한 약탈을 동반해 고려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키고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2) 몽골의 군사력

(1) 군사 제도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의 군대는 절대적인 충성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움직이는 강한 군대로 유명하였다. 초원에서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은 칭기즈칸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답을,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림으로써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였다.

칭기즈칸은 종래 전통적인 부족제 사회의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북방의 유목민족들 사이에 널리 행해져 온 십진법의 군사편성을 이용해 새로운 군사조직을 편성하였다. 아르반(arban)이라는 10인 부대를 기본으로 해서 1백 명 부대[百戶], 1천 명 부대[千戶]를 구성하고 여기에 백호장과 천호장을 두었는데, 총95개에 달하는 천호가 확보되었다. 이들의 상위 조직으로 튀멘(萬戶, tumen)이라는 1만 명의 기병사단을 조직하고, 3개 튀멘이 한 군단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유목국가의 전통을 계승한 몽골의 천호제는 칭기즈칸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면서 종래 북방 민족의 무력을 훨씬 능가하였다. 새로운 특성이란 성분이나 출신보다는 충성심과 실력을 고려한 인재등용이었다.

종래 북방 민족의 고위관직이나 장수는 대부분 부족 출신의 귀족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사막에서



『삼재도회』에 실린 몽골의 명장 야율초제(耶律楚材)의 모습

9

오직 실력 하나로 생사고락을 같이한 동료들이나 친인척에게 권력을 배분했고, 이 때문에 다른 유목국가에 비해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였다.³¹⁾ 특히 만호 부대를 통솔하는 장군은 대부분 칭기즈칸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강한 전제권력을 추구한 칭기즈칸은 황제 친위대인 케시크(怯薛, keshig)도 조직하였다. 케시크는 천호장·백호장·십호장의 자제 및 무공이 많은 무장 자손들로 구성되었는데 인질 성격이 강해 천호장 이하를 견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다.³²⁾ 총병

력수 1만 명에 이르는 케시크는 4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했고 천호장보다 지위가 높았다.³³⁾ 황제 친위군에서 출발한 케시크는 점차 몽골 최강의 정예군으로 성장해 나중에는 공격부대 선두에서 전투를 주도하는 핵심 전투력으로 부상하였다.³⁴⁾

몽골 군사 역시 지휘관 못지않게 단결력이 강했고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복종심이 철저하였다. ‘야사[札撒, yasa]’라는 몽골 관습법에 따르면 몽골군은 전장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후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동료 병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졌다. 또 전리품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원칙을 고수해 내부의 갈등 소지를 없앤 것도 강력한 몽골 군사력의 원동력이 되었다.³⁵⁾

31) 신채식, 1993 『동양사개론』, 삼영사, 504쪽.

32) 신채식, 위의 책, 505쪽.

33) 김호동, 1989 「몽고제국의 형성과 전개」 『강좌중국사』 III, 지식산업사, 253~258쪽.

34) 유재성, 앞의 책, 35쪽.

35) 특관텐 저, 송기중 역, 앞의 책, 298쪽.

(2) 무기와 전술

몽골군의 전술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일화가 유포되어있을 만큼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몽골인들은 “말 잔등 위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싸움에 익숙했고 봄부터 겨울까지 매일 아침 사냥을 하였다.”³⁶⁾고 전해지듯이 다른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기병군의 장점을 계승하였다.

몽골 기병의 절반 이상은 가죽 투구만을 쓴 경무장의 전사들이었다. 주무기는 가볍고 관통력이 뛰어난 소형 활이며, 짧은 창과 칼, 도끼 등으로 무장하여 전투에 참가하였다.³⁷⁾ 경무장 군사들의 임무는 적정을 정찰하고 적의 집결 및 이동을 차단하며 돌격할 때 화력을 제공하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것이었다.

몽골 부대의 약 3분의 1 정도는 중기병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적의 주력에 대한 최후 돌격을 담당하는 것이다. 돌격 때 적의 화살은 물론 적의 창검과 직접 맞부딪쳐야 하므로 투구를 쓰고 미늘이나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긴 창으로 무장한 후 전장에 나섰다. 이들이 타는 말도 직접 교전을 해야 하므로 무장을 시켰다.

몽골군의 장점은 공격적이고 뛰어난 기동



몽골군이
사용하던
활·화살,
말 지뢰,
병사의 군화

36) 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1990 『中國全史(下)』, 학민사, 85쪽.

37) 이기훈, 1997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 지성사, 175쪽.

성이었다. 초창기 몽골의 부대 편성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1231년 고려에 침입한 몽골군은 약 3만 명 정도였고, 칭기즈칸 당시 몽골 기병의 전체 병력도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원정을 감행할 경우에도 몽골군은 적군에 비해 병력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몽골군의 강점은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적군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수집해 적의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병력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성과 강인함을 토대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더구나 몽골군은 유목민족 역사상 수준 높은 공성술도 겸비하였다. 몽골군은 일단 성곽을 포위한 다음 소부대로 인근 지역을 횡행하면서 약탈해 병사나 성내 군사를 밖으로 끌어내고, 매일 성안을 향해 감언으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등 선전 공작을 폈다. 노(弩)나 포(砲)를 사용해 성벽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군대를 교대시켜 밤낮없이

공격해 성안 군사들이 휴식할 틈을 주지 않았다. 특히 포로나 점령지에서 징발한 군대를 앞세워 가장 위험한 지점에 종사시켰다.³⁸⁾



몽골군이 성을 포위 공격하는 모습

38) 윤용혁, 2004 『고려대몽항쟁사연구』 (3쇄), 일지사, 236쪽.

4. 고려의 대응 태세

1) 고려의 전략

국초 이래 고려군의 기본 방어 형태는 북방 양계에 주둔한 주진군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라온 중앙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행되었다. 서북계 요진에서 수성전을 펼쳐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규모 중앙군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고려 내륙으로 침입한 적은 전후방에서 고려군의 협공을 받아 번번이 무너졌다. 이 전략은 오늘날 수세 전략과 유사한 형태로서 거란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고려가 국초 이래 꾸준히 북방 지역에 군사 방어 시설을 집중시킨 결과였다.

고려는 1231년 8월에 몽골이 침공하자 몽골군을 격퇴하기 위해 수세 전략으로 적극 임하였다. 고려 조정은 신속하게 3군을 북쪽으로 급파하여 수성전을 벌이면서 몽골군의 진격을 차단하고 있는 북계 요진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전략은 고려 북방의 여러 성들의 전투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중앙군이 제대로 가동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당시 고려가 북계로 급파한 삼군은 병력 규모나 전투 능력 면에서 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던 듯 하다.

고려의 중앙군이 몽골군과 최초로 맞부딪친 곳은 9월 하순 황주의 동선역이었다. 이 첫 싸움에서 고려군은 몽골군 8천 명의 기습을 받아 고전했으나 마산(평북 귀주) 초적(草賊)으로서 중군한 군사들의 역전에 힘입어 몽골군을 격퇴시켰다.³⁹⁾ 동선역 전투에서 승리의 돌

과구를 마련한 초적은 정부의 학정에 대항하여 꺾기한 농민군인데, 5천여 명이 자원해 참전한 것이다. 같은 달 최우는 광주 관악산 초적 50여 명도 적극 유치해 중앙군에 편입시키는 조치도 취하였다.⁴⁰⁾

몽골 전쟁 당시에 삼군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무인정권 이후의 국방력 수준이나 초적까지 동원하는 상황을 놓고 판단해볼 때 당시 삼군의 규모나 전투 능력에 선뜻 신뢰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려의 북계가 쉽게 돌파당하고 중앙군이 안북부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미약한 군사력으로 전략을 뒷받침할 수 없어서 초래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 결국 고려는 1차 전쟁이 끝난 후 수세 전략을 포기하고 강화도로 천도해 몽골에 대응하였다.

2) 고려의 군사력

(1) 군사력 실태

1123년(인종1) 중국 송나라 황제 휘종이 파견한 사절단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방문하였다. 사절단 일행 중 서공(徐兢, 1091~1153)은 일행들과 한 달 남짓 고려에 체류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견문한 내용과 고려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고려도경(高麗圖經)』(1124년)을 세상에 내놓았다. 일종의 사행 보고서를 간행한 것이다.

서공은 이 책에서 고려 군액을 당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의 병력수 30만의 두 배인 60만 정도로 파악하였다. 서공이 고려를 방문한 때는 북송이 금(金) 나라에 멸망하기 4년 전으로, 송나라 사

39) 『고려사』 권103, 열전 李子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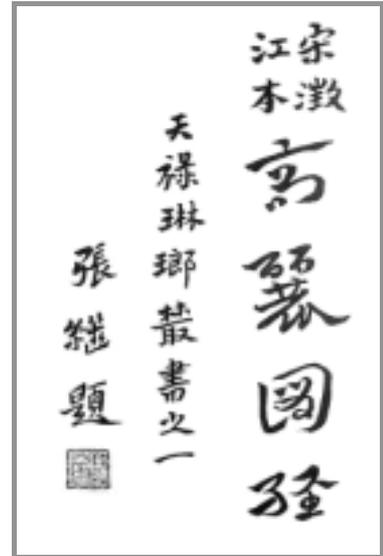
40)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9월.

신 일행은 금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지원병 파견을 교섭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 군사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던 송의 사신 서공이 고려 병력을 60만이라고 파악한 것은 전쟁 발발 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으로 여겨진다.⁴¹⁾

고려의 군사조직은 이미 11세기 초에 중앙 정규군인 2군 6위와 지방군인 주현군·주진군으로 정비되었고, 1104년(숙종9) 여진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 부대로서 별무반이 창설된 상태였다.⁴²⁾

그런데 12세기 초반 고려의 군사제도나 군사력은 1170년 무신란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고려 중기 이후로 군인전(軍人田)⁴³⁾의 침탈로 2군 6위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군사 제도는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무인 집권 시대에 극도로 비대해진 사병(私兵) 집단은 고려의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신 집권기 사병의 기원은 도방(都房)이었다. 도방은 1179년(명종9) 9월에 경대승(慶大升)이 설치한 개인 신변 조직이었다. 기존 군사조직인 2군 6위의 병력 중에서 정예군을 선발해 도방에 편입시켰으나 1183년에 경대승이 사망하자 해체되고 그 구성원들도 각기 원래 부대로 복귀하였다.



중국 송나라 사신 서공이 편찬한 『고려도경』 표지()

41) 이상국, 2005 「고려시대 군호의 편제와 본관제」 『군사』 5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5~113쪽.

42) 고려시대 군사조직에 대해서는 본서 2장 「고려와 거란 전쟁」 참조.

43) 軍人田 :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군인전을 받은 군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문 군인으로서 軍班氏族이었다고 보는 견해와 兵農一致의 府兵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196년(명종26)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은 도방을 부활해 ‘6번(番) 도방’이라는 경호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⁴⁴⁾ 도방은 종전보다 더 체계화된 사병 집단으로 탈바꿈했고 최충헌 정권의 중핵을 차지하였다. 최우는 이를 내도방·외도방으로 확대 개편했고, 야별초(夜別抄)라는 새로운 조직까지 추가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최씨 무인정권이 양성한 사병 조직은 결국 중앙군의 약화를 촉진시켰다. 향간에는 “그 때에 용감한 자는 모두 최충헌 부자의 문객(門客)이 되었고, 관군(官軍)은 모두 노약하고 지친 병졸이었다.”⁴⁶⁾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 점은 고려가 30년간의 몽골 전쟁 기간 중 중앙군을 조직해 몽골에 대항한 것이 1231년(제1차 전쟁) 단 한차례였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2) 성곽 방어술

서공이 저술한 『고려도경』을 살펴보면 고려 성곽에 대한 묘사가 눈에 띈다. 예컨대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고려 강역으로 들어가면 성곽들이 우뚝우뚝하여 실로 업신여길 수 없다.”⁴⁷⁾고 기록하였다. 고려의 성곽에 대한 간단한 묘사이지만 고려의 군사 정보에 민감하던 송나라 사신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성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역대로 한반도의 주변국은 강대국 중국을 비롯해 기마(騎馬)를 장기로 하는 북방 민족이 포진해 있었다. 이들을 맞서 싸울 때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

44) 『고려사』 권129, 열전 崔忠獻 ; 『고려사절요』 권14, 신종3년 12월.

45) 『고려사』 권81, 兵志1 兵制 원종11년 5월.

46) 『고려사』 권103, 열전 趙冲.

47) 『高麗圖經』 권3, 城邑.

는 것은 전술적으로 불리하였다. 그보다는 성곽과 같은 방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고 이때 자주 구사한 전술이 ‘청야입보(淸野入堡)’였다.



13세기 후반 고려와 원나라의 군인들 (「」」)

우리나라 군사들과 백성은 적이 침입하면 일단 인근의 산성으로 이동하여 성을 굳게 지키면서 장기

전에 들어갔다. 이때 그냥 성으로 피신만 하지 않았다. 성으로 들어갈 때는 가옥을 불태우고 각종 창고나 들판에 있는 양식을 모두 성으로 옮기거나 소각하여 적이 현지에서 군량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청야입보를 병행한 성곽 방어는 전통적으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방어개념이었다.

고려와 몽골 전쟁에서 몽골군이 고려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한 곳은 대부분 고려의 수성전이 빛을 발한 곳이었다. 박서의 귀주성 전투, 최춘명의 자주성전투, 이세화의 광주산성 전투,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송문주의 죽주성 전투, 김윤후의 충주산성, 송군비의 입암산성 전투, 송홍민의 한계산성 전투 등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231년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여 귀주성을 공격했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점령하지 못하였다. 당시 고려군은 운제(雲梯)를 이용해 성을 공격하는 몽골군에 맞서 큰 날[刃]이 달린 병기인 ‘대우포(大于浦)’를 사용해 크게 이겼다. 『고려사』에는 “대우포로 맞아 치니 다 산산이 부서져버려 (몽골이) 운제를 가까이 대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⁴⁸⁾



고려와 몽골의 격전지 충주산성 1253 9 가

실제로 이 전투에 참여한 70여 세의 몽골 노장수가 귀주성 아래에서 그들이 동원한 공성기계와 성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해 천하의 무수한 성을 공격했으나, 일찍이 이렇게 맹렬한 공격에도 끝내 항복하지 않는 곳은 처음 보았다”⁴⁹⁾고 할 정도로 고

려의 수성능력은 우수하였고, 성곽 방어는 30여 년간 몽골 침공에 대응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5. 고려와 몽골 전쟁

1) 제1차 전쟁

(1) 귀주성 전투

1231년(고종18) 8월에 살리타이[撒禮塔]는 압록강 하구의 관문인 함신진(평북 의주)을 거쳐 고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함신진의 수성 책임

48) 『고려사』 권103, 열전 朴犀.

49)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12월.

은 방수장군 조숙창(趙叔昌)이었으나 싸우지 않은 채 몽골에 항복해 버렸다.⁵⁰⁾

압록강을 도하하면 남하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철주(평북 철산)·곽주를 거쳐 청천강을 건넌 후 안주·서경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북쪽 내륙의 귀주·자주 등을 거쳐 서경에 이르는 길이었다. 당시 몽골의 선봉부대는 최단 노선을 택해 남하하였고, 살리타이가 이끄는 주력부대들은 위의 두 노선을 따라 남진하였다.⁵¹⁾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정주(평북 의주), 인주(평북 麟州), 용주 등을 거쳐 9월 29일에 선주·곽주 등지를 점거하고 10월 중순을 넘어 안북부에 이르렀다.

고려 조정이 몽골의 침입 보고를 접한 것은 몽골군이 압록강을 도하한 지 20여일이 경과한 9월 2일이였다. 고려 조정은 이 급보를 접하자마자 최우의 집에 모여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였다. 회의 결과 고려 조정은 대장군 채송년(蔡松年)을 북계병마사로 임명하고, 경군(京軍)과 여러 도의 군사들로 편성한 3군(중군·좌군·우군)을 파견하도록 결정하였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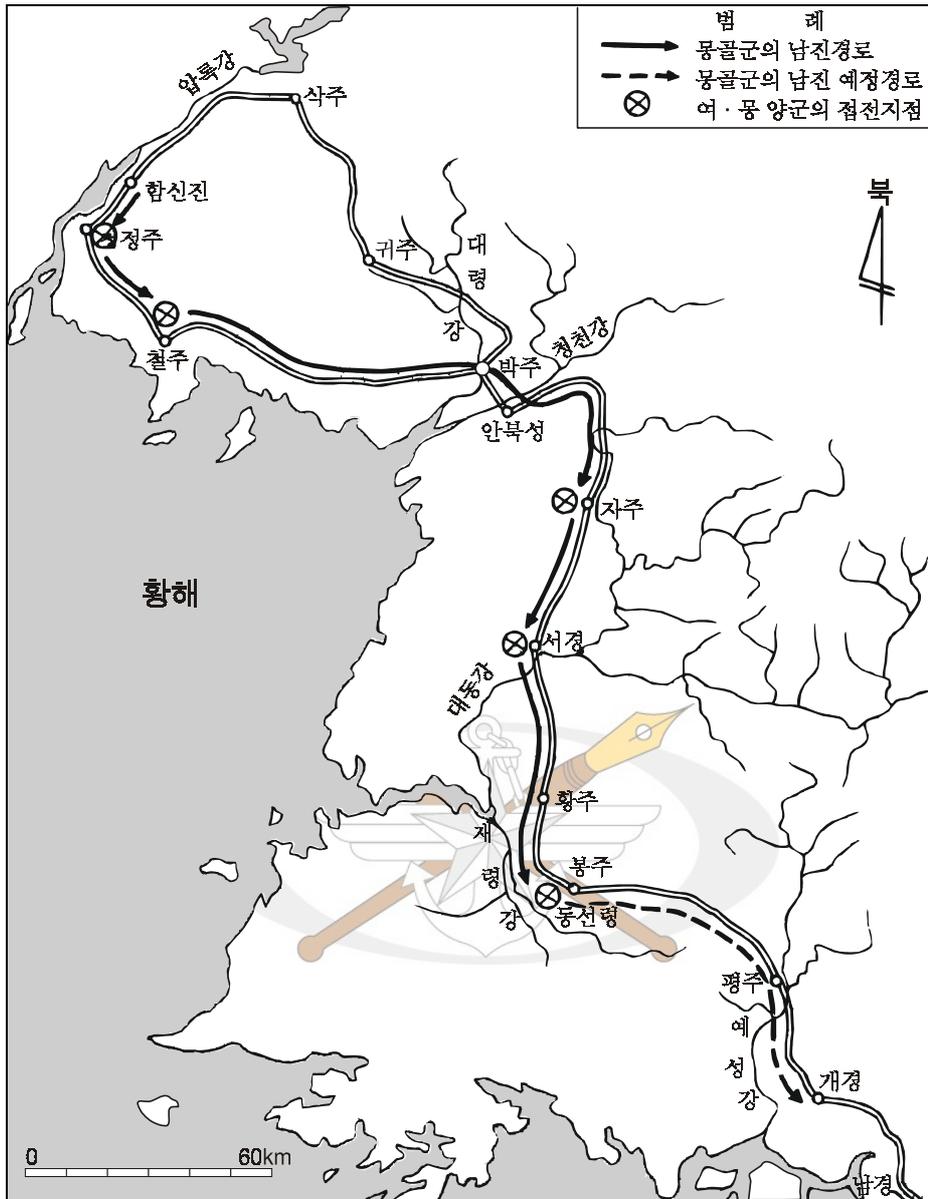
고려군 사령관 채송년이 삼군을 이끌고 개경을 출발한 것은 9월 9일이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고려 방어군이 몽골군과 처음 접전한 것은 9월 하순 황주의 동선역이였다. 이 첫 싸움에서 몽골군 8천 병력이 3군을 기습 공격했으나 고려군은 마산 초적(草賊)의 분전으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이 여세를 몰아 고려군은 10월 21일에 북계의 군사거점지인 안북부에서 몽골군과 접전했으나 크게 패해 절반이 넘는 인명 피해를

50)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8월 임오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7월.

51) 윤용혁, 2004 『고려대몽항쟁사연구』 (3쇄), 일지사, 44쪽.

52)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9월.



1차전(1231년) 당시 몽골군의 남진 상황 (『고려사』 권103)

입었다.⁵³⁾ 안북부 전투에서 승리한 살리타이는 안북부를 본영으로 삼아 이 전쟁을 지휘하였다.

북쪽 내륙으로 길을 택한 또 다른 몽골군은 영삭진·안의진을 거쳐 9월 3일에 북로 요충지이자 서북면 병마사영(兵馬使營)인 귀주성을

53) 『고려사』 권103, 열전李子晟 ;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0월 계유.

포위하였다. 고려의 삼군이 몽골군에게 격파당한 것과 달리 북계 요진에서는 분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귀주성 전투에서 고려군의 승리는 몽골군을 저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몽골 침략 때의 격전지 귀주성 1231 9 1232

귀주성은 이른바 ‘강동 6주’ 중 하나로서 당시 전

투 기록을 보면 고려군의 용맹과 전투의 치열함을 느낄 수 있다. 귀주에는 귀주병마사 박서가 정주(靜州, 평북 의주) 분도장군(分道將軍) 김경손, 삭주 분도장군 김종은, 정주부사 박득분, 위주부사 박문창 및 삭주·태주·귀주 수령들과 함께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고려군은 몽골군이 귀주성 밑에 굴을 파서 성안으로 쳐들어오려 하자 굴속으로 쇠물을 부어 굴속의 몽골군을 섬멸하였다. 다시 몽골군이 사람기름에 불을 붙여 공격하자 고려군은 물을 부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진흙에 물을 부어 불길을 잠재웠다. 몽골군이 다시 건초에 불을 붙여 공격하자 이번에는 물을 부어 불길을 잡아 막아냈다. 이 전투는 9월 3일부터 10월 초순까지 약 한 달 동안 계속되었으나 결국 몽골은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⁵⁴⁾

10월 20일에 몽골군은 귀주성 공격을 재개했으나 함락하지 못한 채 11월초에 퇴각하였다. 몽골군은 11월 22일에 다시 귀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12월 하순에도 큰 포차로 귀주를 공격했으나 실패

54)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8년 9월.

하고 말았다. 귀주성 공략에 실패한 몽골군은 다시 이듬해 1232년 1월 초순까지 수차례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결국 귀주성에서 치열하게 농성 중이던 고려군은 강화 성립 후에 몽골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국왕의 투항 명령을 받고서야 항복하는 등 끝까지 강한 전투 의지를 보여주었다.⁵⁵⁾

이처럼 몽골군은 당초 예상과 달리 귀주성에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발이 묶인 탓에 작전 전반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몽골군은 북방 요새에 농성중인 고려군을 공격하고 견제하기 위해 상당수의 병력을 북부에 주둔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2) 화의와 감시기구 설치

몽골군은 주력부대가 북계에서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그 선발부대는 1231년 9월 10일에 서경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서경의 저항이 강력하자 몽골군은 이를 우회해 9월 13일에 황주·봉주(황해 봉산)를 거쳐 동선역 북쪽에 포진한 다음 개경을 공격할 준비에 들어갔다.

몽골군은 고려 국경을 돌파하고 남진을 거듭하여 개전 40여 일만에 함신진·용주·철주·정주 등 고려 북계의 요진을 차례로 공략한 후에 수도 개경으로부터 250여 리 밖에 있는 황주까지 진출하였다.

살리타이는 푸타우[蒲桃]·디쥬[迪巨]·탕쿠[唐古] 등 세 명의 장수를 전진시켰다. 11월 30일 주력부대들이 개경 부근에 도착하여 주둔했고 선봉군은 예성강 근처에서 주민을 학살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선봉군이 예성강에 이르러 집을 불 지르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⁵⁶⁾고 한다.

12월 1일, 몽골군 주력부대가 개경의 사대문 밖에서 포위망을 구

55)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정월.

56)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1월 신해.

축하고 고려 국왕의 항복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몽골군은 다시 별동대를 편성해 광주를 거쳐 충주·청주까지 남하해 여러 성들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들이 통과한 곳마다 파괴, 학살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⁵⁷⁾ 고려는 북계의 여러 요새들이 공략당하고 주력부대마저 전투력을 상실하면서 개경이 실함될 위기에 처하자 화의를 청하였다.⁵⁸⁾



몽골군에 대항해 끝까지 싸운 문대 1231

고려 조정은 분대어사 민희(閔曦)를 살리타이 진영에 파견해 화의를 요청하고, 왕족 회안공 정(倜)을 파견하여 몽골군을 위로하였다.⁵⁹⁾ 살리타이는 항복과 결전 중 약자택일을 요구하였다. 고

가
(『
』)

려 조정은 국왕이 출성항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왕족인 회안공이 항복 의식을 거행한다는 조건으로 화의를 종결지었다.

고려는 화의의 대가로 몽골에 다량의 예물과 군마 및 인질을 보냈고, 전후에도 몽골의 심한 내정 간섭과 많은 공물을 바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였다. 살리타이는 많은 선물을 접수한 후 서북면 점령 지역 40여 성에 행정 감독관이라 할 수 있는 다루가치[達魯花赤] 72명과 약간의 수비군을 잔류시켰다.

그리고 1232년 1월에 철수를 개시해 3월 초순경에 철병을 완료하였다. 더구나 살리타이는 1232년 2월에 고려의 국사를 전부 다스린

57)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2월 정사.

58) 윤용혁, 앞의 책, 52~53쪽.

59)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2월 입자 ;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8년 12월 병진.

다는 임무를 맡겨 도단(都屯)을 개경까지 파견하였다.⁶⁰⁾ 이제 다루가치가 고려 수도인 개경까지 설치된 셈이며, 그로부터 받는 수모는 대단히 컸다.

또 몽골은 전쟁 종료 직후인 1232년 3월에 동진국 정벌에 필요한 군선과 병력 지원을 고려에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는 군선 30척과 수군 3천 명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몽골은 왕족 및 대신들의 자녀 약 1천 명을 인질로 요구했고, 장인(匠人) 및 여자의 징발도 아울러 강요하였다.⁶¹⁾

2) 제2차 전쟁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우는 몽골이 1차 침입 이후에 서북면에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군대를 철수하자 이 틈을 이용하여 1232년(고종 19) 7월에 강화도(江華島)로 천도하였다.⁶²⁾ 몽골은 고려가 도읍을 기습적으로 강화도로 옮기자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8월에 재침을 개시하였다.

천도 문제는 몽골군 철수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국왕을 비롯해 대부분 관리들은 오랜 기간 변영을 구가해오던 개경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최우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천도를 결행하였다. 최우가 천도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몽골이 다루가

60) 주채혁, 1974 「고려 内地의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 『청대사림』 1.

61) 『고려사』 권23, 고종19년 4월.

62)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7월 을축, 을유.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 남북 길이가 약 27km, 동서 길이가 약 16km이다. 지리적으로 한강·임진강·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염하를 끼고 통진과 마주하고 있다. 염하의 너비는 그리 넓지 않지만 물살이 빠르고 매우 거세 밀물 때를 기다려야만 배로 출입할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홍영의, 2005 「고려 최씨 정권은 왜 강화로 천도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19, 서해문집, 153쪽).

치를 설치해 내정간섭을 시도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마저 최씨 정권에게 불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었다.⁶³⁾

최우 정권이 강화도를 천도지로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몽골군이 기마병으로 수전에 취약할



고려의 임시 수도 강화도

것이라는 전술적 판단과 함께 지형적으로 밀물·썰물의 차가 커서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강화도가 개경과 인접해 있다는 점, 예성강과 임진강·한강을 끼고 있어 수상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섬 면적이 작지 않고 곡식이 잘 자라 물산이 풍부하여 어느 정도 자급이 가능하다는 점, 또 해상운송로 상에 위치해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조세 반입이 편리하다는 점 등이였다.⁶⁴⁾

강화도 천도와 함께 몽골을 자극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고려에서 강화도 천도를 전후하여 다루가치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였다. 내시 윤복창이 북계에 있는 다루가치가 주둔해있는 성을 습격하는가 하면, 서경순문사 민희가 서경에서 다루가치의 살해를 모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⁶⁵⁾ 이 두 번의 기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

63) 김당택, 1999 『고려의 무인정권』, 국학자료원, 384쪽.

64) 홍영의, 앞의 논문, 141~142쪽.

65)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9년 7월 임오 ;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19년 8월 기유.



강화 고려궁지

(:)

나 『원사(元史)』에 “(고려국왕) 고종이 (몽골) 조정에서 설치한 다루가치 72인을 모두 죽였다.”⁶⁶⁾고 표현될 만큼 몽골을 자극했음에 틀림없다.

몽골은 두 번째로 고려를 침공하면서 전쟁 종식의 명분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할 것과 고려 국왕의 친조(親朝)였다. 친조란 국왕이 직접 몽골을 방문해 몽골 황제를 알현하는 의식으로, 이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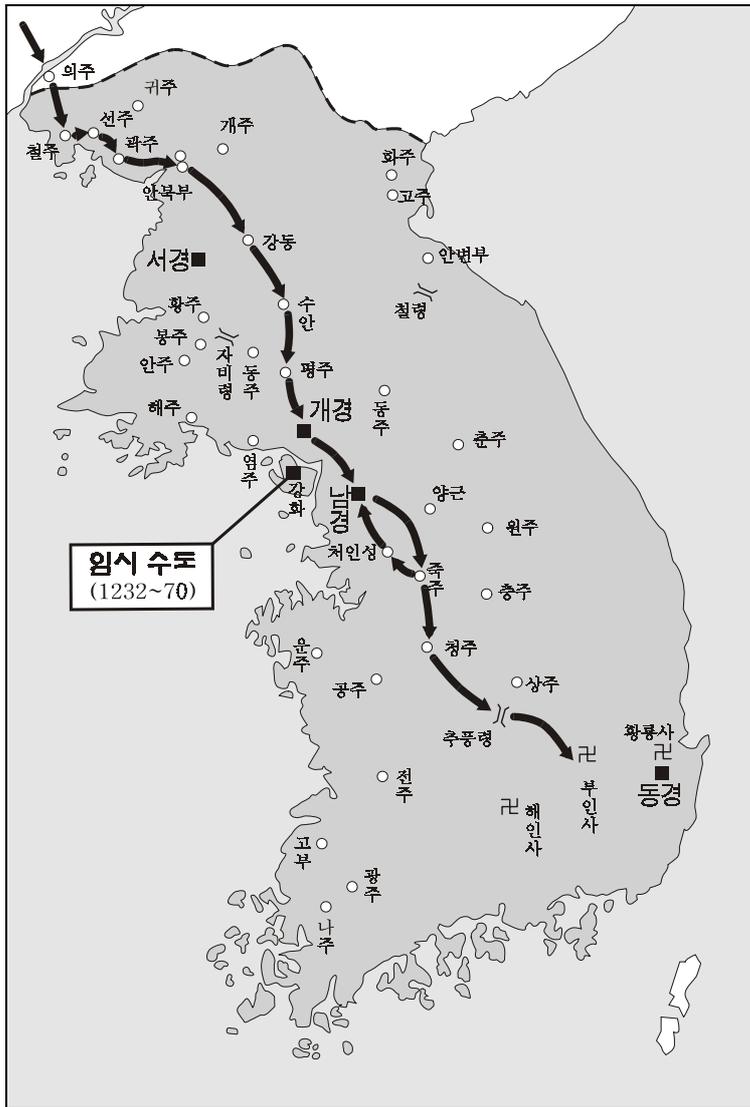
몽골군을 이끈 장수는 앞서 제1차 침공 때 총책임자로 왔던 살리타이였다. 현재 2차 침공 당시 몽골군의 동태나 군사행동에 대한 기록은 상세한 편이 아니다. 침공 초기에 몽골은 강화도에 대한 직공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은 수전(水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고려 본토에 대해 철저한 침략과 유린으로 강화도의 고려 조정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하였

66) 『元史』 권208, 「高麗傳」 태종 4년 6월.

67) 주변국에서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한 것은 몽골이 처음이 아니었다. 1010년(현종1) 11월에 고려를 침공한 거란이 이듬해 1월에 회군하면서 강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고려 국왕의 친조였다. 그 당시 고려는 전쟁에서 패했다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항복이나 다름없는 국왕 친조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고려는 거란의 재침을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서 2장 「고려와 거란 전쟁」 참조.

다. 몽골은 ‘고려왕이 육지로 나와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사죄할 것 [出陸親朝]’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고려를 공략하였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주력부대는 한강을 넘어 경기 광주성을 포위하였다가 부사 이세화(李世華)가 이끄는 광주민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몽골군의 제2차 침입 (1232년)



처인성 전투 기록화 ()

이 무렵 살리타이는 별동대를 멀리 경상도까지 파견해 대구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의 대장경(大藏經)을 불태웠다.⁶⁸⁾

몽골군은 광주를 함락시키지 못한 채 용인의 처

인성을 공격하였다. 이곳은 수주(水州:수원)의 속읍으로서 천민들이 거주하는 부곡(部曲)이었다. 이때 성안에는 승려 김윤후(金允侯)가 승병과 부곡의 천민들, 이웃 고을의 피난민 등을 이끌고 있었다. 살리타이는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지휘하는 주민의 공격을 받아 사살되었고,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고려군의 반격을 받았다.⁶⁹⁾ 이에 몽골군 부사령관 테케[鐵哥]는 고려와 강화를 맺고 서둘러 철수하였다.

이처럼 최우가 결행한 강화도 천도는 고려 조정을 몽골군으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자마자 곧 강화도의 방어시설을 대폭 강화하였다. 천도한 이듬 해부터 외성(外城) 건설에 착수해 4년여 동안 길이 43리나 되는 토성을 해안가를 따라 완성하였다.

1235년에는 지방에서 소집한 예비 병력을 동원해 강화도 해안 및 내지 연안에 제방을 쌓고, 1250년에 둘레 2천 9백여 칸의 중성(中城)을 쌓아 견고한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⁷⁰⁾

68) 유재성, 1988 『대몽항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04~107쪽.

69)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9월.

이에 비해 최우가 국토방위와 백성 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는 여러도에 사신을 보내 백성들을 산성과 바닷가 섬[海島]으로 들어가도록 촉구한 것뿐이었다.⁷¹⁾ 최우가 천도를 논의할 때 참지정사 유승단(兪升坦)이 “성곽을 버리고



강화산성

. 132 (:)

종묘사직을 돌보지 않고 섬에 숨어 엿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장정들을 적의 칼날에 다 죽게 하고 노약자들이 끌려가 노예나 되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⁷²⁾고 지적했듯이, 강화도 천도는 당시나 오늘날 역사적 평가에서나 고려 위정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한 행위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3) 제3차 전쟁

(1) 전쟁의 장기화

몽골은 1233년에 동진국(東眞國)을 멸하고, 1234년에 금을 멸망시킨 후에 구라과 제국과 남송 정벌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은

70) 『고려사』 권82, 兵志2 城堡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22년 12월 ; 『고려사절요』 권17, 고종37년 12월.

71)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6월.

72) 『고려사』 권102, 열전 兪升坦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6월.

남송 공략에 앞서 고려와 남송의 연합 전선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를 다시 침공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몽골 전쟁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1235년 이후로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전쟁 종식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건은 두 가지였다.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할 것과 국왕의 친조(親朝)였다. 오고타이 사망 후 권력을 잡은 정종 구육[貴由]은 1247년에 고려 국왕의 출륙과 친조를 내세워 고려에 출병하였다. 헌종 몽케[蒙哥]도 고려 국왕이 친조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아 1253년 여름에 고려를 침략했고, 이후에도 고려 국왕의 출륙과 친조를 요구하면서 4차례나 더 고려를 침공하였다.<표11 참조>⁷³⁾

몽골이 고려 국왕의 출륙과 친조를 집요하게 요구한 배경은 고려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어 완전히 복속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몽골 전쟁을 이끌던 무신정권은 강경하게 몽골 대항을 견지하면서 최후의 항복을 유보했고, 이는 침략과 약탈을 통한 이민족 복속을 원칙으로 했던 몽골에게 계속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표11> 몽골의 침공시기와 지휘관

침공 시기	몽골 사령관
1231. 8~1232. 1	살리타이[撒禮塔]
1232. 8~12	
1235. 윤7~1235.12	탕쿠[唐古]
1236. 6~1237년 초	
1238. 8?~1239. 4	
1247. 7~1248. 3	아무간[阿母侃]
1253. 7~1254. 1	예꾸[也窟]
1254. 7~1255. 3	자랄타이[車羅大]
1255. 8~1256. 10	
1257. 5~1257. 10	
1258. 4~1259. 3	

몽골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정탐에 의거, 치밀하게 고려를 침공하였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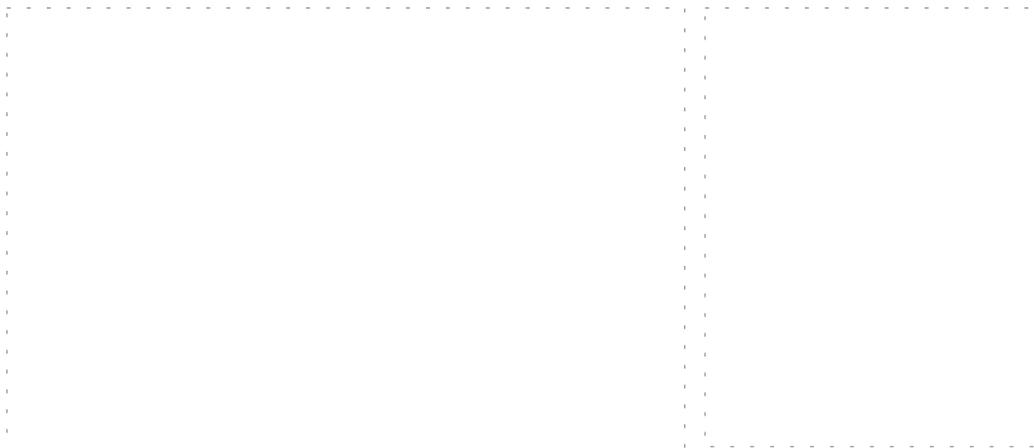
73) 이 표의 작성은 윤용혁, 앞의 책, 40~132쪽 참조.

74) 윤용혁, 앞의 책, 339~340쪽.

첫째, 몽골군은 고려 침략의 경험이 있는 장수들을 연속적으로 파견해 전쟁의 효율성을 높였다. 똑같은 지휘부 인물들이 몇 번에 걸쳐 고려를 침략한 것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휘하 병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컸다.

둘째, 몽골의 침략 시기는 7·8월에 집중되었고, 이는 8월 추수기를 이용하여 군량의 현지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11회 침략 가운데 7·8월이 8회, 5·6월이 3회로 나타나 이것도 일관된 전쟁 지침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 제1차·제2차 침공과 달리 제3차 침공부터 몽골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토로 전장을 확대시켰고, 강화도와 인접한 경기·서해도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강화도를 압박하였다. 몽골은 기동력을 이용해 고려 내륙 깊숙이 침입하여 전 국토를 파괴, 유린하였다. 이는 고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더 이상 항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 때문에 몽골 전쟁은 “(몽골군이) 지나간 곳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⁷⁵⁾는 표현처럼 참혹하고 잔인한 양상을 보였다.



고려 고종이 안치된 홍릉과 석인상

75)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1년 12월.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각 내부에 진열된 팔만대장경판
1236
(佛事) 1251

32

요컨대, 몽골은 군사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적극적인 공세전략으로 고려가 항복할 때까지 침략을 거듭했고, 마침내 고려의 항복과 복속을 얻어낸 이후에 침략을 중지하였다. 이전에 거란(요)이 적과 직접적인 유혈교전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교묘한 기동을 통해 적의 군사력이 궤멸되도록 하는 소모 전략을 구사했다면, 몽골은

이르는 곳마다 그대로 돌진해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고려 조정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이후로 전쟁에 투입할 중앙군을 더 이상 조직하지 못하였다. 방호별감 등 관리를 파견해 항전을 독려하거나 소규모 정부군과 야별초 파견에 의한 항전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고려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고 장기전을 치루겠다는 항전의지만을 불태웠다. 무인 정권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대몽전의 지속적 수행이 상호 연관을 맺는 상황에서 전쟁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가 제3차 전쟁에서 채택한 방어책은 수세 전략의 일환으로 해도입보(海島入堡)와 청야입보로 요약할 수 있다. 해도입보는 수전에 약한 몽골에 맞서는 데 작전상 유리했고 청야전술도 동반하였다. 해도입보와 청야입보는 모두 작전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수세적으로 전쟁과 전투에 임하는 개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의 국가정책이나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군사력 약

화는 물론 일반 민들의 큰 희생을 초래하였다.⁷⁶⁾

이와 함께 고려가 전쟁 억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군사적 열세 속에서 몽골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여 몽골이 침략했을 때마다 철수를 종용하는 외교적 노력이었다. 고려는 강화 협상이 당시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알면서도 출륙과 국왕 친조를 지연시키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 몽골의 요구 조건을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몽골과 정면 대결 의사가 없음을 표방하면서도 몽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 조정은 몽골의 철군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몽골이 제시한 출륙과 국왕 친조를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이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었다. 전쟁 중 몽골과 화의를 맺기 위해 국왕 고종이 출륙해 몽골사신을 맞이한 적은 있으나, 개경 환도는 종전 후 10여년이 지난 1270년(원종11)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왕 친조만은 끝내 거부해 국왕 이름으로 왕족을 파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족이 아닌 엉뚱한 인물을 왕족으로 보냈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국왕 대신에 고종 아들인 원종이 몽골로 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1235~1239년 침공 1235년(고종22) 윤7월에 탕쿠[唐古]가 지휘하는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하였다. 탕쿠는 제1차 침략 당시 살리타이 휘하로 참전한 장수이며,⁷⁷⁾ 몽골군 선두에는 고려인 홍복원(洪福源)이 길잡이로 나섰다.

몽골군은 함신진-귀주-영변-개주를 연하는 북로를 따라 남진해 자주성·삼등 등 여러 곳을 함락시키고, 10월에 동주(洞州:황해도 서흥)

76) 서인한, 2005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3쪽.

77) 윤용혁, 앞의 책, 66쪽.

또 한 부대는 함신진-철주-안북부를 따라 남하해 청천강 이남의 여러 지역을 함락시키고, 서경·평주를 거쳐 개경으로 남하하였다. 개경으로 남하한 선봉부대는 한성-용인-장호원-충주를 연하는 경로를 따라 경상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은 개경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삭령-연천-포천을 연하는 방면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몽골군은 지평에서 고려의 야별초에게 크게 패한 후에 안북부로 후퇴했고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압록강 이북으로 회군하였다.⁸⁰⁾

1236년(고종23) 6월에 몽골군이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⁸¹⁾ 몽골군은 8월말에 경기·충남까지 진출했고, 10월에는 전라도까지 남진하면서 계속적인 타격으로 고려의 전투력을 소모시켜 나갔다.

고려 조정은 광주·남경(지금의 서울) 주민을 강화도로 들어오게 하고, 강화도 연해에 외성(外城)을 쌓아 도읍 방어를 강화하였다. 각지 산성에 방호별감을 보내 백성의 항전을 독려하고, 야별초(夜別抄)를 파견해 몽골군과 싸우도록 하였다.⁸²⁾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늘어나자 고려 조정은 1238년 12월에 장군 김보정과 어사 송언기를 몽골에 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⁸³⁾



죽주산성

69 . 1236

80) 『고려사절요』 권16, 고종22년 10월. ; 유재성, 1993 『한민족전쟁통사』 -고려시대편』, 250쪽.

81)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23년 6월.

82) 『고려사절요』 권16, 고종23년 6월, 8월.

몽골군은 1239년 4월에 고려 국왕이 직접 몽골에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철군하였다.

고려는 1239년 12월에 국왕이 상중에 있다는 이유로 왕족 신안공 전(佺)을 몽골로 보냈다. 몽골은 고려에 거듭 국왕 친조를 요구하였고, 고려는 1241년 4월에 왕족인 영령공 준(綽)을 왕자로 속여 몽골로 보냈다.⁸⁴⁾ 이처럼 고려가 국왕 친조를 거부한 일은 몽골에게 다시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1247~1254년 침공 1247년(고종34) 7월에 원정 대장 아무간[阿母侃]이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하였다.⁸⁵⁾ 아무간 부대는 고려 서북면의 국경을 침범해 창성-삭주-귀주를 연하는 북로를 따라 남하하여 위주(평북 회천)·평려(평남 영원) 등을 함락시킨 후, 맹산-성천-강동-삼등-수안-평주-백주를 연하는 축선의 성들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남진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 서해도 요진인 황해도 연안까지 진출해 강화도에 대한 공세를 취할 기세를 보였다.⁸⁶⁾

고려 조정은 장기 항전에 돌입해 평안·황해도 백성들에게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 농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북면의 북로 백성들은 은율·안악 및 서해도 애한 일대의 도서 지역으로 옮기고, 남로 백성들은 안북부 관할 구역의 위도(葦島: 평북 정주 동쪽)로 이동시킨 후, 육지에 남아있는 군수물자를 모조리 섬으로 옮기고 곡식을 소각시키는 청야작전을 실시하였다. 고려가 몽골군의 군량 보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면서 압박해 들어가자 몽골군은 고려와 화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1248년 초에 몽골의 정종이 급사하자 몽골군은 철수

83)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25년 12월.

84)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26년 12월 ;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28년 4월.

85)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34년 7월.

86) 유재성, 1988 앞의 책, 139~140쪽.

하였다.

1253년(고종40) 7월 3일에 예꾸[也窟 또는 也古]가 이끄는 몽골군이 압록강을 도하해 고려를 침공하였다.⁸⁷⁾ 이 때 아무간과 고려인 홍복원이 부장으로 참전했고, 고려 사신으로 몽골에 가있던 이현(李峴)이 자청해 길잡이 노릇을 하였다. 이현은 몽골에게 고려 조정이 내륙의 조세와 공물수입에 의존하므로 추수 이전에 내륙지방만 친다면 고려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하였다.⁸⁸⁾

몽골군은 지금까지의 공격 양상을 바꾸어 서경에 도착한 후에 부대를 양분하여 동부 및 서부 내륙지역으로 진격시켰다. 송주[松柱]가 이끄는 동로군은 화주(영흥)를 함락시킨 뒤, 동주성(東州城:철원) 및 춘주성(춘천)을 공략하고 양근성을 거쳐 광주로 기동하였다. 화주에서 따로 파견된 별동부대는 안변·고성·양양 등을 거쳐 10월 중순에 강릉까지 진출해 동해안 지역을 약탈하였다. 예꾸가 이끄는 서로군은 황해도로 진출해 안악 서쪽의 양산성(椋山城)을 함락하고, 계속 남하해 10월 무렵에 충주성을 포위하였다.⁸⁹⁾

이에 고려의 강화도 정부는 충실도감(充實都監)을 두어 군사력을 보강하고 갑곶에서 수전에 대비했으며, 각지 주민들을 섬이나 산성에 입보시키는 등 항전 결의를 다졌다.⁹⁰⁾ 김윤후가 이끄는 부대가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패퇴시켰으나 각지에서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커져갔고 고려 조정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결국 국왕 고종은 1253년 11월에 강화도를 나와 승천부(昇天府, 경기 개풍)에서 예꾸가 보낸 사신을 접견한 후에 돌아왔다.⁹¹⁾ 고려 국

87)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0년 7월 갑신.

88) 『고려사』 권130, 열전 李峴.

89) 『고려사』 권101, 열전 權世侯 ; 『고려사절요』 권17, 고종40년 10월.

90) 유재성, 1993 앞의 책, 267쪽.

91) 『고려사』 권24, 고종40년 11월 신묘.

1254~1259년 침공 1254년(고종41) 7월에 새로운 고려 원정군 사령관 자랄타이[車羅大]는 부장 예쑤타이[余速達], 보포타이[甫波大], 고려인 홍복원 등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다. 내륙 지방에서 고려군의 대규모 반격이 없으리라고 예상한 몽골군은 소규모로 부대를 편성해 철저한 약탈을 일삼았다.

자랄타이가 이끄는 주력군은 경기와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로 남진, 남해안 진주 인근까지 도달하였다. 충청도의 충주·진천·괴산·제천·천안·아산, 남부지역의 상주·장성, 심지어 강원도의 금강산이나 설악산 같은 산악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1254년 전쟁은 고려 몽골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해(1254년)에 몽골군의 포로가 된 고려인은 남녀 합해 20만 6천 8백여 인이며 살육당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이 지나간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몽골군 난리가 있는 이래로 이때처럼 혹심한 피해는 없었다.⁹⁴⁾



몽골 기병이 포로를 압송하는 그림 (『고려사』권24)

94)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1년 12월.

1255년 2월 하순에 철수한 몽골군은 다시 1255년 8월에 침공을 재개하였다.⁹⁵⁾ 몽골군은 10월 초 전라·경상도 경계 지점인 대원령(大院嶺)에서 고려군에게 타격을 받으면서도 경상도까지 진출했고, 자랄타이가 이끄는 본군은 1256년부터 전라도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전라도로 남하한 몽골군은 3월에 입암산성(笠巖山城)에서 고려군을 포위 공격하였다가 참패한 후 물러섰다.⁹⁶⁾ 이들은 이후 9월 하순부터 북으로 철수해 10월까지 철수를 완료하였다.

1257년(고종44) 5월에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⁹⁷⁾ 몽골군의 선발대는 6월초 개경을 거쳐 빠른 속도로 남진하였다. 다른 부대는 청천강을 건너 용강·함종으로 진격했고, 동계 쪽에서도 옛 동진국의 기병 3천여 명이 등주에 침입하였다.⁹⁸⁾ 몽골군은 강화도와 가까운 황해 및 경기 일대의 섬까지 공격하면서 고려 정부를 압박하였다. 고려에서는 최항이 죽고 권력을 승계한 최의가 세자 친조를 강화 조건으로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몽골군은 10월에 철수하였다.

1258년 4월 몽골군은 고려에서 친조를 시행하지 않고 안경공 창(滄)을 파견하자 재차 고려를 공격하였다.⁹⁹⁾ 자랄타이는 개경에 주둔하면서 강화도 맞은편인 승천부·교하·봉성(과주)·수안(통진)·동성(김포) 등 경기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세자 친조를 철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고려는 1258년 3월에 최의가 암살되면서 최씨 무인정권이 붕괴하자 곧 세자 친조를 조건으로 한 협상에 합의하였고, 4월에

95)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2년 8월 무자.

96)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3년 3월 기미.

97)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4년 5월 을축, 정묘.

98) 上同

99)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5년 4월 신축. 기존 연구에서는 6월부터 11차 침공으로 파악했으나 이미 4월에 몽골군 척후 기병 1천 명이 수안 경내에 침입하였다. 이 때문에 5월에 고종은 승천부에서 자랄타이의 사절단을 만나게 되었다.

세자 전(僞:원종)이 몽골로 향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다.

(2) 삼별초 항쟁

무신정권 붕괴와 종전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한 지 17년이 지난 1249년(고종36) 최이가 30년간의 독재 끝에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최항이 집권하였다. 최항은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권력을 장악한 후에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고, 그 결과 정치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최항이 집권 8년 만인 1257년에 병사하자 아들 최의가 정권을 계승하였다.

최의는 기록에 따르면 용렬하고 경박해 인심을 얻지 못했다고 하며, 결국 권력 장악에 실패하고 말았다.¹⁰⁰⁾ 마침내 1258년 3월에 최의는 김준 등에게 암살되었고, 이로써 4대 60년간에 걸친 최씨 무인정권이 막을 내렸다. 최씨 무인정권이 종말을 고하자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강화도 천도를 반대하고 화의를 주장해오던 문신 및 일부 무신들은 몽골과 강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 해 5월 고종은 강화도에서 나와 승천부에서 몽골 사신을 맞이했고, 이듬해 1259년 3월에 강화조약을 맺고 4월에 세자 전(僞)을 인질로 몽골에 파견하였다.¹⁰¹⁾

최씨 무인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고려 조정이 몽골과 적극적으로 강화를 모색한 것은 이 무렵 고려의 여건이 몽골 침입 초기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원로대신 최린이 항전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금 백성 가운데 생존자는 열 명 가운데 2~3명이니 몽골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백성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적들에게 투항할 것입니다. 비록 강화도 한 곳을 지킨들 어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 『고려사』 권129, 열전 崔忠獻 附崔怡·崔沆·崔宜.

101) 『고려사』 권24, 세가 高宗45년 5월 갑인 ; 『고려사』 권24, 세가 高宗46년 3월 병자 ; 『고려사』 권24, 세가 高宗46년 4월 갑오.

니까?”¹⁰²⁾하고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고려 지배층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였다.

또 장기간의 전쟁으로 고종 말년에 이르러 경제적 궁핍이 가중되었고 몽골의 약탈도 격렬해졌다. 여기에 민생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으면서 민심 이반 현상도 가속화되어 전쟁 막바지에는 하층민들이 관군이나 향몽전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살해하고 몽골군에게 투항하는 사건도 빈발하였다.

이처럼 피폐해진 국토와 한계에 달한 국력은 향전을 고수하던 최씨 정권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더 이상 대몽향전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최씨 무인 정권이 몰락하자마자 강화의 길이 열리면서 종전을 맞이하였다.

삼별초의 활약 고려와 몽골 전쟁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삼별초다.¹⁰³⁾ 삼별초는 원래 최우가 집권할 당시 도성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야별초(夜別抄)라는 특수부대를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용장산성 행궁지가 (:)

126 .

야별초는 이후 병력이 크게 늘어나 좌별초와 우별초로 개편되었고, 몽골 전쟁 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로 신의군(神義軍)을 조직하였는데, 이 신의군과 좌별초·우별초를 합쳐 삼별초

102) 『고려사』 권99, 열전 崔惟清 附 崔璘.

103) 삼별초에 대해서는 윤용혁, 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참조.

라 하였다.¹⁰⁴⁾

최씨 무인정권 붕괴 후 강화도에서 내분을 겪던 원종은 1270년(원종11) 5월에 친몽 정권을 표방하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를 해산시켰다. 그러자 배중손(裴仲孫)이 중심이 된 삼별초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1270년 6월 1일에 반몽 항쟁을 선언하였다.¹⁰⁵⁾ 삼별초는 왕족 승화후 온(溫)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곧바로 거점을 진도(珍島)로 옮겨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진도 진돗개 백구 53 . 가 가 가 (:)

삼별초의 항전은 1270년 6월부터 1273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삼별초는 거제도과 마산, 김해, 동래 등 남해안 일대를 장악했고, 나주·전주, 심지어 인천 근처까지 진출해 위력을 떨쳤다. 이 때문에 전라·경상도의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선이 차단되면서 고려의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삼별초의 위세는 “삼별초군 모두 배를 타고 기치를 수 없이 펼쳐 꽂았는데 징·북소리가 바다를 끓일 정도로 요란하였다.”¹⁰⁶⁾고 할 만큼 드높아 고려 정부도 쉽게 진압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고려 조정에서 몇 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고 삼별초의 사기는 높아갔다.

결국 1271년(원종12) 5월에 고려·몽골 연합군은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대공세를 펼쳤다. 화약 무기 등 신무기까지 동원된 이 전투에서 삼별초는 패배했고 배중손과 국왕으로 옹립된 승화후도 죽음

104) 『고려사』 권81, 兵志1 兵制 원종11년 5월.

105)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11년 5월 무진;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11년 6월 기사.

106) 『고려사』 권104, 열전 金方慶.

을 맞이하였다.¹⁰⁷⁾ 1271년 5월에 겨우 살아남은 삼별초군은 김통정(金通精)을 새 지휘관으로 추대하여 탐라(제주도)로 건너가 항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273년에 1만 명에 달하는 여몽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패배했고, 이로써 삼별초가 구축한 독립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¹⁰⁸⁾



제주 삼별초 유적지 항파두리성
1273

396

6. 전략적 평가

1995년 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세계사에서 1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칸을 뽑았듯이 칭기즈칸이 이끈 몽골의 등장은 13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일변시켜 놓았다. 10~12세기까지

107)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12년 5월 정축.

108)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14년 4월 경술.

동북아시아는 고려를 위시하여 송·요(遼:거란)·금(金:여진)이 비교적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복합적인 외교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변방에 불과하던 몽골이 성장하면서 그 질서는 와해되었고, 몽골에 의해 망하거나 그 세력권 아래 놓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공세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동으로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까지, 서쪽으로는 비엔나 근처까지, 남으로는 서·북인도와 자바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세계사는 몽골군의 말발굽이 미치는 곳에는 단지 항복과 멸망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하, 금, 콰레즘 제국, 러시아의 공국(公國)들, 압바스왕조, 남송 등 많은 나라가 몽골에게 정복되거나 멸망하였다.

몽골의 침략 양상은 참혹한 약탈을 동반해 상대국의 인내력을 고갈시키고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다가 몽골은 이민족 중 자국에 충성하는 자들을 ‘노코르’라 하여 우대하고 군사 행동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고려 침공 때에도 고려인 홍복원(洪福源)을 길잡이로 앞세웠다.

몽골은 마치 『손자』에 “(토착인)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지리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不用嚮導者 不能得地理).”¹⁰⁹⁾는 조언을 알고나 있듯이 행동한 것이다. 또 몽골은 정복민이라 할지라도 장인이나 기술자를 우대하여 몽골의 군사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삼는 등 치밀한 군사 정책 및 통치력을 견지하였다.

고려는 1231년 몽골 침공을 받은 이후로 1259년까지 30여 년 동안

109) 『孫子』 軍爭 第七.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삼별초가 1273년까지 제주도에서 항쟁한 기간을 합친다면 몽골 전쟁의 전체 기간은 40여 년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고려만큼이나 몽골과 오랜 기간 싸우고 저항한 나라도 드물었다. 이 점은 세계 군사대국 몽골을 맞이하여 끝까지 고려의 자존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고려가 수행한 장기간 항전이 강화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략적 측면에서 몇 가지 평가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전의 전쟁 양상과 달리 계속 수세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려의 군사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려는 국초 이래 이민족이 침입할 때마다 북방 양계에 주둔한 주진군과 중앙군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적을 격퇴하였다. 서북계의 성곽 요새에서 농성전을 펼쳐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규모 군사조직을 갖춘 중앙군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형태였다. 수세적으로 농성전을 펼치던 고려군은 중앙군이 북상하여 남하하는 적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즉각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중앙군과 함께 남북에서 적을 협공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전략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수세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차전 당시 고려 조정이 북계로 급파한 중앙군은 병력 규모나 전투 능력 면에서 이 전략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예컨대 고려가 거란 전쟁에서 동원한 중앙군 병력은 20~30만이었다. 하지만 몽골 전쟁 당시 고려의 군사력은 초적(草賊) 수 십 명을 군에 편성할 만큼 열악하였고 대규모 병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1차전 이후로 고려 조정은 몽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더 이

상 중앙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고려의 군사 조직이 와해되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고, 1차전 직후 강화도로 들어간 고려 조정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병력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계의 성곽 요새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병력과 무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귀주성 등 몇몇 요새를 제외하고 몽골군에게 대부분 점령되고 말았다. 이는 고려가 전략을 수행할 만한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결과였다. 여기에다 몽골이 기존 유목민족에 비해 뛰어난 공성술을 발휘하여 고려 북계의 성곽 요새를 집요하게 공격한 것도 고려 패인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전략적 차원에서 최씨 무인 정권이 1차전 직후 강화도 천도를 단행한 것을 방어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최씨 무인 정권은 몽골군이 수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강화도로 천도해 장기전 태세를 갖추었다. 최씨 무인 정권이 수행한 항몽 정책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그곳 방위에만 주력하고 본토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고려 조정은 1차 전쟁 이후에 사실상 투입할 군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만큼 백성의 고통과 피해도 가중되었다.

최씨 정권의 강화도 생활상에 대해 『고려사절요』에는 “최우가 종실과 대신들을 불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비단으로 산더미처럼 높은 장막을 만들고 가운데에 그네를 매었다. 비단과 꽃으로 장식하고 팔면을 은단추와 자개로 꾸미었다.”고 적고 있다. 강화도로 피신한 조정안에서도 주전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고려 국왕 고종은 출륙을 단행할 만한 권한도 결단력도 없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 천도 후 백성을 산성이나 외딴 섬으로 들어

가 지구전을 펼치게 한 청야입보와 해도입보(海島入堡)의 방어책도 민심 이반을 초래하였다. 해도입보와 청야입보는 모두 작전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수세적으로 전쟁과 전투에 임하는 개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의 국가정책이나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립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군사력 약화는 물론 일반 민들의 큰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화도의 고려 조정이 권장한 입보책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식량 문제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민심 이반을 가져온 것이다. 반격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전쟁 말기인 1250년 이후로 일반 민들이 관군이나 향몽전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살해하고 몽골에 투항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1258년 몽골이 화주(영흥) 이북 땅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것도 동북면 주민들이 관리들을 죽인 후 철령 이북의 땅을 몽골에 바치고 귀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최씨 무인 정권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사실을 놓고 장기적으로 향몽전을 전개하려는 의지인 동시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처사였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최씨 무인 정권이 몽골 침략으로부터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강화도 천도를 단행했고, 심지어 당시 비등하고 있던 농민·천민 봉기 등 하층민 저항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고려가 몽골에 장기간 항쟁하면서 입은 최대 손실은 무엇보다도 백성의 희생이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몽골 전쟁은 전장이 전 국토로 확대되고, 거국적인 방어군이 조직되지 않

은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몽골 침략을 받은 지방에서 방어전을 수행했으므로 무엇보다도 인명 손실이 컸다.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지역에 대해 점령 후 살아있는 것들을 살육하고 약탈하였다고 한다. 몽골군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이러한 몽골군이 40여년간 고려 국토를 휩쓸었으니 그 참혹함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1253년 몽골 사자 몽골대(蒙古大)가 승천부에서 고려 국왕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군이 국경에 들어온 이후 하루에 죽은 자가 몇 천 몇 만 명입니까? 왕은 어째서 한 몸만 아끼고 만민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왕이 만일 일찍 나와서 맞이했다라면 어찌 죄 없는 백성들이 참살되었겠습니까?”¹¹⁰⁾라고 말했듯이 고려 백성의 희생은 살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참혹하였다. 따라서 이민족 침략에 맞서서 고려 지도층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민적 저항 의식을 고조시켜 군사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은 지도층의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역설적인 결과이기도 하나 고려가 몽골에게 장기적으로 항전한 결과 종전 후 고려는 몽골(원)의 정치적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고려는 1274년에 고려 원종의 태자(충렬왕)와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원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1287년(충렬왕13) 이후에는 정동행성(征東行省)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몽골의 간섭을 받았다. 또 1274년과 1279년 두 차례에 걸쳐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단행할 때 고려는 군사 2만3천여

110)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40년 11월 신묘.

명, 전함 1천여 척을 준비해 참전하고 군량도 제공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도 큰 수탈을 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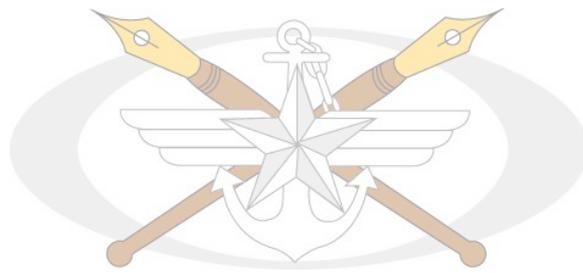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직접 지배 대신에 부마국으로 삼아 어느 정도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것은 고려가 장기간 항쟁한 결과 최종 화의에서 고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1259년 3월에 맺은 화의에서 태자 친조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려의 의관(衣冠) 풍속을 바꾸지 않을 것, 몽골 사신의 빈번한 왕래를 자제할 것, 개경 환도를 재촉하지 말 것, 압록강에 주둔한 몽골군을 모두 철수시킬 것, 전에 설치한 다루가치를 철수할 것 등을 몽골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려가 끈질기게 몽골에 항전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항쟁의 근저에는 바로 고려 백성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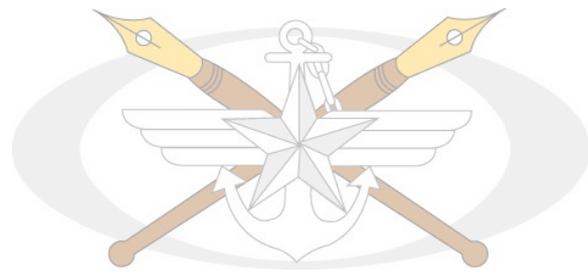
따라서 고려와 몽골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교훈은 몽골군에 맞선 고려 백성의 항쟁 정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몽골 항쟁의 주체를 무인 정권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고려 백성이야말로 몽골 항쟁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각 지방의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산성에 들어가 항전하거나 소규모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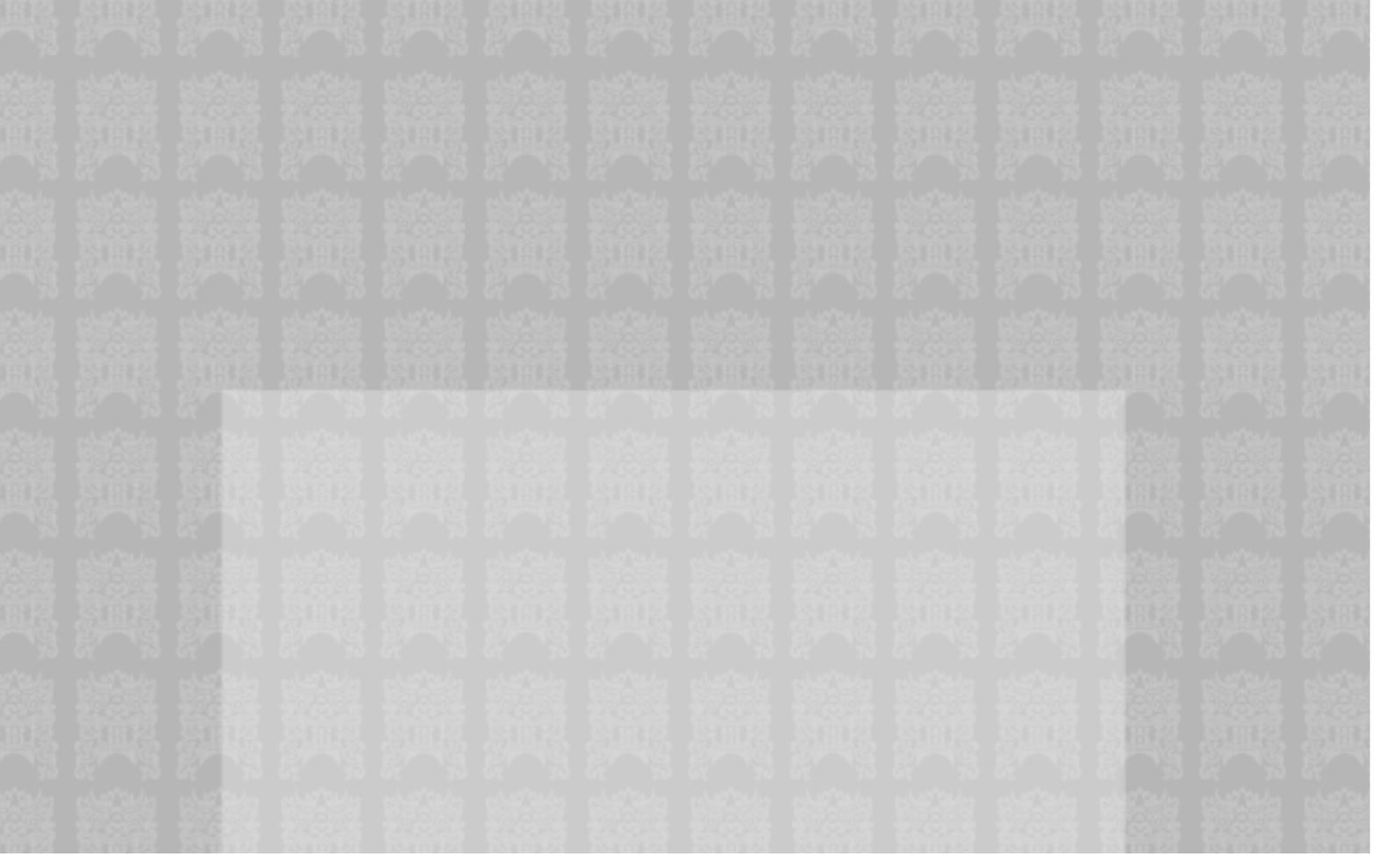
술한 전쟁을 경험한 몽골군을 훈련조차 안 된 일반 백성들이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도 고려 민중들은 피해를 감내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몇몇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장기간에 걸친 백성의 수많은 항쟁은 몽골군도 지치게 만들었다. 고려 백성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라는 왕조를 끝까지 지켜내는 동력이었고,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보다 더 오래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민족의 침략 앞에서 나라가 쓰러지는 위기를 막아낸 고려

백성의 항쟁 정신은 이후 조선시대 각종 의병활동은 물론 한말 의병 및 일제시대 항일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제 5 장
고려의 홍건족 토벌



고려시대 군사전략

1. 국내외 정세

1) 주변국 정세

(1) 원의 쇠퇴

14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국가는 원 제국이었다. 몽골은 세조 쿠빌라이(1215~1294) 시대에 수도를 오늘날 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도 중국식으로 고쳐 ‘대원(大元)’이라 하였다.

원 세조는 “하늘의 끝, 땅의 끝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는” 제왕으로 표현될 만큼 왕성한 정복 활동을 펼쳤고, 치세 35년 동안 원 역사상 최고의 융성기를 구가하였다.¹⁾

원 세조는 1279년에 중국 대륙의 일부를 차지하던 남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후 드넓은 중국 대륙을 독차지하였다. 이로써 원나라



원나라 황제 세조 쿠빌라이

1) 중국사연구실 편역, 1993 『중국역사』 (하), 신서원, 170~179쪽.



원사(元史)

1364~1370

는 최초로 한족(漢族)이 아닌 이민족으로서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원나라는 대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친 세조가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원나라의 몰락을 부추긴 원인은 황족 사이에 제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열이었다. 황제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거듭되자 왕조는 빠른 속도로 쇠망의 길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관료들은 황족의 정쟁과 암투가 끊이지 않는 틈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일삼고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황실의 낭비와 사치는 정도를 넘어섰고 심지어 원나라 국교인 라마교 승려까지 수탈을 일삼았다.

원나라 조정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재정 확보가 순조롭지 못하자 부세를 확대하고 상업을 권장했으며 통화(通貨)를 남발하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되어 농민들은 농업 생산 감소로 인한 타격과 동시에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가난은 강남에서 극한 상태에 이르렀고 부(富)는 만리장성이 북에 몰려있다.”고 하듯이 양자강 유역의 백성들이 주된 착취 대상이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흑심한 자연 재해가 북중국 일대를 휩쓸었다.

2) 중국사연구실 편역, 위의 책, 197~198쪽.

1323년부터 가뭄·홍수·지진이 해마다 거듭되면서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³⁾

이처럼 국내 상황이 악화일로로 걷는 상황에서 마지막 황제인 순제(1333~1367)가 즉위하면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농민반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농민반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규모의 조직적인 무장봉기로 표출되었고, 급기야 원나라의 국가 기틀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반란의 중심지는 남부지방이었으나 1360년대 중반 이후로 북부 지역으로도 급속히 파급되었다.

원나라 지배층은 농민 봉기가 거세지고 국내 정치가 수습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북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통치를 포기해 버렸다.⁴⁾ 중앙 정부의 통치력이 황하 이남 지역에 미치지 못하자 원에 반대하는 반란세력들 사이에 남부 지방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거세지고 여러 군웅들이 할거하였다. 결국 황제 계승 문제로 야기된 지배층의 분열은 정치 및 재정 분야에서 국가 관리의 위기로 이어졌고, 민심마저 이반하면서 원나라는 더 이상 온전한 국가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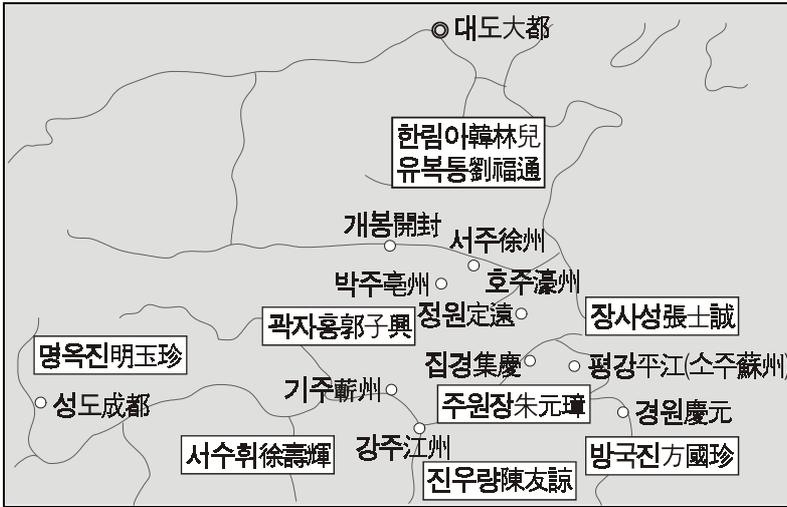
(2) 홍건적의 발생

홍건적의 발생과 세력 확대 원나라 말기인 14세기 중엽 중국 하북성 일대에는 한족(漢族)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다. 유복통(劉福通)·한산동(韓山童) 등이 주축이 된 농민군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들렀으므로 ‘홍건적(紅巾賊)’ 또는 ‘홍두적(紅頭賊)’이라 하였다.⁵⁾ 이들은 미륵불을 신봉하고 향을 피워 군중들을 모았으며

3) 유재성, 1993 『한민족전쟁통사』 -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328쪽.

4) 특관텐 저,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372쪽.

5) 중국의 春秋筆法에 따르면, ‘賊’이란 정통을 넘보거나 어지럽힌 무리 또는 그 행동을 지칭



원나라 말기 중국 군용할거도 (『 』)

로 향군(香軍)이라 불리기도 하였다.⁶⁾

홍건적은 당시 유행하던 비밀 종교결사인 백련교(白蓮教)⁷⁾를 바탕으로 황하유역으로부터 양자강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유복

통은 한산동이 북송 휘종의 8대손이라고 선전하면서 몽골 정권 타도를 선언하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한산동은 거병 직후 사로잡혀 주살되고 말았다.

1355년 유복통은 다시 한산동의 아들 한림아(韓林兒, ?~1366)를 황제로 추대해 국호를 송(宋)이라 정한 후에 군사를 일으켜 각지를 공략하였다. 홍건적의 위세는 변량(개봉)을 점령할 정도로 확장되었고, 1357년에는 하남성·산서성·섬서성 등지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 일부 대열이 만주지역으로 진출하여 1358년에 요동을 점령하였다.

원나라 조정은 홍건적 세력이 황도(皇都)가 자리한 북쪽까지 미치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원나라 조

하는 용어로서 당시 지배층이나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賊’ 대신에 ‘紅巾軍’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본고는 ‘홍건적’이 잘 알려져 있는 용어이므로 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는 ‘紅頭賊’으로 기록되어 있다.

6) 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1990 『중국전사』 (하), 학민사, 121쪽.

7) 백련교 : 천태종의 한 종파. 페르시아 마니교를 수용, 발전시켜 12세기에 하나의 종파로 성립. 미륵불이 현신하여 세상을 구하는 미륵신앙의 일종이다.

정은 요동 방향의 홍건적 집단을 압록강 방향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원나라 군대의 반격을 받은 홍건적들이 고려 영내로 밀려들어왔다. 결국 이 때문에 고려는 두 차례에 걸쳐 홍건적 토벌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홍건적의 활동은 원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원나라는 세조 쿠빌라이 이후 외형적으로 중국의 전통 제도나 문물을 채택했으나 그 지배층은 몽골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족(漢族)을 억압·차별하였다. 이러한 원나라의 정책은 한족에게 자극을 주어 동족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원나라 말기에 반란 세력들이 몽골 정권 타도와 함께 한족의 재건과 부흥을 주창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마침내 홍건적의 한 일파로 활약하던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이 영도하는 군사들이 원의 수도를 향해 진군하였다. 1368년 주원장은 북경을 점령하여 명나라를 건설했고, 원의 지배층을 이루던 몽골족들은 수도를 버리고 스텝으로 도망갔다. 그 후 몽골족은 그곳에서 북원(北元)을 세워 명의 변방에서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게 되었다. 이처럼 홍건적의 존재는 원의 통치를 근거로부터 뒤흔들었고, 14세기 후반에 원을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고려사』에는 홍건적에 대해 “원나라 정치가 쇠퇴하여 하남의 요사스러운 적도(賊盜) 한산동·한교아 등이 난을 일으키고 유복동 또한 군사를 일으켜 홍건으로 이름을 삼고 그 무리 관선생·사류·왕사성 등과 함께 중원을 노략질하여 산동을 나누어 점거하니, 그 세력이 크게 떨치고 도적이 떼 지어 일어나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하였다.⁸⁾

홍건적의 고려 침입 배경 원나라 말기 홍건적은 종교적 이념을 매개로 백성들을 결집해 거대한 무장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1357년 홍건적의 두목 유복통은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원나라 수도로 진격하는 대북벌을 단행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군의 반격과 내부의 갈등으로 홍건적은 점령 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후퇴했고 북벌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홍건적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펼쳤고, 종교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강조하던 기강마저 무너지면서 초창기 이념도 변질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관선생(關先生)·파두반(破頭潘) 등이 이끄는 중로군(中路軍)이 원나라 상도(上都:개평, 원의 여름 수도)를 함락시키고 주변 지역을 침략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1359년 홍건적은 주력부대가 머무는 변량(汧梁:개봉)이 원의 공격으로 함락되자 본거지를 상실한 채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마침내 원의 군사에 쫓겨 요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요양이나 심양에는 고려에서 건너온 유민이나 투항민들이 집단적으로 촌락을 이루면서 농경에 종사하고 있었다. 홍건적은 요양·심양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 유민들과 이 지역의 풍부한 생산력을 이용해 원에 대항할 세력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고려 유민들은 원과 홍건적이 대립하면서 유혈 충돌이 일자 요동 지역 정세에 불안함을 느껴 고려로 귀환했고, 고려 조정은 귀환한 사람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하면서 서북면 지역의 방어력을 보장하고자 하였다.⁹⁾

8)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3년 6월 신묘.

9) 강성문, 2005 「고려말 紅頭賊 侵寇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사의 재조명』, 황금알, 85~87쪽 ; 노창민, 1994 「14세기 홍건적의 고려침구 원인에 대한 일고찰」,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1~31쪽.

홍건적들은 고려 유민들에 대한 포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려를 침입하였다. 여기에는 홍건적이 당면해 있던 식량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홍건적은 중국에서 요동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계속 이동생활을 하는 등 어느 한 곳에 장기간 정착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량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건적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병의 성격이 퇴색해 버렸고, 약탈에 의존하여 식량을 해결하는 폭도로 변해 있었다.¹⁰⁾ 홍건적이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온 것도 식량 확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미 고려를 침입하기 직전에도 홍건적 3천여 명 정도가 압록강을 건너와 식량 및 각종 물자를 약탈한 적이 있다.¹¹⁾

요컨대, 홍건적은 고려를 침입하기 전에 감행한 대북벌이 원나라의 토벌로 실패하자 일부 세력이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홍건적은 요동 지역의 생산력과 고려 유민들을 이용하여 세력의 결집과 재건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유민들이 고려로 되돌아가고, 고려가 이들을 이용해 서북면 방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자 홍건적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려를 두 차례나 침략한 것이다. 이 무렵 홍건적의 세력은 초기에 비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10) 노창민, 위의 논문, 29~30쪽.

11)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1월.

2) 국내 정세

(1) 공민왕의 반원 정책

원의 내정간섭 고려는 1259년(고종46) 몽골과 전쟁이 종식된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외국의 침략 없이 대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 대가로 고려는 충렬왕이 원나라 세조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혼인한 이후로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원이 망할 때까지 내정 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고려는 밖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지켜나갔으나 안으로는 원의 부마국으로서 자주성의 시련을 받았다.

원은 고려가 항복한 초창기인 원종 및 충렬왕 기간 동안 약 20년간 다루가치를 파견해 부분적인 내정 간섭을 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쌍성총관부(영흥, 1258년)와 동녕부(서경, 1270년)·탐라총관부(제주, 1273년) 등을 설치해 고려 영토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고려 왕실이 사용하고 있던 황제국 체제의 명칭들도 제후국 체제의 명칭으로 깎아내리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짐(朕)’은 고(孤)로, ‘폐하’는 전하로, ‘선지(宣旨:황제의 명령)’는 왕지로, ‘태자’는 세자로 고쳤고, 정치기구들도 제후국에 맞도록 격하, 축소시켰다.

또한 충렬왕 이후 고려 국왕은 원 공주와 혼인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에서 고려의 왕위 계승에 종종 개입했고 정국도 좌지우지하였다. 원나라는 마음에 들지 않은 국왕을 폐위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번 재위한 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일들도 발생하였다. 예컨대, 충숙왕과 그 아들 충혜왕이 두 번씩이나 국왕 자리에 오르는 비정상적인 사태도 원나라의 간섭 때문이었다.

13세기 말 이후 원나라는 노골적으로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원은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1287년(충렬왕13)에 다시 설치해 고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대시켰다.¹²⁾ 더구나 원 및 고려의 친원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고려를 원의 지방행정구역인 ‘성(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도 여러 번 있어 고려는 안팎으로 끊임 없는 위협을 당하였다.

원은 정동행성을 통하거나 사신을 직접 파견해 국정 전반을 통제했고 수많은 공물과 군량미를 요구하였다. 사회적으로도 변발 및 몽골 복장 등 원의 풍습과 법제를 고려민들에게 강제하여 고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원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 대표적으로 1274년 (충렬왕 즉위년)과 1279년 두 차례에 걸쳐 원이 일본 원정을 단행할 때 고려는 군사 2만3천여 명, 전함 1천여 척을 준비해 참전했고 군량도 제공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큰 수탈을 강요당하였다.¹³⁾ 또 1354년(공민왕3) 원나라가 국내 반란세력 진압을 위한 구원병을 요청하자 고려는 조정군(助征軍) 명목으로 2천 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¹⁴⁾



익제 이제현 초상 110 . 1319
가 가

12) 장동익, 1994 「원의 간섭과 자주성의 시련」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270~271쪽.
13) 서인한, 2002 『한국 역대파병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1쪽, 35~36쪽.
14)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3년 7월 계해.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 정책 1351년 고려는 공민왕이 즉위하자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공민왕은 충숙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22세 나이로 고려의 국왕으로 등극하였다.

12세에 인질로 원나라에 간 공민왕은 1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원나라의 쇠퇴 양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즉위할 무렵에 원나라가 지배층의 분열과 각종 반란으로 정국이 혼미해지자 이를 원의 간섭에서 벗어날 호기로 이용한 것이었다.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반원(反元)의 기치를 내걸고 고려의 자주성



공민왕릉과 노국공주릉

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몽골식 변발과 호복(胡服)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무인 집권 시기에 인사 조치를 좌지우지한 정방(政房)을 혁파하여 잘못된 인사권을 바로잡았다.

다음으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여 친원 세력이나 권문세족 등이 권력을 남용해 남의 토지를 빼앗거나 양민을 자신들의 노비처럼 만드는 등의 부조리를 개혁하였다.¹⁵⁾ 그러나 공민왕

15) 민현구, 1989 「고려 공민왕의 反元的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68.

의 개혁 정책은 친원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심각한 난관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였다.

공민왕이 개혁의 돌파구를 새롭게 되찾은 것은 1356년(공민왕5) 원에 대한 첩보를 접한 이후였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조정군(助征軍)의 임무를 띠고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 원의 국내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다시 개혁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공민왕은 숙원이던 친원 세력의 거두인 기씨(奇氏) 일파를 숙청하고, 노책(盧頌)·권겸(權謙) 등 친원 세력가들도 제거하였다.¹⁶⁾ 고려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을 혁파하고 원나라 연호의 사용도 중단하였다. 연호 사용의 중단이란 그 나라와 사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서 공민왕이 강력한 반원 의지를 드러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여전히 순탄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친원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았고 실제로 여러 차례의 반란과 시해 사건을 겪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홍건적의 침입도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결국 공민왕은 1363년 신돈(辛旽)을 등용해 국정을 일임한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370년에 다시 친정을 단행했으나 1374년에 측근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치를 통해 추락한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 왕조의 중흥을 꾀하려고 했으나 실



이조년(1269~1343) 초상
(:)

16) 홍영의, 2005 『고려말 정치사 연구』, 해안, 86~87쪽.

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개혁 대상이던 보수적인 친원 세력을 꺾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공민왕이 행한 각종 정책과 시도는 부패한 국내 정치와 정치세력을 개혁하려고 한 고려의 마지막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2) 군사력 재건

군 동원자원의 실질적 감소 몽골 전쟁 이후 고려의 지배층들이 권력 다툼으로 혼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고려의 민심은 고려 조정애 등을 돌리고 있었다. 14세기 이후 고려 사회를 위협하고 있던 요소는 토지제도의 문란과 농민 유망이었다.

고려 조정은 몽골 전쟁 이후에 국가재정의 수입을 확대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공신이나 관료들에게 노는 땅[閑地]이나 묵은 땅[陳田]을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사급전제(賜給田制)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사급전제는 국왕이 측근정치를 시행하면서 이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었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귀족들은 노는 땅이나 묵힌 땅을 개간할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마저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시켜 나갔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토지가 일부 세력가들에게 집중된 형태인 농장(農莊)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토지들이 세력가들에게 의해 농장 형태로 불법적으로 점유되자, 고려 조정은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농민들에 대한 수취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¹⁷⁾

17) 이상국, 2000 「고려 후기 농장의 경영형태 연구」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52~259쪽.

이렇게 14세기 이후 원나라와 밀착한 정치지배층들이 농민에 대한 토지 탈점이나 수취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자 일반 민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고려의 영토를 벗어나 원나라 영역인 요양·심양 등지로 이주해갔다. 이 지역들은 토지가 비옥하면서도 개간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수취도 고려보다 심하지 않았다. 요동 지역에서 흉건적을 피해 고려로 한꺼번에 투항한 호수가 2천3백 호에 달한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¹⁸⁾

농민 유망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 현상이었다. 원과 고려 지배층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 충선왕·충숙왕·충목왕대에 국왕 주도로 개혁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 의지는 처음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기반도 성장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원나라 간섭 때문에 개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의 민심은 고려 조정의 억압에서 벗어날 길만 찾고 있었다. 수많은 농민들은 농장과 사급전이 발달해 대토지소유제가 확대되자 국가 수탈을 피해 권세가의 농장으로 들어가 의탁해 과중한 수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더구나 이 무렵 불교 사원이 소유한 불법적인 토지와 노비도 문제였다. 이미 불교계는 정신적 지도력을 상실한 채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꺼리지 않았다.

농민들의 유망은 결과적으로 군사력 약화라는 큰 결손을 초래하였다. 농장으로 들어간 농민들은 권세가들의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으나 정부의 가혹한 수탈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가의 직접적인 통치에서 벗어난 일반민들은 병역과는 거리가 먼

18)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1월 갑진.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자연히 국가 의식도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 자원의 감소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군사력 재건 노력 몽골 전쟁 이후 고려 군제는 원나라의 군사적인 통제 하에서 고려 본래의 군사조직을 재건하지 못하였다. 중앙 군제는 2군 6위 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나 군사 충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지방군 역시 주진군이나 주현군의 존재가 기록에서 사라지고 별초군(別抄軍)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원나라는 고려의 저항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해 고려 군제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고려의 군사제도는 몽골의 영향을 받아 순군만호제(巡軍萬戶制)로 조직되었다. 순군만호부는 수도 개경의 군정과 치안·사법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중앙의 군사력으로 기능하였다. 지방에도 경상·전라의 해안지역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가 설치되어 방어를 담당하였다. 이 만호부는 충렬왕대에 설치되어 고려가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공민왕대 초까지 유지되었다.¹⁹⁾

14세기 후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즉위한 공민왕은 그 동안 왜곡된 군사제도를 바로잡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양계 지역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서경·안주·의주·이성·강계 등지에도 만호부를 설치하고 이를 군익도(軍翼道)로 편성하는 익군(翼軍) 체제를 만들었다. 1천명을 단위로 구성된 1익(翼)에는 천호-백호-통주 등의 지휘계통이 있었다.

그리고 징집제도와 군졸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 소지를 병사에게

19) 권영국, 1995 『고려 후기 군사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0쪽.

국한하지 않고 모든 관리에게 확대하여 활 1, 화살 50, 창[戈] 1, 검 1을 보유하게 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²⁰⁾

공민왕의 개혁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 무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까지 이어졌다. 1356년 9월에 공민왕은 신하들과 승문관에서 서북면 병사들을 사열하면서 총통으로 화살을 발사하도록 했는데 화살이 멀리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화살의 깃 부분까지 땅속 깊이 박혔다고 한다.²¹⁾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 무기에 관한 기록으로서 고려 말 공민왕 대에 화기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이다. 실제로 화기는 왜구 토벌에서 큰 성과를 발휘하지만, 이 무렵에 공민왕이 북방 영토의 재탈환을 위해 군비 증강에 큰 관심을 쏟았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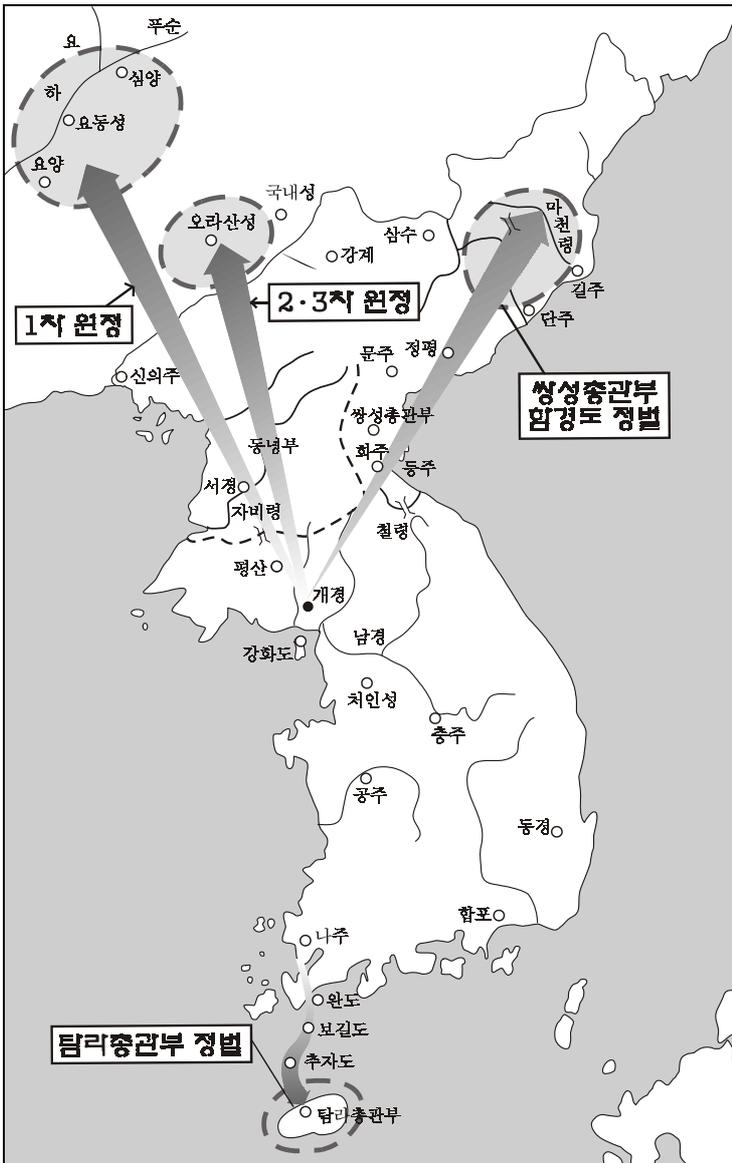
고려 말 공민왕대의 군사 과제는 군 자원의 만성적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 충원 제도의 확충이었다. 고려가 원나라에서 군대를 요청하자 “원래 3만8천의 군대가 있었지만 30년 동안 병란을 겪는 사이에 다 없어져버렸다.”거나 “백성은 있지만 군인은 없다.”고 회답했듯이 고려에는 정규군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였다.²²⁾ 또 원나라 요청으로 중앙의 정예군사 2천 명을 파견한 뒤에는 서해도에서 궁수를 모집해 궁궐 숙위를 보완해야 할 정도였다.

공민왕은 우선 국왕 및 궁궐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충용사위(忠勇四衛)와 자제위(子弟衛)를 신설하였다. 군사 확충을 위해 사천(私賤)을 제외한 모병자 가운데 사대부나 향리에게 관직을 부여하거나, 관사 소속의 노비의 경우 양인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강구하였다. 또 법을

20) 『고려사』 권81, 志35 兵 五軍 공민왕1년 윤3월.

21) 『고려사』 권81, 志35 兵 五軍 공민왕5년 9월.

22) 민현구, 1983 「고려후기의 군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332쪽.



고려 말 영토 회복을 위한 군사활동 (『 』)

위반한 사람들에게 처벌 수단으로써 군대에 편입시켜 용병화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²³⁾

그 결과 공민왕은 1356년에 압록강을 건너 요양에 이르는 동팔참(東八站)을 점령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쌍성은 고려의 동북면 화주(영흥)를 말하는데 화북 이북의 15주를 그 관할로 두었다. 이때 쌍성총관부를 점령한 고려 군사들은 정주(함남 정평) 이남 지역에 머물지 않고 마천령을 넘어 두만강 하류까지 개척해 고려 영토로 만들었다.²⁴⁾

공민왕이 군대를 출동시켜 압록강 건너 원나라 요새를 공격하고 원나라에 빼앗긴 쌍성(영흥) 지역을 공격해 고려 영토를 회복한 것은 군사력 강화의 결실이었다.²⁵⁾

23) 송인주, 1998 「공민왕대 군제개혁의 실태와 그 한계」 『한국중세사연구』 5, 253~258쪽.
 24) 김구진, 1994 「북방문제」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323~324쪽.
 25) 장학근, 2004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55~260쪽.

2. 토벌 작전의 전개

1) 제1차 토벌

(1) 홍건적의 1차 침입

홍건적은 고려를 침입하기 전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다. 1359년(공민왕8) 홍건적은 고려에 글을 보내 의(義)로서 일어난 자신들에게 충성하라고[歸附] 협박하였다. 같은 해 11월 말에 홍건적 3천 여 명은 압록강 결빙을 이용해 고려로 건너와 북변 지역을 약탈하는 등 침략의 징조를 보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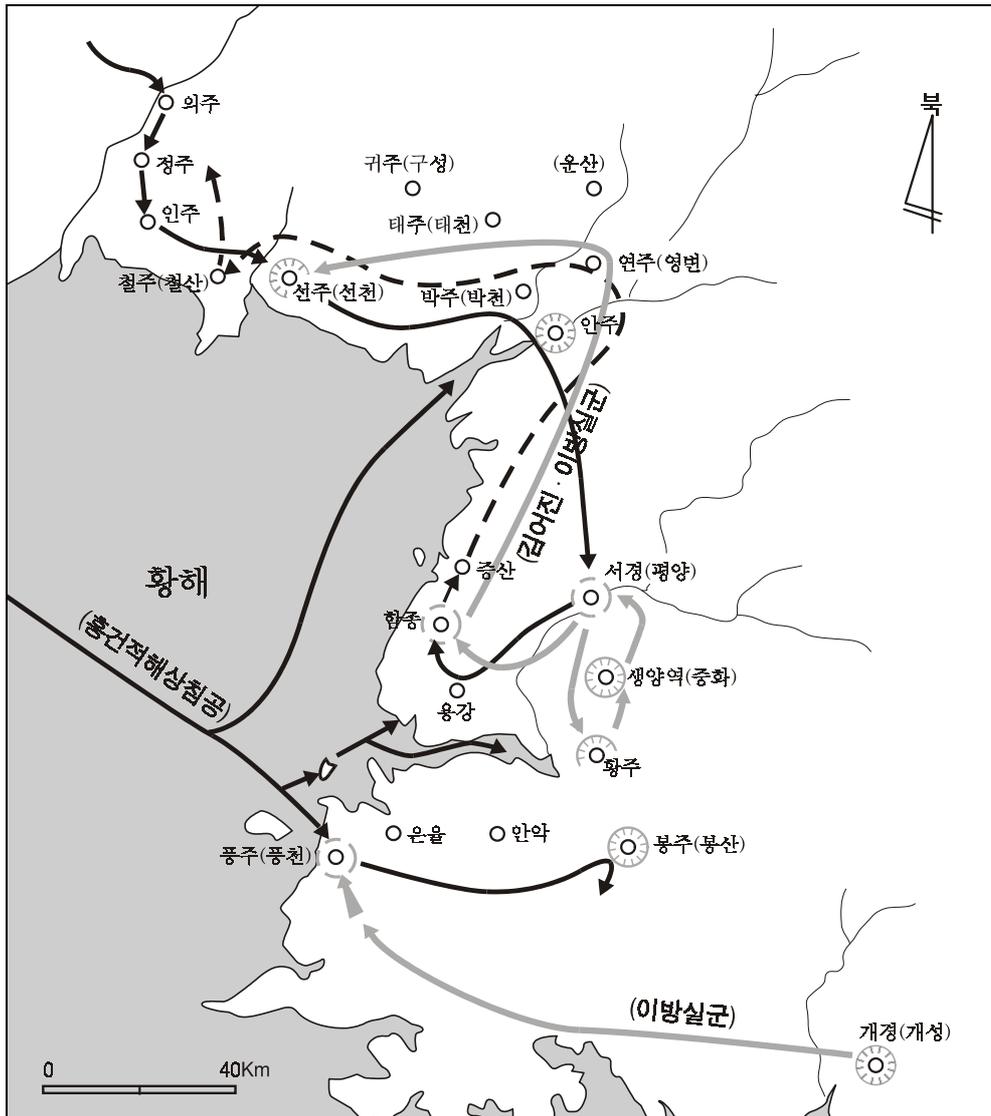
공민왕은 홍건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서북면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서북면의 군사는 평시에 둔전을 경작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전투에 동원되는 병농일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아울러 안주와 서경·의주 등지에 만호 및 천호 등을 두어 군사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도 갖추었다.

1358년(공민왕7) 3월에 정주(靜州) 부사 주영세(朱永世)가 개경으로 와서 공민왕을 알현하자 공민왕은 홍건적 침입이 우려되는 긴박한 시기에 함부로 임지를 이탈한 죄를 물어 주영세를 군율에 따라 투옥시켰다. 그리고 개경 외성을 신속히 수리하도록 명하였다.²⁷⁾ 이처럼 고려가 홍건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359년 12월에 홍건적 두목 모거경(毛居敬)은 4만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 결빙을 틈타 고려를 침입하였다.

홍건적의 병력은 대규모라고 할 수 없으나 저돌적으로 공격을 개

26)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2월 을유 ;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1월.

27)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7년 3월 갑자.



홍건적의 제1차 침공상황 (『 』 - 『 』)

시했으므로 고려는 북방의 주요 요새를 돌파당하고 말았다. 홍건적은 의주를 함락하고 의주 주민 1천 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어서 홍건적은 정주를 차지했고 도지휘사 김원봉을 죽인 후에 인주를 점령하는 등 남쪽을 향해 진격하였다. 인주에 주둔한 홍건적은 철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으나 안주군민만호 안우(安祐)가 이끄는 고려군의 반격으로 인주·정주 일대로 퇴각하였다.²⁸⁾

홍건적은 다시 1천여 기를 선주로 남진시켜 이 지역을 점령했으나 안우 부대의 활약으로 후퇴하였다. 공격 기세를 되찾은 안우 군대는 패주하는 홍건적의 후미를 뒤쫓아 홍건적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인주 및 정주까지 깊숙이 진격하였다. 그러다가 고려군은 다시 홍건적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낸 채 정주로 퇴각하였다.²⁹⁾

이 무렵 청천강 이북의 홍건적 점령 지역에서는 판사 김진(金縝)이 의주·정주지역의 주민들과 협력하여 홍건적을 공격해 1백5십여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³⁰⁾ 후방을 공격당한 홍건적은 공격의 기세가 꺾여 남하하지 못한 채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북쪽에 주둔해 있었다.

(2) 고려의 서경 탈환

고려 조정은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북방의 성곽 요새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방어군을 편성하였다. 홍건적이 더 이상 서경 이남으로 진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1359년 12월 11일에 고려 조정은 이암(李岫)을 서북면 도원수로, 경천흥(慶千興)을 서북면 부원수로, 김득배를 서북면 도지휘사로, 이춘부를 서경윤(西京尹)으로, 이인임을 서경존무사(西京存撫使)로 임명해 북쪽으로 급파하였다.³¹⁾

고려군 총사령관 이암이 서경에 도착한 때는 1359년 12월 20일이 었다. 이암은 군사들이 아직 서경에 집결해 있지 않자 고려군이 홍

28)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2월 정묘, 무진.

29)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2월 을해.

30)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9년 정월 기해.

31)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2월 경오.



평양성 대동문

건적을 분쇄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암은 홍건적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군사들에게 청야작전을 써서 서경의 창고를 불사르고 인근 요충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³²⁾ 그러

자 호부낭중 김선치는 “만약 창고를 불태우면 적도들이 양식이 부족해 졸지에 나라 안으로 들어올 터이니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³³⁾

고려 지휘부는 숙의 끝에 무리한 청야전술이 홍건적을 후방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평양의 많은 물자들을 대담하게 홍건적에게 그대로 내준 채 황주로 물러나와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고려군은 서경에서 황주로 후퇴해 이 지역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군은 홍건적이 서경에 무혈 입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고려 전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³⁴⁾

고려는 역사적으로 993년(성종12) 거란과 1차 전쟁을 수행했을 때 서경에 쌓아둔 곡식을 대동강에 수장시킨 후 청야전술을 구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려군은 홍건적의 현안 과제가 식량

32) 강성문, 2005 「고려말 紅頭賊 侵寇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사의 재조명』, 황금알, 91쪽.

33)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8년 12월.

34)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8년 12월 기묘.

확보일 것이라는 정확한 전략적 판단아래 서경의 곡식들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곧 홍건적들이 최대 목표로 여긴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남하를 일단 저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 결과, 고려군은 적을 서경에 묶어 둔 상태에서 불필요한 전투를 자제하면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었다.



이방실 장군 묘 가 가 . 1

1360년 1월 하순, 고려는 2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서경 탈환을 위한 대대적인 반격작전에 돌입하였다. 고려군은 혹심한 추위 때문에 작전에 차질이 생겨 사상자 1천 여 명이 발생했으나 수천 명의 홍건적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고, 고려군의 공세에 밀린 홍건적은 결국 서경을 포기하고 용강·함종 방향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1360년 2월 안우(安祐) 등은 함종으로 진격했으나 적의 기습으로 1천여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려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 안우·이방실(李芳實) 등이 함종에서 홍건적 2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고 장수 심자·황지선 등을 포로로 붙잡았다.³⁵⁾

이어 이방실·안우·김득배 등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도망가는 홍건적을 추적하여 대파하였다. 적들은 태주-귀주-선주를 연하는 경로를 따라 철주로 북상하였다. 이방실 등은 새벽에 군사를 배불리 먹

35)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9년 2월 임신.

여 전력을 재정비하고 여세를 몰아 선천까지 적을 추격해 수 백 명의 목을 베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홍건적 3백 명이 압록강으로 퇴각함으로써 고려는 홍건적을 고려 영내에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³⁶⁾

1차 침입 때에 홍건적이 침입한 지역은 서북면에 국한되어 그 이남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고려군은 백성 1만 명을 포함해 2만 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입었으나 홍건적 4만 여 명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다. 고려군이 홍건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홍건적 토벌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기동력이 빠른 정예기병을 내세워 신속한 반격 작전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었다.³⁷⁾

2) 제2차 토벌

(1) 홍건적의 2차 침입

1360년(공민왕9) 9월 원나라는 홍건적이 원나라 상도(上都) 개평을 공격한 보복으로 만리장성 이남과 이북 두 방면에서 홍건적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 싸움에서 패한 홍건적은 본거지인 장성 이남의 하북 지방으로 이동할 퇴로를 차단 당하자 그 진로를 고려로 돌려 1361년 10월에 고려를 재침하였다.

반성(潘誠)·사류(沙劉)·관선생(關先生)·주원수(朱元帥) 등이 이끄는 홍건적 20만³⁸⁾이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이들은 삭주 및 이성을 함락한

36)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9년 2월 계유.

37) 유재성, 1993 『한민족전쟁통사』 -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346쪽.

38) 『고려사』에는 홍건적 10만이 고려를 침입했다고 되어 있다(『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10년 10월 정유). 하지만 이후 『고려사』 기록에 죽은 자 10만, 도망간 자 10만이라 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2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11년 정월



홍건적의 제2차 침공상황

후 빠른 속도로 남진을 거듭해 11월 초에 무주(영변)에 집결하였다.³⁹⁾ 홍건적 침입 소식을 접한 고려 조정은 홍건적을 방어하기 위해 지휘 부서를 편성하였다.⁴⁰⁾ 상원수(上元帥)에 안우, 도병마사에 김득배(金得培), 서북면도지휘사에 이방실, 동북면도지휘사에 정휘(鄭暉)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동지추밀원사 이어경을 수도 개경에 이르는 길목이자 전략상의 요충지인 절령(岾嶺, 자비령)

에 파견해 목책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⁴¹⁾ 이는 만약 청천강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서북계와 개경의 중간 지점 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면서 홍건적의 남진을 둔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관리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전마(戰馬)를 각출하도록

갑자 ; 『太祖實錄』 卷1, 충서).

39)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10년 10월 정유.

40)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10년 10월 정유, 계묘.

41)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10년 10월 정유.

하고 수도 개경까지 흥건적이 남진할 경우에 대비해 도성의 문루(門樓)를 수축하였다.⁴²⁾

고려 조정은 턱없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병을 실시하였다. 현실적으로 북방에 과견할 병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자 모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비나 향리에게는 벼슬을 주고, 노비는 논·비단 등을 상으로 주거나 양민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우대 조건을 제시해 전투 병력의 확충을 꾀하였다.⁴³⁾

흥건적은 남진을 개시하여 11월 초 무주(평북 영변)에 집결하였다. 이때 서북면 도지휘사 이방실은 적의 병력이 아군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작전지역 주민과 군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방실은 순천(順川)·은산·성천 등 3개 주와 양암(양덕)·수덕(양덕)·강동·삼동·상원(祥原) 5개 현의 백성과 곡식을 절령에 설치한 목책 안으로 이동시킨 후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다.⁴⁴⁾

고려군은 박주로 출격해 흥건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태주에서도 적병 7명을 죽였다. 또 이방실은 개주(평남 价川)로 진출한 흥건적을 맞아 150명을 참살하였다. 상원수 안우도 기병 1백 여 기를 이끌고 흥건적 1천 여 명이 집결해 있는 연주 지역을 급습해 적 20여 명을 참살했고, 조천주 등도 박주에서 흥건적 1백 여 명을 참살하였다.⁴⁵⁾

고려군은 흥건적과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후 흥건적의 청천강 도하를 막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안주 일대의 방어선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흥건적은 고려의 예상을 깨고 일제히 청천강을 도하해 안주의 고려군 진영을 기습적으로 공격했고 고려군은 절령(자비령)으로 퇴각하였다.⁴⁶⁾

42)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0년 10월 정유.

43)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0년 10월 임인.

44)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10년 11월 기유.

45)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0년 11월 ;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0년 11월 을묘.

홍건적은 고려군의 청천강 방어선을 돌파한 후 11월 중순에 빠른 속도로 남진하여 개경의 중요 방어선인 절령 마저 함락하고 개경을 향해 진군하였다. 안우는 11월 18일에 절령에서 퇴각한 후 방어군 병력을 수습해 금교역에 재집결했으나 구원군의 증파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금교를 포기하고 개경으로 퇴각하였다.



학가산성 가

이에 공민왕은 개경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에 개경을 떠나 광주를 거쳐 복주(안동)로 파천하였다.⁴⁷⁾ 홍건적은 11월 24일에 이렇다 할 고려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개경을 함락했고 2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2) 고려의 개경 탈환

홍건적은 개경을 점령한 후 일부 기병으로 원주까지 공격하기도 했으나 더 이상 남진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개경성의 허술함을 보강하기 위해 성벽을 소나 말가죽으로 덮은 후 거기에 물을 뿌려 얼려서 성곽방어를 해놓은 상태였다.⁴⁸⁾

46)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10년 11월 계해.

47) 이에 대해서는 김호중, 1980 「공민왕의 安東蒙塵에 관한 一研究」 『안동문화』 1 및 김경희, 1993 「고려말 홍건적의 침입과 안동임시수도의 대응」 『부산사학』 24 참조.

고려 조정은 전국에서 20만 명의 병력을 징발해 전열을 정비하고 1362년 1월에 개경을 포위 공격해 격전을 벌였다. 공민왕은 복주(안동)에서 교서를 내려 정세운을 총병관(摠兵官)으로 삼고 적의 격퇴를 명하였다.⁴⁹⁾ 정세운은 1362년 1월에 안우·이방실·이여경·최영·이성계 등이 지휘하는 20만 명을 동교 천수사(경기 장단 소재)에 모이게 하여 개경을 포위하였다.⁵⁰⁾

때마침 눈이 내리면서 적의 방비가 소홀해 지자 이 틈을 타서 여러 장수가 사방으로 즉각 공격하였다. 먼저 이성계(李成桂:조선 태조)가 휘하 친병 2천 명을 이끌고 성에 올라 적을 격파하자 군사들의 사기가 고무되었다. 고려군은 개경에 진을 치고 있는 홍건적에게 기습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을 도모하였다. 당시 홍건적의 정예병은 송인문(개경 동쪽 외성문)에 모여 있었다. 이때 고려의 장교 권희가 “적의 정예병은 모두 이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불의에 이곳을 기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고 건의하였다.⁵¹⁾

1362년 1월 18일 새벽에 권희가 이끄는 기병 수십 명이 송인문을 기습하였다. 홍건적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고려군은 성벽위로 기어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다. 고려군이 성내로 밀려 들어가자 홍건적은 퇴로없이 성 중앙에 설치된 방책 안으로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때 한 기병이 방책에 접근해 널판을 걸치고 방책 안으로 뛰어 들어가 홍건적 수십 명을 참살하였다. 그 뒤를 이어 고려군 대부분이 방책을 파괴하고 홍건적 진영으로 돌격하였다.⁵²⁾

48) 강성문, 앞의 논문, 98쪽.

49)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0년 12월 임진.

50)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1년 정월 갑자.

51)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1년 정월 갑자, 을축.

52) 유재성, 앞의 책, 354~355쪽.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홍건적 우두머리 사료와 관선생 등을 포함해 10만에 달하는 적병을 포위, 섬멸하였다. 또 원나라 황제 옥새를 비롯해 갖은 물품 및 병기 등을 노획하였다. 고려군의 지휘부는 무엇보다도 맹목적인 전투 운용을 자제하였다.



고려군을 이끈 장수들은 “궁지에 몰린 도적을 다 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고 홍건적이 궁지에 몰려 최후까지 저항할 경우 고려

개성 놀리문

2

군이 입을 손실을 우려해 개경 동쪽의 송인문과 동북쪽의 탄현문 일대의 포위망을 해제해 홍건적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 길을 통해 홍건적 10만 명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에서 물러났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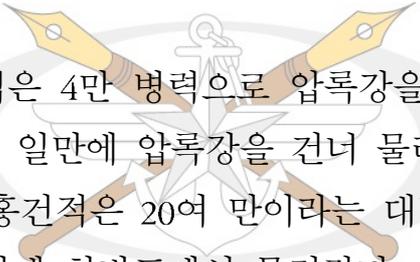
공민왕은 개경 탈환 이후에 복주(안동)에서 환도하여 개경 부근의 흥왕사를 임시 처소로 삼아 머물렀다. 전란 중에 파손된 궁전을 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공민왕은 무장 김용(金鏞)에게 살해될 뻔하였다. 소위 ‘흥왕사의 난’이 이것으로, 김용은 원나라 세력과 연결되어 공민왕을 살해하려 했으나 최영(崔瑩, 1316~1388) 장군 등에 의해 진압되었다.⁵⁴⁾

53)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11년 정월 갑자, 을축 ;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11년 정월 갑자, 을축.

54) 강성문, 앞의 논문, 100~101쪽.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과 홍왕사의 난을 진압한 후에 대규모 공신 책봉을 시행하였다. 개경 수복에 기여한 인물,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호종한 인물, 홍왕사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 등 모두 275명이 책봉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신 등은 12명에 불과했으므로 무장들을 위한 공신 책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⁵⁵⁾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들이 서서히 대두했고, 이후 기성세력인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 전략적 평가



1359년 12월 홍건적은 4만 병력으로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입해 1360년 2월에 70여 일만에 압록강을 건너 물러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1361년 10월에 홍건적은 20여 만이라는 대병력으로 고려를 다시 침입했고, 3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물러갔다. 고려는 초반의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북방민족과 대처한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홍건적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고려에서 공민왕이 즉위할 무렵 중국 대륙의 정세는 크게 변동하여 오랫동안 세계 제국을 형성하던 원나라가 몰락해가고 각지에서 한족(漢族)의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홍건적 역시 원나라 말기인 14세기 중엽에 중국 하북성 일대에서 한족을 주축으로 일어난 농민군으로서,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으므로 ‘홍건적(紅巾賊)’ 또는 ‘홍두적(紅頭賊)’이라 하였다. 홍건적은 점차 원나라에 대항하면서 세력을

55) 김당택, 2004 「고려말 대외관계의 격동과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향」 『한국사시민강좌』 35, 일조각, 55쪽.

확장해 나가다가 원나라 군의 공격을 받아 그 중 한 무리가 요동으로 쫓기면서 고려 영토를 침범하였다.

오늘날 한국사에서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 말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처해있던 복잡다단한 대외 환경의 하나로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진단은 홍건적 토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고려의 군사력 및 전략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이 전쟁이 고려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일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기 중엽 공민왕을 중심으로 반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의 국내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는 서북지방에서부터 개경에 이르기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파천함으로써 공민왕의 권위와 개혁정치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이 침입으로 홍건적만 18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손실되었고 고려도 3만 여 명이 살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을 만큼, 이 침입은 국지적인 도발이 아닌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었다.

사실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은 중국 정규군이 아니라 원나라 말기에 중국 대륙에서 수년간 게릴라 형태의 전투를 벌인 유격부대라고 할 수 있다. 홍건적은 농민 반란군으로서 국가 체제를 위협할 만큼 저항력이 뛰어났으며, 원나라 정규군에 대항하여 생존해야 했으므로 일반적인 군사 행동을 뒤엎는 예상 밖의 전략·전술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군이 홍건적을 토벌하기까지 쉽지 않은 전투를 치렀다고 판단되며, 이런 점에서 홍건적을 격퇴한 고려군의 활약은 역사적으로 크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주목받아야 할 부분은 고려가 취한 대응전략이다. 고

려는 홍건적이 침입하자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 계속 수세적으로 밀리면서 방어에 치중하였다. 그러다가 군사전문가 클라우제비츠가 “번쩍이는 보복의 칼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공세로 전환하는 것은 방어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이다.”⁵⁶⁾고 말했듯이, 고려는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하자마자 신속하게 공세로 전환해 홍건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고려 지휘부는 홍건적이 청천강 방어선을 뚫고 신속하게 남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경(평양)에서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였다. 고려 지휘부는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한 중요한 목적이 식량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경의 많은 물자들을 홍건적에게 그대로 내준 채 황주로 물러나와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만약 홍건적이 서경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려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리라고 판단하고, 홍건적에게 고려군이 평양을 지키지 못하고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계책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일보 후퇴를 선택한 다음 차후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종의 유인 및 기만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지휘부의 예상은 적중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서경에 입성한 홍건적은 그곳에 주둔하면서 전세를 관망하였다. 그 결과 고려군은 적을 서경에 묶어 둔 상태에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대적인 반격작전에 돌입해 서경을 탈환한 뒤에 최종적으로 홍건적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고려는 2차 토벌에서도 1차 토벌 때와 마찬가지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견인해 냈다. 1361년에 홍건적이 재침해 개경을 점령한 후에 더 이상 남진을 피하지 않고 개경을 중심으로 방어

56)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류제승 옮김, 1998 『전쟁론』, 책세상, 267쪽.

전선을 구축하자, 고려는 이들의 공격력이 소진되었다고 보고 즉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개경 탈환을 시도하였다. 고려군은 신속히 개경 부근에 고려군을 집중 투입해 홍건적의 정예부대가 배치된 승인문(개경 동쪽 외성문)을 공격하여 홍건적의 허를 찔렀다.

요컨대, 홍건적은 자신들의 정예부대가 배치된 곳을 감히 고려군이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방심했으나, 고려군은 홍건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을 공격하여 홍건적의 전열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이었다. 이것은 『손자』에서 “적의 무방비한 곳을 택해 공격하고, 적이 뜻하지 않은 곳을 노려야 한다(攻其無備 出其不意).”⁵⁷⁾는 조언을 활용한 것으로, 현대전에서 전격전(電擊戰, Blitzkrieg tactic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⁵⁸⁾

이 한 번의 대규모 기습 타격으로 승기를 잡은 고려군은 홍건적을 고려 영토 밖으로 몰아냈으며, 이때에도 고려 지휘부들은 홍건적이 궁지에 몰려 최후까지 저항할 경우 아군의 손실이 클 우려가 있으므로 홍건적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고려군이 두 차례에 걸쳐 홍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열세한 군사력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병력을 집중한 후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적의 균열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반격할 시간을 확보한 다음, 적이 승리에 자만하여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적을 포위, 기습해 과반수 이상을 참살함으로써 전투력 우위를 달성하고자 택한 전략이었다. 고려가 수행한 이 전략을 현대적 군사 개념으로 바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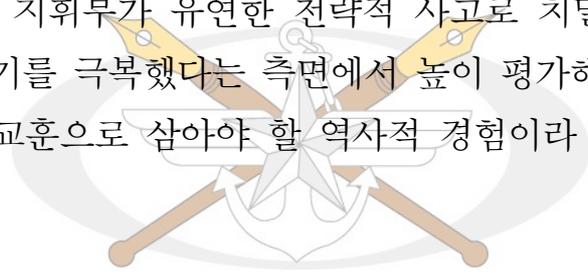
57) 『孫子』 始計 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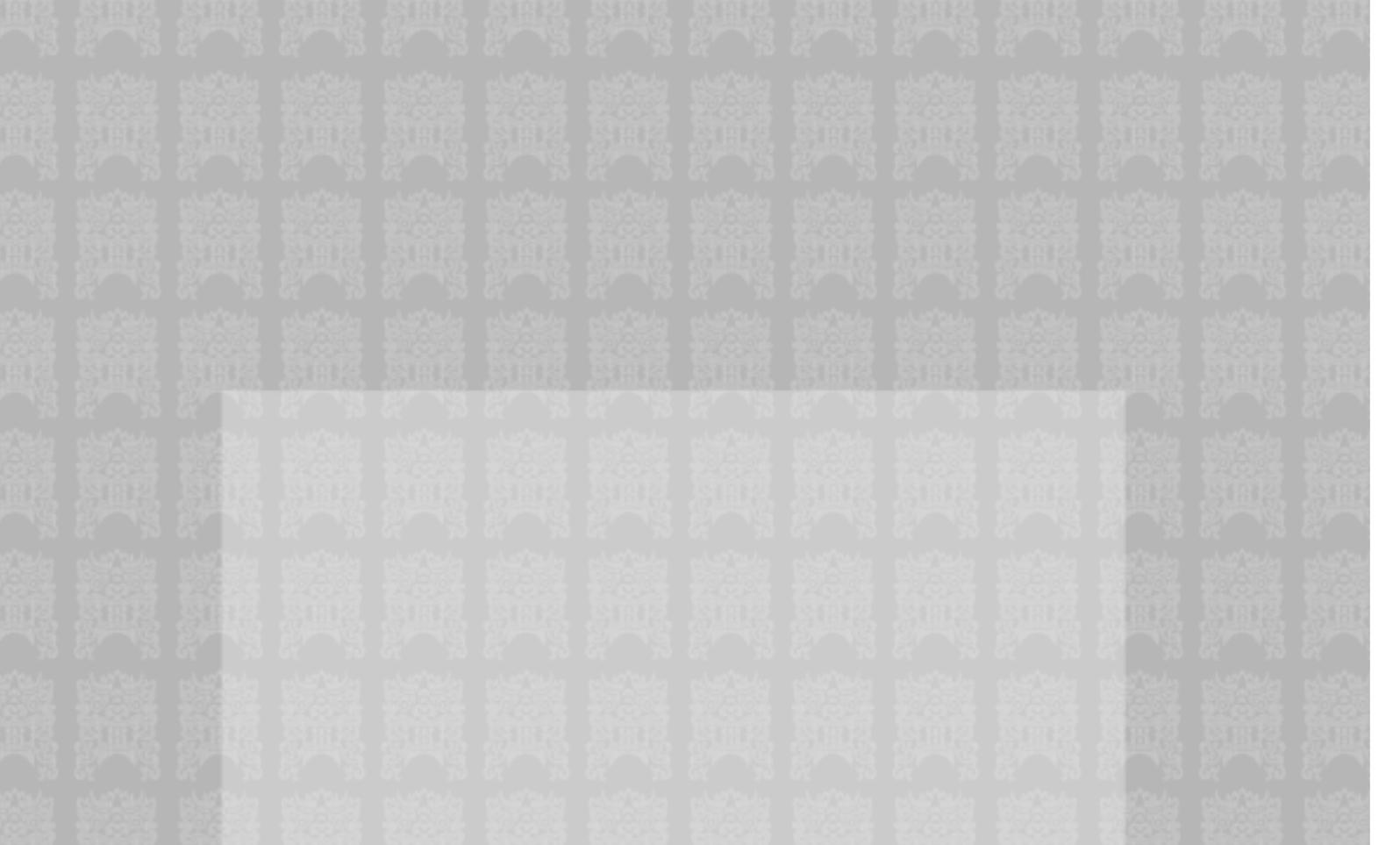
58) 전격전이란 급격한 충격에 의해 적의 심리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노병진, 1990 『도해 손자병법』, 도서출판 한원, 49쪽 참고)

다면, 기만과 기습을 통해 우군 병력을 절약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 적군의 약점을 지향하는 일종의 수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고려는 유인격멸(1차전)과 포위섬멸(2차전)로 불필요한 전투를 최대한 억제하여 군사력을 보존한 후 기습적인 타격으로 홍건적을 고려 영토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고, 군사들과 백성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2차전에서 홍건적에게 퇴로까지 열어준 고려 지휘부의 선택은 고려 지휘부 스스로 고려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결과였으며, 군사 행동의 목표가 홍건적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데에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인식했기에 가능하였다.

이 점은 고려 지휘부가 유연한 전략적 사고로 치밀한 작전을 전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하며, 오늘날 온고지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제 6 장

고려의 왜구 토벌



고려시대 군사전략

1. 왜구의 발생

1) 왜구 발생의 원인

(1) 일본의 남북조시대

1192년 일본에서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源頼朝]가 가마쿠라(鎌倉, 1192~1333) 막부를 열고 쇼군[將軍]으로 취임해 실권을 장악하자 천황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일본은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한 봉건사회를 이루었다.

가마쿠라 막부는 주종 관계를 근간으로 무사 정치를 이끌었다. 쇼군은 고케닌[御家人]¹⁾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고케닌은 쇼군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 고케닌[御家人] :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쇼군[將軍]에 직속된 무사의 총칭. 고케닌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지역의 영주가 자기 영토의 명부를 쇼군에게 바치고 충성을 맹서하면 쇼군은 영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문서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여 주종관계가 성립되면 영주 곧 고케닌은 그 대가로 평상시 교토에서 황실 경비나 쇼군 저택의 경비를 맡았고, 쇼군의 저택이나 신사·사찰 등에 공사가 있으면 노역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戰時에는 쇼군을 위해 전쟁에 직접 출정하였다.



가마쿠라 초기 무사들이 착용한 갑옷

계 충성하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²⁾ 그러던 중 13세기에 미나모토노 계열의 세력이 쇠퇴하고 외척인 호조 도키마사[北條時政]와 호조 요시토키[北條義時]에게로 정권이 넘어갔다.

호조 계열이 일본을 통치하던 13세기 말엽에 원나라(몽골)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을 단행하였다(1274·1281년). 쇼군에 직속된 고케닌들은 원나라가 침략하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들은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큰 포상을 기대했으나, 원나라와 수행한 전쟁은 외세를 막아낸 전쟁이었으므로 전리품이 있을 리 만무하였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치른 고케닌들은 쇼군에게서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하자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막부에 대한 불신만 높아져 갔다.³⁾

이 무렵 고다이코[後醍醐] 천황은 쇼군과 고케닌이 전후 보상 문제로 주종 관계에 균열이 생기자 이를 천황 통치 체제를 부활시킬 호기로 판단하고 마침내 1333년에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새로 수립된 천황 정권은 무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천황이 훈공(勳功)을 불공평하게 실시하여 공가(公家) 집단을 우대하고 무사집단을 홀대한 것이었다.⁴⁾ 또 행정 처리도 일관성

2) 구태훈, 2002 『일본역사탐구』, 태학사, 121쪽.

3) 민두기, 1976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69쪽.

4) 유재성, 1993 「중세의 왜구토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52쪽.

이 없었으며 무리하게 궁궐을 확장하면서 일반 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동지방 무사 출신으로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는 데에 공이 컸던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신정부 타도의 기치를 올렸다. 아시카가는 1335년에 군사행동을 개시해 1336년에 황제가 있는 경도(京都)를 완전히 평정한 후 새 황제를 옹립하고 무로마치[室町]



일본 고다이고[後醍醐] 천황

막부를 열었다.⁵⁾ 그리하여 고다이고 천황이 이끄는 신정부는 3년이 채 못 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사태가 불리해진 고다이고 천황은 경도에서 탈출해 남쪽 길야(吉野)로 피신해 별도의 조정을 열었다. 이로 인해 일본 천황가는 경도의 천황(北朝)과 길야의 천황(南朝)으로 나뉘게 되고, 무사들도 두 왕조를 따라 분열되면서 혼전을 거듭하였다. 일본 역사상 최대 혼란기였던 이 시대를 ‘남북조시기’라고 부른다.

두 조정은 각각 세력을 확대하고 무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대세는 북조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1392년 남조 천황이 북조 천황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형식[讓位]으로 남북조 화합이 성립되었고 60년간의 혼란 상태도 마감되었다.

5) 구태훈, 앞의 책, 126쪽.

(2) 14세기 왜구의 특징

왜구(倭寇)는 불법적으로 약탈행위를 하는 왜인 또는 왜인에 의한 약탈행위를 일컫는다. 한반도에서 왜구 출현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삼국 가운데 신라가 왜구의 침범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가야에 비해 왜와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지리적으로도 일본 열도와 근접해있기 때문이었다.⁶⁾

그런데 신라의 연해지역을 넘본 왜구는 백제와 왜의 친선관계를 고려해볼 때 고려후기에 등장하는 왜구처럼 약탈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침공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왜구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왜구는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⁷⁾



일본 무사의 저택과 가족

지금까지 14세기 왜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내 사정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검토했듯이 14세기 후반 일본은 남북으로 정권이 양분되면서 중앙 통치가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자 사회적 불안이 증

6) 최병옥, 1993 「서론」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3쪽.

7) 이영, 2003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한국사연구』 123, 한국역사연구회, 211~213쪽.

대되었다.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고케닌[御家人]들과 하급무사들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여기에 속한 농민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카마쿠라시대 무사 (「
」)

또 가마쿠라 막부의 중기 이후에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화폐 경제가 침투하면

서 농민들은 인플레이에 시달리고 상대적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조정과 고케닌들에 의한 가렴주구, 천재·기근이 겹치면서 농민들은 본래의 생업에서 이탈하고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였다. 이들은 삶의 방안을 찾아 연안이나 섬으로 이주했고, 막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자 중국과 조선 연해에서 해적행위를 하게 되었다.

왜구의 근거지는 주로 쓰시마, 이키[壹岐], 마쓰우라[松浦], 히젠[肥前, 지금의 나가사키현] 등 서부 일본의 도서지방이었다. 이 지방은 논이 불과 3~6% 밖에 되지 않을 만큼 지형이 험준하고 땅이 척박하였다. 경작지가 적어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궁핍했고 살길을 찾아 해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유력한 무사에 의해 조직화되어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였다.⁸⁾ 심지어 남조측은 왜구를 통해 각종 재원을 조달받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이처럼 왜구 발생이 일본 사회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구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였다. 생산 기반을 잃은 농민은

8) 구태훈, 앞의 책, 164쪽.

물론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무사 및 병사들도 가담하였다. 또 남북조 혼란이 북조의 승리로 끝나자 여기에 패배한 남군 세력마저 가담하였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고려 말 왜구는 오합지졸의 해적 집단이 아니라 남북조 내란이라는 혼란기를 겪던 일본 상황에서 군수 물자 확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고려로 쳐들어온 정예부대라는 의견도 있다.⁹⁾

2) 왜구의 규모

『고려사』에는 왜구를 왜적(倭賊)·왜노(倭奴)·해도(海盜)·구(寇) 등 도적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그러나 실제 고려를 침입한 왜구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 단순한 도적이거나 해적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또 해상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육지 깊숙이 올라와 성곽을 쌓고 목책을 설치해 농성전을 펼치거나 기병을 동원하여 전투를 하는 등 꽤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투 집단의 형태를 띠었다.

고려에 왜구가 침입하기 시작한 것은 1223년(고종10) 무렵이었다.¹⁰⁾ 처음 왜구가 고려 해안에 나타날 때에는 전선 2~3척을 거느린 도적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350년 이후로 침입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었다. 왜선의 규모는 점차 증가해 20~30척, 많은 경우에는 2백 척에서 4백 여 척의 전선을 이용해 고려를 침입한 적도 있었다.

왜구가 사용한 배의 크기는 보통 70톤 내외로 알려져 있다.¹¹⁾ 정

9) 이영, 2000 「<庚寅年 倭寇>와 일본의 국내정세」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10) 『고려사절요』 권15, 고종10년 5월.

11) 竹越與三郎, 1938 『倭寇記』, 白揚社, 29쪽.

약증(鄭若曾)의 「일본도찬(日本圖纂)」을 살펴보면 대선(大船)은 3백 명, 중선은 1~2백 명, 소선은 40~80명 정도 승선이 가능하였고, 왜구들이 명나라 군사와 전투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왜구도권(倭寇圖卷)」¹²⁾을 보면 10명 내외가 탑승한 소형배도 있었다.¹³⁾ 이를 근거로 하여 2백 척에서 4백 척에 탑승한 왜구의 병력을 소선으로 파악하여 계산해 보아도 한 전투에 몇 천 명까지 동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구의 모습

하나의 사례로 1383년(우왕9) 왜구가 대선(大船) 1백2십 척을 이끌고 경상도 관음포에 출몰했는데, 당시 20척에 군사 1백4십 명씩을 배치해 선봉으로 삼았다.¹⁴⁾ 따라서 이 20척에 승선한 왜구 숫자만 2천8백 명이며 나머지 1백2십 척에 타고 있는 왜구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해진다.

또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360년에 왜구가 강화에 침입해 주민 3백여 명을 살육하고 쌀 4만여 석을 약탈해 싣고 갔다고 한다.¹⁵⁾ 이 밖에도 1374년에 왜선 3백5십 척이 합포(경남 마산)를 침입하였고,

12) 「왜구도권」은 명나라를 침공하는 왜구를 묘사한 그림으로, 17세기 제작된 것을 그 뒤 누군가가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구 풍속을 세밀히 묘사한 유일한 회화 사료로서, 내용은 왜구선단의 출현, 상륙, 정착, 약탈과 방화, 백성들의 피난, 왜구와 명군의 전투, 명나라 정규군의 출동 순서로 묘사되어 있다(『왜구토벌사』에 실린 별쇄화보 「왜구도권」 참조).

13) 이재범, 2006 「고려말 조전전기의 왜구와 사천」 『군사』 5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51쪽.

14) 『고려사』 권113, 열전 鄭地.

15)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9년 윤5월 병진.

1379년에 말을 탄 왜구 7백 명과 보병 2천 명이 침입한 기록도 보이



조총을 들고 있는 왜구 (『고려사』, 17)

며,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말을 1천6백 필이나 사로잡았다는 기록도 있다.¹⁶⁾

이처럼 왜구의 규모가 몇 천 명까지 육박하고 기병까지 동원할 정도라면 이를 군사 조직화하

기 위해서 상당한 지휘체계가 요구되었을 것이다.¹⁷⁾ 따라서 14세기 중반 이후로 고려가 상대하여 전쟁을 벌인 왜구는 오합지졸의 해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군대였다.



2. 국내외 정세

1) 명나라의 왜구 대책

14세기 중엽 중국 대륙에는 큰 파란이 일었다. 이때까지 패권을 장악하던 원나라가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주원장(朱元璋, 1328~1398) 등 지방 세력가의 등장으로 원은 정치 및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마침내 원말 혼란기 속에서 주원장은 진우량·장사성·방국 등의 군웅 세력을 제압한 후에 북벌을 단행해 1368년에 명

16)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23년 4월 임자 ; 『고려사절요』 권31, 우왕5년 5월 ; 『고려사』 권126, 열전 邊安烈.

17) 이재범, 앞의 논문, 151쪽.

나라를 건국하였다.

북벌 단행 시 주원장이 내건 구호는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 “기강을 바로잡고 이 나라 백성을 구제하자.” 등이었고 이는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북방으로 쫓겨 간 몽골족은 북원(北元)을 세웠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명나라는 개국 후에 대외정책으로 조공 무역 즉 일종의 쇄국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중국과 무역을 바라는 주변국들이 명나라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할 경우에만 무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¹⁸⁾

조공이란 중국 황제가 주변국 통치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아래 주변국의 외교나 통상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주변국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쳐 경의를 표하면 중국 황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물품을 하사하고 무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중국에 왜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원나라 말기였다. 그러나 원나라 시절 왜구에 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한 편이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기록에 의거해볼 때 1350년대부터 이미 중국 대륙에서도 왜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¹⁹⁾ 또 명초에 왜구에 관한 피해 기록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원대에도 그에 못지않은 활동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만, 1278년(충렬왕4) 고려 국왕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왜구

18) 宮崎市定, 1983 『中國史』, 역민사, 336쪽.

19) 윤성익, 1999 「元代 왜구에 대한 고찰」 『동양학연구』 5, 동양학연구학회, 163쪽.

에 대비하기 위해 함포(마산)의 군사들을 그대로 주둔시키기를 청하자 “왜구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못된다.”²⁰⁾고 호언하는 것으로 보아 그 피해가 아직 명나라 시대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중국에서 왜구 기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때였다. 명은 건국 초기에 이미 남왜북로(南倭北虜)라는 명칭이 생길 만큼 대외적으로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가 대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였다. 왜구의 활동범위는 고려와 가까운 산둥지방에서 강소(江蘇), 절강, 복건, 광둥 지방까지 미쳤고, 침략 규모도 우발적으로 보기 힘들만큼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이에 명 태조는 왜구 침략이 점차 확산되자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사신이 일본 서부 지역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명나라는 다시 일본에 명의 건국을 알리고 조공 및 왜구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에도 명은 무로마치 막부와 교섭도 하지 못한 채 명나라 사신 7명 중 5명이 남조의 정서장군(征西將軍) 가네요시[懷良]에 의해 처형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명나라는 1370년 세 번째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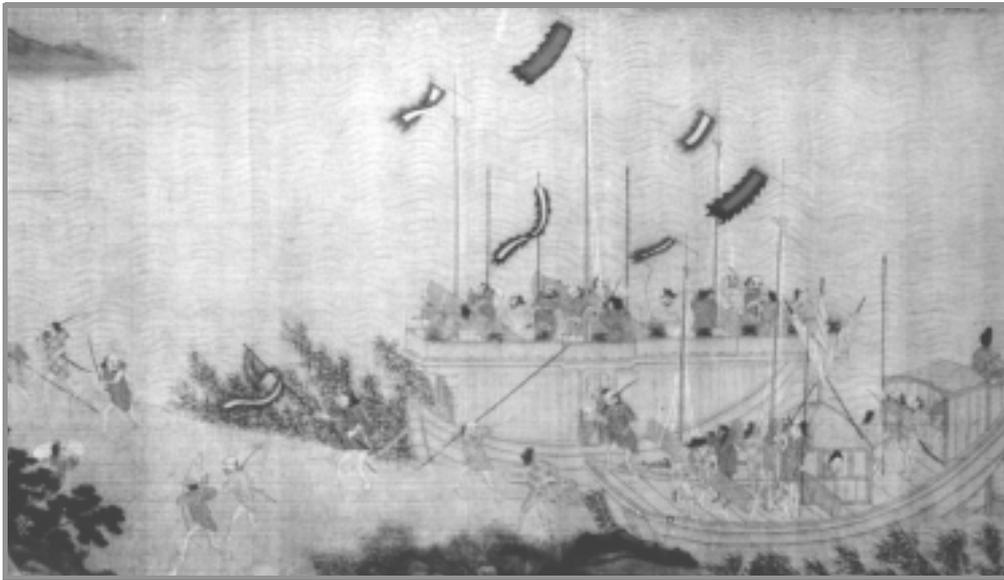
명 태조는 외교적인 대응으로 왜구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연해지방을 따라 75개의 성을 쌓는 등 해방 태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중국인이 개인적으로 해외로 출항하는 것을 엄금하고 외국 선박도 조공선 이외에는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해금 정책을 폈다.²²⁾

또 고려 장수 정지(鄭地, 1347~1391)가 1387년(우왕13) 우왕에게 왜구 정벌을 건의하면서, 중국이 왜구 정벌을 명분으로 고려를 침략할

20) 『고려사』 권28, 세가 충렬왕4년 7월 무술.

21) 구태훈, 2002 『일본역사탐구』, 태학사, 167쪽.

22) 박원호, 1995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71쪽.



왜구가 중국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 (『고려사』 권113, 열전 鄭地)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어 중국에서도 왜구 정벌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2) 국내 정세

(1) 정국의 혼란

1259년(고종46) 고려가 원나라와 강화를 맺은 이후 고려의 정치 체제는 원의 지배와 간섭에 놓이게 되었고, 그 후 14세기 초까지 약 150년간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이 즉위한 14세기 중엽에 원이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 오랜 정벌로 인한 재정 궁핍, 원의 압제 하에 있던 한족의 저항과 반란 등으로 쇠퇴하자 본격적인 반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23) 『고려사』 권113, 열전 鄭地.

그러나 1374년에 공민왕이 암살당한 후 고려 정국은 후계자 계승 문제로 혼란스러웠다. 이 때 이인임 일파가 10세의 어린 나이인 우왕을 국왕으로 옹립하였고 이후 정국은 이인임이 최영·경복흥 등 보수적 무장 세력의 협력을 얻어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었다.²⁴⁾ 이 때문에 우왕은 왕권의 기반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무력 기반도 거의 만들지 못하였다.²⁵⁾



인왕산 국사당 벽에 걸려있는 최영 장군

이에 비해 권문세족과 신흥 무장 세력들은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있었다. 중앙정계의 실력자들은 번번이 사병을 배경으로 우왕을 협박하였다. 게다가 친명파들은 우왕을 신돈 아들이라고 중상모략까지 하였다.

게다가 이인임과 그 일파들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온갖 전횡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왕은 1388년(우왕14) 1월에 대표적인 무장 세력 최영·이성계와 손잡고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준 이인임 일파를 숙청하였다.

최영과 이성계는 뜻을 합쳐 이인임 일파를 숙청했으나 정치적으로 매우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최영은 전통 있는 귀족가문 출신이었으나 이성계는 신흥 무장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은 명나라 정책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였다. 1388년 2월 고려에 여러

24) 박용운, 1987 『고려시대사』 (하), 일지사, 561~565쪽.

25) 이성무, 1998 『조선왕조사』, 동방미디어, 77쪽.

모로 압박을 가해오던 명나라는 철령 이북의 땅이 원나라에 속한 곳이므로 다시 회수해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한 후 3월에 철령위를 설치하였다.²⁶⁾ 이에 최영은 명나라와 일전을 각오하고 요동 정벌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을 반대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 농번기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 거국적인 원정의 틈을 이용해 왜구가 침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 여름철에는 활의 아교가 녹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있고 군사들도 전염병에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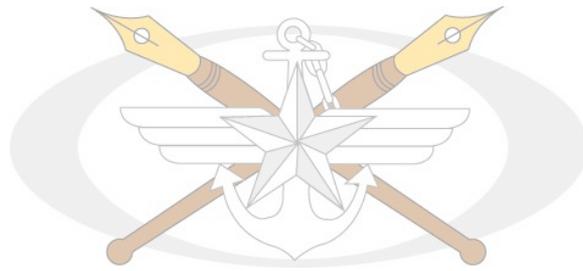
최영은 이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88년 4월 요동 정벌을 강행하여 요동으로 군사를 진군시켰다. 그러나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최영을 제거한 후 우왕을 강화도로 내쫓고 창왕을 세웠다. 이후 이성계는 실권을 장악한 후에 사전(私田)·농장 혁파 등 개혁정치를 폈으며, 1392년에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조선을 건국하였다.

26) 『고려사』 권137, 열전 우왕14년 2월, 3월 ; 『고려사절요』 권33, 우왕14년 2월, 3월.

27) 『고려사』 권137, 열전 우왕14년 4월 을사.



위화도 전경



(2) 원·명 교체기 고려의 선택

고려는 중국 대륙에서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되자 이 신흥국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 명은 건국 후 10개월이 지난 1368년 11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 명의 건국과 홍무제의 즉위를 알렸다. 명나라는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 갔으나 북원(北元)을 세워 명의 변방을 위협했으므로 고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고려 역시 국내적으로 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의 지원이 절실하였다.²⁸⁾

고려는 1369년(공민왕18) 7월부터 명나라 연호인 ‘홍무(洪武)’를 사용했고 고려와 명은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이에 따라 고려의 반원 정책도 한층 가속화되어 1369년 11월에 원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요양의 동녕부 정벌을 시도한 결과 1370년 8월 동녕부를 정복하였다.²⁹⁾



1370년 이성계가 요양 동녕부 오라[兀刺] 산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기록화

28) 박한남, 1997 「공민왕대 왜구침입과 禹玄寶의 ‘上恭愍王疏」 『군사』 34, 국방군사연구소, 54쪽.

29)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18년 11월 ;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19년 8월 기사. 동녕부는 1270년에 원나라가 평양에 설치한 통치 기구였다. 그러나 고려의 집요한 반환 요청에 따라 1290년에 폐지하여 그 지역을 고려에 돌려준 후 동녕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고려의 반원 정책은 1374년에 고려의 자주를 주창하던 공민왕이 피살되면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무렵 대외적으로 신홍국가인 명의 국력이 요동방면으로 뻗어오고 있었으나 북원이 아직도 요서·요동방면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였다. 우왕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이인임은 이 무렵 명나라 사신이 친원과 김의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친명외교노선을 철회하였다.

이인임은 중대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북원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1377년(우왕3)에는 북원의 연호를 사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고려는 북원과의 관계를 통해 명의 과도한 요구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한편 고려는 명 황제의 의심을 풀기위해 명나라에 국서를 보내 고려의 결백을 주장하며 1378년 9월에 다시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명과 북원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였다.

명은 고려의 태도가 분명치 못하자 명과 북원 사이에 끼어있는 고려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다. 고려는 명의 의심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1385년(우왕11) 7월 우왕은 명나라로부터 고려국왕으로 책봉받는 데에 성공하였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끊이지 않았고 1388년 3월에는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고하였다.³¹⁾ 명은 중국 대륙을 제패한 후에 원의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으려 했던 것이다.

최영은 우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투병력 3만8천8백3십 명, 보급병력 1만1천6백3십4명, 말 2만1천6백8십2필을 동원해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요동 정벌군은 1388년 4월에 평양을 출발했고 바로 3일

30) 김성준, 1994 「고려말의 정국과 원·명관계」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377쪽.

31) 『고려사』 권137, 열전 우왕14년 3월.



고려 명장 최영장군 사당

후에 홍무 연호를 중단하였다.³²⁾ 이 조치는 자주정신의 발로이자 요동정벌을 완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³³⁾ 요동정벌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실패했으나 고려가 시행한 마지막 북진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장악에 성공한 이성계는 다시 명의 홍무 연호를 사용하고 원의 의복과 변발을 금지하는 등 친명정책을 시행하였다.

(3) 왜구 피해 상황

왜구는 시기에 따라 고려를 침입한 양상이 사뭇 달랐다. 13세기 초 왜구가 출몰하기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침구(侵寇)의 형태가 그리 극악하지 않았다.

그런데 1350년(충정왕2) 2월 왜구가 고성·죽림·거제 등지에 나타나자 고려군이 왜구 3백 여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려사』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구가 이때에 비로소 흥기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1350년 무렵을 기점으로 왜구의 규모가 커지고 약탈 양상도 흉포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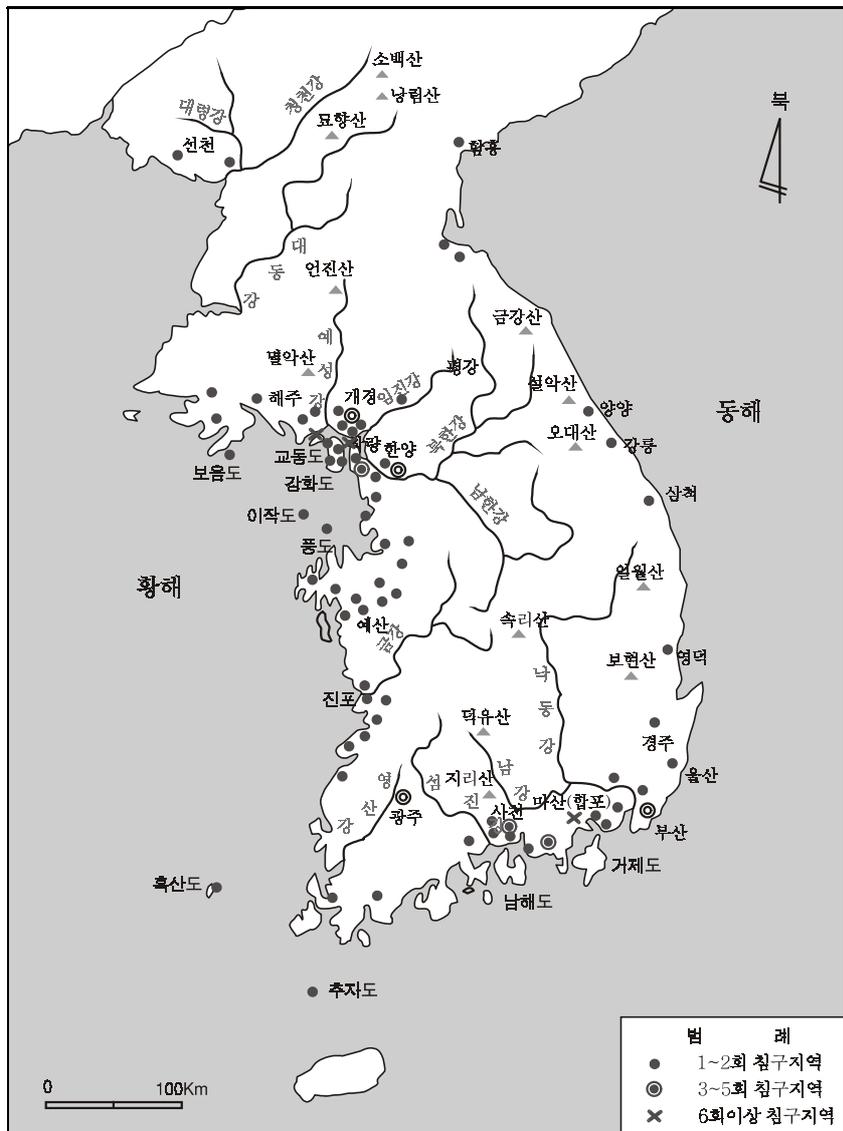
실제로 고려 말에 침입한 왜구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보면 이 사

32) 『고려사』 권137, 열전 우왕14년 4월 정미, 임술, 을축.

33) 김성준, 앞의 논문, 382~383쪽.

34) 『고려사』 권37, 세가 충정왕2년 2월.

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왜구는 122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약 519회 정도 나타나고 있어 왜구 활동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왜구의 규모가 대규모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1350년 이후다. 1223년에서 1349년까지 왜구 침입은 12회에 그쳤으나, 1350년부터 고려가 망하는 42년 동안에 507회가 침입하고 있어 1350년 이후 왜구 침입이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 연간(1352~1374) 왜구 침입 상황

특히 공민왕 대 이후로 왜구의 침입은 더 대규모화되면서 개경 근처까지 올라올 정도로 대범해졌다. 이 때문에 명나라마저 긴장하여 고려에 왜구 토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정도였다.³⁵⁾ 우왕 연간에는 더욱 악화되어 연평균 27회나 왜구가 침입했고, 1383년(우왕9) 한 해에만 50여 회나 침입하였다.³⁶⁾

왜구가 약탈 대상으로 노린 것은 무엇보다도 곡식이었다. 왜구는 지방에서 수도 개성으로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선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조창(漕倉)도 포함되었다. 고려시대 해안가에는 13개의 조창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승주의 해룡창, 사주의 통양창, 금포의 석두창이 주요 약탈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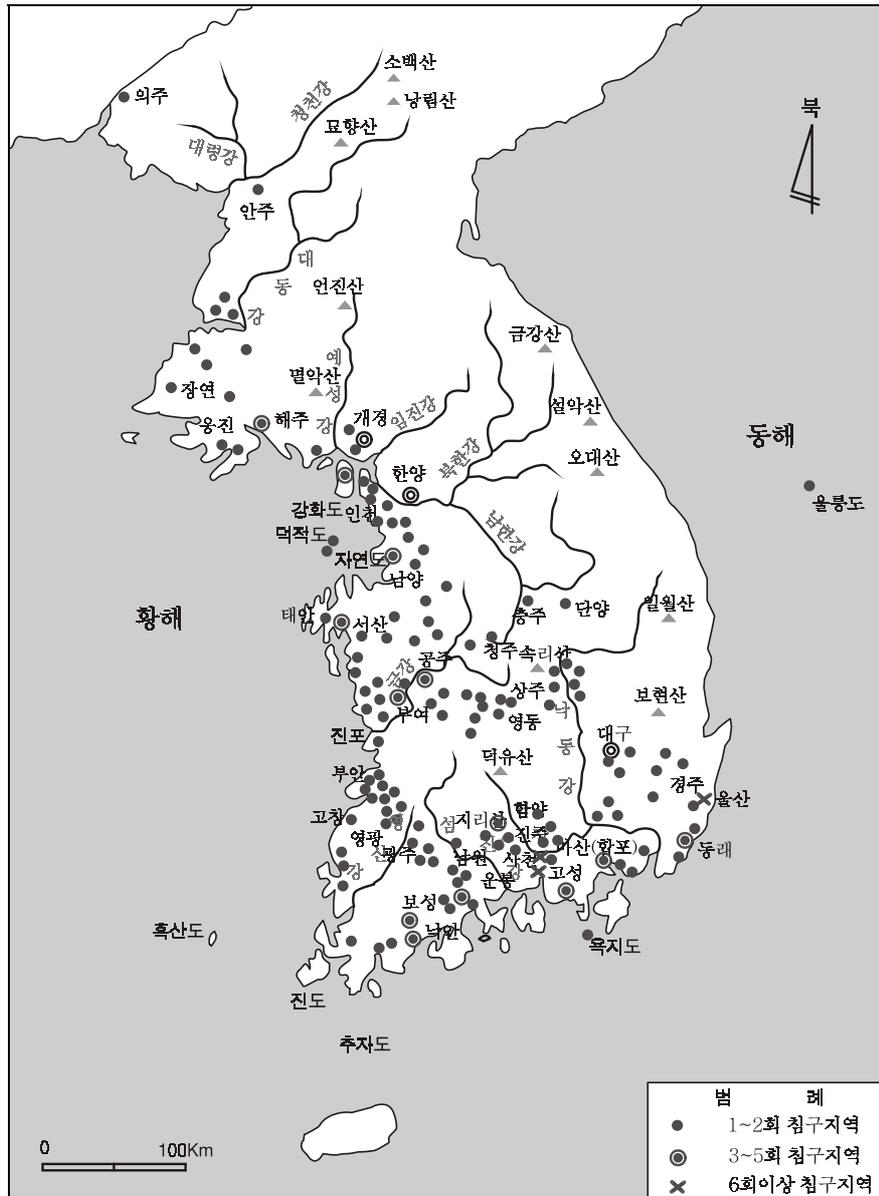
왜구의 약탈은 공민왕과 우왕 때에 세곡미가 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극심했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창을 이동시키고 조운을 육운(陸運)으로 대체하는 시도까지 이루어졌다.³⁷⁾ 1358년(공민왕7) 연해의 조창을 외지로 옮기자는 건의가 있자 고려 조정은 1376년(우왕2)까지 연해의 모든 조창들을 내지로 옮겼다.

우왕 대에는 왜구의 침략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서 해안지방 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왜구가 들어왔고 개경에 가까운 승천부·강화·교동과 예성강까지 자주 출몰해 약탈을 자행하였다. 왜구가 내륙으로 들어온 이유는 고려에서 조세 운반을 해운에서 육지를 통해 옮기자 이를 쫓아 내륙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개경에 계엄령이 자주 내렸고, 도읍을 내륙 깊숙한 철원으로 천도하자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다.³⁸⁾

35) 박한남, 앞의 논문, 57쪽.

36) 나종우,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395~396쪽.

37)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3년 3월 기유, 공민왕4년 4월 신사, 공민왕7년 3월 기유, 공민왕7년 7월 임술. 공민왕21년 2월 경진.



우왕 초년(1375~1380.6) 왜구 침입 상황

곡식과 함께 왜구가 노린 약탈대상은 사람이었다. 부녀자는 물론 힘센 남자들도 약탈 대상이었다. 『고려사』에는 왜적 50척이 강화도에 침구해 부사 김인귀를 죽이고 1천여 명을 포로로 데려간 사실이

38) 『고려사절요』 권30, 우왕3년 5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왜구들

보인다.³⁹⁾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왜구 문제로 일본에 갔을 때 송환시킨 포로만 수 백 명이었다고 한다.⁴⁰⁾ 이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리거나 수부(水夫) 또는 각종 전투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왜구들이 노린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쌀과 사람, 여기에다가 각종 가치 있는 재화였다. 왜구의 침입이 격심했던 몇 십년간 고려가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나아가 1350년 이후의 왜구는 고려의 안보와 지배체제를 뿌리 채 뒤흔들 만큼 국가의 사활이 달린 문제가 되어갔다.

침략할 때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으며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몰살하였다. 한 기록에 의하면 왜구 침입이 잦던 전라도 일대의 해안선 연해의 마을은 인기척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⁴¹⁾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왜구 때문에 비옥한 평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이는 백성들의 유랑으로 이어졌다.⁴²⁾

왜구는 점점 대담하게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한반도 북쪽의 주까지 침략했고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깊숙이 침입했으며, 영월·정선까지 들어왔다. 대규모 기마부대까지 편성해 침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왜구는 해적 집단의 수준을 벗어난 사실상 군사 침공이었다.

39) 『고려사』 권114, 열전 羅世.

40) 나종우, 앞의 논문, 414쪽.

41) 『세종실록』 권101, 세종25년 8월 경인.

42) 『고려사』 권82, 志36 站驛.

3. 토벌 작전의 전개

1) 수세적 대응

왜구가 고려를 침략했을 초기에 고려는 북방 영토 회복에 주력하고 있었다. 공민왕은 1353년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함락시킨 후 함주 이북의 땅을 수복했고, 원의 내란 진압에 고려군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해안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해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변방을 괴롭히는 해적으로 취급했을 뿐 아직 국가 중대사로 여기지 않았다.

왜구가 출몰할 초창기에 고려가 왜구 근절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력 보다는 정치적 수단과 외교 통로를 이용한 해결이었다. 고려 조정은 일본에 사신을 여러 차례 파견하였다. 1366년(공민왕15) 9월 고려 대표로 일본에 파견된 김룡(金龍)은 일본 북조의 막부 권력자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족리의진(足利義詮)을 만났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고려 조정은 같은 해 11월에 김일(金逸)을 일본에 다시 파견해 왜구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 막부의 권한이 변방까지 미치지 못했으므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다만, 이 때 일본은 일행을 정중히 대접하고 일행이 귀국할 때에 보빙사로서 승려 범탕(梵濤)을 동행시키고 왜구 진압에 착수할 것을 약속하였다.⁴³⁾

고려 조정은 1375년(우왕1년) 2월에 일본에 왜구 근절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 나흥유(羅興儒)를 통신사로 보냈으나 일본에서는 그를 첩

43)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15년 11월 임진 ;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17년 1월 무자.

자로 오인해 가두었다가 풀어주었다. 나흥유는 김용·김일과 같은 방식으로 막부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막부는 이에 대해 “서해도의 우매한 백성들이 귀국을 침략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장수를 보내 토벌하고 있는데 이제 규슈[九州]만 평정하면 해적들을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회답을 보내왔다.⁴⁴⁾



왜구들이 약탈과 방화하는 장면 (『고려사』 권133, 열전 우왕2년 10월)

고려는 일본 막부와 통교하는 과정에서 막부 권한이 크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자 왜구 근거지의 실력자로 교섭 대상을 바꿀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남조(南朝)의 무로마치 막부 역시 규슈 지역만 완전히 평정한다면 왜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고려 조정의 이해와 합치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 왜구 금지를 위해 규슈 지역의 실력자로 교섭 대상을 바꾸었다.⁴⁵⁾

1377년에 고려는 안길상을 규슈의 지방장관인 금천요준(今川了俊)에게 파견해 왜구 금압을 요구했으나 실효가 없었다.⁴⁶⁾ 고려는 같은 해 9월에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다시 금천요준에게 파견해 왜

44) 『고려사』 권133, 열전 우왕2년 10월.

45) 이영, 2003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한국사연구』 123, 한국역사연구회, 238쪽.

46) 『고려사절요』 권30, 우왕3년 6월.

구의 준동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⁴⁷⁾ 금천요준은 정몽주가 귀국할 때 포로 수 백 명을 쇠환시키고 군병을 고려에 파견해 왜구를 토벌하는 등 고려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고려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⁴⁸⁾

요컨대, 왜구 금압을 위한 고려의 대일교섭은 공민왕과 우왕 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는 강온전략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대일 외교를 폈고 북조(北朝) 정권을 외교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나 고려는 이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교섭 대상을 남조(南朝)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규슈의 지방관 금천요준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규슈 지역의 정세나 경제적 처지가 호전되지 않고서는 외교적 노력이나 요청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가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정규군을 출동시키는 모습 (『고려사』, 17)

47) 『고려사』 권133, 열전 우왕3년 9월.

48) 나종우, 앞의 논문, 414쪽.

고려는 왜구의 준동이 심해지자 군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구가 창궐하기 전에 고려의 군사 요새는 북방 민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북쪽 지역에 자리하였다. 충정왕 이후로 왜구가 창궐하면서 고려의 전선(戰線)은 남쪽으로 확대되었고 국방선 역시 전국의 연해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고려는 연해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수군(鎭戍軍)을 증설하고 양광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군민에게는 왜구 방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⁴⁹⁾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만으로는 왜구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1351년(충정왕3) 고려를 침공한 왜구는 1백3십여 척이라는 매우 큰 규모였으나 고려의 정예 함대는 수십 척에 불과하였다. 1352년에 공민왕은 김휘남을 포왜사(捕倭使)로 임명해 수군을 출동시켰는데 이때 김휘남이 거느린 배는 25척이었다.

김휘남은 아산만 입구에 있는 풍도에서 왜선 20척과 조우했지만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고 며칠 후 더욱 증강된 왜구 함대가 몰려오자 해전을 포기하고 서강(西江)으로 후퇴하였다. 고려는 어쩔 수 없이 육군을 동원해 개경과 교동을 방어하였다.⁵⁰⁾ 같은 해 8월에 만호인당(印當)을 포왜사로 삼아 금군(禁軍) 및 교동의 수군 1천 명을 주었으나 방어만 할 뿐 나가 싸우지 않았다.⁵¹⁾

1389년에 창왕은 대마도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박위에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된 까닭에 무비가 점차 해이해져 섬나라 왜적이 제멋대로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양광(충청)·전라·경상 3도를 소란스럽게 했으나 국가에서는 오직 방어에만 전념해 장수들도 공격을 주저하여 왔다.”⁵²⁾고 평했듯이

49) 『고려사』 권82, 志36 兵2 鎭戍 공민왕5년 6월 敎.

50)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원년 3월 계축, 기미.

51)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원년 8월 정묘.

52) 『고려사』 권116, 열전 朴葦.

고려는 왜구와 전투를 벌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왜구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350년부터 1369년까지 20년 동안 왜구의 침입 지역은 1백여 개소였다. 이에 비해 1370년에서 1379년의 10년간 왜구 침입 장소는 2백9십여 개소에 달할 만큼 피해 지역도 광범위 해졌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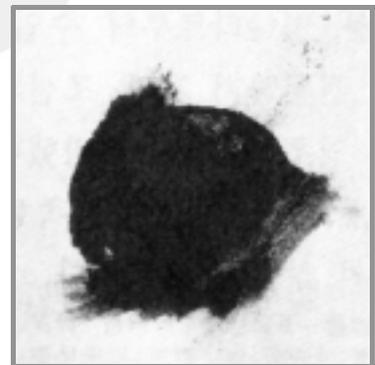
고려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왜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이에 왜구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고려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2) 공세적 토벌 작전

(1) 군사력 증강

화약·화기의 개발 고려는 왜구의 침략이 점차 거세지자 소극적인 방어에서 탈피해 무기 및 전술 등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고려가 왜구 격퇴를 위해 새롭게 주목한 신무기는 바로 화기였다.

우리나라에 화기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시기는 고려 말 공민왕 대였다.⁵⁴⁾ 1356년(공민왕5)



흑색 화약

53) 임용한, 2005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 변화」 『군사』 5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86쪽.

54) 공민왕 이전에 화기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은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1104년(숙종9) 여진 정벌을 위해 설치한 별무반에 發火라는 부대가 있었고, 1135년(인종13)에도 火毬의 존재가 보인다. 또 1274년(충렬왕원년)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시에 鐵砲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지만 화기가 본격적으로 전래되어 상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허선도, 1994 『조선시대화약병기사연구』, 일조각, 6~9쪽).

9월 공민왕과 신하들이 승문관에 모여 서북면 병사들의 무기를 사 열하면서 총통으로 화살을 발사하도록 했는데 화살이 멀리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화살의 깃 부분까지 땅 속 깊이 박혔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기와 관련한 기록이다.⁵⁵⁾

하지만 당시 고려는 화약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염초와 화약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공민왕은 왜구를 격멸하기 위해 1373년(공민왕22) 명나라에 장자온을 보내 왜구와 싸울 전선에 장착하여 실을 여러 가지 기계와 화약·유황·염초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⁶⁾

이 무렵에 화약은 염초·유황·목탄의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해 만들었다. 목탄 때문에 화약 색깔이 검정색이므로 ‘흑색화약’이라 불리었다. 화약 제조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염초(焰硝)의 획득이었다. 염초는 목탄이나 유황과 달리 특수한 토양을 채취해 추출했

으므로 기술이 필요했고, 이 기술이 바로 화기 발달의 관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염초 제조법은 중국에서도 극비에 붙여졌고 염초 제조가 화약 제조를 의미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⁵⁷⁾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는 최무선을 묘사한 기록화

55) 『고려사』 권81, 兵志1, 공민왕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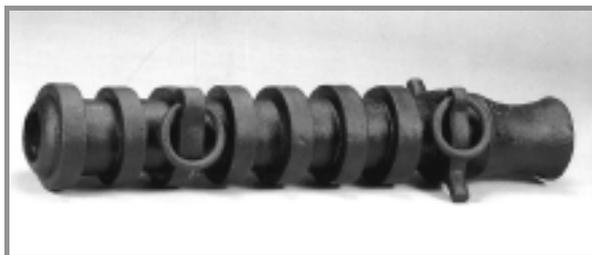
56)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22년 11월 을축.

57)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81~283쪽.

고려는 왜구가 창궐하자 왜구 격퇴에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화약 제조에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는 원·명 교체기에 화약 제조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습득할 수 있었다.

최무선은 고려로 들어온 중국 상인으로부터 염초제조법을 익힌 후에 오랜 노력 끝에 최초로 화약제조에 성공했으며 『화약수련법(火藥修鍊法)』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 결과 1377년(우왕3) 10월에 고려에 화통도감이 설치되었고, 이듬해인 1378년에는 화통방사군(火筒放射軍)이라는 전문부대도 편성하였다.⁵⁸⁾

당시 최무선이 제작한 화약무기는 대장군(大將軍), 이장군(二將軍), 삼장군(三將軍), 육화(六花), 석포(石砲), 화포(火砲), 신포(信砲), 화통(火筒), 화전(火箭), 철령전(鐵翎箭), 피령전(皮翎箭), 질러포(蒺藜砲), 철탄자(鐵彈子), 천산(穿山), 오룡전(五龍箭), 유화(流火), 주화(走火), 촉탄자(觸彈子) 등이었다. 이 화기들의 성능과 용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화살을 발사해 목표물을 불사르는 데에 큰 효능이 있었고 고려에서는 이 화기들을 이용해 왜구를 대대적으로 토벌할 수 있었다.⁵⁹⁾



대장군포 17 ()

불화살[火箭] 복원도 (,)



58) 『고려사』 권81, 병지35 兵制 五軍.

59) 허선도, 앞의 책, 21쪽.

수군력 증강 고려는 이미 초기부터 수군 활동이 활발하였다. 고려는 왕건이 함대를 건조해 나주를 정복하고, 후백제 수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후백제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또 고려는 벽란도에 무역선 행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국제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해상 강국이었다.

고려의 수군은 1274년(충렬왕즉위년)과 1279년(충렬왕5)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 때에도 원나라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함 1천 여척을 준비해 참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눈부신 활동상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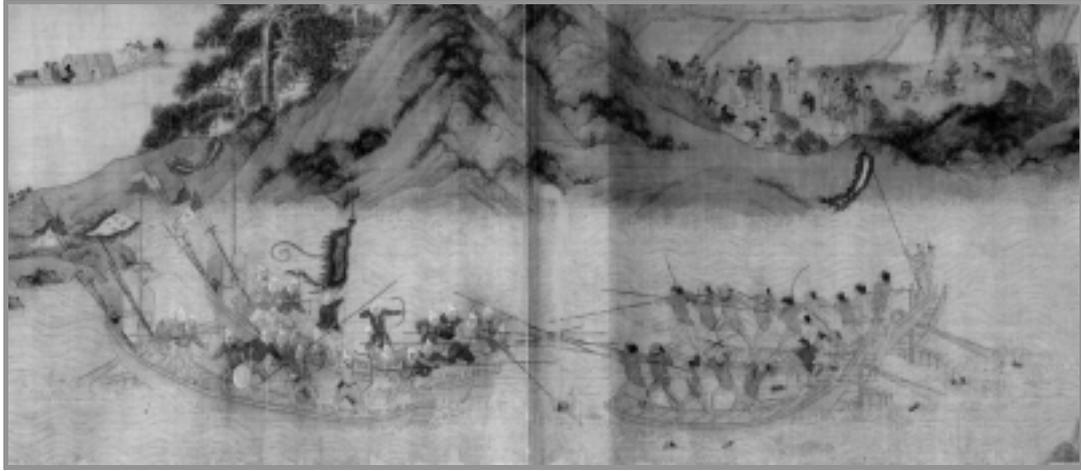
고려의 수군 전술은 전통적으로 큰 병선과 사격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⁶⁰⁾ 큰 전함에 많은 병력을 태우고 병선을 밀집시켜 집중 사격의 효과를 높여 적을 제압했던 것이다. 1019년(현종10) 동여진 해적에 납치되었다가 고려 수군에 구출된 일본 여인 석녀(石女)는 고려군의 병선에 대해 선체가 크고 높고 병장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 13세기 여원연합군이 일본에 침공했을 때 해상전투를 그린 「몽골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에도 여원연합군의 전선은 일본 배에 비해 상당히 큰 대형 전함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왜구들은 기동력이 좋은 소형 전함을 이용해 단병(短兵) 접전⁶¹⁾에 의존한 등선육박 전술을 장기로 하였다. 더구나 고려 후기의 왜구들은 대규모 단위로 침공했고 고려 전함과 맞먹는 대선까지 동원하였다.

따라서 고려가 왜구와 해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왜구의 등선육박을 허용하지 않는 기동력과 장병기(長兵器) 공격을 강화하고,

60) 고려와 일본 수군 전술에 대해서는 임용한, 앞의 논문, 274~285쪽 참조.

61) 短兵·長兵 : 단병술이란 창·검을 주무기로 삼아 근접전에 치중한 전술. 이에 비해 장병술이란 궁시·화기 등과 같이 장거리용 무기를 주무기로 하여 원격에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특징이다.



명나라 군사가 왜구와 전투하는 장면 (『고려사』, 17) 2 9
10

병력과 함선을 증강해야만 하였다. 1373년(공민왕23) 최영이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2천여 척의 함선이 필요하다고 상정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⁶²⁾

이미 고려는 1350년(충정왕2) 이후에 왜구 침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영진수소(營鎭守所)를 설치하고 일정한 수효의 수군을 고정 배치해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해안 방어 기지인 영진수소는 공민왕 초년에 전라도·경상도·충청도를 합해 약 50여 개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구가 창궐하던 고려 말에 영진수소가 보유한 전함은 1백 척, 수졸은 3천 명 정도로서 1개 수소에 겨우 전함 2척과 수졸 6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⁶³⁾

이에 고려는 최영을 책임자로 하여 함대 건설에 착수했으나, “처음에 최영이 배 2천 척을 만들어 6도 군사로서 배를 타고 왜구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역(役)을 도피하는 자가 많았

62) 『고려사』 권83, 志37 兵3 船軍 공민왕22년 5월.

63) 유재성, 1993 「중세의 왜구토벌」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56~57쪽.

다.”고 하듯이 사회적 폐단을 야기해 중단되고 말았다.⁶⁴⁾ 이에 이희(李禧)는 물에 익숙하고 배를 잘 다루는 연해민으로 정예부대를 구성 하자는 제안을 올렸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고려가 수군의 전력 강화에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1377년(우왕3) 10월에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기를 생산하면서부터였다. 고려는 지지 부진하던 수군을 정비하고 화약무기를 도입하는 등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왜구 토벌에 화약무기의 도입을 시도한 것은 왜구 전략의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⁵⁾

고려의 수군 전력은 화기 도입과 함께 급상승하였다. 고려는 왜구가 예상치 못한 화약 무기를 사용해 왜선을 공격함으로써 고려 함선에 가까이 접근, 배에 올라와 고려군을 공격하는 왜구의 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화기는 고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이는 곧 고려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다.

(2) 국내 토벌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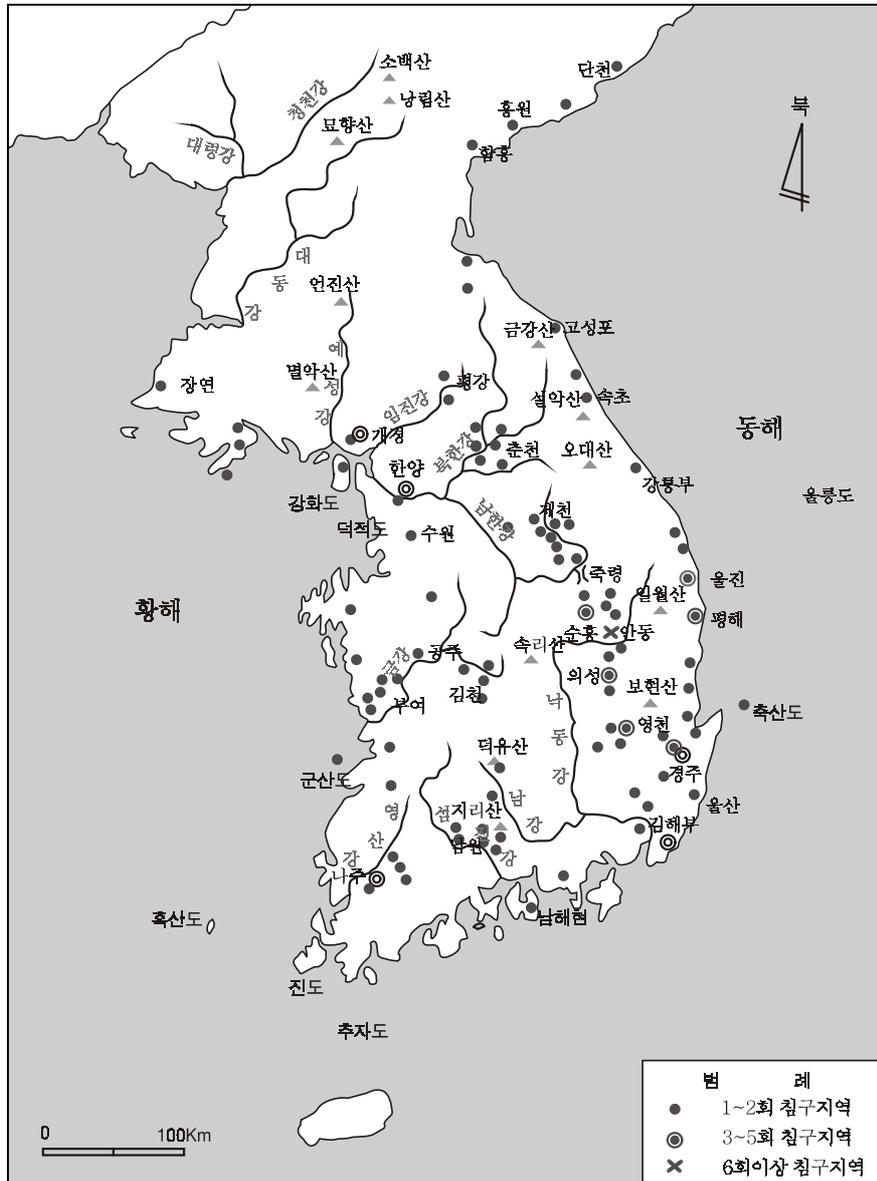
진포해전 진포해전은 고려가 이제까지의 수세적 방어에서 벗어나 공세 전략으로 선회해 치른 초창기 전투였다. 1380년(우왕6) 5월부터 7월까지 금강 상류 지역으로 침구 지역을 확대한 왜구는 8월에 진포(금강 하구)를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이 일대에 5백여 척에 달하는 대규모 전선을 집결하였다.

왜구들은 전선 5백 척을 대소선단으로 구분 편성해 이를 큰 밧줄로 서로 굳게 잡아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적은 병력만 배에 잔류한 채 대부분 병력이 상륙하였다. 그때의 기록에 따르면 왜구의 방화, 살인, 노략으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시체는 산

64) 『고려사』 권83, 지37 병3 船軍 공민왕22년 5월.

65) 유재성, 앞의 글, 93쪽.

과 들에 널려있으며 적들이 배로 운반하며 흘린 쌀들이 길 위에 한 자[尺]나 깔릴 지경이었다고 한다.⁶⁶⁾



우왕 말년(1380.7~1388) 왜구 침구 상황

66) 『고려사절요』 권31, 우왕6년 8월.

고려 조정은 나세(羅世)를 상원수로, 최무선(崔茂宣)을 부원수로 임명해 출정하도록 하였다.⁶⁷⁾ 나세·최무선 등은 100척의 선단을 이끌고 진포로 출정하였다. 화포로 무장한 고려 수군은 일제히 화포 사격을 개시하였다. 고려군의 화포 공격으로 왜구의 전선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당황한 왜구들은 화포 사격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전선들이 굳게 서로 묶인 탓에 쉽게 흩어질 수 없어 대부분 소각되어 버렸고, 왜구들은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고려사』에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⁶⁸⁾

나세 등이 진포로 가서 최무선 등이 만든 화포를 써서 적선을 불태웠다. 연기가 하늘을 덮고 적들은 거의 타죽었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들도 많았다.

이 전투에서 최무선 등은 화포를 사용해 1백여 척의 전선으로 5백 척의 왜구 전선을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진포전투에서 살아남은 왜구들은 수 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 진포전투는 고려가 공세적으로 왜구를 격퇴시킨 제1보로서, 신병기인 화포·총통 등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 화약무기의 사용으로 고려군은 해상에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물자 및 인명의 손실을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둘 수 있었다.

황산대첩 1380년(우왕6) 8월 진포전투에서 살아남은 왜구들은 본거지로 돌아갈 수단과 해상 지원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이들은

67) 『고려사』 권134, 열전 우왕6년 8월.

68) 『고려사』 권114, 열전 羅世.

탈출로를 모색해야 했고 고려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하였다. 왜구들은 단시일 내에 옥주(충북 옥천) 및 상주에서 흩어져 있던 패잔병들과 미리 진을 치고 있던 병력들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다.

왜구들은 병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게릴라처럼 움직였다. 상주를 점령해 고려군을 역습했고 1380년 9월에는 남원 운봉현을 불태워버렸다. 왜구들은 승승장구하여 인월현(전북 남원)에 주둔하면서 개경을 공략하겠다고 협박하였다.⁶⁹⁾

고려 조정은 곧 토벌군을 편성하였다. 이성계를 양광·전라·경상의 삼도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임명해 대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안열을 체찰사로 삼고, 우인열·도길부·박임중·홍인계·임성미·이원계를 원수로 삼았다.⁷⁰⁾

여러 장수들은 왜구가 운봉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진지를 구축했으므로 지구전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역설했으나 이성계만 강공 작전을 주장하였다. 이성계는 1372년에 화령부윤으로서 안변 등에 침구한 왜적을 막아낸 것을 비롯해 1377년에 경상도와 해주에서 왜적을 격퇴했고 이듬 해에도 최영과 함께 승천부에 들어온 왜구를 물리친 화려한 전승을 가진 장수였다.



조선 태조 이성계

69) 『고려사절요』 권31, 우왕6년 8월, 9월.

70) 『고려사절요』 권31, 우왕6년 8월.



황산대첩 비지(碑址)

운봉현에서 나온 왜구들은 황산(荒山:전북 남원군 운봉에 있는 산)의 정산봉(鼎山峰) 꼭대기를 점령한 다음 험준한 지형에 의지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삼면이 절벽인 정산봉에 목책을 설치하자 난공불락의 요새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목책 안에서 불을 붙

인 목재나 통나무, 큰 돌을 굴러 보내면서 고려군의 발목을 묶었다. 그렇지만 고려군은 힘든 전투를 치르면서도 끈질긴 공격으로 왜구의 목책을 무너뜨렸다.⁷¹⁾

목책이 무너지자 왜장 아기발도[阿只拔都]는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아기발도는 당시 20세가 채 안된 젊은 청년 장수로서 궁지에 몰린 왜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직접 선두에서 돌파작전을 지휘하였다. 아기발도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철가면까지 착용하는 등 중무장을 하고 있어 고려군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성계가 달리는 말에서 아기발도의 투구 끈을 맞추어 투구를 벗기자 그 틈에 이지란이 아기발도의 얼굴에 화살을 명중시켜 그를 쓰러뜨렸다.⁷²⁾

고려군은 이 승세를 타고 장수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왜구들을 향해 대돌격을 감행해 섬멸전을 펼쳤다. 당시 죽은 왜구의 피로 강이

71) 김성남, 2005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195~196쪽.

72) 『고려사』 권126, 열전 邊安烈 ; 『고려사절요』 권31, 우왕6년 9월.

물들어 6~7일간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때 포획한 왜구의 말이 1천 6백여 필이고 병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처음 왜구의 수는 아군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나중에는 70여 명만이 겨우 살아서 지리산으로 도망갔다.⁷³⁾

당시 이성계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으며 두 번이나 말을 갈아타고 허벅지에 화살을 맞아가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러한 활약상 때문에 이성계가 운봉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개선할 때 최영이 백관을 거느리고 천수사 문전까지 나아가 맞이했으며 문신 이색·권근 등이 시를 지어 칭송했을 정도였다.



황산대첩비 4.25m.

(3) 대마도 정벌

1389년에 이르러 왜구는 침구 방향을 중국으로 전환하였다. 고려의 방어태세가 강화되면서 왜구는 고려를 벗어나 중국 해안지역을 침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보급기지가 필요했고,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는 왜구의 침구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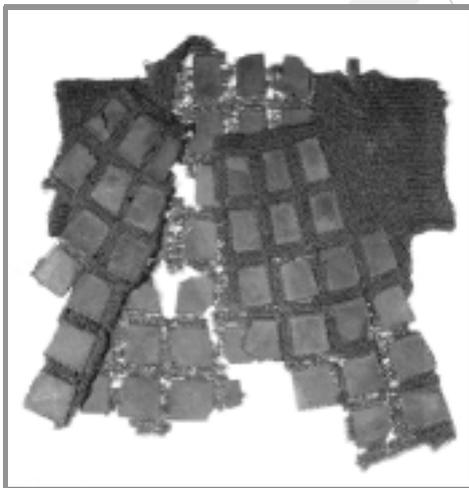
이에 따라 고려 내부에서는 왜구 폐해를 영구히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왜구 소굴인 대마도 정벌을 신중하게 거론하기 시작하였다.⁷⁴⁾ 대마도 정벌을 거론한 사람은 1387(우왕13) 관음포 해

73) 『고려사』 권126, 열전 邊安烈.

74) 유재성, 앞의 글, 164~165쪽.

전의 주역인 정지(鄭地, 1347~1391)였다. 정지는 상소문에서 대마도 정벌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요즘 중국에서 왜구를 정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왜구 정벌을 핑계삼아 우리나라 해안 도처에 그들의 병선을 정박시키면 그들에게 군량을 대고 그들의 심부름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왜적으로 말하면 왜인 모두가 도적이 아니라 쓰시마[對馬]나 이키[壹岐] 등의 섬에 근거지를 둔 왜인들로서 우리나라 변방을 수시로 침범해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성토하기 위해서는 큰 병력을 동원하여 먼저 쓰시마나 이키와 같은 큰 섬을 공격해 왜구의 소굴을 뒤엎은 후, 일본에 공문을 보내 쇠약한 왜구들을 모두 귀순시킨다면 왜구의 화를 영원히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⁷⁵⁾



정지(鄭地) 장군 환삼

336 ()

정지가 주장한 요지는 명나라가 왜구를 정벌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와 일기도를 정벌하면, 왜구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퇴치할 수 있고 명나라 군의 조선 주둔 명분도 없어진다는 것이었다.⁷⁶⁾

이어 정지는 “지금의 우리 수군은 모두 수전에 능숙하여, 신사년 왜국 정벌 때에 배에 익숙하지 못하던 몽골병이나 한병(漢兵)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순풍을 타고 가면 두 섬을 일거에 제압할 수

75) 『고려사』 권113, 열전 鄭地.

76) 장학근, 2004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6쪽.

있습니다”고 자신하였다.⁷⁷⁾ 하지만 조정에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해를 넘겼다. 또 대외적으로 명나라가 철령위 설치를 강행하자 고려가 1388년에 요동정벌을 단행했기 때문에 대마도 정벌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38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왜구는 양광도(충청도)·전라도·교주도(강릉도 또는 春州道) 등 3도를 침구해 여러 고을을 약탈하였다. 고려 조정은 정지를 양광도·전라도·경상도 도지휘사로 임명해 왜구 토벌을 명하였다. 정지는 남원으로 진군해 왜구토벌작전을 전개해 58명을 죽이고 말 60여 필을 노획하였다. 그러자 왜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패주하였다.

1389년(창왕원년) 2월 고려 조정은 오랫동안 유보해둔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마도 정벌군 사령관은 요동정벌 때 좌군도통사 조민수 휘하에서 종군한 경상도 순문사 박위(朴葦)였다.⁷⁸⁾ 박위는 병선 1백 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로 알려진 대마도로 향진하였다.



대마도 전경

77) 『고려사』 권113, 열전 鄭地.

78) 『고려사』 권137, 열전 창왕원년 2월.

고려의 정벌군 사령관 박위는 왜구가 미처 저항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여 신속히 대마도에 진출하여 해안지대에 정박 중인 왜구의 전선 3백 척을 소각하였다.⁷⁹⁾ 그 뒤를 이어 원수 김종연·최칠석·박자안 등이 이끄는 후속부대가 도착해 섬 안 깊숙이 진입해 수색 작전을 벌였다. 왜구들은 산속으로 달아나 은신했고 고려군은 왜구에게 포로로 잡힌 고려인 남녀 1백 여 명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고려 국왕 창왕은 정벌 직후에 박위에게 내린 하교에서 “그대가 마음 속 깊이 발분하고 대의에 입각해 견잡을 수 없이 큰 과도를 무릅쓰고 출정해 오랫동안 왜구가 들끓던 소굴을 뒤엎어버렸다... 이는 국가의 수치를 씻고 신민의 원수를 갚고도 남음이 있다.”⁸⁰⁾ 했듯이 고려는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오랫동안 우환이 되어오던 왜구를 지리멸렬한 상태로 만들었다.



조선 세종 때 대마도 원정을 묘사한 기록화 ()

79) 『고려사』 권116, 열전 朴葳.

80) 상동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왜구의 침구는 계속되었으나 활동 규모는 현저히 축소되었다. 왜구는 고려의 일부 해안 지역에 출몰하면서 소규모 침구를 하였을 뿐 내륙지방의 침구는 거의 종식되었다.

따라서 대마도 정벌은 고려가 오랜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왜구의 침구만 받아오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왜구 본거지를 소탕, 성공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전략적 평가

왜구는 기원전후로부터 발생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를 괴롭혀 온 일본의 약탈 집단이었다. 왜구가 침구한 목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경제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이었다. 왜구의 이러한 욕구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생산력과 문화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고려 말 40여 년간에 걸친 왜구의 침구는 종전의 침략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왜구의 규모는 한 때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형화되었고, 침구 지역도 한반도 중부 이남의 도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개경과 가까운 승천부나 강화까지 올라왔으며, 경상도·전라도의 내륙 지역까지 침구하였다.

왜구의 약탈 방법도 점점 대담하고 잔인해져서 불시에 침입하여 약탈, 방화, 살인, 납치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왜구는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운선과 조창을 주요 약탈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때문에 개경에 계엄령이 자주 내렸고 도읍을 철원으로 천도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또 하삼도 지역은 생산 기반이 와해될 정도로 피해가 커서, 왜구 침입이 잦던 전라도 일대의 연해 마을은 인기척이 끊겼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초토화되었다. 백성들은 왜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유랑했고,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이 급감했으며 병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제 고려 조정은 왜구 토벌에 국가의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왜구 문제는 심각한 난제로 떠올랐다. 그러면 고려가 초창기 열세에서 벗어나 왜구의 침구를 격퇴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 있을까? 당시 고려가 벌인 각종 전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왜구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고려는 왜구의 침구를 받았을 초기에 북방 영토 회복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해안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그저 변방을 괴롭히는 대수롭지 않은 해적으로 취급했을 뿐 왜구가 끼칠 안보 위협에 대해 간과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왜구가 출몰할 초창기에 고려가 왜구 근절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력 보다는 정치적 수단과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해결이었다.

고려는 왜구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일본과 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해 교섭에 나서는 바람에 10여 년간 외교력만 낭비한 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는 뒤늦게 왜구 근거지 쪽의 실력자인 규슈[九州] 지역의 지방관으로 교섭 대상을 바꾸었으나 이 역시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듯 고려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왜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이에 왜구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고려는 왜구의 침구가 거세지자 외교만으로 왜구를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어에서 탈피해 무기 및 전술 등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1380년 이후로 공세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무력 대응에 적극 나섰다. 고려는 왜구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한 후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시도한 결과 장구한 세월에 걸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둘째, 고려가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던 동력은 신무기 화기의 개발이었다. 특히 왜구 토벌에 화약무기의 도입을 시도한 것은 왜구 전략에 일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려는 그동안 왜구에게 고려의 군사력을 강하게 인식시켜 줄만한 충분한 무력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고려는 왜구가 예상치 못한 화약 무기를 사용해 왜선을 불태움으로써 고려 함선에 가까이 접근, 등선해 고려군을 공격하는 왜구의 전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화기는 고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이는 곧 고려의 공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화기는 1380년 진포해전에서부터 위력을 발휘했고, 1383년 정지가 남해의 관음포 전투에서 대함선을 이끌고 돌격해오는 왜구를 섬멸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화기가 왜구 격퇴에 끼친 영향력은 다음의 기록에서 재차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왜구가 감히 배를 타고 우리 수군과 승부를 겨루지 못하는 것은 앞서 진포해전이 있었고, 뒤에는 남해의 승전이 있기 때문이다...처음 화통과 화포로 우레와 벼락같이 떨어져서 왜구의 혼을 빼앗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 완악하고 사나운 것들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도).

셋째, 고려가 왜구토벌을 목표로 하여 개선한 수군력 증강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고려는 마치 흩어져 있던 눈덩이를 하나로 뭉치듯이 지지부진하던 수군을 정비해 수군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고려는 왜구 침구의 초기 단계에서 수군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말년에 점진적으로 수군을 증강한 결과, 대규모 선단을 동원해 왜구의 소굴을 소탕할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여기에다가 전선에 탑재시킨 화기는 수군력 증강에 가속도를 더해주었다.

넷째, 고려 조정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왜구 격퇴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군 기강에도 눈을 돌렸다. 고려가 오랫동안 원나라 치하에 있으면서 국력의 소모와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는 군 기강 해이로 그대로 이어졌다. 또 당시 고려 무장 중에는 왜구의 잔인한 전투 형태를 두려워하여 왜구와 싸우는 데 소극적인 인물도 적지 않았다. 고려 조정은 분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382년(우왕8) 조준을 경상도로 파견해 장수나 수령 가운데 왜구 방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피도록 하였다. 조준은 경상도로 나가 왜구와 전투를 회피한 병마사 유익환의 목을 베어 장수 및 군사들에게 일벌백계로 삼았다.

이처럼 군사적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고려의 왜구 격퇴 전략은 결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고려는 관음포 전투에서 승리한 이듬해인 1384년 10월에 왜구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축산도(丑山島:영해)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 1387년(우왕13) 정지는 “일본은 거국적으로 고려를 침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측이 대마도·이키[壹岐] 등의 여러 섬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마도·이키[壹岐] 등의 소굴을 공격해 그들을 북조에 귀순

시킨다면 왜구 또한 없어질 것이다.”고 건의하면서 우왕에게 왜구의 본거지 정벌을 적극 건의했고, 1389년에 대마도를 공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고려가 공세전략으로 전환한 1380년대 후반 이후로 왜구의 침구는 확실히 저지되었다. 침입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으며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 기간에 가장 규모가 큰 왜구 전선은 80척을 넘지 않았고, 공양왕 때에는 침입 횟수도 격감하여 왜구가 창궐하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북조와 남조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남북조 내란을 종식(1392년)시킨 일본 국내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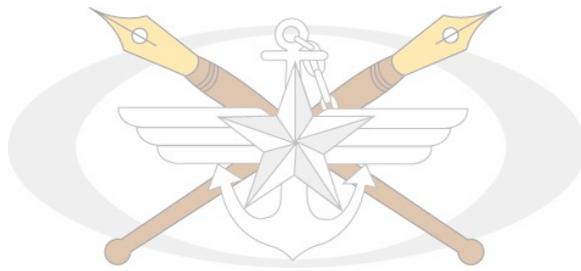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14세기 후반 고려가 수행한 왜구 토벌의 역사는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군사적 억제 수단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외교력만으로는 국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군사적인 갈등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치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군사적 무력 수단을 이용하여 뒤엎힌 분쟁의 해법을 찾는 전략만이 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고려가 왜구를 과소평가하면서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이에 고려 사회는 왜구의 야만적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30여 년간 행한 수세적 대응은 고려의 피해만을 가중시켰으며, 왜구 억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피아 모두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화해와 타협보다는 충돌의 연속이던 왜구의 침구에서 고려의 조용한 외교와 대응은 오히려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오히려 고려가 수세적 방어에 한계를 인식하고 무기 및 전술을

새롭게 정비하여 펼친 공세적 방위전략(Offensive Defense Strategy)은 왜구 침구를 격퇴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고려 말 왜구 침구의 격퇴 사례는 군사적 억제 수단이 주변 세력의 침구로부터 어떻게 한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

고려 왕조(918~1392)는 5백여 년간 지속되면서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냈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고대(古代) 국가나 조선만큼 친숙하지 않은 베일 속에 갇혀있는 시대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Korea’의 원조 고려답게 세계로 향해 열려진 다양한 출구들이 존재하였고, 백성을 성리학적 교양으로 무장시키려고 노력하던 조선과 달리 불교·유교·도교 등 다양한 종교나 가치관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개방성과 역동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창출하였고 동북아지역에서 국가 위상을 높게 유지하였다.

동시에 고려는 전쟁에 대한 정찰 없이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의 시대’였다. 거란(요) 전쟁, 여진 정벌, 몽골 전쟁, 홍건적 및 왜구 토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외에도 수시로 이민족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 예컨대 고려 전기에 여진은 고려의 북쪽 국경 지대에서 방비가 허술한 곳을 뚫고 게릴라 형태로 수시로 출몰하면서 약탈을 일삼거나 국지적으로 침구(侵寇)하였다. 그런데 여진이 원한 것은 영토보다는 식량이나 생활 물자였다. 식량이나 일용품들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진의 출몰역시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 전쟁을 ‘군사전략적 관점’으로 통관해보면 고려만이 구사한 군사전략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국초 이래 고려의 기본적인 방어 형태는 북방 양계에 주둔한 주진군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라온 중앙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행되었다. 서북면 요진에

서 고려군이 수성전(守城戰)을 펼쳐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규모 중앙군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고려 내륙으로 침입하려는 적은 성곽이나 주요 진지에서 발이 묶이거나 이를 피해 우회하여 진격하였고, 그 결과 내륙으로 들어온 적은 퇴로를 차단당한 채 전·후방에서 고려군의 협공을 받아 번번이 무너졌다.

이 전략은 오늘날 수세 전략과 유사한 형태로서 거란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고려가 태조 왕건 이래 적의 주요 침공 지역에 성곽을 구축하여 요새화하고, 천연장애물인 산이나 협곡, 강·하천 등을 이용해 축차적으로 저지선을 꾸준히 구축한 결과였다. 이 전략은 작전 주도권을 침공군에게 넘겨주고 방어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고려가 북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조 왕건은 918년 건국 이후 고구려의 전통과 기상을 이어받고 고구려 영토까지 확보하겠다는 이상을 현실화하였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로 정한 태조는 북진정책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만주 지역의 무력 충돌과 경쟁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독자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구사하였다.

태조는 건국 초기 북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국내 사정과 군사력의 열세로 인하여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북진 정책은 거란이나 여진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고려는 외교적 통로를 이용하여 거란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군사 역량을 후삼국통일에 집중하였다. 그 후 태조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국내 정세가 안정되자 비로소 전략적 관심을 북방에 집중시켜 당초 의도한 대로 북진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태조가 북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북방 군사 거점의 단계적 이동이었다. 통일신라시대의 군사거점인 패강진에서 평양으로 군사 거점을 옮긴 태조는 평양을 전진기지로 삼아 서북면의 요해처에 성곽을 구축하고 진(鎭)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 결과 태조 말년에 고려의 국경선은 서북으로 청천강 유역인 안주까지 확장되었고 동북쪽으로는 덕원(德源)·영흥까지 북상할 수 있었다.

고려는 993년~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회 정도 거란(요)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였다. 고려는 거란에게 무수한 침공을 받았으나 1019년 전쟁이 종결되자 국제적 위상은 그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 따라서 거란이 도발한 27년간의 전쟁은 거란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능동적인 유인전략으로 거란의 전략적 실패를 유도하였다. 거란이 고려군의 역량을 무시하고 우회 기동으로 고려 영내로 깊숙이 진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란 스스로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거란군은 고려의 후방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고려의 주요 요새를 공략하지 않은 채 우회해 남하한 결과, 퇴로를 차단당하고 말았고 회군 시 수많은 인적 손실을 입고 말았다. 고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로해진 거란군들을 남북에서 협공하여 물리쳐버렸다.

그리하여 거란은 26년간 고려와 전쟁을 벌인 결과 압록강 동쪽의 보주와 의주를 확보한 것 이외에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반면에 고려

는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거란에 대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이 시기 동아시아 질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확보한 ‘강동 6주’는 영토를 북쪽으로 확대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북방 민족들이 침입할 때마다 번번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효과적인 방어 거점의 기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고려가 1104년(숙종9)과 1107년(예종2) 두 차례 단행한 여진 정벌은 11세기 말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완연부 여진을 제압하고, 동북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완연부 여진은 1115년에 금나라를 건설한 여진 부족으로, 오늘날 간도 지방을 거쳐 고려와 인접한 갈라전(曷懶甸) 지역까지 남하하여 고려를 자극하였다. 고려는 오랫동안 귀순주 정책을 통해 고려의 영토로 만들어놓은 곳을 완연부 여진이 점령하려고 하자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또 지금까지 고려의 영향권에 속해있던 여진이 성장하여 자칫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팽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의 여진 정벌은 오늘날 ‘예방전쟁(Preventive War) 전략’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벌 결과는 1차, 2차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차의 경우 고려군은 여진에 대한 정보도 없이 적진 깊이 들어갔다가 역공을 당해 여진과 화의를 맺고 귀환했고, 2차 역시 윤관 장군이 여진 지역에 9성까지 축조하는 쾌거를 올렸으나 결국 모두 여진에게 되돌려주고 철수하고 말았다. 고려가 끝까지 승리를 견인하지 못한 것은 여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야기된 무리한 작전 강행이 주요 원인이었다.

고려는 여진의 군사력이 이미 고려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대

해졌고, 여진이 자신들의 날카로운 병기를 아직 드러내지 않은 채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여진이 문화적으로 미개한 집단이라는 고식적인 관념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벌을 전개한 고려 지도층의 경솔함은 오늘날 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1231년 몽골 침공을 받은 이후로 1259년까지 3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였다. 몽골이 1차적으로 호시탐탐 노린 지역은 중원이었다. 몽골은 만주에서 패권을 잡고 중원 진출을 노리면서 금나라와 송에 대한 군사 조치의 일환으로서 고려를 먼저 제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즉 몽골의 고려 침공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복 야욕이 근본 원인이었다.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전의 전쟁 양상과 달리 계속 수세에 몰린 이유는 고려의 군사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전 당시 고려 조정이 북계로 급파한 중앙군은 병력 규모나 전투 능력 면에서 전황을 반전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북계의 성곽 요새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병력과 무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귀주성 등 몇몇 요새를 제외하고 몽골군에게 대부분 점령되고 말았다. 더구나 고려는 1차전 직후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로 더 이상 중앙군을 조직하지 못하고 국토 전역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말았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최씨 무인 정권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사실을 놓고 장기적으로 항몽전을 전개하려는 의지인 동시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처사였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강화도 천도가 고려 위정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한 행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교훈은 몽골군에 맞선 고려 백성의 항쟁 정신이라고 여겨진다.

고려 백성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라는 왕조를 끝까지 지켜내는 동력이었고,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보다 더 오래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민족의 침략 앞에서 나라가 쓰러지는 위기를 막아낸 고려 백성의 항쟁 정신은 이후 조선시대 각종 의병 활동은 물론 한말 의병 및 일제시대 항일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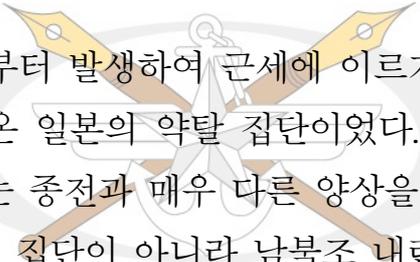
1359년 12월 홍건적은 4만 병력으로 고려를 침입해 1360년 2월에 압록강을 건너 물러갔다. 1361년 10월 홍건적 20만 명은 고려를 재침하였고 3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물러갔다. 고려를 침입한 홍건적은 정규군이 아니라 원 말기에 중국 대륙에서 수년간 게릴라 형태의 전투를 벌인 유격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사 행동을 뒤엎는 예상 밖의 전략·전술을 구사하였고, 이 때문에 고려군이 홍건적을 토벌하기까지 쉽지 않은 전투를 치렀다고 판단된다.

1차 토벌 때에 고려군 지휘부는 홍건적이 청천강 방어선을 뚫고 남진하자 서경(평양)에서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였다. 고려군 지휘부는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한 중요한 목적이 식량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경의 많은 물자들을 홍건적에게 내준 채 황주로 물러나와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고려군은 적을 서경에 묶어 둔 상태에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대적인 반격 작전으로 홍건적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2차 토벌에서도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한 후 더 이상 남진을 피하지 않고 방어전선을 구축하자 이들의 공격력이 소진되었다고 보고 개경 탈환을 시도하였다. 고려군은 신속히 고려군을 집중 투입해 홍건적의 정예부대가 배치된 개경 송인문을 공격하여 홍건적의 허를 찔렀다. 홍건적은 정예부대가 배치된 곳을 고려군이 공격하지 않으

리라고 예상하고 방심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고려군의 반격으로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져버렸다.

고려군이 두 차례에 걸쳐 흥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열세한 군사력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병력을 집중한 후 결정적인 타격으로 적의 균열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반격할 시간을 확보한 다음, 적이 승리에 자만하여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적을 기습해 전투력 우위를 달성하고자 택한 전략이었다. 고려가 수행한 이 전략을 현대적 군사 개념으로 본다면, 기만과 기습을 통해 우군 병력을 절약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 적군의 약점을 지향하는 일종의 수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왜구는 기원전후로부터 발생하여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를 괴롭혀 온 일본의 약탈 집단이었다. 고려 말 40여 년간에 걸친 왜구의 침구는 종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려 말 왜구는 오합지졸의 해적 집단이 아니라 남북조 내란을 겪던 일본 상황에서 군수 물자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고려로 쳐들어온 정예부대라는 의견도 있듯이 규모가 한 때 수 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형화되었다. 침구 지역도 한반도 중부 이남의 도서 지역은 물론 개경과 가까운 승천부 및 강화도까지 올라왔으며, 경상도·전라도의 내륙 지역까지 침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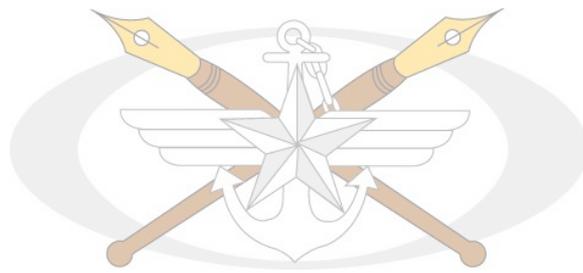
고려는 초창기 왜구 진압을 위해 정치 및 외교적 통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고려가 왜구를 과소평가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이에 고려 사회는 왜구의 야만적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리하여 고려는 1380년 이후로 공세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무력 대응에 적극 나섰다. 고려가 공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던 동력은 신무기인 화기의 개발이었다. 고려는 그동안 왜구에게 고려의 군사력을 강하게 인식시켜 줄만한 무력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고려는 왜구가 예상치 못한 화약 무기를 사용하여 왜선을 불태움으로써 함선에 가까이 접근, 등선하여 공격하는 왜구의 전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화기는 고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이는 곧 고려의 공세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4세기 후반 고려가 수행한 왜구 토벌의 역사는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군사적 억제 수단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외교력만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군사적인 갈등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군사적 무력 수단을 이용하여 뒤엎킨 분쟁의 해법을 찾는 전략만이 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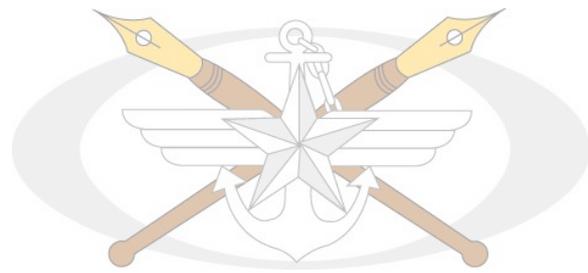


■ 原典資料

■ 單行本資料

■ 論文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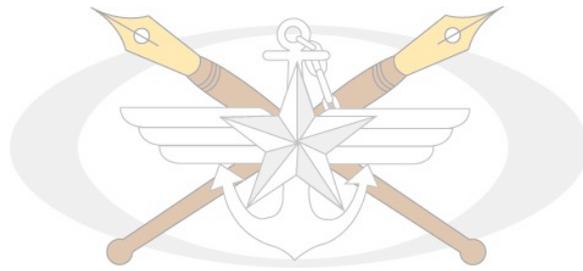
■ 찾아보기



- 『譯註 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三國遺事』 (민족추진회, 1977)
- 『高麗史』 (아세아문화사, 1972)
- 『CD-ROM 國譯·原典 고려사』 (서울시스템)
- 『高麗史節要』 (아세아문화사, 1972)
- 『국역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1976)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탐구당, 1984)
-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
- 『舊五代史』 (臺灣 商務印書館)
- 『新五代史』 (『文淵閣四庫全書』 제279책, 臺灣 商務印書館)
- 『遼史』 (中華書局 標點校勘, 경인문화사 영인본)
- 『契丹國志』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 『金史』 (中華書局 標點校勘, 경인문화사 영인본)
- 『宋史』 (中華書局 標點校勘, 경인문화사 영인본)
- 『元史』 (中華書局 標點校勘, 경인문화사 영인본)
- 『新元史』 (中國書店 영인본:북경)
- 『元高麗紀事』 (文殿閣書莊:北平)
- 『文獻通考』 (상·하) (中華書局:북경)
- 『渤海國志』 (태학사 영인본)
- 『국역 東國通鑑』 (徐居正 등)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1997)

- 『국역 高麗圖經』 (徐兢) (민족문화추진회, 1977)
- 『국역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민족문화추진회, 1978)
- 『국역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82)
-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69~1971)
- 『국역 海東釋史』 (韓致滄) (민족문화추진회, 1999~2003)
- 『국역 東史綱目』 (安鼎福) (민족문화추진회, 1980)
- 『我邦疆域考』 (丁若鏞) (丁海廉 역주, 현대실학사, 2001)
- 『弩解』 (국립중앙도서관)
- 『武經七書』 (임홍빈 · 성백효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 『孫子』 (『中國兵書集成』 수록: 中國兵書集成編委會編, 解放軍出版社 · 遼沈書社. 1987~1998)
- 『東國兵鑑』 (임홍빈 · 유재호 · 성백효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 『東國戰亂史』 (임홍빈, 성백효 · 유재호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 『海東名將傳』 (유재호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 『歷代兵要』 (상 · 중 · 하) (국방군사연구소, 1996)
- 『歷代兵要』 (I~V) (임홍빈 · 유재호 · 성백효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1994)
- 『百戰奇法』 (성백효 · 임홍빈 역,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5)
- 『武經總要』 (『中國兵書集成』 수록: 中國兵書集成編委會編, 解放軍出版社 · 遼沈書社. 1987~1998)
- 『武備志』 (국립중앙도서관)
- 『海東地圖』 (상 · 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 『江華府志』 (『朝鮮時代私撰邑誌』 12, 한국인문과학연구원, 1989)
- 『조선후기 지방지도』 평안도편 상 · 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조선후기 지방지도』 황해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조선후기 지방지도』 강원도·함경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 (金渭顯, 食貨出版社:臺北, 1983)
- 『高麗史兵志譯註』 (고려사연구회, 경인문화사, 1969)
- 『中國歷史地圖集』 (중국사회과학원, 中國地圖出版社, 1987)
- 『三才圖會』 (明 王圻·王思義 編輯) (全3冊, 上海古籍出版社)
- 『중국역사박물관』 ⑦⑧ (중국사학회 엮음: 강영매 옮김, 범우사, 2004)



- 강진철, 1985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출판부
- 고병익, 1970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 권영국, 1995 『고려후기 군사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구태훈, 2002 『일본역사탐구』, 태학사
- 김갑동, 1990 『羅末麗初의 豪族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광철, 1990 『고려후기 世族 연구』, 동아대출판부
- 김남규, 1989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 김낙진, 2002 『고려 禁軍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김당택, 1987 『고려무인정권연구』, 새문사
- _____, 1998 『元 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 _____, 1999 『고려의 무인정권』, 국학자료원
- 김상기, 1941 『동국문화교류사』, 을유문화사
- _____, 1961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 _____, 1985 『新編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성남, 2005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수막새
- 김순자, 1990 『여말선초 對元·明관계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金渭顯, 1981 『契丹의東北政策』, 華世出版社: 臺北
- _____, 1985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 _____, 2004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 _____, 2004 『契丹社會文化史論』, 경인문화사
- 김일우, 1998 『고려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일지사
- 김정배·유재신 편, 1989 『발해사연구』, 정음사
- 김재만, 1974 『契丹民族發展史의 연구』, 독서신문사
- _____, 1999 『契丹·고려 관계사 연구』, 국학자료원
- 김종래, 2002 『유목민이야기-바람에 새겨진 역사』, 자우출판
- 김종복, 2002 『발해 정체세력의 추이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김종성, 2004 『몽고와의 전쟁과 사대부의 성장』, 문예마당
- _____, 2004 『고려의 성립과 영토 확장』, 문예마당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1·2), 아르케
- _____,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 김현길, 1984 『中原의 역사와 문화유적』, 청지사
- 김혜원, 1988 『고려후기 藩王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호동, 2003 『고려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 나종우, 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출판국
- 남인국, 1999 『고려중기 정치세력연구』, 신서원
- 노계현, 1993 『고려영토사』, 갑인출판사
- _____, 1993 『對蒙外交史』, 갑인출판사
- _____, 1994 『고려외교사』, 갑인출판사
- 노병천, 1990 『도해 손자병법』, 한원
- 문경현, 1987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 민병하, 1990 『고려무신정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 _____, 2004 『고려정치사론』, 고려대출판부
- 朴玉杰, 1996 『고려시대의 歸化人 연구』, 국학자료원
- 박용운, 1985·1987 『고려시대사』 (上·下), 일지사
- _____, 1999 『고려시대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서원
- 박종기, 1999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 박진숙, 2001 『발해의 대일본외교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박한남, 1993 『고려의 對金外交政策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 방향숙 외, 2005 『연구총서8-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 변태섭, 1968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 _____, 1982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 _____, 1983 『고려사의 諸問題』, 삼영사
- 서병국, 1990 『발해 발해인』, 一念
- _____, 1992 『거란 거란인』, 오정주식회사
- 서인한, 2002 『한국 역대파병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05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 송인주, 1998 『고려시대 禁軍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송인형, 2002 『전쟁의 이해』, 공학사
- 신안식, 2002 『고려 무인정권과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 신호철, 1993 『후백제견훤정권연구』, 일조각
- _____, 2002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개신
- 안병우, 1994 『고려전기재정구조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 안주섭, 이부오, 이영화,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
- 오종록, 1992 『조선초기 兩界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온창일, 2001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 _____, 2004 『전략론』, 집문당
- 유재성, 1988 『대몽항쟁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_____, 1990 『麗遼戰爭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_____, 1993 『한민족전쟁통사 四-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 윤용혁, 1991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 _____, 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 윤훈표,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 이근화, 1988 『고려전기 북방정책의 전개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백, 1968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 _____,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_____, 1981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 _____, 1990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 이기백 외, 1993 『崔承老 上書文 연구』, 일조각
- 이동복, 1986 『동북아세아사연구-금대 여진사회의 구성』, 일조각
- 이문기, 1997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 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용범, 1984 『韓滿交通史研究』, 동화출판사
- 이익주, 1996 『고려·元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인수, 2004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이천문화원·서희선생기념사업회

- 이재범, 2000 『슬픈 궁예』, 푸른역사
- 이정신, 1991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 연구』, 고려대출판부
- _____, 2004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 이종학, 1983 『현대전략론』 (중판), 박영사
- _____, 1990 『韓國軍事史 序說』, 서라벌군사연구소
- _____, 2004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 주류성
- 이춘식, 1991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 임용한, 2001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 _____, 2004 『전쟁과 역사 2-거란·여진과의 전쟁』, 혜안
- 임원빈 외, 2004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 장동익, 1994 『고려 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 장철균, 2004 『서희의 외교담판-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현음사
- 장학근, 2004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06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 정경현, 1992 『고려전기 二軍六衛制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청주, 1996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지연, 1983 『민족생존전략-한국전략의 체계와 구상』, 병학사
- 주채혁, 1986 『元朝 官人層 研究-정복왕조기 중국사회신분구성의 한 분석』, 정음사
- 지세화 편저, 2002 『이야기 중국문학사』, 일빛
- 천관우, 1877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 최규성, 2005 『고려 태조 왕건 연구』, 주류성

- 최근영, 1990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신라의 분열과 고려의 민족통일』, 신서원
- 최병옥, 유재성, 이재범, 1993 『왜구토벌사』, 국방군사연구소
- 최혜숙, 2004 『고려시대 남경연구』, 경인문화사
- 하현강, 1977 『고려 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 _____, 1988 『한국중세사론』, 신구문화사
- _____,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 _____, 2000 『발해사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허홍식, 1981 『고려사회사연구』, 아세아문화사
- 홍승기 편, 1995 『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출판부
- _____, 1996 『고려 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영의, 2005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 홍원기, 2001 『고려전기 군제연구』, 혜안
- 황병성, 1998 『고려무인정권기연구』, 신서원
- 황선영, 1993 『고려초기 왕권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 황용운, 1990 『고려 문벌 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 황을순, 1989 『고려 공민왕대의 개혁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6 『한국사』10-발해
- _____, 1993 『한국사』12-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_____, 1995 『한국사』15-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_____, 1994 『한국사』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_____, 1995 『한국사』22-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고구려연구회, 1999 『徐熙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발해사자료집』 (상·하), 고구려연구재단
 _____,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_____, 2005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 국가안전기획부, 1997 『북한 지역정보 총람』
- 대전직할시, 1993 『대전의 성곽』
- 한국역사연구회 14세기 고려사회성격연구반, 1995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 『역사스페셜-전술과 전략 그리고 전쟁, 베일을 벗다』 6, 2003, 효형출판
- 육군교육사령부, 1985 『韓國軍事思想研究』
- 육군대학, 1989 『군사지리』, 군사평론편집위원회
- 육군본부, 1983 『고려군제사』
 _____, 1998 『군사용어사전』
 _____, 1999 『편성·기술 및 군수제원(Ⅰ)』
- 육군사관학교, 1980 『군사지리-한국 및 주변국』, 박영사
 _____, 1987 『세계전쟁사』, 일신사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2002 『세계전쟁사 부도』, 일신사
 _____, 2004 『세계전쟁사』 (개정판), 황금알
- 합동참모본부, 2003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 『中國兵書集成』(1~50) (中國兵書集成編委會 編, 解放軍出版社·遼沈書社.
 1987~1998).
- 董書城, 김경현 역, 2000 『중국의 고대 군사전략』,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楊若薇, 1991 『契丹王朝 政治軍事制度研究』, 중국사회과학출판사:북경
- 劉 旭, 1989 『中國古代火砲史』, 上海人民出版社.
- 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1990 『중국전사』 (상·하), 학민사
- 중국사학회 엮음, 강영매 옮김, 2004 『중국역사박물관』⑦ ⑧, 범우사
- 杉山正明, 이진복 옮김, 1999 『유목민이 본 세계사-민족과 국경을 넘어』,
학민사
- 권터 블루멘트리트, 류제승 옮김, 『전략과 전술』, 한울아카데미
- 룩 관텐, 송기중 역,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 바실 리델 하트, 주은식 옮김, 1999 『전략론』, 책세상
- 버나드로 몽고메리, 승영조 역, 2004 『전쟁의 역사』 (개정판), 책세상
- 베야 블라디미르초프, 주채혁 역, 1990 『몽골사회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안드레아스 힐그루버, 류제승 옮김, 1996 『국제정치와 전쟁전략』,
한울아카데미
- 에드가 F.퍼이어 Jr, 육군대학 교관단 옮김, 2004 『아메리칸 제너럴십』,
국방부
- 장페이페이, 김승일 역, 2005 『한중관계사』, 범우사
- 제임스 류, 이범학 역, 1991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옮김, 2003 『전쟁론』, 책세상

- 강옥엽, 1996 「고려 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국사관논총』 71,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고려의 강화천도와 그 배경」 『인천문화연구』 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姜大良(晉哲), 1948 「고려초기의 對契丹關係」 『史海』1, 東京學芸大學史學會
- 姜晉哲, 1963 「고려초기의 군인전」 『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 3
- _____, 1965 「고려전기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
『역사학보』 29, 역사학회
- _____, 1970 「高麗田柴科體制下の 農民의 성격」 『韓國史時代區分論』
- _____, 1980 「軍人田」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출판부
- 강성원, 1989 「妙淸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13, 국사편찬위원회
- 강희웅, 1977 「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난의 新解釋」 『한국학보』 7, 일지사
- 고병익, 1961 「麗代 정동행성의 연구」(상·하) 『역사학보』 14,19, 역사학회
- _____, 1977 「고려와 元과의 관계」 『동양학』 7, 단국대학교
- 고창석, 1985 「元代の 제주도 목장」 『제주사학』 창간호, 제주대학교
- 구산우, 1992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 갈등」
『한국사연구』 78, 한국사연구회
- 권영국, 1992 「무신집권기 지방군제의 변화」 『국사관논총』 31,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4 「고려말 중앙군제의 변화」 『사학연구』 47, 한국사학회

- _____, 1994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창간호
- _____, 1994 「원 간섭기 고려 군제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 김갑동, 1985 「고려건국기의 청주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 48, 한국사연구회
- 金庚來, 1988 「瀋陽王에 대한 일고찰」 『성신사학』 6, 성신여자대학교
- 김광수, 1977 「고려 건국기의 溟西豪族과 여진관계」 『사총』 21·22합집, 고려대학교
- _____, 1977 「고려전기 對女眞交涉과 북방개척문제」 『동양학』 7, 단국대학교
- _____, 1979 「羅末麗初의 호족과 官班」 『한국사연구』 23, 한국사연구회
- 김광철, 1987 「麗蒙戰爭과 在地吏族」 『부산사학』 12, 동아대학교
- _____, 1996 「14세기초 元의 정국동향과 충선왕의 吐藩 유배」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학회
- 김구진, 1973 「麗末鮮初 두만강 유역의 여진분포」 『백산학보』 15, 백산학회
- _____, 1976 「공험진과 선춘령비」 『백산학보』 21
- _____, 1977 「尹瓘 九城의 범위와 조선 6진의 개척-여진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총』 21·22, 고려대학교
- _____, 1989 「麗·元의 영토분쟁과 그 귀속문제-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분리정책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조선전기 여진족의 2대 종족-오랑캐와 우디캐」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 김기덕, 1994 「14세기 후반 개혁정치의 내용과 그 성격」 『14세기 고려의

- 정치와 사회』, 민음사
- 김기섭, 1997 「14세기 왜구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학교
- 김낙진, 2000 「고려시대 견룡군의 설치와 임무」 『역사학보』 165, 역사학회
- 김남규, 1991 「고려전기 兩界 鎭城 이주민에 대하여」 『경대사론』 16,
경남대학교
- _____, 1995 「고려전기의 여진관-여진회유정책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12, 경남대학교
- _____, 1995 「고려전기 양계지방의 原住·來投 여진인에 대하여」
『경대사론』 8, 경남대학교
- _____, 1996 「고려 중엽의 對女眞政策-선종·숙종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경남대학교
- _____, 1997 「고려 睿宗代의 對女眞政策-예종2년 對女眞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경대사론』 10, 경남대학교
- 김당택, 1991 「원 간섭기말의 反元的 분위기와 고려 정치사의 전개」
『역사학보』 146, 역사학회
- _____, 2004 「고려말 대외관계의 격동과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향」
『한국사시민강좌』 35, 일조각
- 김대중, 1990 「고려 공민왕대 京軍의 재건시도」 『군사』 2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_____, 1991 「고려 무인정권기의 병제운영」 『학예지』 2, 육사박물관
- _____, 2002 「최충헌정권의 군사적 기반-경군·도방·별초군을
중심으로」 『군사』 4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02 「고려말·조선초 화약병기의 현황과 과제」 『학예지』 9,

육군박물관

- 김도용, 1985 「궁예세력형성고」 『동의사학』 2, 동의대학교
- 김동우, 1996 「발해의 지방통치체제와 수령」 『한국사학보』 창간호,
고려사학회
- 김두진, 1979 「고려 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일지사
- _____, 1980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정책」 『사학지』 14, 단국대학교
- 김봉두, 1990 「고려전기 대여진정책의 성격」 『전통문화연구』 90-1,
조선대학교
- 김상기, 1948 「삼별초와 그의 亂에 對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 _____, 1959 「丹寇와의 항쟁」 『國史上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61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 _____, 1964 「국사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
건국대학교
- _____, 1974 「여진관계의 始末과 윤관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 김성규, 2000 「고려 전기의 麗宋관계-宋朝 賓禮를 중심으로 본 고려의
국제지위 시론」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 김성준, 1985 「十訓要와 고려 태조의 정치사상」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 김수태, 1989 「고려초 충주지방의 호족」 『충청문화연구』 1, 한남대학교
- 김순자, 1992 「원간섭기 민의 동향」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2 「고려전기 대중국관계사 연구의 현황」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 김윤곤, 1978 「고려무신정권시대의 교정도감」 『영남대논문집』 11
- _____, 1978 「강화천도의 배경에 관해서」 『대구사학』 15 · 16,

대구사학회

- _____, 1979 「抗蒙戰에 참여한 草賊에 대하여」 『동양문화』 19,
영남대학교
- _____, 1981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地方郡縣民」 『동양문화』 20 · 21
- _____, 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 金渭顯, 1978 「遼代 渤海 부흥운동의 성격」 『明大論文集』 11
- _____, 1982 「高麗對宋遼金人投歸的受容策」 『사학지』 16, 단국대학교
- _____, 1989 「麗 · 元 일본정벌군의 출정과麗 · 元관계」 『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5 「고려와 契丹의 관계」 『한민족과 북방과의 관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8 「契丹 · 高麗間的女眞問題」 『명지사론』 9
- _____, 1999 「서희의 외교」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김은국, 1992 「발해멸망에 관한 재검토-거란 침공과 그 대응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0
- 김인규, 1994 「고려 태조대의 대외정책」 『고려태조의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 김재만, 1964 「거란군세고」 『성대논문집』 9
- _____, 1983 「五代와 後三國 · 고려초기의 관계사」 『대동문화연구』 17,
성균관대학교
- _____, 1983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과 동북아세아 국제정세의 변추
(상 · 하)」 『대동문화연구』 27, 성균관대학교

- 김재명, 1995 「고려시기의 軍倉」 『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 김종복, 2004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4,
한국고대사학회
- 김중수, 2001 「고려시기 府兵制의 운영과 그 원칙」 『역사교육』 73,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04 「삼국~고려시기 군제 연구의 동향」 『군사』 5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김중현, 1985 「고려사회의 軍戶에 대한 소고」 『경대사론』 1, 경남대학교
- 김창겸, 1987 「후삼국 통일기 태조 왕건의 패서호족과 발해유민에 대한
정책연구」 『성대사림』 4, 성균관대학교
- 김창수, 1960 「고려와 興遼國」 『黃義敦古稀紀念論叢』
- 김창현, 2004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 김철준, 1965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에 대하여」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
念佛敎史學論叢』
- _____, 1975 「신라 귀족세력의 기반」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 김호동, 1982 「고려 무신정권하에서의 慶州民의 동태와 신라부흥운동」
『민족문화논총』 2·3합집, 영남대학교
- _____, 1989 「몽고제국의 형성과 전개」 『강좌중국사Ⅲ』, 지식산업사
- _____, 1994 「고려 무신정권시대 재지세력과 농민항쟁」
『한국중세사연구』1, 한국중세사연구회
- 김호중, 1982 「공민왕의 安東蒙塵에 관한 一研究」 『안동문화』 3,
안동대학교
- 나만수, 1983 「고려전기 對女眞政策과 윤관의 北征」 『군사』 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나종우, 1984 「고려시대의 대송관계」 『원광사학』 3, 원광대학교
- _____, 1986 「고려무인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遷都抗蒙」 『원광사학』 4, 원광대학교
- 남인국, 1986 「고려전기의 投化人과 그 동화정책」 『역사교육논집』 8, 경북대학교
- 노계현, 1988 「高麗外交史序說-고려초기(광종~성종초)의 북방외교정책과 영토확장」 『논문집』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_____, 1989 「고려 예종의 九城 구축과 영토처리」 『국제법학회논총』 34-1, 대한국제법학회
- _____, 1990 「고려의 자주외교노선과 영토정책-특히 제2차 麗遼전쟁을 중심으로」 『논문집』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노명호, 1998 「고려 지배층의 발해유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 『汕耘史學』 8, 산운학술문화재단
- 마종락, 1990 「고려시대의 군인과 군인전」 『백산학보』 36, 백산학회
- 문수진, 1987 「고려건국기의 나주세력」 『성대사림』 4, 성균관대학교
- _____, 1992 「왕건의 고려건국과 후삼국통일」 『국사관논총』 35, 국사편찬위원회
- 민현구, 1978 「고려의 대몽항쟁과 大藏經」 『한국학논총』 1, 국민대학교
- _____, 1982 「한국 군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사총』 26, 고려대학교
- _____, 1992 「한국사에 있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상)』, 한림과학원총서
- _____, 1992 「고려 공민왕대 반원적 개혁정치 전개과정」 『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 _____, 1992 「고려 공민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 대한 일고찰-배경과
폐단」 『진단학보』 68, 진단학회
- 민병하, 1963 「고려시대의 지방제도와 토호세력」 『성균관대학교논문집』 8
- 박경안, 2004 「고려인들의 여진족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
『경기향토사학』 9, 문화원 경기도지회
- _____, 2005 「고려전기 다원적 국제관계와 국가·문화 귀속감」
『동방학지』 129, 연세대학교
- 박례재, 1977 「고려태조 왕건의 고구려 복고의식」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7
- 朴玉杰, 1990 「고려의 군사력 확충에 관한 연구」 『군사』 2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_____, 1992 「고려초기 귀화한인에 대하여」 『국사관논총』 33,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고려시대 귀화인의 역할과 영향-기술적,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 박용운, 1978 「고려전기 文班과 武班의 신분문제」 『한국사연구』
21·22합집, 한국사연구회
- _____, 1994 「14세기의 고려사회-원간섭기의 이해문제」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 박종기, 1994 「고려 중기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하여-宣宗代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6, 국민대학교
- _____, 1998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1998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고려의 위치」 『역사비평』 45,

역사문제연구소

- 박진숙, 2001 「발해의 지방지배와 수령」 『국사관논총』 97, 국사편찬위원회
- 박한남, 1997 「공민왕대 왜구침입과 禹玄寶의 ‘上恭愍王疏」 『군사』 34,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2005 「서평:『고려시대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한국사연구』
128, 한국사연구회
- 박한설, 1977 「고려 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총』 21·22합집
- _____, 1980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정책」 『사학지』 14, 단국대학교
- _____, 1989 「나말여초의 서해안교섭사연구」 『국사관논총』 7,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연구』 18, 고구려연구회
- 방동인, 1976 「尹瓘九城再考-九城설치 범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21,
백산학회
- _____, 1980 「고려의 東北地方境域에 관한 연구-특히 윤관의 九城 설치
범위를 중심으로」 『嶺東文化』 창간호
- _____, 1982 「雙城摠管府考」 『관동사학』 1, 관동대학교
- _____, 1984 「東寧府置廢小考」 『관동사학』 2, 관동대학교
- _____, 1985 「고려전기 북진정책의 추이」 『영토문제연구』 2
- _____, 1990 「麗·元 관계의 재검토-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7, 국사편찬위원회
- 변동명, 1989 「고려 충렬왕대의 萬戶」 『역사학보』 121, 역사학회
- 변태섭, 1965 「高麗武班研究-무신난 전의 무반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8-1

- _____, 1977 「고려사·고려사절요의 史論」 『사총』 21·22, 고려대학교
- 서병국, 1973 「고려·宋·遼의 三角貿易放」 『백산학보』 15, 백산학회
- _____, 1978 「고려시대 여진교섭사 연구」 『논문집』 6, 관동대학교
- _____, 1994 「거란제국의 농업정책」 『청대사림』 6, 청주대학교
- 서성호, 1999 「고려 태조대 對契丹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한국역사연구회
- 서일범, 1999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손홍렬, 1981 「충주 奴軍의 난과 대몽항전」 『호서문화연구』 1, 충북대학교
- 송기호, 1987 「발해 멸망기의 대외관계-거란·후삼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7, 서울대학교
- 송인주, 1995 「元壓制下 고려왕조의 군사조직과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 _____, 1995 「고려시대의 牽龍軍」 『대구사학』 49, 대구사학회
- _____, 1996 「고려시대의 禁軍」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학회
- _____, 1997 「고려 二軍의 성립시기와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 한국중세사연구회
- _____, 1998 「공민왕대 군제개혁의 실태와 그 한계」 『한국중세사연구』 5, 한국중세사학회
- _____, 2004 「고려초기 시위군의 양성과 금군의 성립」 『대구사학』 76, 대구사학회
- _____, 2004 「『고려도경』에 서술된 군제관련 記事의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2

- 신성재, 2005 「궁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활동」 『군사』 5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신안식, 1989 「고려중기의 別抄軍」 『건대사학』 7, 건국대학교
_____, 1993 「고려 최씨무인정권의 대몽강화교섭에 대한 일고찰」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 신영식, 1986 「라말의 사회변동」 『신라사』, 이화여대출판부
- 심재석, 1989 「고려국가의 성립-태조의 왕권에 관한 연구」 『里門論叢』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_____, 1996 「고려시대 宋에 의한 국왕책봉의 전개」 『청계사학』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_____, 2001 「五代の 고려국왕 책봉연구」 『청계사학』 15
- 신채식, 1986 「宋代官人の 高麗觀」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_____, 2005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조공과 책봉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논총』 8, 고구려연구재단
- 신호철, 1985 「후백제 건훤연구-건훤관계문헌의 예비적 검토」
『백제논총』 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_____, 2001 「고려 건국기 청주호족의 정치적 성격」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 안병우, 2002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 양원석, 1956 「麗末의 流民問題-특히 대몽관계를 중심으로」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 양의숙, 1993 「麗·元 宿衛考-신라의 對唐 宿衛外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국사학』 27, 동국대학교
- _____, 1996 「元 간섭기 遼瀋地域 고려인의 동향」 『동국역사교육』 4, 동국역사교육회
- 오영선, 1995 「무신정변 · 무신집권의 재조명」 『역사비평』 130, 역사문제연구소
- _____, 1992 「고려전기 군인층의 구성과 圍宿軍의 성격」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 _____, 1995 「최씨집권기 정권의 기반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1995 「무신정권과 私兵」 『역사비평』 29, 역사문제연구소
- _____, 1996 「고려 무신집권기 私兵의 성격」 『군사』 33, 국방군사연구소
- 오종록, 1991 「고려후기 군사지휘 체계」 『국사관논총』 24, 국사편찬위원회
- 유병기, 1984 「고려초 호족의 동향과 왕권강화책-광종의 왕권강화책을 중심으로-」 『전주사학』 1, 전주사학회
- 유창규, 1984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동북면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 _____, 1985 「최씨무인정권하의 都房의 설치와 그 향방」 『동아연구』 6, 서강대학교
- 유홍렬, 1957 「고려의 元에 대한 貢女」 『진단학보』 18, 진단학회
- 윤경자, 1968 「고려왕실의 혼인형태」 『숙대사론』 3, 숙명여자대학교
- 윤무병, 1953 「高麗北界地理考(상) · (하)」 『역사학보』 4, 5, 역사학회
- _____, 1958 「길주성과 공험진-공험진 立碑問題의 재검토」 『역사학보』 10
- 윤용혁, 1982 「고려의 해도입보책과 전략변화」 『역사교육』 32,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1984 「13세기 몽고의 침략에 대한 호서지방민의 항전」
『호서문화연구』 4, 충북대학교
- _____, 1986 「고려 대몽항쟁기의 민란에 대하여」 『사총』 30, 고려대학교
- _____, 1987 「대몽항쟁기 고려 무인정권의 강도생활」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 _____, 1989 「몽고의 경상도 침입과 1254년 상주산성의 승첩-고려
대몽항전의 지역별 검토(2)」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 _____, 1991 「몽고의 침략에 대한 고려 지방민의 항전-1254년
鎭州[鎭川]民과 충주 다인철소민의 경우-」 『국사관논총』 24,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4 「三別抄 抗蒙政權의 珍島 抗戰」 『蒼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 _____, 1994 「몽고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 20 (고려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1 「송징과 김통정-삼별초의 민중영웅-」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停年紀念論叢』
- 윤재운, 2004 「발해의 왕권과 대중국무역」 『백산학보』 68, 백산학회
- 윤훈표, 1993 「고려말 조선초기 兵器의 제조 및 管理體系에 관한 연구-
군제개편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77·78·79, 연세대학교
- _____, 1997 「고려시대 군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4,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2005 「고려시대 관료·군조직에서 규율과 복종」 『동방학지』
129, 연세대학교
- 이경희, 1993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對倭政策의 일단면」 『부산여대사학』
10·11

- 이근화, 1987 「고려전기의 북방정책」 『호서사학』 15, 호서사학회
 _____, 1990 「고려의 북방정책의 배경과 의의」 『전망』 46, 대륙연구소
 _____, 1993 「고려전기의 북방축성」 『논문집』 11, 충남전문대학
 이기동, 1976 「신라하대의 패강진-고려왕조 성립과 관련한여」 『한국학보』
 4, 일지사
 _____, 1997 「나말여초 남중국 여러나라와의 교섭」 『역사합보』 155,
 역사학회
 이기백, 1956 「高麗京軍考」 『李丙燾華甲紀念論叢』
 _____, 1958 「고려초기 병제에 관한 後代 諸說의 검토」 『아세아연구』
 1-2, 고려대학교
 _____, 1958 「高麗太祖時의 鎭」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_____, 1959 「고려초기에 있어서의 오대와의 관계」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 이화여자대학교
 _____, 1960 「고려군인고」 『진단학보』 21, 진단학회
 _____, 1960 「고려 二軍六衛 형성에 대한 再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
 學論叢』
 _____, 1960 「고려 초기 五代와의 관계」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
 이화여자대학교
 _____, 1965 「高麗州縣軍考」 『역사학보』 29, 역사학회
 _____, 1969 「고려별무반고」 『김재원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_____, 1977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학보』 6, 일지사
 _____, 1977 「고려의 북진정책과 鎭城」 『동양학』 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군사』 창간호 재수록(1980)
 이동복, 1984 「遼末 여진사회의 구성(1)」 『논문집』 17, 청주대학교

- _____, 1986 「遼末 여진민족의 형성과 그 사회」 『동북아세아사연구』,
일조각
- 이명식, 1988 「신라통일기의 군사조직」 『한국고대사연구』 1,
한국고대사연구회
- 이미지, 2003 「고려 宣宗代 權場문제와 對遼관계」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 이병도, 1948 「태조와 도참」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 이상국, 2000 「고려후기 농장의 경영형태 연구」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5 「고려시대 군호의 편제와 본관제」 『군사』 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석현, 2005 「고려와 遼金의 외교관계-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논총』 8, 고구려연구재단
- 이수건, 1970 「고려의 북방이민에 대하여」 『서정덕교수화갑기념학술논총』
- 이승한, 1993 「고려숙종대 降魔軍組織의 정치적 배경」 『역사학보』 137,
역사학회
- 이 영, 2000 「<경인년 왜구>와 일본의 국내정세」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4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 이영동, 1981 「忠勇衛考」 『육군제삼사관학교논문집』 13
- 이용범, 1973 「遼代 東京道の 발해유민」 『사충』 17·18, 고려대학교
- _____, 1977 「고려와 契丹과의 관계」 『동양학』 7, 단국대학교
- _____, 1977 「胡僧 襪囉의 고려정복」 『역사학보』 75·76 합집, 역사학회

- _____, 1977 「강화도 방어의 군사적 고찰」 『강화도 학술회의보고서』
- 이용주, 1984 「공민왕대의 子弟衛에 관한 小研究」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 이우성, 1961 「고려 百姓考-고려시대 촌락구조의 일단면」 『역사학보』 14,
역사학회
- _____, 1982 「삼별초의 천도항몽운동과 對日通牒-‘珍島政府’의 한 자료」
『한국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 이익주, 1996 「고려 대몽항쟁기 講和論의 연구」 『역사학보』 151,
역사학회
- 이인철, 1995 「고려전기의 軍人田」 『軍史』 30, 국방군사연구소
- 이재범, 1997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에 대한 재검토」 『성대사림』
12·13합집, 성대사학회
- _____, 1998 「고려전기의 군사제도」 『한국군사사연구』 1,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9 「麗遼戰爭詩 고려와 遼의 군사력 비교」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 _____, 2003 「고려태조의 대외정책-발해유민 포섭과 관련하여-」
『백산학보』 67, 백산학회
- _____, 2004 「대몽항전의 성격에 대하여 - 계층별 항전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 _____, 2006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군사』 5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정신, 1988 「고려시대 공주 명학소민의 봉기에 대한 一研究」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

- _____, 1989 「고려 무신정권기 진주민의 항쟁」 『한국학보』 55, 일지사
- _____, 1994 「고려 고종대 의주민의 항쟁」 『사총』 43, 고려대학교
- _____, 1996 「고려의 대외관계와 묘청의 난」 『사총』 45, 고려대학교
- 이종명, 1968 「고려에 來投한 渤海人考」 『백산학보』 4, 백산학회
- 이창섭, 2005 「고려전기 수군의 운영」 『사총』 60, 역사학연구회
- 이태진, 1977 「김치양 난의 성격-고려초 서경세력의 정치적 추이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 한국사연구회
- 이현중, 1959 「조선초기 倭人接待考」 『사학연구』 3, 한국사학회
- 이홍두, 2005 「고려 거란전쟁과 기병전술」 『사학연구』 80, 한국사학회
- 李孝珩, 1998 「興遼國의 성립과 對고려 구원 요청」 『부대사학』 22,
부산대학교
- _____, 2004 「고려시대 발해·발해 유민 인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53, 부산경남사학회
- 이혜옥, 1982 「고려초기 서경세력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보』 26,
일지사
- _____, 1993 「고려전기의 군역제」 『국사관논총』 46, 국사편찬위원회
- 임지현,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6, 역사비평사
- 장동익, 1986 「고려전기의 選軍-京軍 구성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 _____, 1990 「정동행성의 연구」 『동방학지』 67, 연세대학교
- _____, 1992 「元の 정치적 간섭과 고려정부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17, 경북대학교
- 장득진, 1996 「고려말 왜구침략기 ‘民’의 동향」 『국사관논총』 71,

국사편찬위원회

- 장세원, 1984 「고려무인정권 말기의 향몽정책」 『군산실업전문대학논문집』 7
_____, 1986 「대몽항쟁 주체의 성격에 관해서-別抄와 草賊의 의병적 활동을 중심으로」 『군산실업전문대학논문집』 9
- 장종수, 1987 「고려 군인전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2-3, 조선대학교육대학원
- 전경숙, 2003 「고려전기의 병부」 『숙명한국사론』 3,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 전기웅, 1987 「라말여초의 지방사회와 知州諸軍事」 『경남사학』 4,
경남사학회
- 전해중, 1977 「고려와 송의 관계」 『동양학』 7, 단국대학교
_____, 1989 「고려와 송과의 교류」 『국사관논총』 8, 국사편찬위원회
- 정경현, 1987 「高麗太祖代의 徇軍部に 대하여」 『한국학보』 48, 일지사
_____, 1988 「고려전기 武職 체계의 성립」 『한국사론』 19, 서울대학교
_____, 1990 「고려전기 京軍의 軍營」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_____, 1990 「고려태조의 一利川 戰役」 『한국사연구』 68, 한국사연구회
_____, 1991 「高麗初期 京軍의 統帥體系; 徇軍部の 兵權에 대한 再解釋을 겸하여」 『한국학보』 62, 일지사
_____, 1991 「韓國 軍事史研究의 方法論的 反省; 高麗前期 中央軍制를 中心으로」 『군사』 2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_____, 1993 「高麗前期의 保勝軍과 精勇軍」 『한국사연구』 81,
한국사연구회
_____, 1993 「高麗前期 中央軍의 軍役制度 小論」 『학예지』 3,
육군박물관
- 정두희, 1977 「고려 무신집권기의 武士集團」 『한국학보』 8, 일지사
- 정신봉, 1996 「고려 성종대의 대송관계」 『전주사학』 4, 전주사학회

- _____, 2004 「고려의 대송 외교정책과 문물 교류-문종 이후를 중심으로」 『전주사학-주명준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9, 전주대학교
- 정수아, 1988 「尹瓘세력의 형성-윤관의 여진정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6. 진단학회
- 정신봉, 1996 「고려 成宗代의 對宋관계」 『전주사학』 4, 전주사학회
- 정용범, 1991 「고려전기 選軍制의 운영과 변질」 『부대사학』 17, 부산대학교
- 정중환, 1966 「고려건국고」 『동아논총』 3, 동아대학교
- 조계찬, 1984 「고려 무신집권기의 對金關係考」 『대학원논문집』 8, 동아대학교
- 조인성, 1981 「고려 양계 주진의 방수군과 주진군」 『고려광종연구』 (이기백편), 일조각
- _____, 1983 「고려양계의 국방체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 주명준, 1981 「고려의 대금정책」 『논문집』 10, 전주대학교
- 주채혁, 1970 「初期 麗元戰爭과 北界 四十餘城 問題」 『史學會誌』 16, 연세대학교
- _____, 1974 「洪福源一家와 麗元關係」 『사학연구』 24, 한국사학회
- _____, 1974 「고려 内地의 達魯花赤 置廢 에 관한 小考」 『청대사림』 1. 청주대학교
- _____, 1979 「初期 麗蒙戰爭 略察-兩軍의 작전여건을 중심으로」 『청대사림』 3, 청주대학교
- _____, 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몽골·고려 전쟁사 연구의 시각문제」 『애산학보』, 애산학회

- _____, 1989 「유목사상의 몽골-유목의 개념정의와 함께」 『강원사학』 4, 강원대학교
- _____, 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 몽골-고려사의 성격문제」 『국사관논총』 8, 국사편찬위원회
- 진원영, 1994 「고려전기 校尉 隊正에 관한 일고찰」 『사학지』 27, 단국대학교
- _____, 2005 「고려시기 ‘해동’ 인식과 해동천하」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 車勇杰, 1984 「고려말 왜구 防戍策으로서의 鎭戍와 축성」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 최규성, 1981 「고려초기 여진문제의 발생과 북방경영」 『백산학보』 26, 백산학회
- _____, 1981 「고려초기의 여진관계와 북방정책」 『동국사학』 15·16합집, 동국대학교
- _____, 1986 「궁예정권의 지지세력」 『동국사학』 19·20, 동국대학교
- _____, 1993 「徇軍部考」 『상명사학』 창간호, 상명사학회
- 최근성, 1988 「고려 萬戶府制에 관한 연구」 『관동사학』 3, 관동대학교
- 최연식, 1995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 최일성, 1985 「고려의 萬戶」 『淸大史林』 4·5합집, 청주대학교
- 최재진, 1992 「원간섭초기 북방정책의 성과」 『사학지』 25, 단국대학교
- _____, 1993 「고려말 동북면의 통치와 이성계 세력 성장 : 쌍성총관부 수복이후를 중심으로」 『사학지』 26, 단국대학교
- _____, 1995 「고려말 군제의 운영에 관하여」 『동서사학』 1,

한국동서사학회

- 추만호, 1984 「高麗僧軍考」 『藍史鄭在覺博士 古稀紀念東洋學論叢』
- 추명엽, 2001 「11세기 후반~12세기 초 여진정벌문제와 정국동향」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 _____, 2002 「고려전기 ‘번(蕃)’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5 「고려시기 ‘海東’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 하현강, 1967 「高麗西京考」 『역사학보』35·36합집 (『고려지방제도의
연구』재수록)
- _____, 1969 「고려태조와 개성」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 한규철, 1984 「고려 來投·來往 契丹人-발해유민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47, 한국사연구회
- _____, 1985 「후삼국시대 고려와 契丹관계」 『富山史叢』 1, 부산산업대학교
- _____, 1988 「고려시대의 鞞靺 연구」 『부산사학』 14·15합집,
동아대학교
- _____, 1988 「고려 來投·來往 여진인」 『부산사학』 25·26합집
- _____, 1995 「渤海復興國 ‘後渤海’ 연구 : 연구동향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5 「발해유민의 高麗投化」 『부산사학』 33, 동아대학교
- _____, 1996 「발해국의 주민구성」 『한국사학보』 창간호, 고려사학회
- 한영우, 1961 「麗末鮮初 巡軍研究-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
성립에까지 미침-」 『진단학보』22, 진단학회

- _____, 1973 「고려말기의 사회·정치정세와 개혁파의 성장」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 한우근, 1958 「고려 足丁考」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 홍승기, 1983 「고려초기 중앙군의 조직과 역할」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 _____, 1989 「후삼국의 분열과 왕건에 의한 통일」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_____, 1994 「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구성론에 대하여」 『李基白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 홍영의, 1991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廉悌臣의 군사활동-국방개혁을 중심
으로」 『군사』 2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_____, 2002 「고려말 군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성격-공민왕·우왕대를
중심으로-」 『군사』 4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홍원기, 1990 「고려 二軍·六衛制의 성격」 『한국사연구』 68, 한국사연구회
- 黃時鑒, 1997 「송-고려-蒙古關係史에 관한 일고찰」 『동방학지』 95, 연세
대학교

ㄱ

- 가마쿠라[謙倉] 303, 304, 305, 307
 갈라전(曷懶甸) 151, 155, 169, 170, 194, 195
 감문위(監門衛) 104, 105
 감문위령(監門衛領) 105
 강감찬(姜邯贊) 133, 134, 135, 136
 강노(剛弩) 109
 강동6주 119, 129, 139, 140, 141, 235
 강동성 219
 강민침(姜民瞻) 133
 강조(康兆) 120, 121, 123, 124
 개정군(開定軍) 64, 107
 개태사 65
 검차(劍車) 110, 111, 123
 견당사 43
 견훤(甄萱) 27, 28, 29, 30, 31, 51, 52
 곁성 110
 경궁(梗弓) 109, 179
 경대승(慶大升) 215, 229
 경순왕 30, 51
 경애왕 51
 경학박사 89
 고다이고[後醍醐] 천황 304, 305
 고려교역법 158
 고려도경(高麗圖經) 108, 228, 230
 고사통(故事通) 51
 고케닌[御家人] 303, 304, 307
 골암진 49, 61, 62, 63, 64
 공복(公服)제정 88
 공험진 187, 193
 광주성 127, 130
 관선생(關先生) 273, 274, 290, 295
 광군(光軍) 100
 광주산성 231
 괴자마(拐子馬) 153
 구당사(句當使) 141
 9성(九城) 187, 192, 193, 194, 196, 199, 200
 구육[貴由] 208, 244
 궁예(弓裔) 27, 40, 54, 65

궁위기군(宮衛騎軍) 95
 귀순주[靉靉州] 167, 168, 197
 귀주성 231, 232, 234, 235, 236,
 261
 금오위(金吾衛) 104, 105
 기의군(起義軍) 35
 김덕진(金德珍) 184, 185
 김부[신라왕] 61
 김부식(金富軾) 214
 김숙흥 128
 김순식(金順式) 40
 김용(金鏞) 295
 김윤후(金允侯) 231, 242
 김인귀 321
 김통정(金通精) 258
 김한충(金漢忠) 184, 185, 188
 김해병서(金海兵書) 164

노(弩) 110, 226
 노대(弩隊) 110
 노비안검법 88
 노책(盧頤) 279
 뇌등석포(雷騰石砲) 163

ㄷ

다루가치[達魯花赤] 237, 238, 239,
 240, 264
 다타이하(茶陀二河) 137
 단련사(團練使) 170, 177
 단병(短兵) 330
 달고(達姑) 50
 당항족(黨項族:서하) 34, 84, 85,
 86

대광현(大光顯) 69, 70, 115
 대금(大金) 211
 대도수(大道秀) 114, 115
 대수령부족군(大首領部族軍) 95, 96
 대요수국(大遼收國) 213
 대우포(大于浦) 231
 대원(大元) 205, 269
 대조영(大祚榮) 65, 66
 대하(大夏:서하) 87
 도방(都房) 229, 230

ㄹ

나흥유(羅興儒) 323, 324
 남경통군도감(南京統軍都監) 84
 남당(南唐) 33, 46
 남왜북로(南倭北虜) 312
 남한(南漢) 33
 내원성 84, 123

도탕(跳蕩) 179
 돌궐 35
 동녕부 276, 316
 동단국(東丹國) 66, 73
 동모산(東牟山) 65
 동여진 147, 148, 166, 167, 168,
 170, 182
 동진국(東眞國) 208, 213, 243, 248
 동팔참(東八站) 284
 되적[刀伊賊] 167

ㄱ

로푸[羅弗] 155

ㄴ

만리장성 36, 290
 만부교 48
 만호(萬戶:튀멘) 223
 말갈 38, 65, 147
 맹안(猛安) 152
 모거경(毛居敬) 285
 모극(謀克) 152
 묘청(妙淸) 214
 무로마치[室町] 305, 324

무신란 214, 215
 몽케[蒙哥] 208, 244
 민(閩) 33

ㄷ

박서(朴犀) 231
 박양유(朴良柔) 112
 박위(朴葦) 326, 340, 339
 반성(潘誠) 290
 발해고(渤海考) 68
 발해군왕(渤海郡王) 66
 방호별감 246, 249
 배중손(裴仲孫) 257
 백련교(白蓮教) 272
 백호(百戶) 223, 282
 번진(藩鎭) 33
 별동대 237
 별무반(別武班) 178, 179, 180, 182
 별초군(別抄軍) 282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 112
 병목[瓶項] 174, 184
 보반(步班) 107
 보승(保勝) 105, 107
 보주(保州) 219
 보창(保昌) 107

부인사(符仁寺) 242
부필(富弼) 158
북원(北元) 311, 316, 317
북한(北漢) 33, 82

入

사궁(射弓) 109
사급전제(賜給田制) 280
사류(沙劉) 273, 290, 295
살리타이[撒禮塔] 221, 232, 236,
237, 240, 242,
247
삼별초 256, 257, 258, 260
삼품군 107
상귀(相貴) 70
상령(常領) 105
생여진(生女眞) 38, 39, 148, 151
서궁(徐兢) 228, 230
서하(西夏) 156, 207
서학박사 60
서희(徐熙) 93, 112, 115, 116, 117,
118, 122, 139, 140, 141
석경당(石敬瑭) 35
석녀(石女) 330
석적환(石適歡) 170, 177

석포(石砲) 110
성두(城頭) 110
성주(城主) 27
소배압(蕭排押) 132, 133, 135, 137,
138, 142
소손녕(蕭遜寧) 92, 93, 112, 113,
115, 116, 117,
118, 138
소적열 102
속국군(屬國軍) 95, 96
손자(孫子) 138, 200, 259, 299
쇠뇌 179
수영포가정(守營鋪家丁) 97
숙신 38, 147
숙여진(熟女眞) 38, 148, 151
순군만호제(巡軍萬戶制) 282
취정[許貞] 155
승천부(昇天府) 251, 254, 320, 335
승화후 온(溫) 257
시라무렌[潢水] 35
시무28조 88
신기군(神騎軍) 107, 179, 182
신덕(申德) 47
신돈(辛屯) 279, 314
신법(新法) 157
신보군(神步軍) 179, 182

신안공 전(佺) 250
 신의군(神義軍) 256
 신호위(神虎衛) 104
 실크로드 161
 쌍성총관부 262, 276, 284, 323
 송주[松柱] 251



아골타(阿骨打) 191, 211
 아과달(阿果達) 137
 아기발도[阿只拔都] 336
 아르치카[阿勒楚喀河] 150
 아무간[阿母侃] 250
 안경공 창(淸) 252, 254
 안남(베트남) 32
 안우(安祐) 286, 289, 291, 292,
 293, 294
 야별초(夜別抄) 230, 249, 256
 야사[札撒] 224
 야율덕광(耶律德光) 36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36
 야율중원(耶律重元) 159
 양규(楊規) 123, 127, 128, 129
 여장친군(御帳親軍) 95
 여장(女牆) 110

역령(役領) 105
 연운16주 35, 36, 47, 81, 85, 209
 연호군(煙戶軍) 179
 염초(焰硝) 328, 329
 영령공 준(綽) 250
 영진수소(營鎮守所) 331
 예꾸[也窟] 251
 오(吳) 33
 오고타이[窩闊台] 207, 208, 220,
 221, 244
 오연총(吳延龍) 182, 183, 184, 192,
 193, 195
 오월(吳越) 33, 46
 왕건(王建) 27, 28, 31, 40, 51, 72,
 76, 77
 왕계(王繼) 70
 왕안석(王安石) 157
 용호군(龍虎軍) 104
 우구나이[烏古迺] 151
 우별초 256
 우야소[烏雅束] 155, 172, 190, 191
 운제(雲梯) 231
 원탐난자군(遠探攔子軍) 98
 위구(威寇) 84
 위화도회군 318
 유금필 50

- 유득공(柳得恭) 68
 유방(庾方) 114
 유복통(劉福通) 271
 육도(六韜) 124
 윤관(尹瓘) 172, 173, 176, 178,
 182, 183, 184, 185,
 186, 187, 192, 193,
 195, 196, 197, 198
 윤복창 239
 윤서안(尹庶顔) 113
 읍루 38, 147
 응양군(鷹揚軍) 104
 이계천(李繼遷) 86
 이몽전 115
 이방실(李芳實) 289, 291, 292, 294
 이성계(李成桂) 294, 310, 314, 315,
 318, 335, 336, 337
 이세화(李世華) 241
 이암(李岳) 287, 288
 이원호(李元昊) 156
 이의민(李義旻) 215
 이의방(李義方) 215
 이이제이(以夷制夷) 160
 이인임(李仁任) 287, 314, 317
 이일숙(李日肅) 170, 172
 이자겸(李資謙) 214
 이자의(李資義) 171
 이제현(李齊賢) 61
 이지란 336
 이품군 107
 이흔암(伊昕巖) 40
 익군(翼軍) 282
 일리천(一利川) 28, 30, 104
 일본도찬(日本圖纂) 308
 일품군 107
 임간(林幹) 171, 173, 175, 176, 178
 임언(林彦) 170, 182
 입암산성(笠巖山城) 231, 254
 잉거[盈歌] 151, 154
 자꾸예[著古與] 220
 자랄타이[車羅大] 253, 254
 자제위(子弟衛) 283
 작고(酌古) 137
 장병기(長兵器) 330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 278
 전연(澶淵)의 맹약 84, 87, 94, 119,
 120, 130, 157,
 159, 160, 209
 전촉(前蜀) 33

절도사 33, 34
 정강(靖康)의 변 210
 정노(精弩) 109, 179
 정동행성(征東行省) 263, 279, 277
 정몽주(鄭夢周) 322, 324, 325
 정방(政房) 278
 정서장군(征西將軍) 312
 정성(鄭成) 123, 129
 정악(廷鶚) 60
 정안국(定安國) 83
 정용(精勇) 105, 107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323
 정중부(鄭仲夫) 215
 정지(鄭地) 313, 338, 343, 344
 조공(朝貢) 149
 조광윤(趙光胤:송태조) 85
 조물성 46
 조숙창(趙叔昌) 222, 233
 조위총(趙位籠) 216
 조정군(助征軍) 277, 279
 조창(漕倉) 320, 341
 좌우군영(左右軍營) 101
 좌별초 256
 좌우위(左右衛) 104
 주영세(朱永世) 285
 주원장(朱元璋) 273, 310, 311
 주진군(州鎭軍) 107, 229, 260
 주현군(州縣軍) 107, 229
 중랑장 125
 중부족군(衆部族軍) 95, 96
 중흥사 125
 지채문 125
 지훈(之訓) 182, 199
 진국(辰國) 66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 282
 진수군(鎭戍軍) 326
 진화(振化) 84
 차성(遮城) 110
 처인성 231, 242
 척준경(拓俊京) 176, 184, 185
 천리장성 163, 164, 165, 170
 천복(天福) 46
 천우위(千牛衛) 104, 105
 천호(千戶) 223, 282
 천호장 224
 철령위(鐵嶺衛) 315, 317
 철륵(鐵勒) 50
 청야입보(淸野入堡) 231, 246, 262
 청야전술 134

초(楚) 33
 초군(抄軍) 107
 초적(草賊) 227, 228, 233, 260
 최남선(崔南善) 51
 최량(崔亮) 112
 최무선(崔茂宣) 329, 334
 최승로(崔承老) 76, 88
 최영(崔瑩) 295, 314, 315, 317,
 331, 335, 337
 최우(崔瑀) 230, 238, 239, 243, 261
 최의(崔埶) 215, 255
 최이(崔怡) 214, 255
 최충헌(崔忠獻) 215, 230
 최항(崔沆) 215, 255
 충실도감(充實都監) 251
 충용사위(忠勇四衛) 283
 친조(親朝) 127, 129, 131, 139,
 240, 244, 250, 254
 칭기즈칸[成吉思汗] 205, 207, 220,
 222, 223, 258

ㄱ

케시크(怯薛) 224
 과례즘 제국 207, 208, 259
 쿠릴타이 206

쿠빌라이 205, 207, 263, 269, 273
 클라우제비츠 198, 199, 298

ㄷ

타초곡가정(打草穀家丁) 97, 99
 탐라총관부 276
 탕구트[黨項] 207
 탕구[唐古] 236, 247
 테무친[鐵木眞] 206, 207
 테케[鐵哥] 242
 텡글리칸[天河汗] 36
 토번(吐蕃:티벳) 85
 특모(忒母)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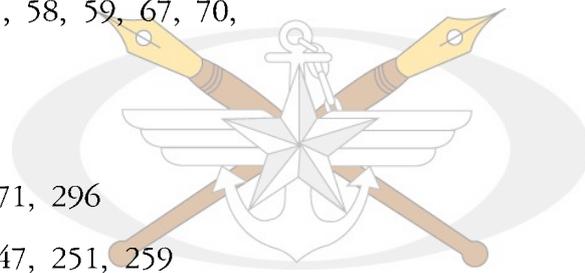
ㄷ

파두반(破頭潘) 274
 팔관회(八關會) 89, 103, 162
 폐강진(溟江鎭) 52, 55, 67
 포왜사(捕倭使) 326

ㅎ

학보(學寶) 60

한교아 273
 한림아(韓林兒) 272
 한산동(韓山童) 271, 272, 273
 함보(函普) 151
 향마군(降魔軍) 179
 해도입보(海島入堡) 246, 262
 해령(海嶺) 105
 향정(鄉丁) 95, 96
 혁거(革車) 163
 형남(荊南) 33
 호가군(護駕軍) 98
 호족(豪族) 40, 41, 58, 59, 67, 70,
 72, 73
 호족연합정권 41
 홍두적(紅頭賊) 271, 296
 홍복원(洪福源) 247, 251, 259
 화약수련법(火藥修鍊法) 329
 화이론(華夷論) 222
 화통방사군(火筒放射軍) 329
 환선길(桓宣吉) 40
 회안공 정(倓) 237
 후당(後唐) 33, 44, 45, 48
 후량(後梁) 33
 후주(後周) 33, 85
 후진(後晉) 33, 35, 37, 44, 45, 46,
 47, 60
 후촉(後蜀) 33
 후한(後漢) 33
 훈요십조(訓要十條) 43, 55, 90
 흥노 32
 흑수(黑水) 50, 155
 흥위위(興威衛) 104



✎ 저 자

정 해 은 선임연구원 (한국사, 문학박사)

✎ 전문위원

이 석 희 육군 중령

윤 장 중 육군 중령

✎ 감 수

류 제 승 육군 준장

이 현 수 육군사관학교 교수

장 학 근 책임연구원

서 인 한 선임연구원

백 기 인 선임연구원

편집 교정담당 : 이 행 자



고려시대 군사전략

2006년 8월 25일 인쇄

2006년 8월 31일 발행

발행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번지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삼 한 정 보 기 획
